

건축사

2001 **07** vol. 387

칼럼 _____ 건축 리모델링 - 또 한번의 기회

회원작품 _____ 광진구 도서관 외

기 고 _____ 지구단위계획의 운동과 과제

건축기행 _____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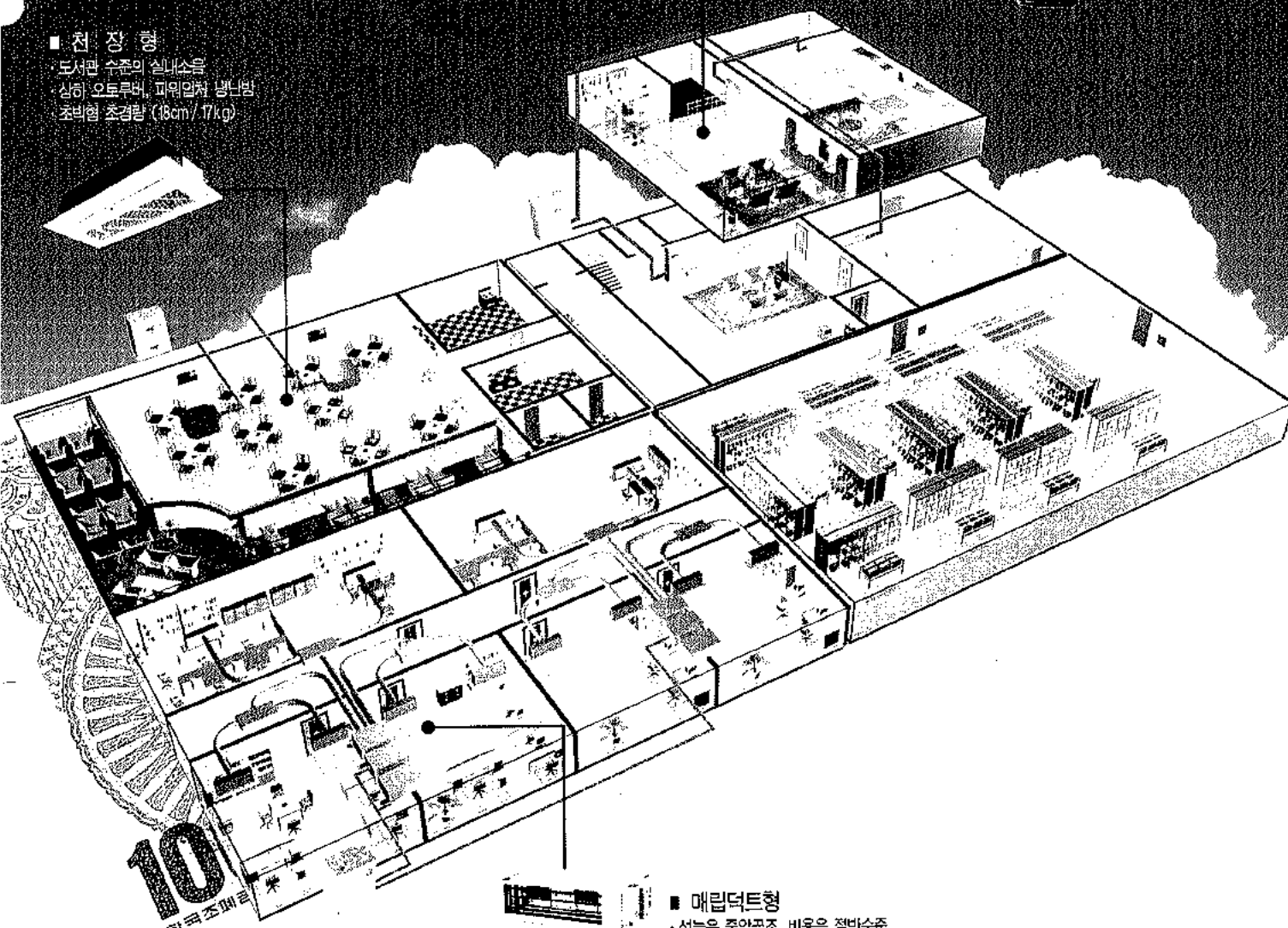


- 프리조인트 멀티형
- 저렴한 설치비용, 놀라운 냉방기능
 - 실외기 1대에 실내기가 6대까지
 - 쾌적한 절전냉방에 편리한 중앙제어



■ 천 장 형

- 도서관 수준의 실내소음
- 상하 오토루버, 파워업채 냉난방
- 초박형 초경량 (18cm / 17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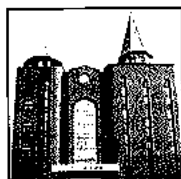
10
한국조폐공사

■ 매립덕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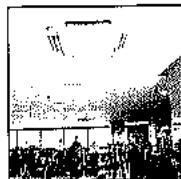
- 성능은 중앙공조, 비용은 절반수준
- 건물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설치
- 실내기 한대로 9실까지 냉난방



중앙공조의 절반비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실속있는 건축주의 선택



■ 교회



■ 할스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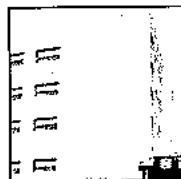
■ 관공서



■ 오피스/리모델링 빌딩

LG시스템에어컨

아직도 냉난방설비는 중앙공조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공조환경을 위한 새로운 제안 -
LG시스템에어컨! 최적의 냉난방 설비를
중앙공조의 절반 가격에 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형 에어컨입니다.
강력한 파워냉난방, 손쉬운 설치시공
그리고 LG의 신뢰까지...
LG시스템에어컨으로 하시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 병원



■ 고급빌라, 주상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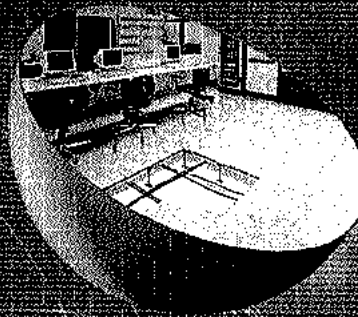
■ 카페



■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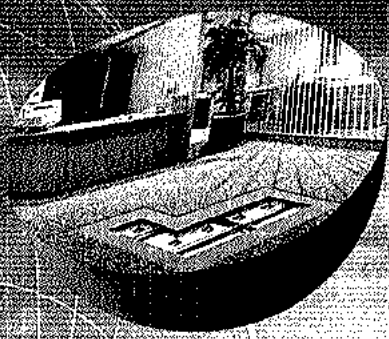
상업용 바닥재도 역시 LG입니다.

만족의 순간 뒤에는
항상 앞선 기술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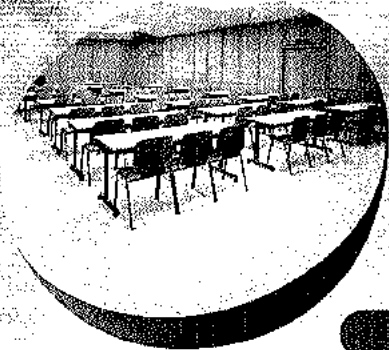
전산실 · 통신시설

- TD FLOOR (무기질)
- LG VIP 전도성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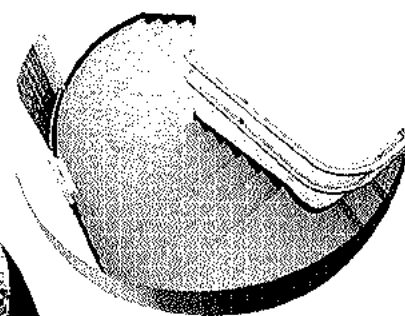
인텔리전트 B/D

- TD FLOOR (무기질)
- LG 카펫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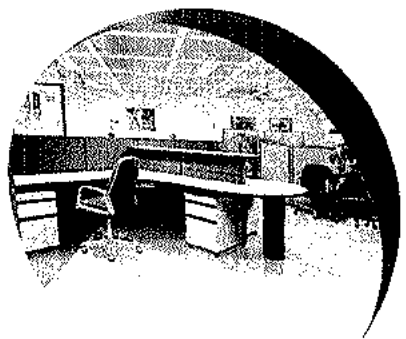
교육시설용

- LG 소프트롱
- LG VIP마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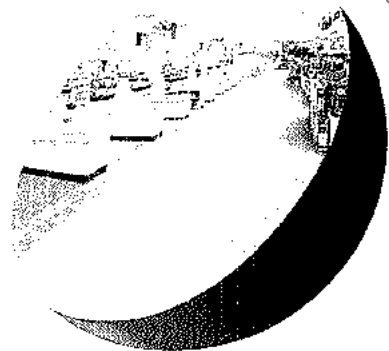
계단용

- LG 소프트롱 계단용
- LG 디렉스 타일



판매시설용

- LG VIP타일 마블
- LG 갤러트 타일



- LG 갤러트 타일
- LG 디렉스 타일
- LG 카펫 타일

LG화학 기능성바닥재 : ■ LG VIP 타일 ■ LG VIP 전도성 타일 ■ LG 갤러트 타일 ■ LG 카펫타일 ■ LG 소프트롱 ■ LG 디렉스 타일 ■ LG TD FLOOR

LG 화학 본사 및 영업점
 ■ 본사 : 기능성재 PMU : (02)3773-3230~33, 3240 • 복원팀 : (02)3773-3270~71 / 3294~7 • 기술영업 : (02)3773-3291~3 ■ 강서(02)671-3922~4 ■ 강남(02)542-5004, 542-5651~2 ■ 강북(02)545-6514, 542-6496~7
 ■ 안양(031)384-3118 • 수원(031)382-9724~5 • 성남(031)388-3650, 385-8782 ■ 인천(032)431-2296~7 • 부천(031)435-8138~9 ■ 부산(051)801-2520~9 ■ 창원(055)270-7720~6 • 진주(055)758-3990~4
 • 울산(052)258-7850~2 ■ 대전(042)630-5631~5 • 천안(041)583-5561~2 • 광주(043)276-8541~3 ■ 대구(053)960-2230~6 • 포항(054)281-9688 ■ 광주(062)360-3670~5 • 전주(063)250-4350~2
 • 순천(061)743-4430~2 ■ 강릉(033)653-8821~6 • 원주(033)748-0645 ■ 제주(064)742-8780~4 ■ C/S:090-022-1230 ■ LG테크빌종합전시장(서울) : 외전측장식지제종합전시장(02)3489-7389~90



ISO 9002



UL 마크



한국화재보험

국내 최초 난연성 인테리어 신소재

실용신안 등록 제 0218826호

특허출원 제 2000-30987호

특허출원 제 2000-20453호

실용신안 등록 제 2000-361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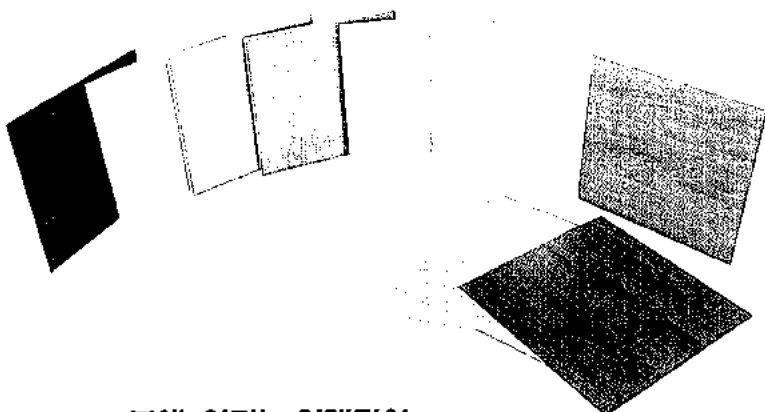
안타민

난연 1·2등급 / 방염성능 검증
소방시설 완비증명

이젠 소방법이 건축법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난연·방염재 사용 의무화!”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공포 : 2001. 3. 20 / 시행 : 2001. 5. 20
소방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1조

500여종의 다양한 무늬와 칼라로 무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출하십시오

**불에 안타는 인테리어****건축내장 마감재 - 안타민**

★규격 : 4×8ft×0.6T(13.1T)

| Antamine의 적용분야 |

- 관광호텔, 콘도, 여관의 일반 숙박시설
- 아파트, 기숙사, 단독 및 공동주택
- PC방, 호프집, 노래방의 위락시설
- 집회, 공연, 예식장의 문화·집회시설
- 종합병원, 학교의 의료·교육연구시설
-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의 판매·영업시설
- 아동·노인의 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발전소, 방송국, 촬영소의 공공용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 생활권, 자연권의 수련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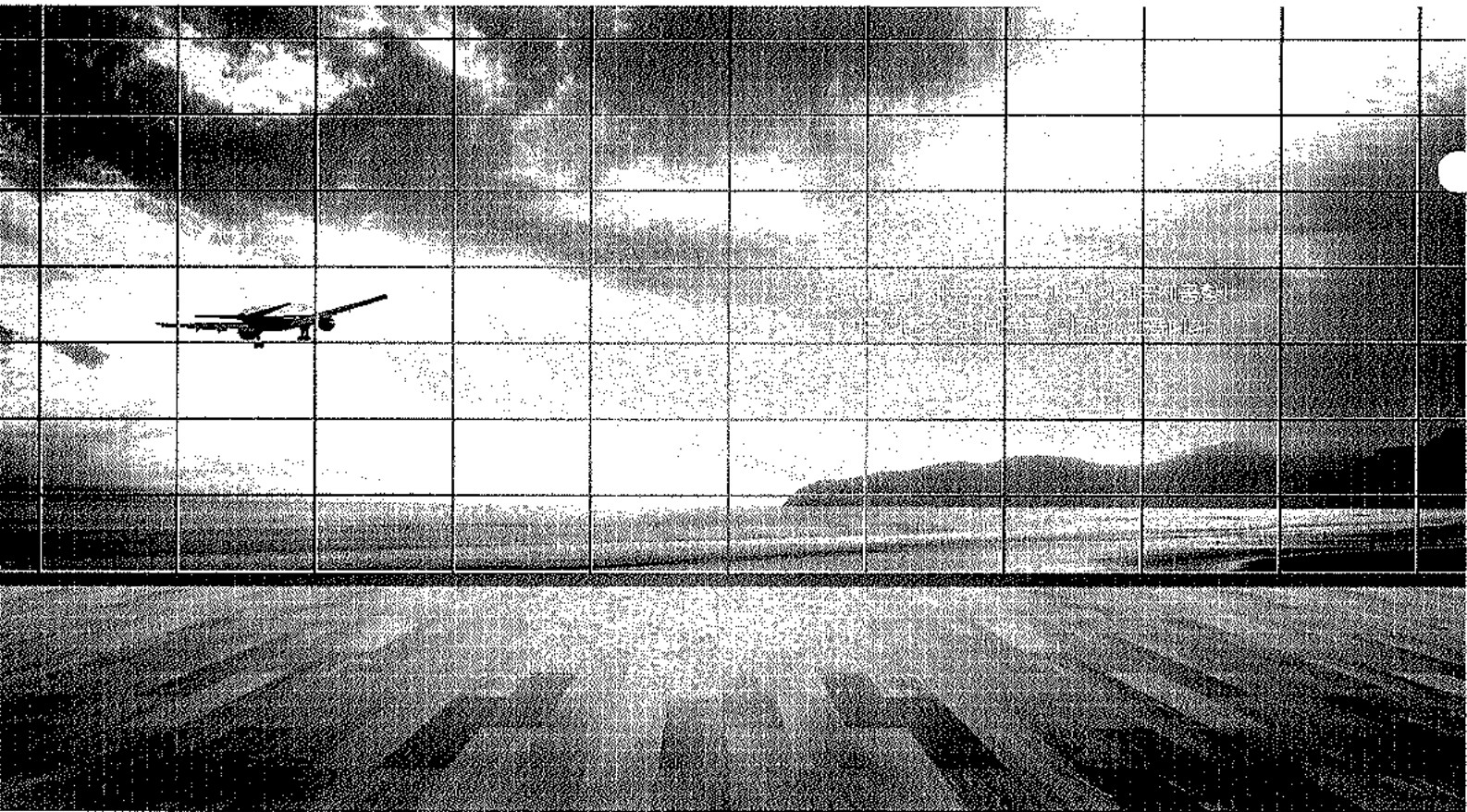
★건축용도 : 벽체, 천장, 바닥면의 실내마감재



주식회사 서한메라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 (남동공단 165B-6L) TEL : 82-32-815-1674~7 FAX : 82-32-814-4155

<http://www.antamine.com>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첫인상 이건 창과 마루

그 나라의 첫 느낌은 공항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저 아름답다고만 해서 365일 비닷바람속에

서 있을 인천국제공항의 창과 마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평균 400KG/M2의 사상 유례 없는 풍압을 견디고

폭풍우에도 배수가 확실하며 무식 걱정이 없는 창.

바쁘게 들어오고 나가는 하루 수백만 인파와

발걸음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마루만이

영종도에서 아름답게 손님들 맞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하게 할 아름다운 창과 마루 -

지금 이진창호와 이진마루의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전통적 이미지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기상과 포용력을
상징하는 인천국제공항 아키텍처

이진창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

이진창호 이진마루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4가 2층 신동방빌딩 TEL: (02) 2097-2200

이진마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루



기술을 꽃 피우는...

POSEC

포스코개발은

지난 30여년 동안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만을 찾아 기술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우리나라 건설업계 최고의 신용등급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포스코개발은 앞선 기술과 투명한 경영이 꽃피운
풍성한 과실로 고객이 만족하고, 사회가 신뢰하는
세계 최고의 E&C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기업

포스코개발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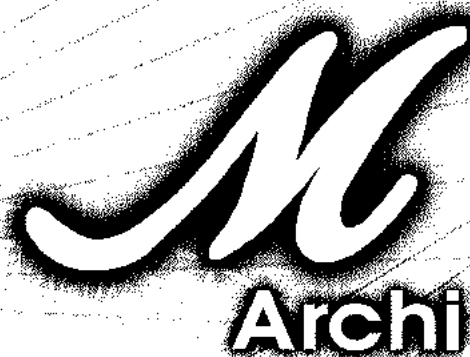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국내 건축캐드의 자존심

ArchiMac은 자체 CAD가 내장된 국산 건축캐드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진정한 건축설계의 동반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 기존 CAD의 명령어 및 도면 호환 100%
- Lisp, 3D Data 운영가능
- 사용자환경의 강력한 건축설계 운영 가능
- 자체 CAD 엔진, 한글, 건축설계가 탑재된 통합 S/W
- 편리한 도면관리와 심볼관리 기능

ArchiMac
Architect Design Manager



CAD
CAD용 한글
건축전용 프로그램
Rendering
3D Modelling
LISP

※ 8/15 부터 60일 평가판을 무상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ArchiMac7.0 출시 기념 커플 EVENT

커플 1

ArchiMac 7.0 +
HP A3 레이저프린트

30% Off

커플 2

ArchiMac 7.0 +
HP 티자안젯 500 A1 플로터

25% Off

커플 3

ArchiMac 7.0 +
무형 플로터 보심

최고 300만원까지

협력업체 모집중



www.cadkr.com ☎ 051) 310-0852

부산 체신청 사서함 제 11호
부산시 사상구 감전 1 502-1

인 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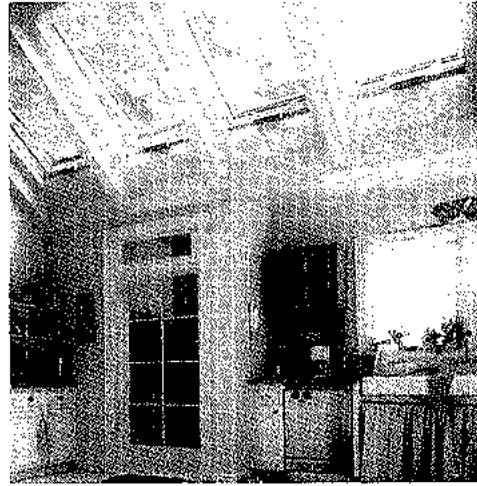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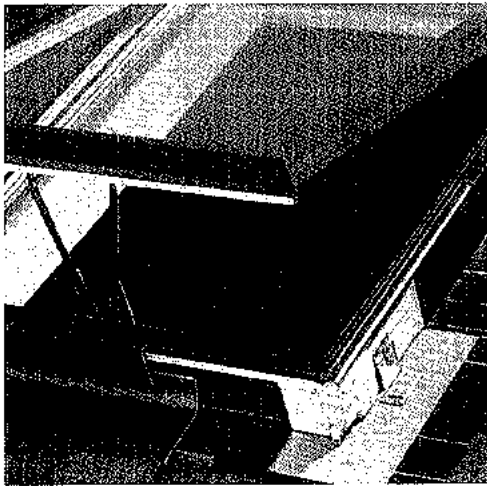


(주)한국디지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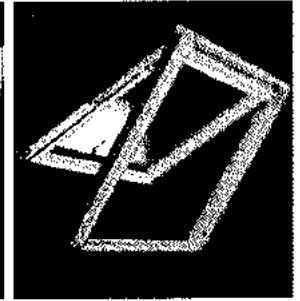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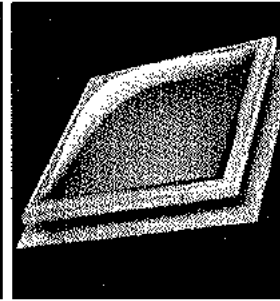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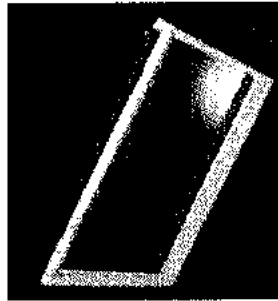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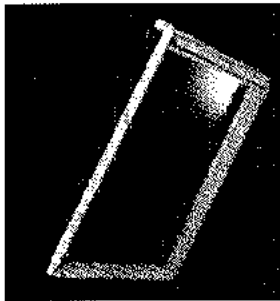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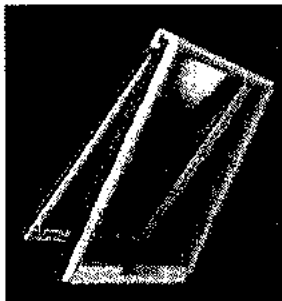
www.korea-digital.co.kr ☎ 02) 716-4880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14 드림타워

천정창 (Sky Light & Roof Window)



천정창(Sky Light)은 지붕, 혹은 경사면에 설치하여 환기 및 채광성을 향상시킨다.



VS

- 21"×46", 21"×38"
- 용도 : 부엌, 욕실, 침실, 거실, 복도, 세탁실, 계단실
- 부엌, 욕실 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창을 열어 빠른 시간내에 수증기나 독, 습한 공기를 제거할 수 있다.
- 방충망 포함

FSF

- 21"×46"
- 용도 : 침실, 거실, 복도, 세탁실, 계단실
- 창문틀에 장착된 환기장치에 의해 늘 쾌적한 실내를 유지시킨다.
- 비오는 날도 사용 가능

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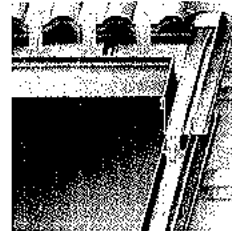
- 21"×46", 30"×46"
- 용도 : 침실, 거실, 복도, 계단실
- 고정 채광창으로 어두운 곳에 설치하여 채광성을 향상시켜주며 실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

Dome

- 22"×22"
- 용도 : 복도, 계단실, 어두운 곳
-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고정 채광창으로 이중 플라스틱구조의 창으로 이루어져 단열에 보다 효과적이다.
- 푸른색 비닐 코팅은 벗겨낼 것

Top Hinged Roof Window(GHL)

- 21"×38", 30"×38"
- 용도 : 다락방, 고층의 작은방
- 최고 45°까지 열 수 있어 완벽하고 빠른 환기가 가능하며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창문틀에 장착된 환기 장치를 통해 늘 쾌적한 실내를 유지시킬 수 있다.
- 큰창의 경우는 비상시대시 탈출이 가능하며 창틀의 축을 따라 회전하는 창은 실내에서도 완벽한 청소를 가능케 한다.



Products

구조재 / 오일스테인 / 판상재 / 시스템 창호 / 스카이라이트 / 골루, 실리온 / 사이딩 / 문틀, 목창 / 도어 / 창틀 / 빗물받이 시스템 / 타이백 / 인슐레이션 / 석고보드 / 벤트&루비셔터 / 스트롱티이 / 공구 / 욕실용 자재 / 인테리어 / 기단 시스템 / 계단 / 집성목 / 후로링 / 돌링 / 특수목 / 책자, 비디오

ZCT300
6" ~ 10" Manual Rod

ZCT100
3' Rod Extension

대표전화 : 031-766-5885 FAX : 031-766-5002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46

http://www.homewood.co.kr

E-mail : homewood@homewood.co.kr

꼭 필요한 건축자재를
최상의 조건으로 만나실 수 있는 곳!

주택자재 전문기업



(주) 홈우드

방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에 보일러를 가동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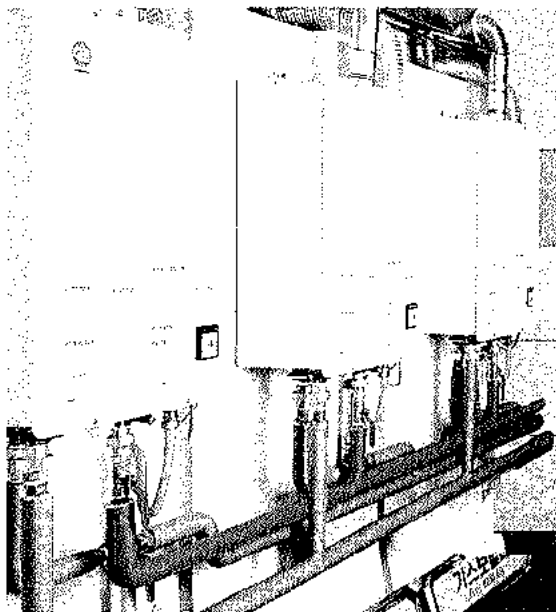
가스보일러를 필요한 공간만큼 여러 대 연결해
연료와 관리 비용 및 공간 부담을 기존 대형보일러의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
합리적인 가스보일러를 찾고 싶은 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난방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온수시공능력	50,000~200,000kcal/h

**맞춤에너지
무료설계 및 상담을
받아보세요!**

설치비 싸고, 난방비 아끼고, 관리사 필요없고!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



25,000kcal×6대 병렬

시공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맞춤 제작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만 달 수 있어 기존의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가스가 기름보다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걱정 안해도 되고 손님 등 방문 선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수명이 2배는 더 깁니다

고장 잦고 A/S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대형보일러와 달리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한 부분가동이 가능해 A/S중에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기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운전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리모콘으로 실내에서나 카운터에서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
관리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보일러실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보일러 크기 때문에 벽까지 허물던 시절은 이제 옛말!
벽을 따라 폭25cm 내외의 가스보일러를 나란히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에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립니다



150,000kcal 보일러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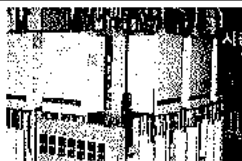
25,000kcal×6대 병렬

경기 유치원(대치동) 교체 시공

99년에 설치한 K사 제품의 누수 및 난방불량 등의
찾은 이상으로 인해 린나이 병렬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례.
충별 난방 및 온수 수도직결 TYPE으로 설치.



30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9대 병렬

수녀원(대구) 교체 시공

93년 국내최초로 린나이 병렬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로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난방배관에 충별 PUMP를 설치하여 설정온도 이하시 동작한다.



150,000kcal 보일러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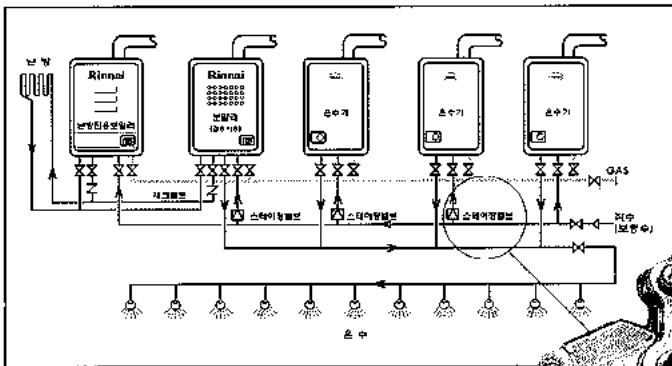
30,000kcal×2대 병렬/30,000kcal×온수기 1대

영등포구 도신장 여관

지하 기계실에서 1층 실외로 보일러 및 온수기를 설치한 사례.
배관길이가 비교적 길며 온수기를 지하의 온수TANK에 연결.
온수기의 PUMP적용시 배관의 저항에 의하여 온수TANK 출구에 PUMP 추가설치



사례별 시공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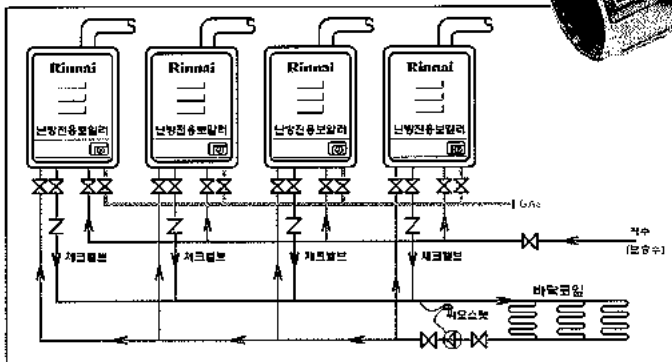


난방, 온수 혼용 방식

- 온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일부 난방을 사용하는 스포츠 센터, 한식점 등 적용
- 온수 부분은 수도직결 및 Staging Valve(특허)를 적용
-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는 보충용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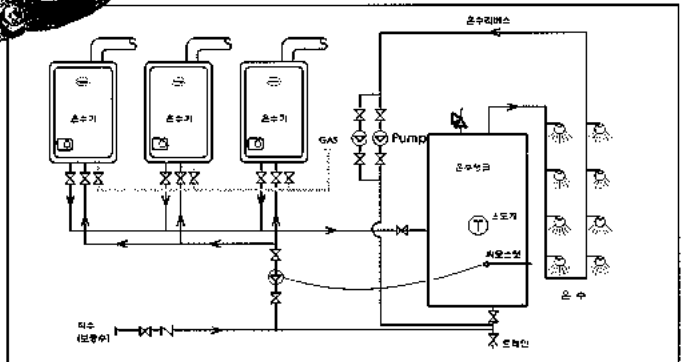
린나이 코리아 만의 특허기술 「스테이징 밸브」

-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 외부에서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절가능
- 충별 배관시 적용하며, 획기적인 연료절감 가능



난방 전용 방식

- 난방만을 전용 공급하는 방식으로 모텔, 여관, 기숙사 등 적용
- 난방능력 5만~2십만kcal/h까지도 난방이 가능한 방식
- 바닥코일 이외 라디에이터(Radiator), 팬코일유닛(F.C.U)등 적용 가능



온수 전용 방식

- 다량의 온수를 적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호텔 및 모텔, 여관 등 적용
- 온수탱크를 온수리버스로 하여 온수를 제공
- 온수 탱크 없이 직접 공급도 가능(온수 직결 방식)

가스보일러(RB-306SME/F)

난방 : 30,000kcal/h
온수 : 36,000kcal/h
사이즈 : 600×440×285(mm)

가스보일러(RB-366SME/F)

난방 : 36,000kcal/h
온수 : 36,000kcal/h
사이즈 : 600×440×285(mm)

순간온수기(RW-16AE/F)

사이즈 : 335×160×600(mm)
온수 : 16ℓ/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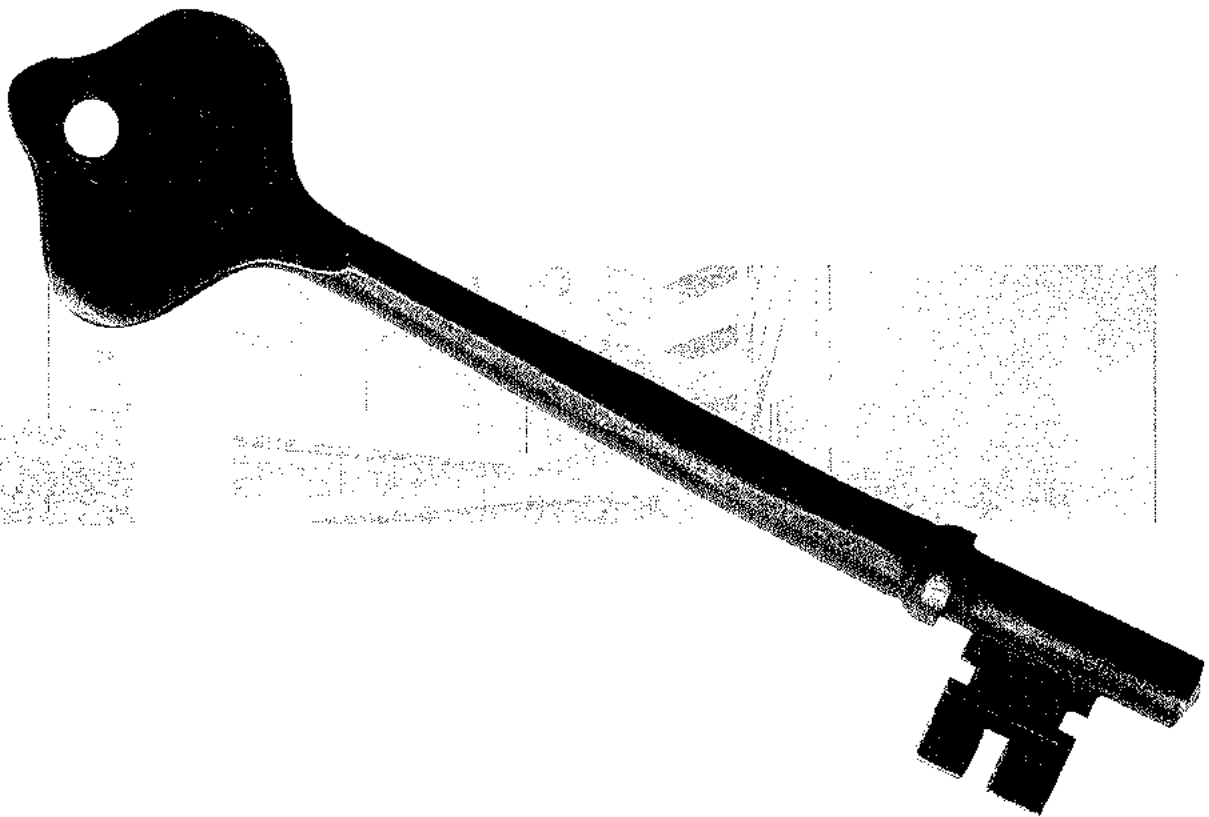
Rinnai 가스기구의 名家
린나이코리아

시공 및 설계상담 : 02) 320-5996, 5975, 5559

ArchiCAD

FOR ARCHITECTS IN THE INFORMATION AGE

10시간 무료교육 으로 3차원 설계를 스스로 ~
그 해답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2D 도면과 3D 모델링이 동시에

2D도면과 3D Modeling을 별도로 작업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2D 도면 작성과 동시에 3D Modeling이 완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설계 프로그램을 만나 보십시오
ArchiCAD는 여러분의 욕구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완성된
건축 및 인테리어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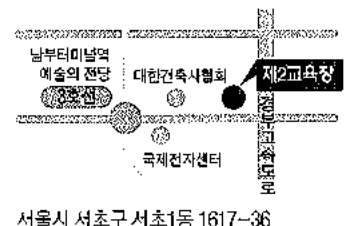
- 완벽한 평면도, 입 / 단면도
- 설계, 시공 상세도
- 물량산출, 견적, 창문 / 문의 리스트 자동 작성
- 렌더링, 애니메이션, VR(가상현실)작성



ArchiCAD 무료교육

대상 : 건축사
교육일정 : 매월 1, 3주
시간 : 오전 7시 ~ 9시
인원 : 선착순 모집 마감

교육장 약도



MBC 건축 박람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초대장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전1동 587번지 성남벤처빌딩 204호 461-181 TEL:031-755-8955 E-mail:archicad@doalltech.com

GRAPHISOFT®

Doalltech
Solution Provider

uniARCH

국내개발 건축전용 저가 CAD

아직도 비싼 CAD구매와 호환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걱정을 영원히 물어두십시오

UniARCH는 삼성 SDS에서 국내 CAD 기술로 개발한 건축전용 CAD S/W입니다.

건축전용 CAD S/W는 모든 분야에 사용하는 AutoCAD와 같은 범용 CAD S/W가 아니라
건축설계 분야에 적합하게 개발된 S/W로 건축 설계분야의 활용성은 범용 CAD S/W보다 뛰어납니다.

- ▶ 건축전용으로 개발된 CAD로서 CADPOWER, CIMCAD, 훈민캐드 이상의 건축 설계 기능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진한글, 고운글 등을 포함한 모든 폰트의 사용 및 호환이 가능하며, 다양한 글자 쓰기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 ▶ 3.0버전에서는 이전 버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정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무료교육 : 8월 11일(09:00~13:00), 8월 25일(09:00~13:00)

총 판 : (주)두올테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587번지 성남벤처빌딩 204호 461-181 TEL : 031-755-8955 FAX : 031-755-8006 E-mail : uniarch@doalltech.com
대리점 : 조형CIM(031-953-0778) 유니데스크(02-876-4009) SOS ENG(02-2638-0685) ValueB(02-3453-7086) 휴먼네트워크(031-237-8456)

uniARCH



SAMSUNG

삼성SDS

Doalltech
Solution Provider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나·다

스카이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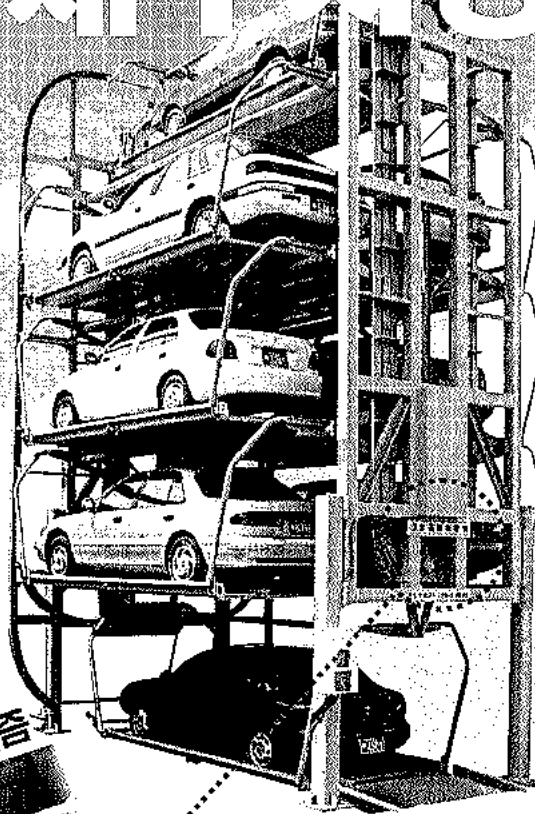
미니로타리식

SKY PARK

입체주차장치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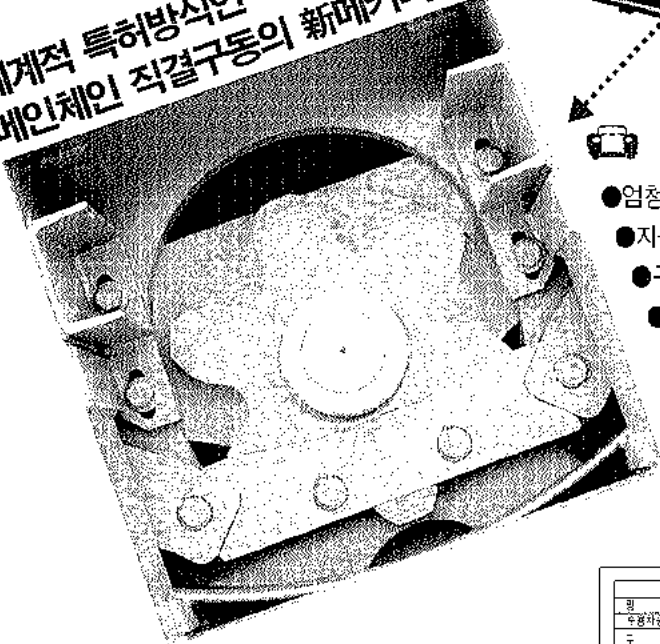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신을!!

세계최소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직결구동의 新메커니즘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www.car-park.co.kr)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 (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 **자매품** Pit을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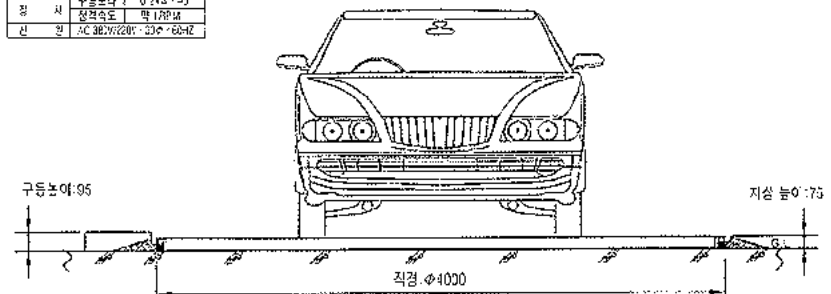
※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폭(最小)	주차기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3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8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표준사양	
형식	원격원동식(무인)
주행차량	중소형 승용차
구동방식	전동식(전동기 11kW)
구동방식	0.2~0.5%
정지	상속속도 약 1.2m/s
신원	AC 380V/220V 50~60Hz



since 1989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창공駐車産業

www.car-park.co.kr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271번지
TEL : (053)956-8838(대) FAX : (053)984-1998

P·P : 011-507-8838

E-mail : cgp210@komet.net

서울A/S센터 : (02)790-2723 부산A/S센터 : (051)784-6721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소음 없는 세상 - 소리자비



소리자비 - 바닥재, 벽재, 배수관

신개념의 차음재, 일본기술제휴
국내생산임박!!



주식회사 소리자비

www.sorizabi.com

소음이 줄어아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TEL (02) 577-6370 FAX (02) 577-636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42 신한빌딩 7층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국내 100대 금융기관 중 매출액 1위이며 자산 50조 1507억 (2000년 9월말 기준)과
지급여력 비율 1,732%인 삼성생명 정책 5부 Seed Bank의 정책지원팀 팀장 양승영입니다.
자금시장의 경색과 금융시장의 급속한 구조개혁으로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문전박대 당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창업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고,
고객께서 의뢰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지키는 힘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500만원~1억원

예상금리 / 연 8%~14.5%

기 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삼성생명대출특선!!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가능
- 담보대출, 창업자금대출 특별상담
- APT소유자, 구입예정자 : 7.5%~9.1%(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7.5%
- 스피드 학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삼성생명
Seed Bank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담당

삼성생명 정책5부

담당 :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오토데스크 고객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 지금 만나 보십시오”

고객 앞에 이름을 건 서비스, 오토데스크와 고객 사이에 Autodesk Systems Center가 있습니다.



(주)다우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최현규



(주)디자인아이
대표이사 최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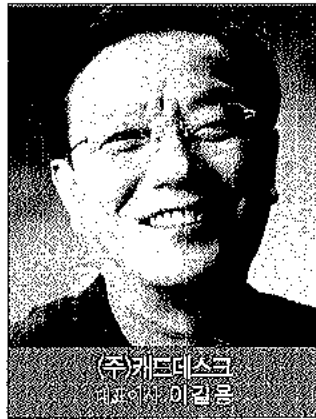
(주)라인테크시스템
대표이사 심재관



성우시스템(주)
대표이사 이지성



(주)씨앤엔
대표이사 이상현



(주)캐드테크
대표이사 이길문



(주)캐드컴시스템
대표이사 유병철



(주)코스팩정보
대표이사 명성수



(주)피플웨어
대표이사 구동욱



(주)한국인프라
대표이사 김기열



한국씨아이.엠(주)
대표이사 김승혁

오토데스크 고객지원 대잔치

온/오프라인 무상기술교육, 교육용 매뉴얼(AOTC) 무상 배포, 전문개발자 세미나까지 Autodesk Systems Center의 전문기술진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입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시행시기	주관 ASC
무상교육	AutoCAD 2000 / 2000i 온라인 교육	7월	(주)다우데이터시스템 www.daoudata.co.kr
	AutoCAD Mechanical 2000i 온라인 교육	8월	(주)피플웨어 www.peopleware.co.kr
	AutoCAD Mechanical 2000i 기술 교육	7월	(주)캐드테크 www.caddesk.co.kr
	MDT R5 기술 교육	7월/8월	(주)씨앤엔 www.cadnet.co.kr / (주)캐드테크 www.caddesk.co.kr
	Inventor R4 기술 교육	7월/8월	(주)씨앤엔 www.cadnet.co.kr / 티보테크(주) www.turbotech.co.kr / 성우시스템(주) www.sws.co.kr / (주)캐드테크 www.caddesk.co.kr
	ADT R3 기술 교육	7월/8월	(주)캐드컴시스템 www.cadcomsy.co.kr / 한국씨.아이.엠(주) www.kcim.co.kr
	ADT R3 & VIZ 기술 교육	7월	(주)라인테크시스템 www.linetek.co.kr / (주)코스팩정보 www.aic.co.kr
	AutoCAD Map 2000i 기술 교육	7월	(주)다우데이터시스템 www.daoudata.co.kr
	교수, 교사 대상 LDDT 2i 제품 교육	7월~8월	한국씨.아이.엠(주) www.kcim.co.kr
	전국 대학 교수 대상 제품 교육	7월	(주)코스팩정보 www.aic.co.kr
AOTC 무상 배포	AutoCAD 2000i AOTC 무상 배포	6월~7월	(주)다우데이터시스템 www.daoudata.co.kr
	AutoCAD Map 2000i AOTC 무상 배포	6월~7월	(주)다우데이터시스템 www.daoudata.co.kr / (주)한국인프라 www.krinfra.co.kr
	AutoCAD Mechanical 2000i AOTC 무상 배포	6월~7월	(주)피플웨어 www.peopleware.co.kr
개발환경	Object ARX 한글 매뉴얼 웹서비스	7월	(주)다우데이터시스템 www.daoudata.co.kr
	AutoCAD 개발 환경 교육	8월~12월	(주)다우데이터시스템 www.daoudata.co.kr
전국 교육기관 순회서비스	Autodesk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무상 진단 서비스	6월~7월	(주)디자인아이 www.dgi-net.com

* AOTC는 2001년 2월 이후 제품 구입고객에게 1회에 한하여 무상 제공됩니다. * 상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관 ASC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Autodesk Systems Center (전문 솔루션 제공, 교육, 기술지원,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문 협력업체)

- (주)다우데이터시스템 02-567-5378/080-567-5378
- (주)디자인아이 02-715-1245/080-715-1240
- (주)라인테크시스템 02-569-1814/080-091-1000
- 성우시스템(주) 02-785-2407/02-786-2665
- (주)씨앤엔 02-3452-9870/080-0222-114
- (주)캐드테크 02-558-5114/080-558-5114
- (주)캐드컴시스템 053-652-1898/080-527-0790
- (주)코스팩정보 02-584-6480/080-900-6480
- 티보테크(주) 041-861-3813/080-985-8282
- (주)피플웨어 02-506-4821/080-794-0445
- 한국씨.아이.엠(주) 02-515-3167/080-511-9775
- (주)한국인프라 02-6003-5000/080-852-5200

autodesk
authorized systems center

AutoCAD R14에서 업그레이드 해야 할 100가지 이유!

Upgrade

24% 빨라진 작업속도

다중 설계 환경, 단순화된 배열 기능, 연관 치수기입, 향상된 플로팅, 더욱 강력해진 3D 등의 기능 그리고 24% 향상된 응용프로그램 성능을 통해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강력한 통신 및 협업 기능

전자 전송을 사용하면 DWS 표준 파일이 포함된 완전한 DWG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참고 정확해진 표준화 관리

하드 드라이브, LAN, WAN 또는 인터넷에 있는 표준과 비교하여 도면을 확인함으로써 표준을 쉽고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간편한 표준 위반 검사

표준 관리자는 표준을 AutoCAD 도면에 연관시킴으로써 표준 위반을 쉽게 찾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철자 검사기와 마찬가지로 표준 대화식 검사는 도면을 연관된 표준과 비교하여 검사하고, 불일치를 보고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배치 표준 검사기는 여러 도면에서 배치 검사를 수행하고 표준 위반에 대해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XML 기반의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간편한 라이선스 관리

유연한 구매 및 라이선스 옵션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학습 기간을 단축합니다. AutoCAD를 구입하면 최신 AutoCAD 플랫폼 향상 기능을 확장 도구로 받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라이선스 관리 도구인 FLEXlm을 통해 소프트웨어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중설계환경 제공

단일 세션에서 여러 도면을 열어서 한 파일에서 다른 파일로 객체를 복사, 이동, 페인트합니다.

편리한 연관 치수기입

연관 치수기입에서는 객체를 수정하면 객체의 위치, 방향, 측정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AutoTracking 기능

향상된 AutoSnap[™] 및 AutoTrack[™] 기능을 통해 객체를 시각적으로 작성하고 배치합니다.

강력한 3D 그래픽

Heidi[™] 3D Graphics Pipeline은 설계를 대화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뛰어난 3D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일명령으로 폴리선 편집

여러 폴리선을 단일 명령으로 편집하고 끝이 맞지 않거나 선 및 폴리선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여러 개체를 폴리선으로 결합합니다.

연장 및 자르기 결합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자르기 명령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 명령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도면층 관리

도면층 상태를 사용하면 현재 도면층 설정값의 스냅샷을 도면층 관리자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상태는 복원, 내보내기, 가져오기가 가능하므로 플로팅 또는 편집을 위해 도면층의 특성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치 끌어서 놓기

DesignCenter[™] 기능을 사용하여 acad.pat 파일에서 해치 패턴을 찾아 현재 도면의 해치 영역으로 끄냅니다.

향상된 속성관리 및 편집

블록 속성관리자를 사용하여 블록을 분해하거나 재정의하지 않고도 속성을 관리, 추출, 수정합니다. 속성 편집 대화상자를 사용하면 각 속성의 특성, 문자 및 일반 모양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쉬워진 속성 추출

향상된 속성 추출을 사용하면 블록 속성 데이터를 범용 구분 문자(CSV), Microsoft Excel(XLS) 및 Microsoft Access(MDB) 형식으로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빠른 도면 변환

도면층 변환기는 기존 도면, 표준 파일 또는 도면 템플릿을 사용하여 한 도면층 표준이나 규약에서 다른 도면층 표준이나 규약으로 도면을 변환합니다.

효율적인 출력

다중 도면 공간 도면층을 가상 용지에 작성된 단일 도면에 삽입합니다. 표시된 그대로 도면 플롯을 유지하기 위해 신가중치를 지정합니다.

ePlot 기능

도면을 플롯터 준비된 정확한 DWF(Drawing Web Format) 파일로 전자메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게시합니다.

i-drop 기술

웹 또는 인터넷에서 객체를 끌어서 도면에 넣음으로써 설계에 빠르게 추가합니다.

Publish to web 기능

웹으로 출판을 사용하면 검토할 도면을 웹 또는 인트라넷에 쉽게 출판할 수 있습니다.

AutoCAD R14 및 AutoCAD R14 기반의 산업별 전문제품 업그레이드 중단 안내

AutoCAD R14 및 AutoCAD R14기반의 베타릴 제품군(AutoCAD LT 98, Mechanical Desktop R3, Inventor R2, AutoCAD Map R2, AutoCAD Map R3, Architectural Desktop R1, MapGuide R4, Civil Design R1, CAD Overlay R14, Land Development Desktop R1, Genius R4, IGES R14, STEP R14)은 상위버전으로의 호환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2년 1월 15일부터는 상위버전 또는 오토데스크 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및 크로스 업그레이드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utoCAD R14 고객만을 위한 업그레이드 대축제

기간 : 2001. 7. 1 ~ 2002. 1. 15

파격적인 가격으로 업그레이드! AutoCAD R14에서 AutoCAD 2002, 또는 AutoCAD 2002기반의 산업별 전문 솔루션으로 동시에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서둘러 만나십시오.

업그레이드 품목	업그레이드 가격
AutoCAD [®] 2002(한글버전) AutoCAD [®] Mechanical 6(한글버전 - 7월 중순 출시) Autodesk [®] Mechanical Desktop [®] 6(한글버전 - 7월 중순 출시) AutoCAD R14  Autodesk Inventor [™] 4(한글버전 - 현재 판매중) Autodesk [®] Architectural Desktop 3.3 (영문버전, 추후 한글CD 제공 - 9월 중순 출시) Autodesk [®] Map 5(영문버전, 추후 한글CD 제공 - 9월 중순 출시) Autodesk [®] Land Desktop 3(영문버전 - 7월 중순 출시)	정상가 ₩1,646,000 ↓ 특별가 ₩1,235,000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과 Autodesk[®] Map 5 제품의 경우, 영문버전을 먼저 제공하고 한글제품 출시시 한글버전 CD를 동봉합니다.

*AutoCAD R14 고객이 상기 업그레이드 제품 구입시 Autodesk[®] CAD Overlay[™] 2002 영문제품을 120만원(시가 165만원)에 드립니다. *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

- AEC ASC : (주)라인테크시스템 02-569-1814, (주)캐드시스템 053-652-1893, (주)코스텍정보 02-584-6430, 한국씨.아이 엠(주) 02-515-3167
- Manufacturing ASC : 상우시스템(주) 02-785-2407, (주)씨앤엔 02-3452-9870, (주)캐드테크 02-558-5114, 테크테크(주) 041-861-3813, (주)피플웨어 02-506-4821
- GIS ASC : (주)다우데이타시스템 02-567-5378, (주)한국인프라 02-6003-5000

AutoCAD 전문 ASC AutoCAD 교육용 ASC AutoCAD 네트워크 ASC

daou
(주)다우데이타시스템

02-567-5378 / 080-567-5378
www.daoudata.co.kr

DGI
DIGITAL GRAPHICS IN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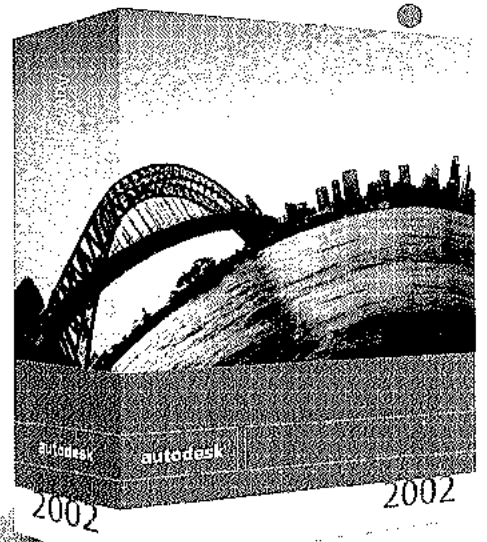
02-715-1245 / 080-715-1240
www.dgi-net.com

Software Specialist Group
PEOPLEWARE

(주) 피플웨어
02-506-4821 / 080-794-0445
www.peoplewar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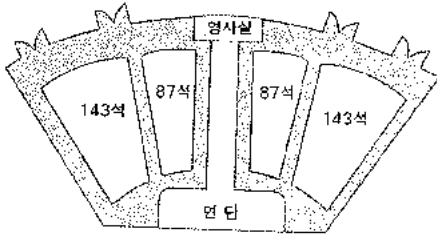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 527-0790 FAX: 527-0799 www.autodesk.co.kr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대강당



대강당(460석)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사막/흑판/OHP/VPM/SP

1. 사용료

(단위: 원, VAT별도)

구분	좌석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09:00~18:00,

동절기(11월~2월)/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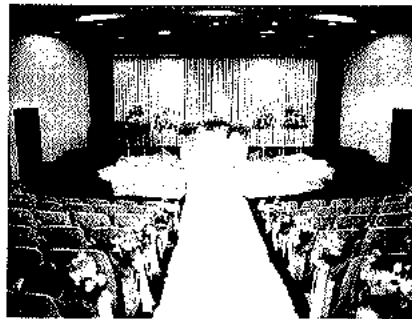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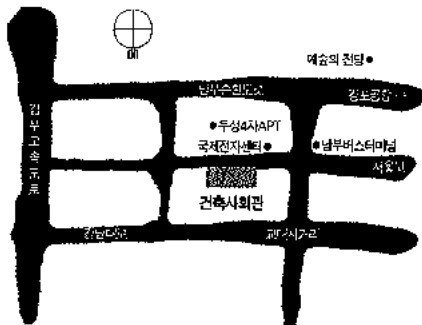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 × (세로) 90cm



약도



대관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X : 581 - 5711~4

FAX : 586 - 8823

AutoCAD R14

고객만을 위한 업그레이드 대축제

행사기간: 2001. 7 ▶ 2002. 1. 15

업그레이드 품목		업그레이드 가격
AutoCAD R14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	정상이 ₩1,640,000 특별가 ₩1,235,000
	Autodesk MAP 5(영문버전, 추후 한글CD 제공9월 중순 출시)	
	Autodesk Land Desktop 3(영문버전)	
	AutoCAD 2002(한글버전)	

상기 가격은 부과세 별도입니다

AutoCAD R14 업그레이드? 클릭하세요!

www.linetek.co.kr

파격적인 가격에 또 하나의 만족을 드립니다.
라인테크시스템에서 드리는 플러스보너스

- 보너스/하나** 2 COPY 이상 업그레이드 시
건축전문 잡지 건축세계 1년 무료 구독권 증정합니다.
- 보너스/둘** 3 COPY 이상 업그레이드 시
640C HP deskjet 프린터를 주점을 통하여
100대를 증정합니다. (추첨일 : 2001.11.15 / 2002.1.30)

AutoCAD R14
**파격적인
가격으로
업그레이드!**

아직도 밤새 야근하십니까?

ADT는 여러분의 여가시간을 늘려드립니다.

시간의 여유로움

이제 휴가를 떠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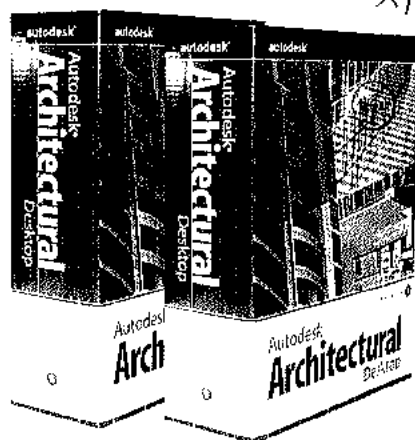
건축전문 디자인의 경쟁력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R3.3

획기적 생산성 향상!

건축전문가를 위한 최적화된 설계환경!

도면의 정밀도와 조절기능 향상!



 **(주)라인테크시스템**

대표전화: (02)569-1814
팩스: (02)569-1817

<http://www.asccenter.com> <http://www.linetek.co.kr>

uniCAD, 한글 IntelliCAD

국산 카드 공동 개발 발표

국산카드 공동개발 Consortium 형성(uniCAD, 한글IntelliCAD)

〈삼성 SDS(주), (주)다이나웨어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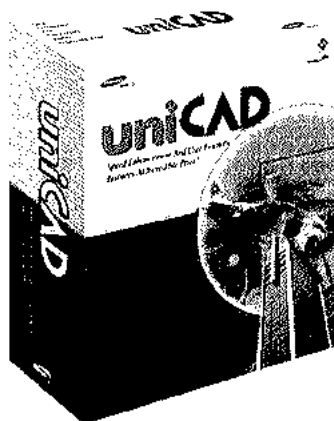


국산카드를 사용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삼성 SDS(주) 와 (주)다이나웨어씨지는 국산카드를 사랑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진정한 국산카드 개발을 목적으로 양사가 카드엔진의 개발노하우를 집약시킨 순수 국산카드를 공동개발에 약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문제시 되었던 카드호환성 및 안전성 등 모든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기존의 카드엔진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국산카드를 거듭날것을 약속드리며, 개발 기간내에 구입하시는 <유니카드 및 한글인텔리카드>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무상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주)다이나웨어씨지, 삼성SDS(주) 공식 국산카드 공동개발 선언



한글IntelliCAD



uniCAD

통합된 카드의 특징

-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국산카드
- 프로그램의 안정성 향상
- 도면간의 호환성 증대
- 개발 기간 : 2001년 7월 - 2002년 6월
- 제품 출시 : 2002년 7월 출시 예정

이제는 비로소 우리 실정에 맞는 국산카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이나웨어 씨지
진 화 : 02-3452-0776
팩 스 : 02-3452-0710
www.cadpia.net

SAMSUNG

삼성SDS
전 화 : 080-6262-815
팩 스 : 02-2191-4200
www.unicad.co.kr

IntelliARC, uniARCH, LineARC

건축 프로그램 발표

건축 프로그램 (IntelliARC, uniARCH, LineARC)을 통합

〈삼성 SDS(주), (주)라인테크시스템, (주)다이나웨어씨지〉



공동 개발되는 건축프로그램 통합은 10여년동안 사용되어진 건축 프로그램의 개발사인 유니캐드의 삼성SDS(주), 한글인텔리캐드의 (주)다이나웨어씨지 AutoCAD 건축분야의 (주)라인테크 시스템이 공동개발하고, 건축지원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모든 캐드(유니캐드, 한글인텔리캐드, 오토캐드)엔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건축설계의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굴지의 건축프로그램의 대명사인 3사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 건축 설계의 혼동을 없애고, 그동안 난무하던 건축설계 프로그램의 시장을 획일성있게 하여 모든 건축사사무소 건축도면 설계의 호환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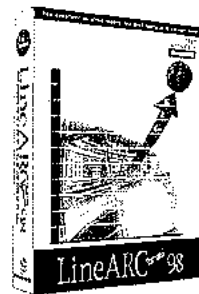
굴지의 건축 프로그램의 대명사인 3개회사가 Consortium 형성



IntelliARC



uniARCH



LineARC

통합된 건축프로그램의 특징

- 건축설계의 표준화 전용 프로그램 구축
- 건축설계의 표준 라이브러리 탑재
- 건축지원 프로그램간의 통일 및 획일성
- 개발 기간 : 2001년 7월 - 8월
- 제품 출시 : 2001년 9월 출시 예정

건축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된 순수 건축 프로그램 공동개발 착수



주식회사

다이나웨어 씨지

전화 : 02-3452-0776

팩스 : 02-3452-0710

www.cadpia.net

SAMSUNG

삼성SDS

전화 : 080-6262-815

팩스 : 02-2191-4200

www.unica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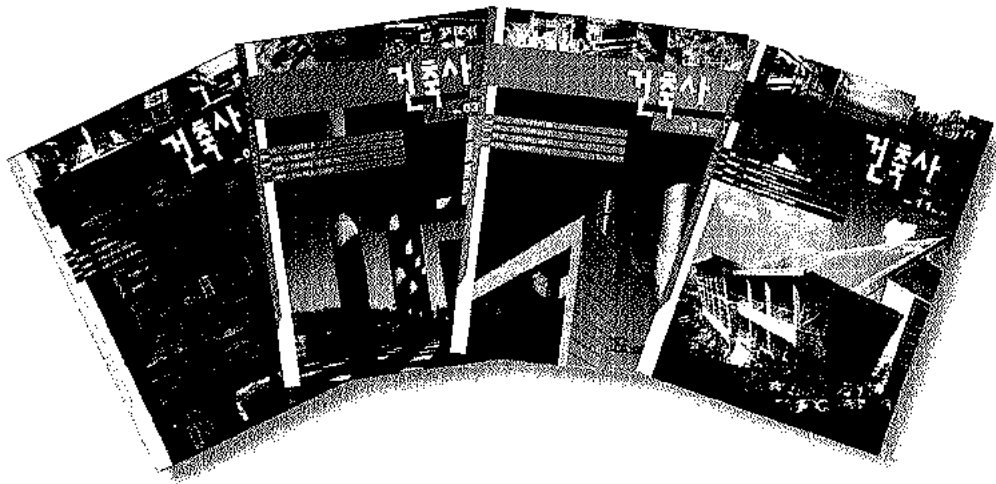
(주)라인테크시스템

전화 : 02-569-1814

팩스 : 02-569-1817

www.linetek.co.kr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의 광고는 국내 최초의 건축·건설 전문기획사인 (주)한마당210이 대행합니다.



〈단위:만원〉

광고 단가표

표지 4면	표지 2면	표지2 대면	표지3면	내지
250	120	120	100	70

월간「건축사」誌는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가 직접 발행
- 전국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약 50,000명)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건축사 약 8,000명)
- 건축관련 단체(협회등) 및 대학교
- 건축관련 정부기관·연구소
- 건축관련회사(건설회사, 자재회사, 정보통신회사 등)



광고문의 _____

전화 : 02-702-1871~2

팩스 : 02-702-1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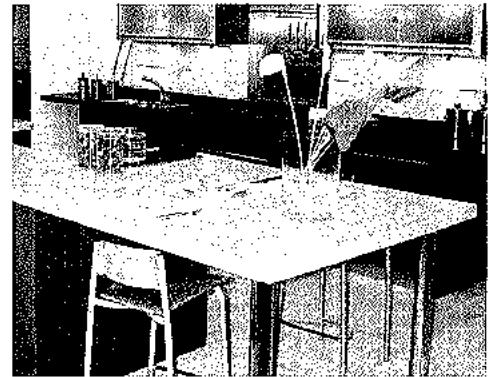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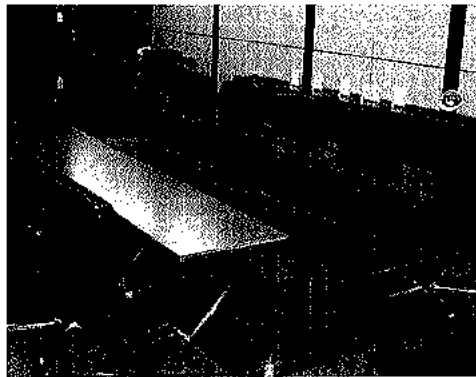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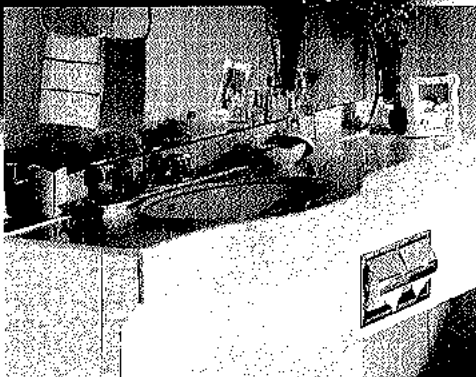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빌딩 1503호 (주)한마당 21

미래의 인테리어 문화를 주도할 획기적인 소재 최고급 인조대리석 - LG하이막스

부드러운 고급 질감의 표면과 무공질의 균일하고
가공성이 우수한 인테리어 소재인 LG하이막스는
어떤 오염에도 강해 언제나 청결하고
신선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원하는 형태의 가공이
가능하며 첨단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감의 조화로
초현대적 인테리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느낌 그대로 LG비안코

천연석과 같은 자연스러운 질감에 가공의
까다로움과 많은 LOSS를 개선한 - LG비안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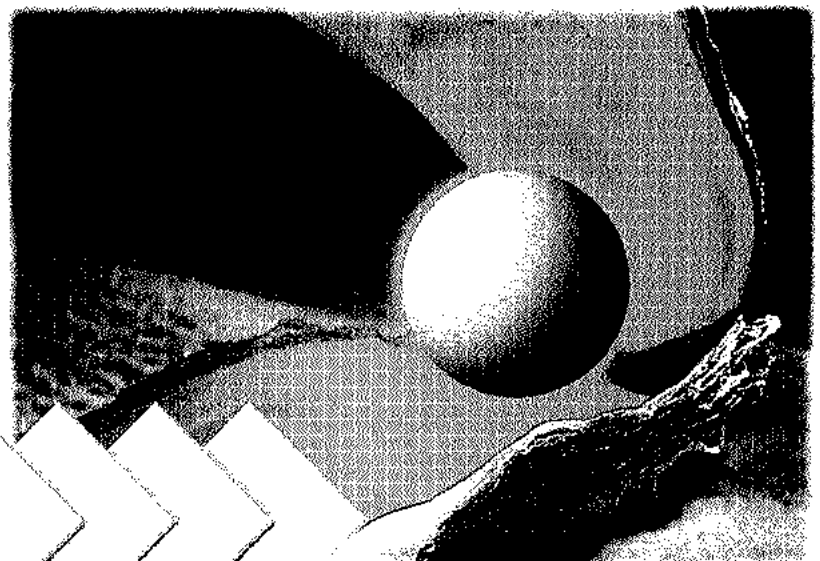
대리석의 비안코 무늬를 채택한 LG비안코는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대리석의 단점인
가공성, 기계, 화학적 품질을 개선하여 인테리어 관련
증사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 제품입니다.

색상이 다양하며 가공이 용이하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모든 Counter 및 Table top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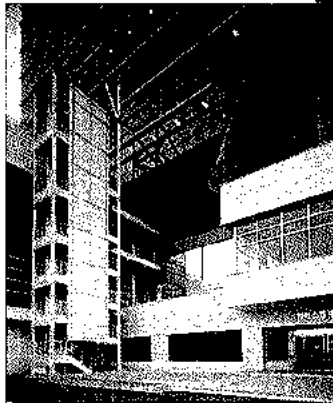
제 3세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LG비안코'
분명 만족하실겁니다.

LG Bian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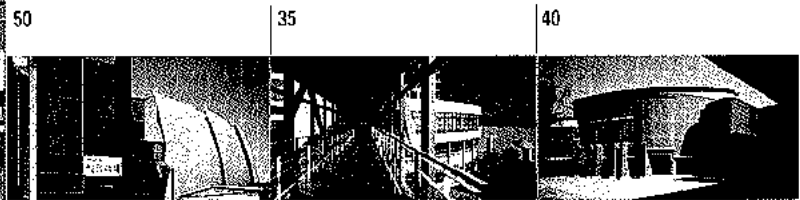
이태리 대리석의 일종인 비안코 무늬를 하크할계 인조대리석에
적용하여 탄생된 LG화학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차례 2001 7 387호



키콕스 벤처센터(김병년·현대현 작)



발행인: 우남웅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편집취재: 홍보·편집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마당21 (02)702-1871~2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칼럼	건축 리모델링 - 또 한번의 기회	이상준	28
회원작품	광진구 도서관	이종상	32
	천주교인보성채수도회 전주성당	민승렬·조환우	38
	키콕스 벤처센터	김병년·현대현	44
	예담교회	송호섭	48
	강남교회 교육관	송호섭	54
계획작품	호유재(鵠遊齋)	김효만	58
현상설계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64
	경산우체국, 통영우체국		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청사		72
	안동대중앙도서관		76
	한국통신 용산전화국		82
작품노트	지슬공소	서보광	84
기고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과제	김영하	89
	편의시설에 대하여	류재경	94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5)	김석환	96
건축만평		유원재	106
건축마당	협회소식		107
	건축계소식		108
	해외잡지동향		114
	신기술 신지재		120

Column

Remodeling in Architecture - One More Chance	Lee Sang-Jun	28
--	--------------	----

Works

Kwangjin Library	Lee Jong-Sang	32
Jeonju Catholic Church	Min Seung-Ryeol & Cho Hwan-Woo	38
KICOX Venture Center	Kim Byeong-Nyeon & Hyeon Tae-Heon	44
Yedam Church	Song Ho-Sub	48
Kangnam Church Education Hall	Song Ho-Sub	54

Process Work

The Butterfly	Kim Hyo-Man	58
---------------	-------------	----

Competition

Dongdaemun-gu Gymnasium	64
Gyeongsan Post Office, Tongyeong Post Office	68
Chuncheon District Court - Gangnung Support Office	72
The Central Library, Andong University	76
Yongsan Telephone Office	82

Design Note

Jiseul Gongso	Suh Bo-Kwang	84
---------------	--------------	----

Feature

Applications and Assignment of District Units Plan	Kim Young-Ha	89
On the Accommodation Facilities	Ruy Jae-Kyong	94

Architecture Travel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Kim Suk-Hwan	96
---	--------------	----

Cartoon	Yoo Won-Jai	106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7
Archi-Net	108
Overseas Journal	114
New materials	12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7-3071 · 강동구건축사회/496-7475 · 강북구건축사회/6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690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6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6 · 노원구건축사회/938-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6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0158 · 양천구건축사회/694-6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6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8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미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6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6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30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6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6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8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창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인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6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강혜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령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건축 리모델링 - 또 한번의 기회

Remodeling in Architecture - One More Chance

이상준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Sang-Jun

최근들어 리모델링(Remodel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서울 도심에는 이미 빈 땅이 없어진 지 오래여서, 한동안 재건축 붐(Boom)이 일더니만, 이젠 그것도 주춤해지면서 리모델링이 건축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말로 재단장(再丹粧)이라고나 할까? 적절한 용어가 없어 건축사전을 찾아 뜻을 살펴보니 "...증축과는 달리, 기존 건물 전체, 혹은 일부의 변경"으로 정의되어 있고 "통상 용도변경이 포함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건물의 보수(補修: Restoration), 보전(保全: Preservation), 복원(Rehabilitation) 그리고 변형(Transformation)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빌딩리노베이션(Building Renovation)이라는 용어를 좀 더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에 따라 건물은 변하기 마련이다.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현대화/세계화의 흐름을 좇아 허겁지겁 세워진 수많은 우리 도심속의 건물들 중 과연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진 건물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도 과거에는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은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 알파한 상업주의에 따른 졸속한 건물화장(Face make-up)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리모델링은 등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분히 기능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는데,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시작한 것은 19세기 프랑스 및 다른 유럽국가에서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전하기 위함이었고, 미국에서도 20세기에 들어서서 오래된 건물 보전(Historic Building Preservation)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파리, 런던, 뉴욕 등 도시의 많은 오래된 건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는데 이는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와, S. Giedion 등이 주도한 1929년 CIAM(Congres Internationaux d' Architecture Moderne)의 "Paris 시대 대부분 건물들이 현대식 건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역사적 유산(heritage)"은 술한 전쟁통에서 파괴되고 또 다시 짓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부 살아 남았고, 근대 서양문물의 유입에 따라 서양식 건물들이 동양의 현대도시를 채우고 있어 르 꼬르뷔지에의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전망이 이곳에 실현된 듯한 느낌이다.

우리와 사정은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요즈음 설계 프로젝트의 많게는 70%(증축포함) 가량이 리모델링 관련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들에 따른 것인데, 첫째는 1973년 석유파동이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한 규제와, 둘째는 공동화(空洞化)되어가는 주요도시의 재개발(Urban Renewal)의 수요에 따른 것이다. 일반인들의 인식도 과거 교외의 넓은 곳에 위치한 회사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경험

을 제공하는 도심의 현대식으로 개조된 회사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다니는 것을 최근 들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건축사(Architect)들과의 영역다툼도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안녕(公共安寧)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건축허가는 프로(Professional)인 건축사들의 몫이다. 많은 기업형 건축회사들은 따라서 자체 인테리어 팀(Team)을 거느리고 있고 대부분 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건축인들이 추구하는 “시간을 뛰어넘는(Timeless) 건축 공간의 요제(要諦)”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에너지 보존측면에서 볼 때, 건물외피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주 에너지 하중(荷重)인 Skin-Load Dominated Building과,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혹은 소모하는 에너지(사람, 전등, 장비, 등...)가 주하중인 Internal Load Dominated Building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 저층 학교, 공동주택 등으로서 외피의 단열효과(혹은 차열효과)를 보완하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다.

태양열을 이용한 설계의 기본 전제(前提)도 먼저 건물 외피를 단단히 잠그는(Closing the building envelope)것이다. 다시말하면 열손실을 최소화시킨 후, 태양열을 받아들여야(Opening the envelope)한다. Insolation에 앞서 Insulation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건물, 특히 사무소건물 같은 곳은 난방보다도 환기, 조명, 냉방에 더 큰 에너지가 소요되는데, 이는 바로 근무자들의 업무효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죽하면 BA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등이 등장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많은 Building Core Space가 필요하여 업무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는데 있다.

영국의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는 최근에 환경개선 및 에너지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독일 상업은행건물, 베를린(Berlin)의 Reichstag Remodeling, 그리고 대영박물관(British Art Museum)의 리모델링 등에서, 그는 최첨단 유리기술을 비롯한 건축자재 및 시스템 그리고 PV(Photovoltaic) 기술까지 도입한 과감한 유리지붕 및 하이테크(High tech)외피 등을 선보이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기밀(氣密)하게 개선되는 건물에서는, 실내 환경 또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는 인간감성학적 측면이고, 둘째는 IAQ(Indoor Air Quality) 측면이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실내도 새로운 재료, 색상, 가구 등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기왕이면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만지기도 좋고, 인간감성 및

Ergonomics도 감안된 총체적인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재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적절한 환기를 통한 높은 수준의 IAQ를 갖추도록써, 문자 그대로 쾌적한 실내환경, 생산성을 높이는 실내환경조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건물의 외벽 마감재료 또한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그래서인지 도심의 리모델링 되는 건물들을 보면 석재 뿐 아니라 메탈(Metal)계통의 마감재와 유리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 드라이비트(Dryvit)라는 상표의 인조 스텐코(Stucco) 마감도 도처에 눈에 띄인다. 어떤 재료, 어떤 색상으로 외관을 바꾸느냐 (Cosmetic face lifting)하는 것은 건축가의 재량이 다. 당연히 이들의 창의성이 보다 더 보장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변의 맥락(Context)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유행을 너무 좇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형성된 도심이기에 지킬만한 Context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더욱이 두 번째의 기회는 반드시 살려서, 틀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는 건축인들 뿐만 아니라, 건축주 그리고 정부와의 3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실정은 정부의 주도없이 자본주의 논리가 우선인 듯 하다. 그동안 도시설계지침 등 그 수많은 외국도시의 사례조사, 도시설계자료 등을 모으고, 전문가들로 진용을 갖추었으니, 이를 토대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면, 미국 테네시(Tennessee)주의 Chattanooga에서와 같이 건물외관 파사드(Facade)의 통일도 시도해 볼만한 것이라 사료되고, 또 무엇보다도 건물 Signage에 대한 것은 보다 통일되고 정제된 것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도시설계지침(외관 및 Signage관련) 및 설계표준(Design Standards)제정도 권장하고 싶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들 또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건축가들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의상이나 음식 그리고 음악과는 다른, 보다 영구적인 건설 환경(Built Environment)을 창조하는 프로들이기에 당연히 그에 합당한 책임과 아울러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

여지껏 우리는 주로 먹기 위해, 즉 기능충족을 위한 기준을 쫓아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를 것이다. 도심생활 및 환경의 질적 개선은 지상과제이고, 외국의 많은 도시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도심도 필연적으로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뀌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어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격조높은 우리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광진구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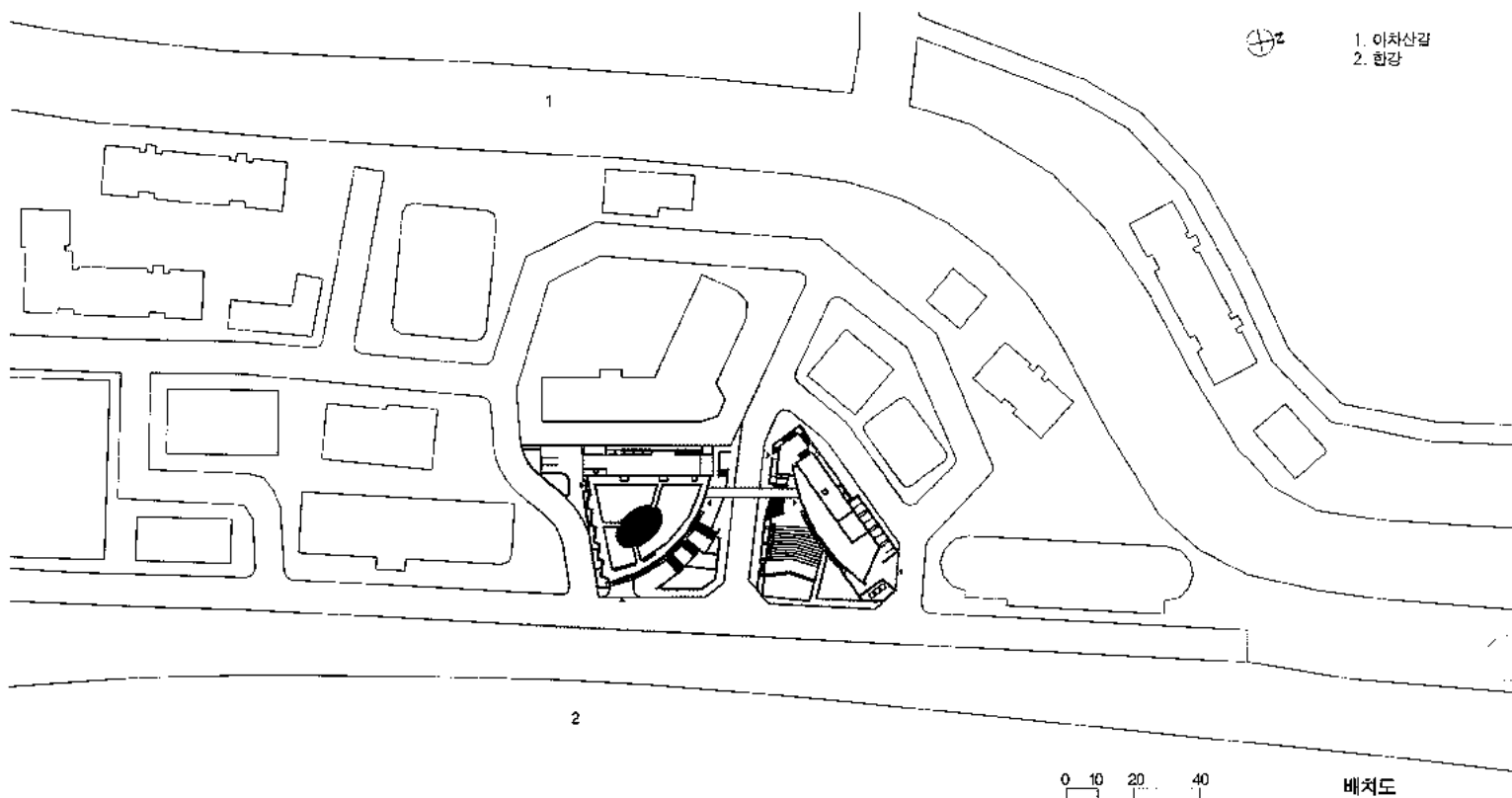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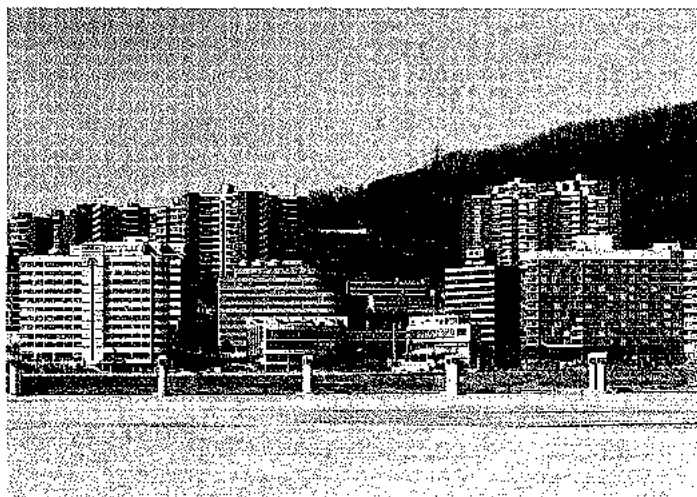
Kwangjin Library

이종상 /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Jong-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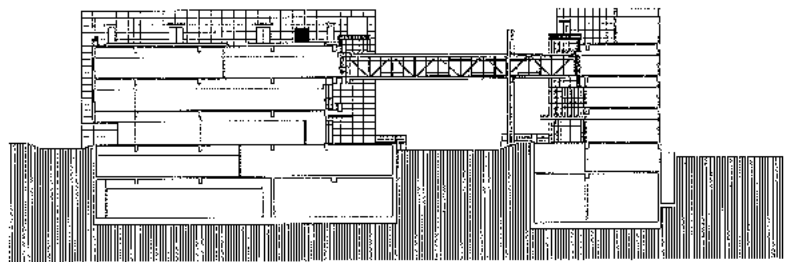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2, 113번지
지역·지구	중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도서관동 - 1,912.48㎡ / 문화센터동 - 1,587.4㎡
건축면적	도서관동 - 1,056.61㎡ / 문화센터동 - 454.99㎡
연 면 적	전체 - 6,436.69㎡ 도서관동 - 3,987.98㎡ / 문화센터동 - 2,368.49㎡
건 폐 율	도서관동 - 55.23% / 문화센터동 - 28.66%
용 적 륜	도서관동 - 180.85% / 문화센터동 - 86.13%
규 모	도서관동 - 지하 1층, 지상 5층 문화센터동 - 지하 2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 복합패널(주·세중)
내부미감	디럭스 타일, 롬카펫, 수성페인트
설계담당	차경준, 산현철, 김태형, 이형주, 이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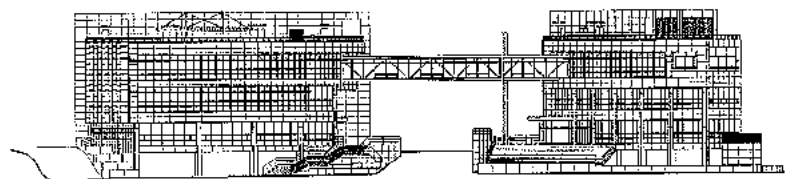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로부터 차단되지 않고 대지에서 곧바로 한강에 접할 수 있는 곳에, 지금부터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도서관이 위치한다. 첫 번째 화두는 '강변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 였고, 두 번째는 '정보화 시대에 지역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기존의 도서관과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였으며 세 번째는 '이 도서관의 실제적 이용자들인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성장한 후, 이 장소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게 할 것인가?' 였다. 이 화두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설계당시의 주된 생각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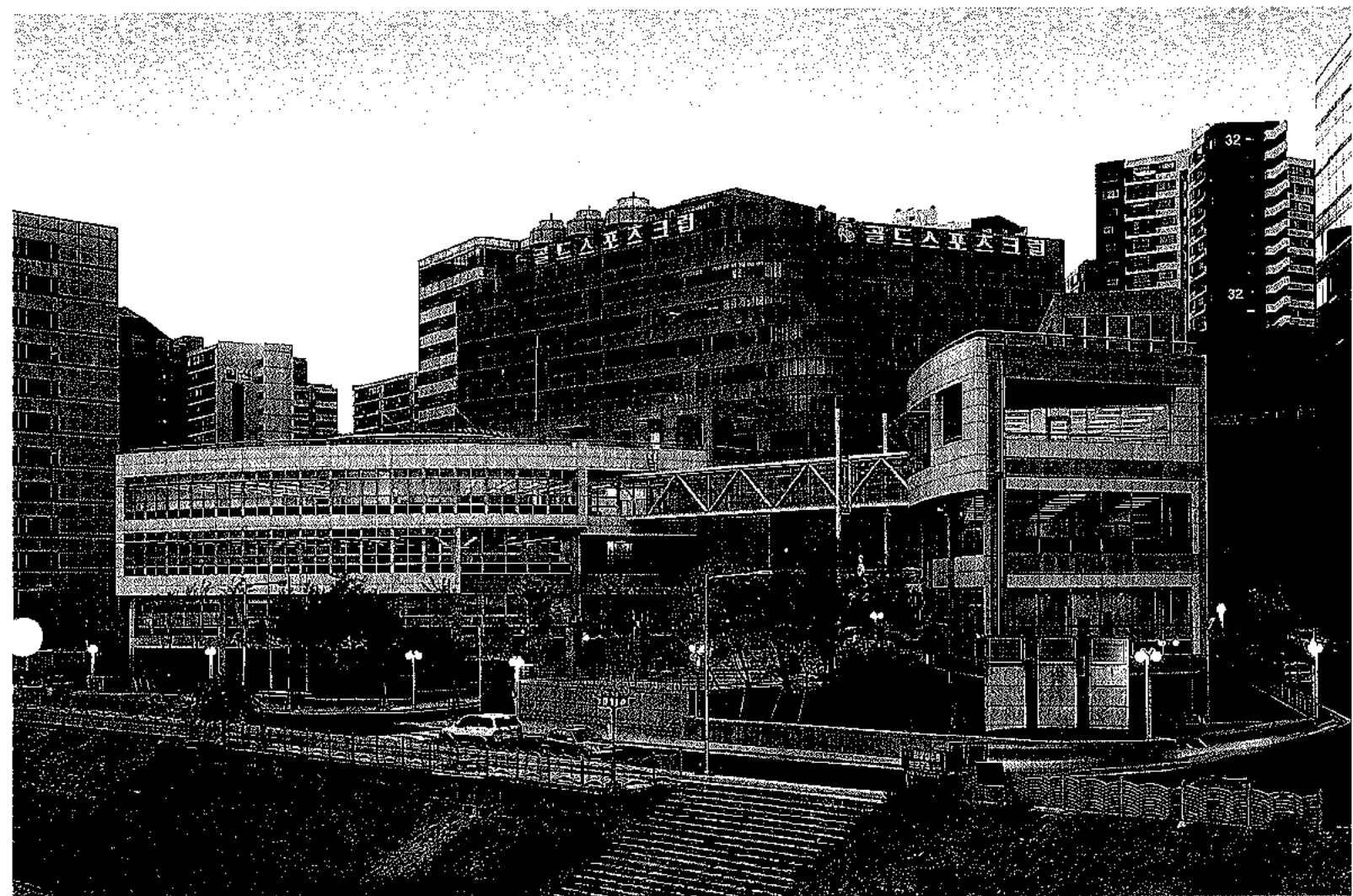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도서관들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3년 이후에 지어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장소 조차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고등학생들과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한 도서관은 서고를 학생들에게 컵라면을 파는 매점으로 운영할 정도였다. 제대로 된 도서관이라면 주부가 낮 시간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놀이시설이 있는 아동도 서실에 어린이를 놀게 하고, 개가식 열람실에서 마음대로 책을 골라 보거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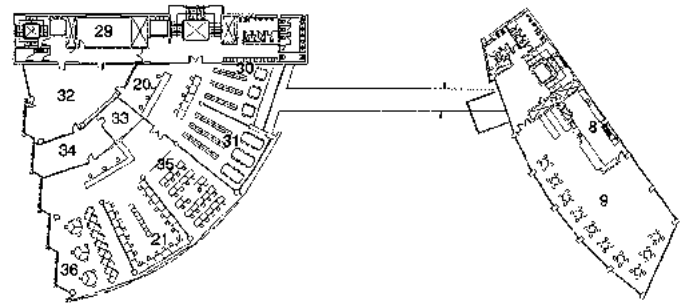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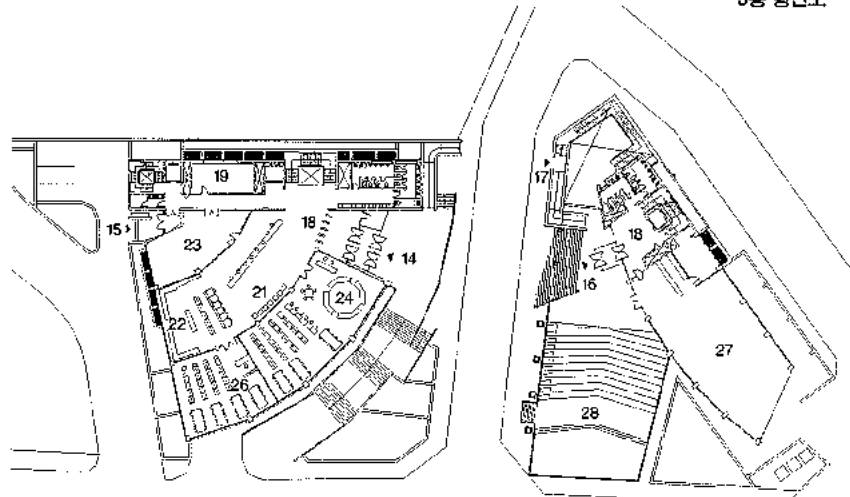
나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퇴근길의 남편이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시설이자 이웃과의 만남의 장이 되는 공동체 시설이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텔레비전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처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더욱 우려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비싼 값을 치른 문화시설 등의 투자 과정을 뛰어넘어 곧바로 문화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하고, 우리가 이미 종이책이 없어진 전자도서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인쇄정보를 한꺼번에 디지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속할 콘텐츠가 아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디지털 도서가 앞으로 더 많이 이용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인쇄도서도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지역도서관 본래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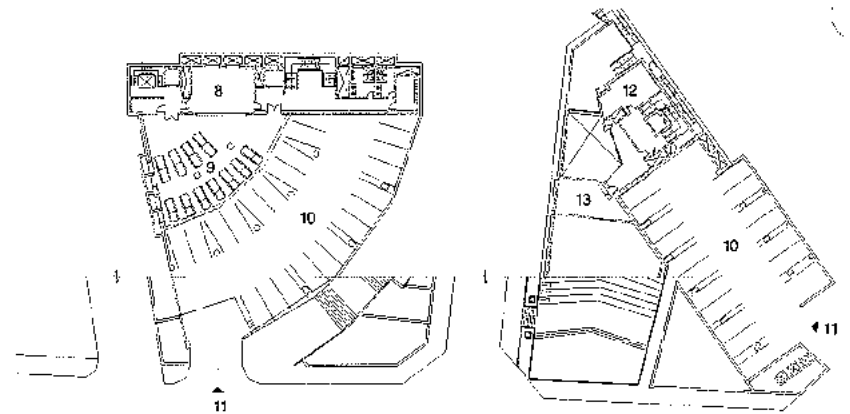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건축가가 설계 프로그램을 확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우리 실정에 맞는 참고로 할 만한 사례 도서관이 없고, 발주처에서도 구체적인 설계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기본설계 최종안은 당시의 서울시정 연구원인 안재학 박사의 서울시 구립 도서관 설립 방향에 관한 연구논문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밝힌다). 설계안의 방향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습실을 문화센터등 상층부에 확보하고 불확실한 도서관 기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평면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설계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성 있는 내부공간간의 창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면 위커힐 밑에 있는 광나루 지역은 바위와 소나무와 강물이 어우러지는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광나루 지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변 정화를 위해 재개발한 곳이다. 도서관 대지는 유람선 선착장의 부속주차장 대지로 확보된 곳인데 6미터 도로를 가운데 두고 2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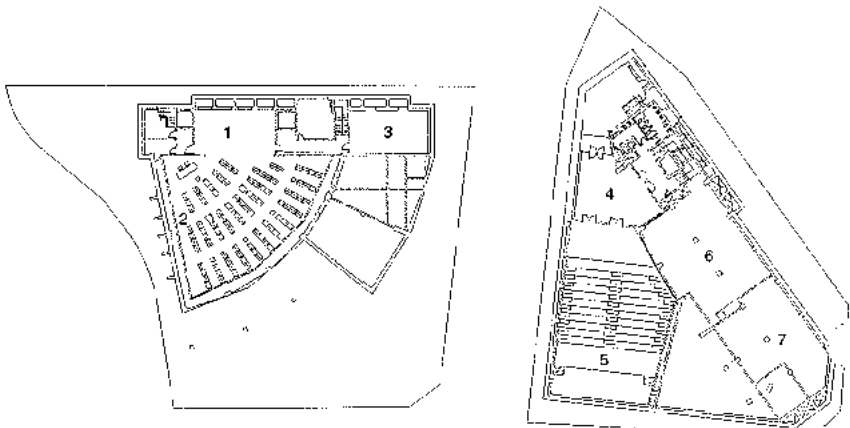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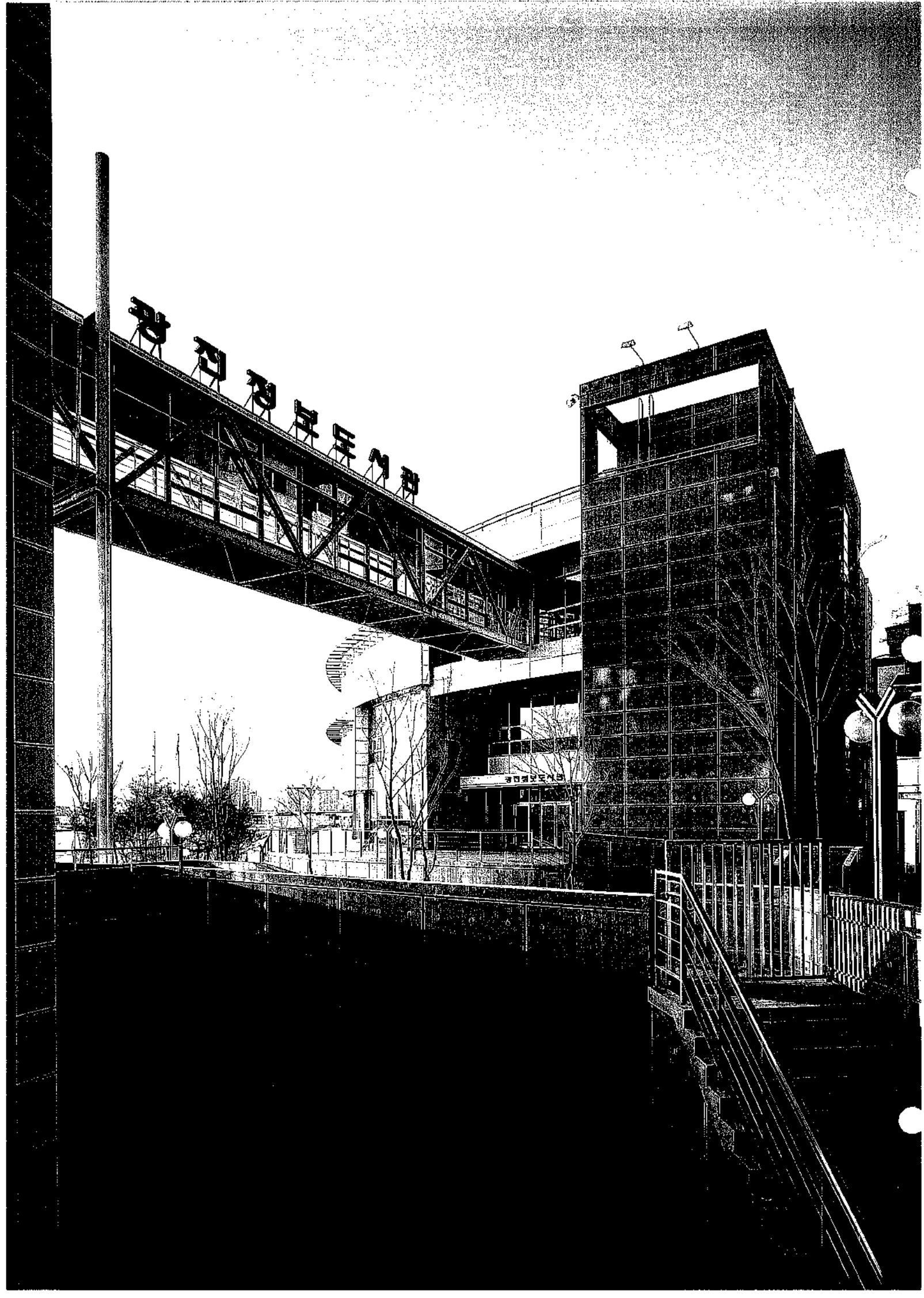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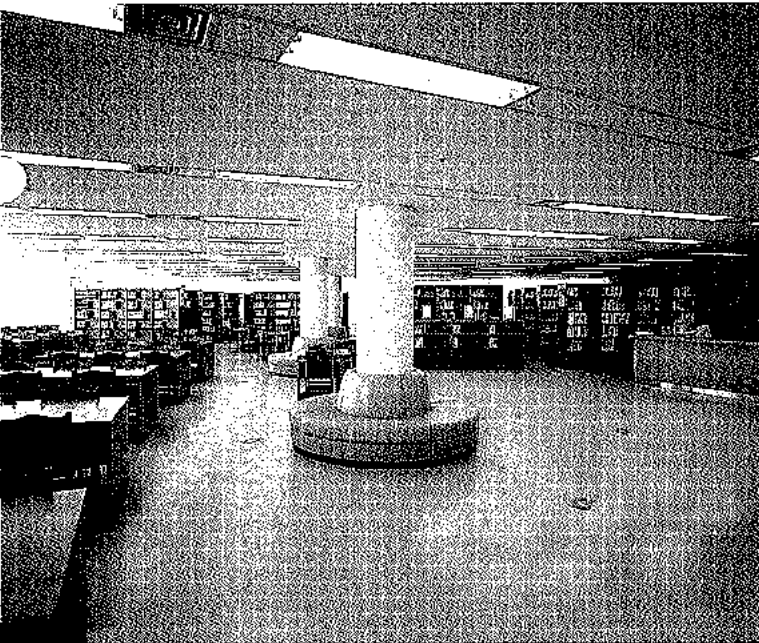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 | | | |
|---------------|----------------|------------|
| 1. 서고사무실 | 16. 문화센터 출입구 | 31. 정기간행물실 |
| 2. 폐기서고 | 17. 지하층 출입구 | 32. 작업실 |
| 3. AHU실 | 18. 로비 | 33. 자료실 |
| 4. 휴게실 | 19. 통신기기실 | 34. 전산실 |
| 5. 열화, 음과 감상실 | 20. 대충, 안내 | 35. VOD코너 |
| 6. 기계실 | 21. 정보검색코너 | 36. AV코너 |
| 7. 전기실 | 22. 휴게공간 | |
| 8. 주방 | 23. 수서사무실, 작업실 | |
| 9. 식당 | 24. 멀티미디어코너 | |
| 10. 주차장 | 25. 어린이 열람실 | |
| 11. 주차장 출입구 | 26. 참고열람실 | |
| 12. 방재센터 | 27. 편의점 | |
| 13. 조명, 음향기기실 | 28. 옥외공연장 | |
| 14. 도서관 출입구 | 29. 회의실 | |
| 15. 도서관 부출입구 | 30. 향토자료실 | |

0 2 10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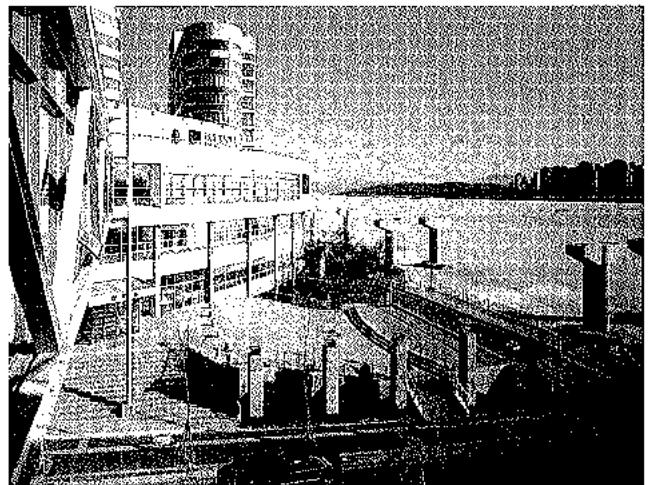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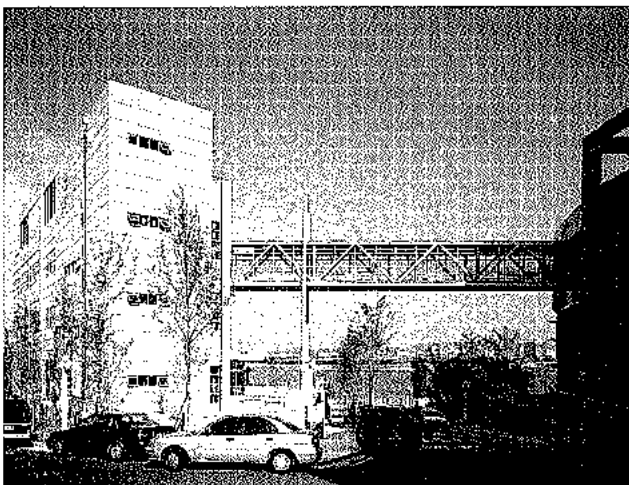


대지 주변에는 오피스텔, 스포츠 센터, 아파트 등 급조된 건물로 가득차 있다. 대지가 갖는 취약점은 삼습침수지역으로 여름 홍수시 수시로 발생하는 침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건물이 강물에 침수될 만큼 강과 가까이 있다는 장점도 되는 것이다.

건물의 배치는 필지를 도서관동과 문화센터동으로 나누어 여덟 팔(八)자 모양으로 배치하고, 두 건물은 3층부분에서 브리지로 연결된다. 이 팔자형의 배치는 2개의 건물이 갖는 한강조망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으며, 건물 내·외부의 시점에 따라 건물의 형의 변화를 풍부하게 해준다. 팔자의 중앙부 공간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옥외공연장과 건물의 형상을 따라가는 넓은 계단 등이 있

다. 각 건물의 현관은 침수의 가능성이 적은 대지의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1층은 필로티화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1998년 어느 날, 대지 앞 한강에서는 교각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다리는 천호대교에서 구리, 양평으로 연결하는 강변도로의 교각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강변도로 계획 정보를 전혀 모른 채 설계를 진행한 설계자의 자괴심이다. 지금 공사 중인 강변북로가 완성되면 대지에서 한강조망은 거의 차단되고 다리 밑 교각사이로 한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구조를 갖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한강변의 북쪽으로 일산사에서 양수리까지, 강남쪽으로 김포에서 미사리까지 물살뜸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망을 구축하게 되었다.(글/이종상) ■



천주교인보성채수도회 전주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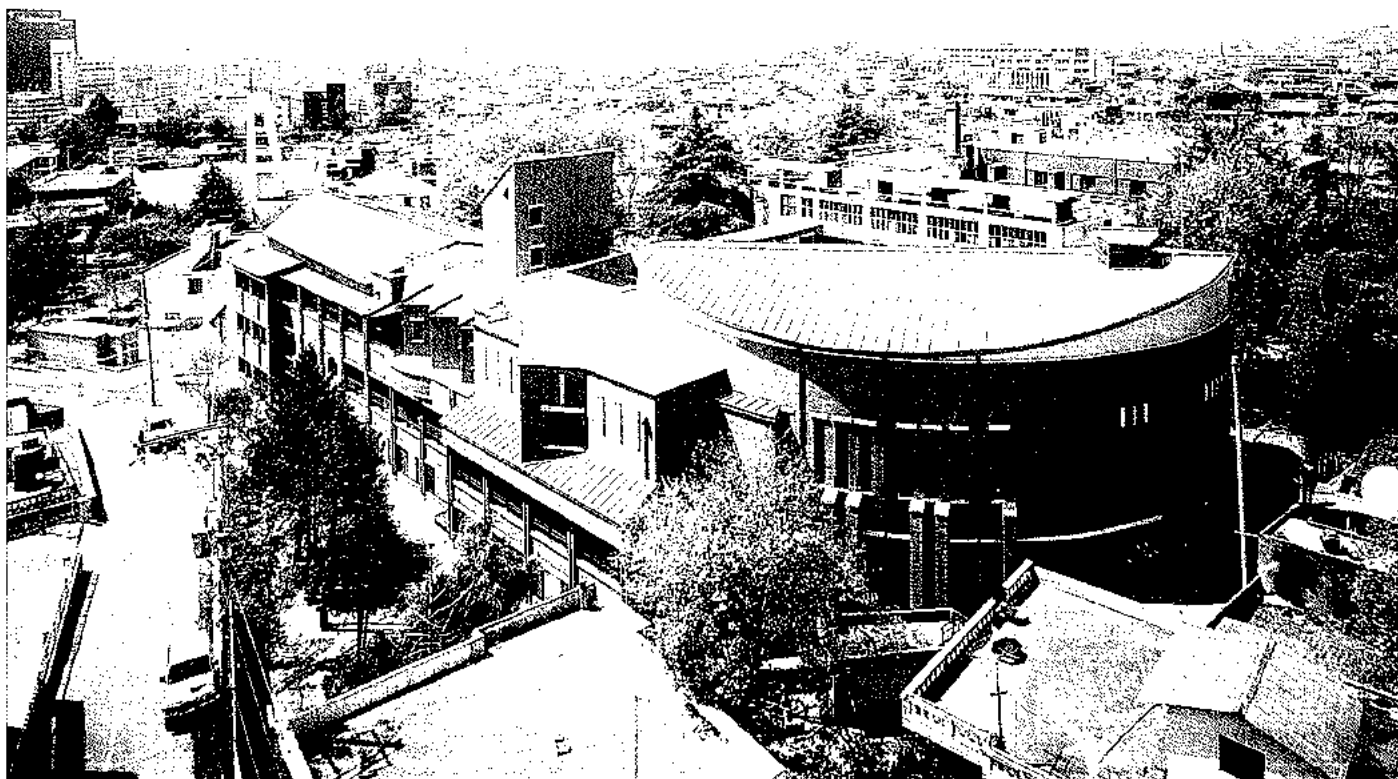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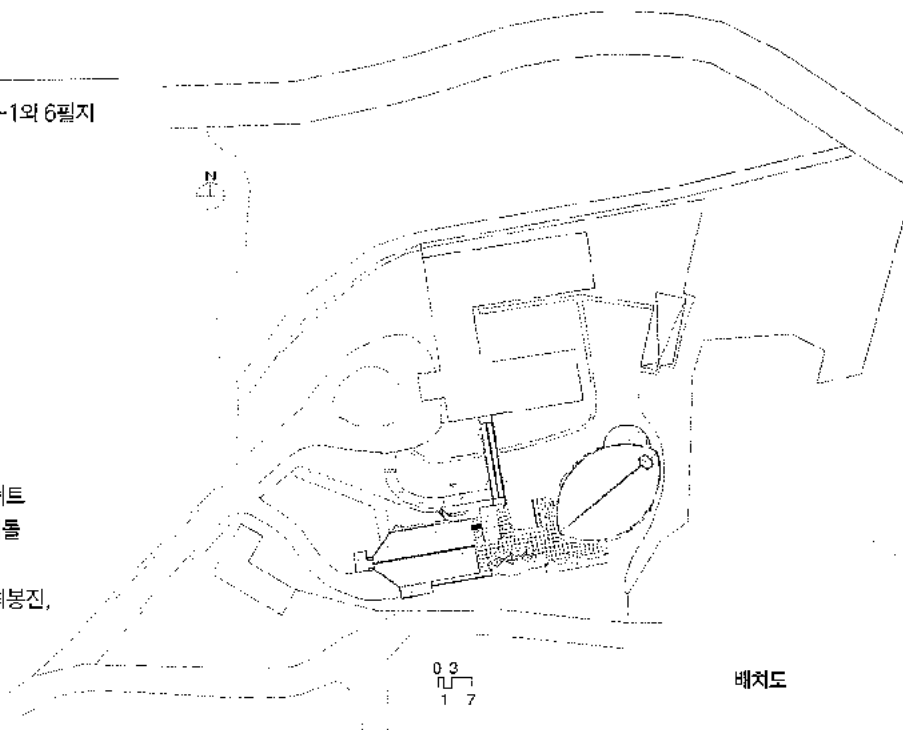
Jeonju Catholic Church

민승렬 · 조환우 /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in Seung-Ryeol & Cho Hwan-Woo

건축개요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39-1외 6필지
지역 · 지구	일반주거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8,097.00㎡
건축면적	1,111.03㎡
연 면 적	2,630.80㎡
건 폐 율	13.09%
용 적 륜	31.39%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 트라이비트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 PVC타일, 비닐계위트 벽 - 뽕칠형페인트, 벽지, 컬러벽돌 천정 - 암면 흡음텍스, 천정지
설계담당	남기광, 배태현, 김진홍, 조진호, 최봉진, 김형규, 조두연, 정영태
사 진	채수욱



1956년 창설한 인보성체 수도회가 전주 본원 부지에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숙원사업에 축하와 찬사를 드립니다.

본 수도회를 창설하신 윤을수 신부님의 뜻과 수도정신을 표현하기란 여간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요소를 절제하여야 하였고故 이희태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기존 건물과의 연결은 선생님의 작품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수녀님들,
항상 가난한 이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수녀님들,
한끼를 굶어 가면서 건축비를 모으신 수녀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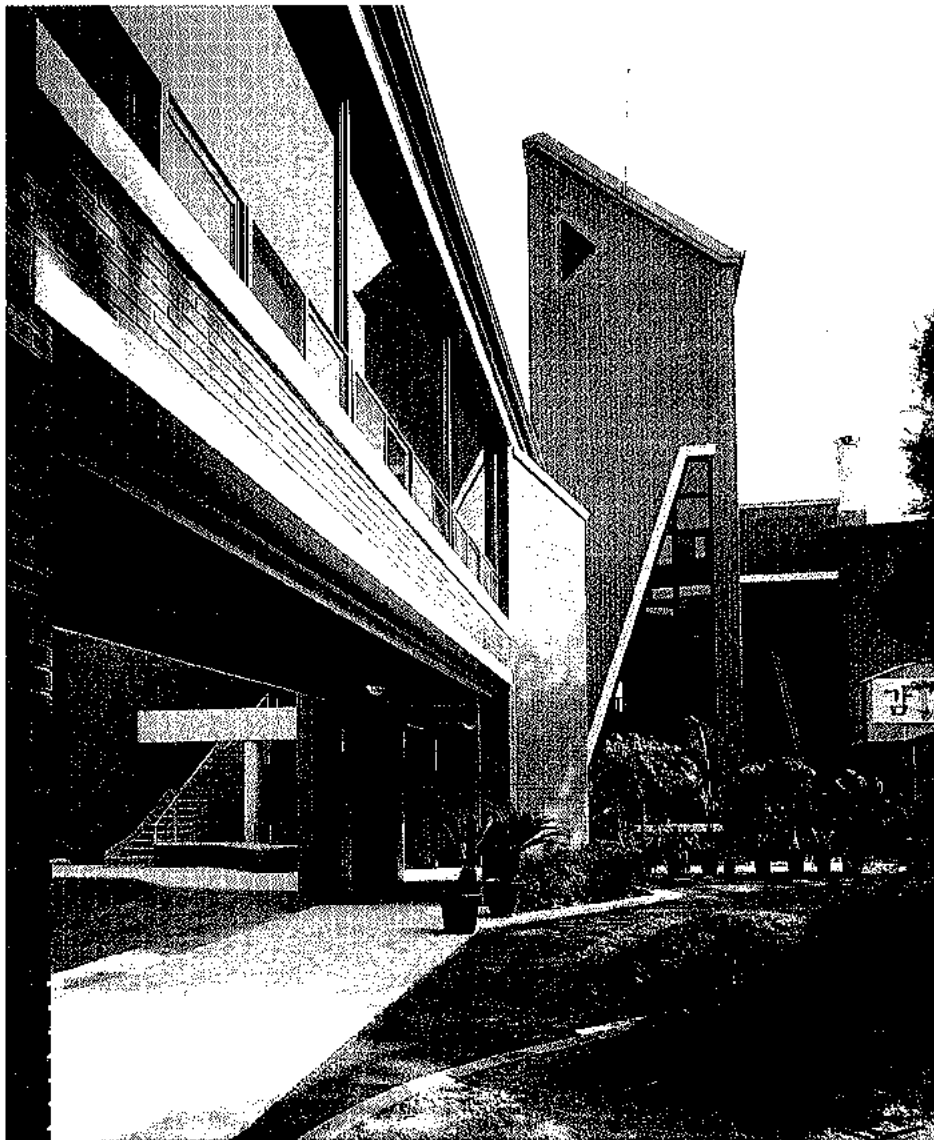
성서에 나온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모티브로 삼아 배와 물고기의 형상을 성당 형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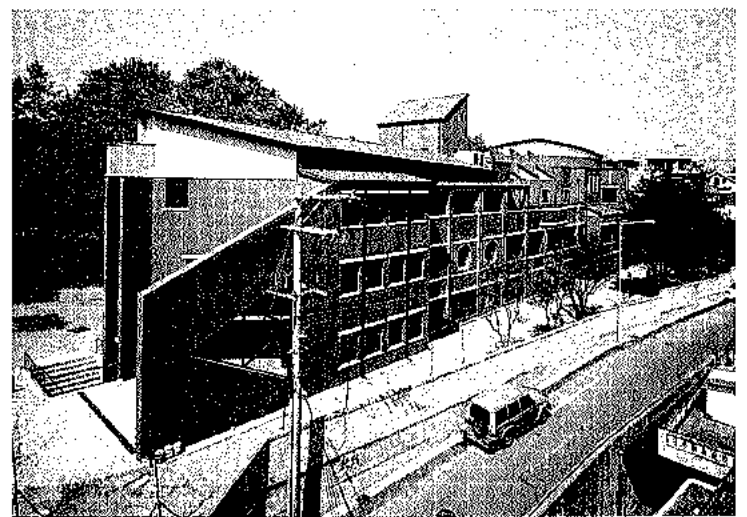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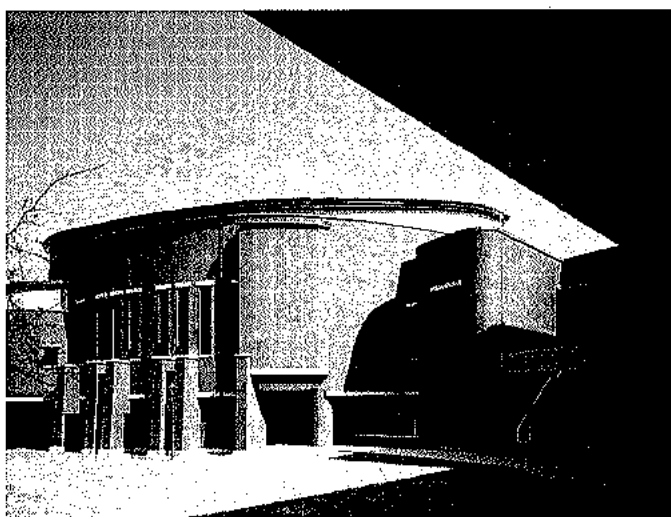
1층에 수녀침실, 사제관 2층 수녀집무실 등 모든 실을 남향 배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감소함에 몸이 배인 수녀님들의 정신건강에 안식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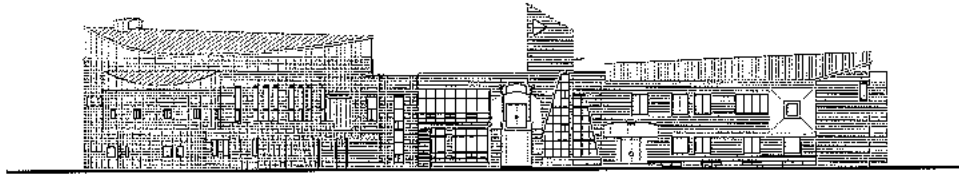
주변의 아름다운 고목들 및 구릉들과 잘 어우러진 원형 성당, 강당, 고통과 어려움에서 잠시나마 탈피하실 수 있는 편안한 침실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는 성당과 경당의 분위기 창출은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디테일과 분위기 연출에 온갖 정열을 아끼지 않았던 사공자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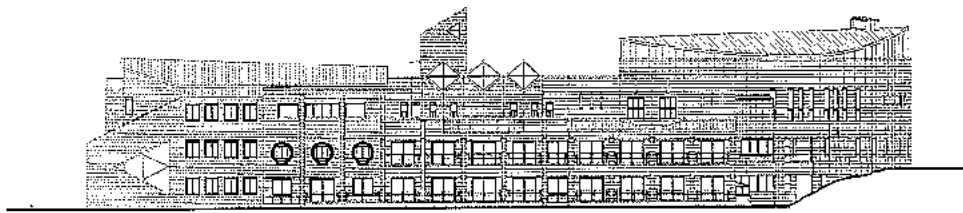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든 건축을 잘 마무리하신 수녀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이 모든 영광을 모두 모두 하느님께 돌려 드린 신다고 합니다.(글/민승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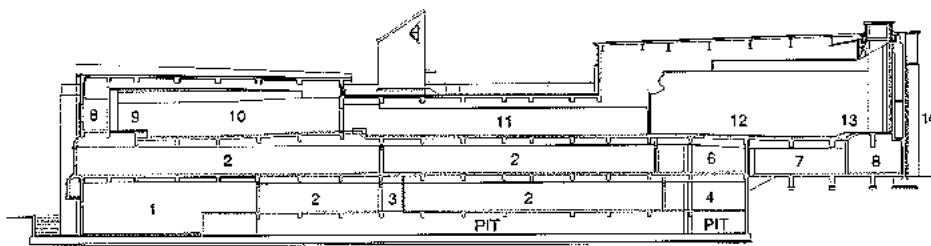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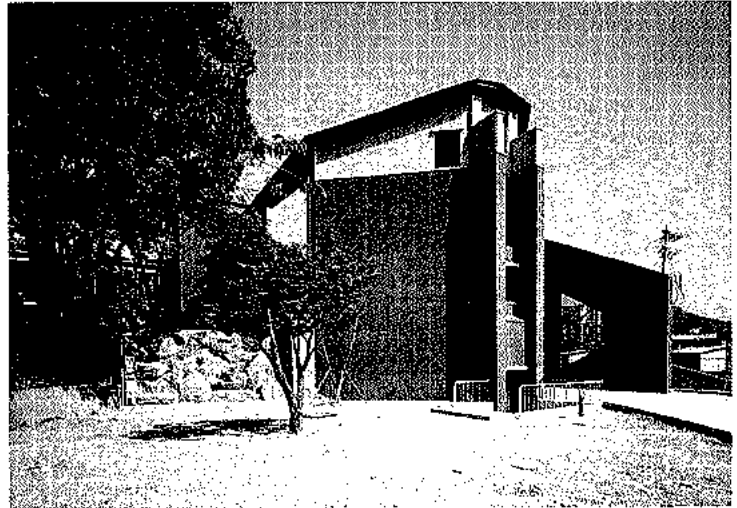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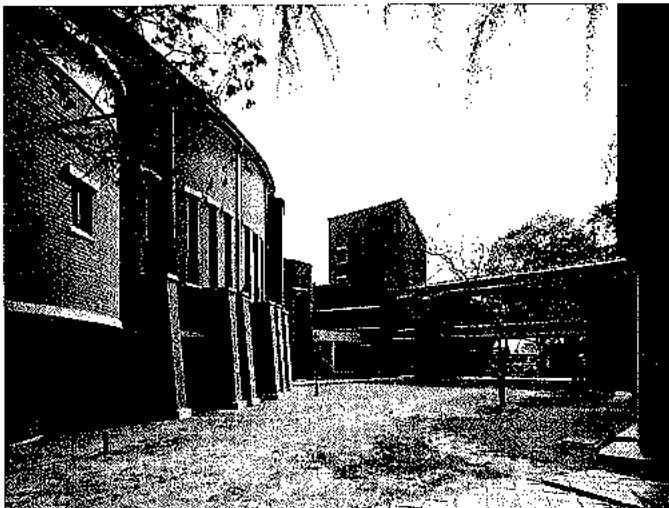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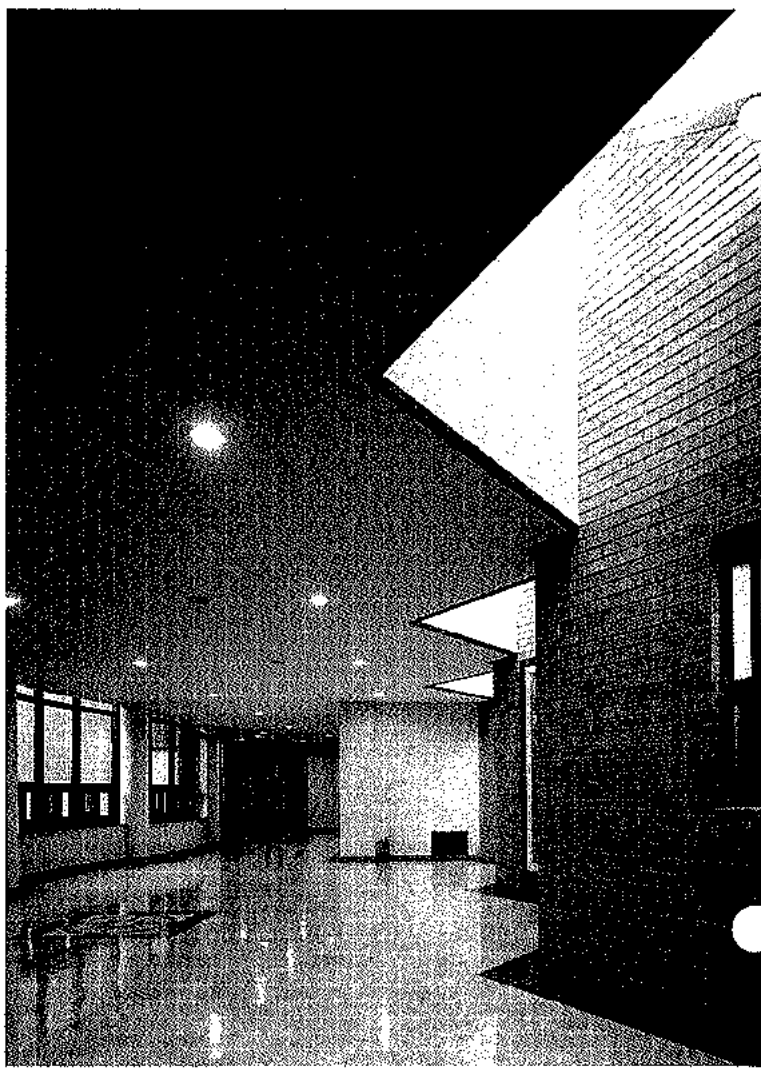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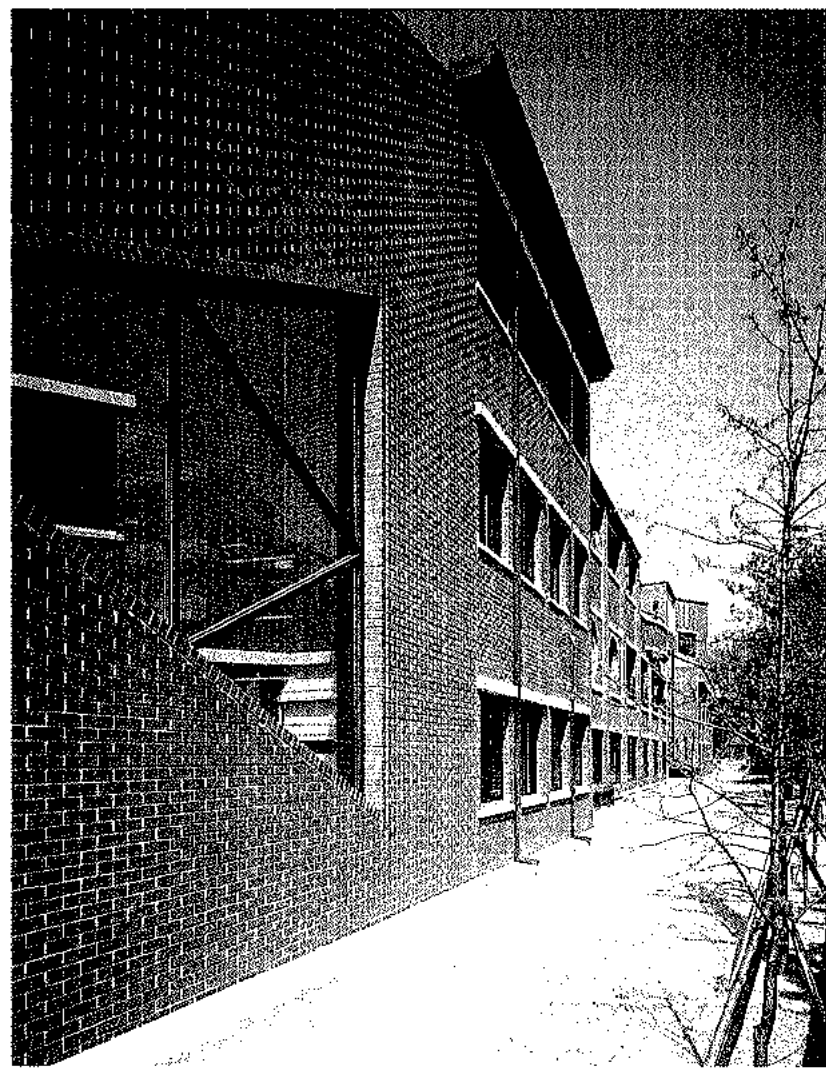
0 1 3 7

1. 기계실
2. 복도
3. 원관
4. 거실
5. PIT
6. 회의실
7. 교리실
8. 공조실
9. 무대
10. 강당
11. 홀
12. 대성당
13. 제대
14.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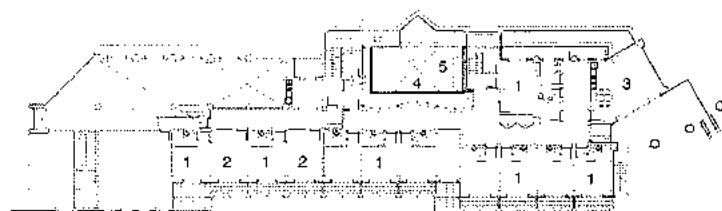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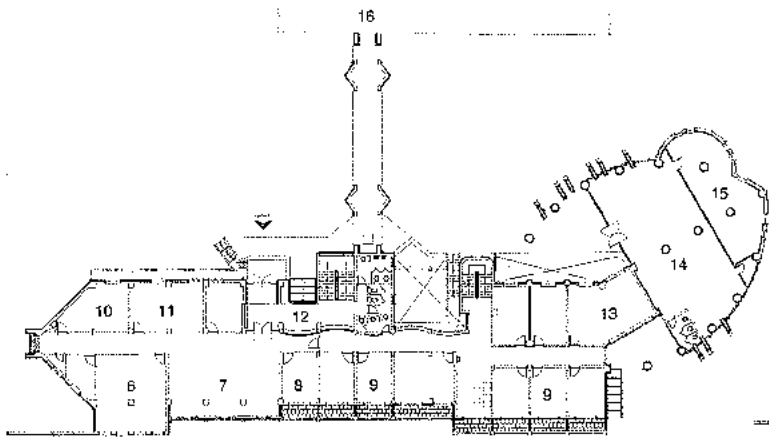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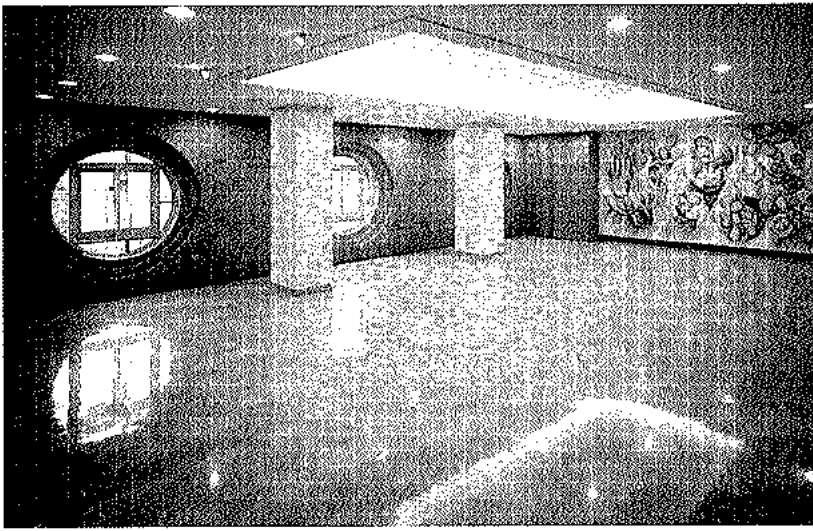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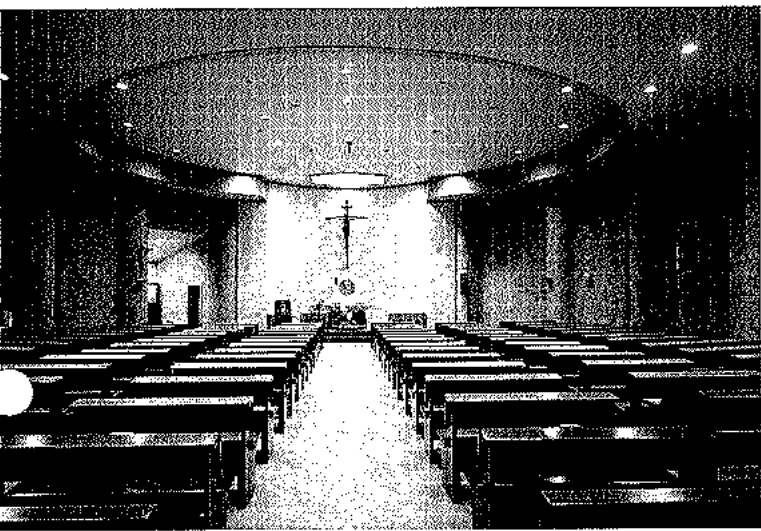


- | | | | | |
|-----------|---------|----------|---------|-----------|
| 1. 침실 | 2. 사제거실 | 3. 거실 | 4. 선관 | 5. 화장 |
| 6. 경리실 | 7. 로비 | 8. 응접실 | 9. 사무실 | 10. 역사자료실 |
| 11. 자료연구실 | 12. 홀 | 13. 회의실 | 14. 교리실 | 15. 공조실 |
| 16. 기증거실 | 17. 강당 | 18. 휴게공간 | 19. 소성당 | 20. 성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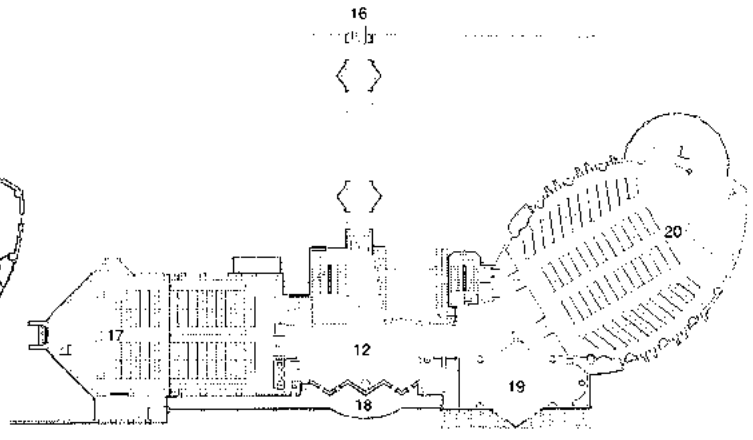


01 3 7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키콕스 벤처센터

KICOX Venture Center

김병년 · 현태현/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Byeong-Nyeon & Hyeon Tae-Heon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공항고도지구
대지면적	7,396㎡ (2,237.29평)
건축면적	2,095.11㎡ (633.77평)
연 면 적	27,100.88㎡ (8,198.02평)
건 폐 율	28.33%
용 적 륜	239.38%
용 도	벤처기업(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상 15층, 지하 3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230대 (옥외 57대, 옥내 173대)
외부마감	T30회강석마감 + T24저반사 컬러복층유리
사 진	채수욱

■ 벤처강국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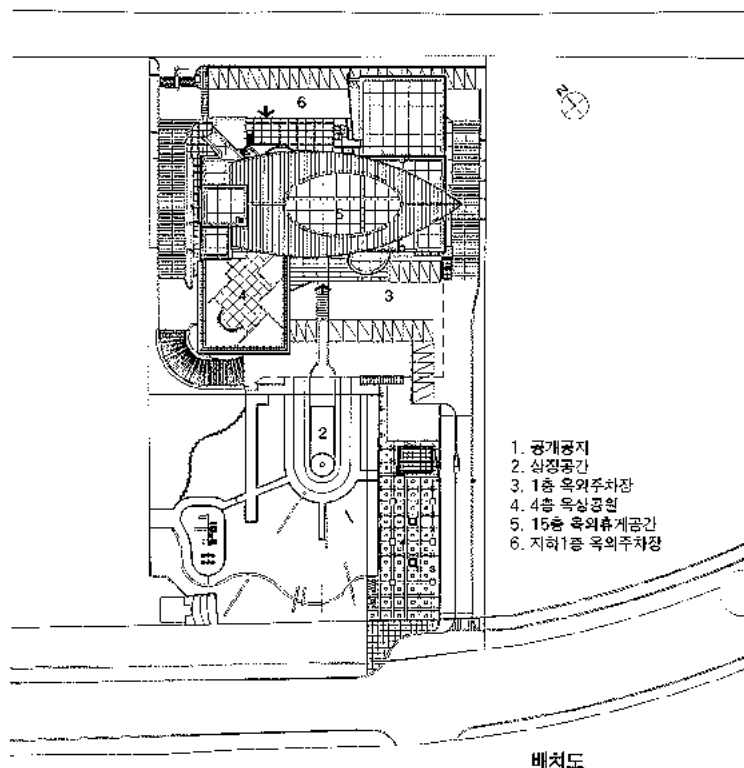
21C 벤처기업의 요람

한국 벤처인의 꿈을 싣고 출항하는 배
우리나라 기업성장의 요람이자, 고도성
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기업이 새로이 펼쳐
지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21C형 신개념의 벤처빌딩」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KICOX 벤처
센터」가 함께 한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온
구로단지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KICOX 벤처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재도약의 발전 가능
성을 열어가게 되었다.

「산업자원부 정책지원사업」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여 왔으며, 「서울시 지정 벤처집적 시설
1호」로서 미래형 벤처기업(43개사), 지원시설(창업보
육센터, 신기술보육센터, 특허사무소 등), 관련시설(금
융기관, 인터넷 카페 등)이 위치하고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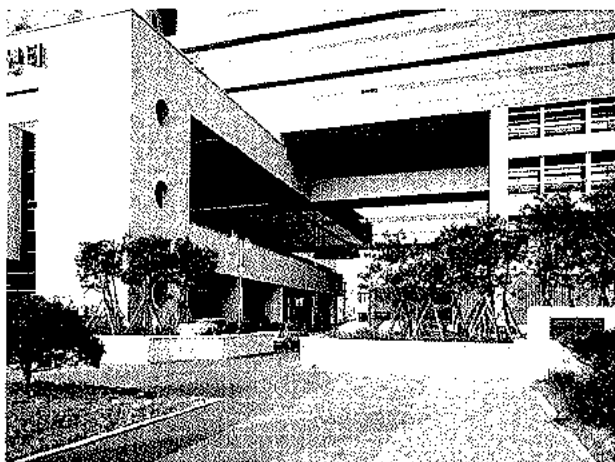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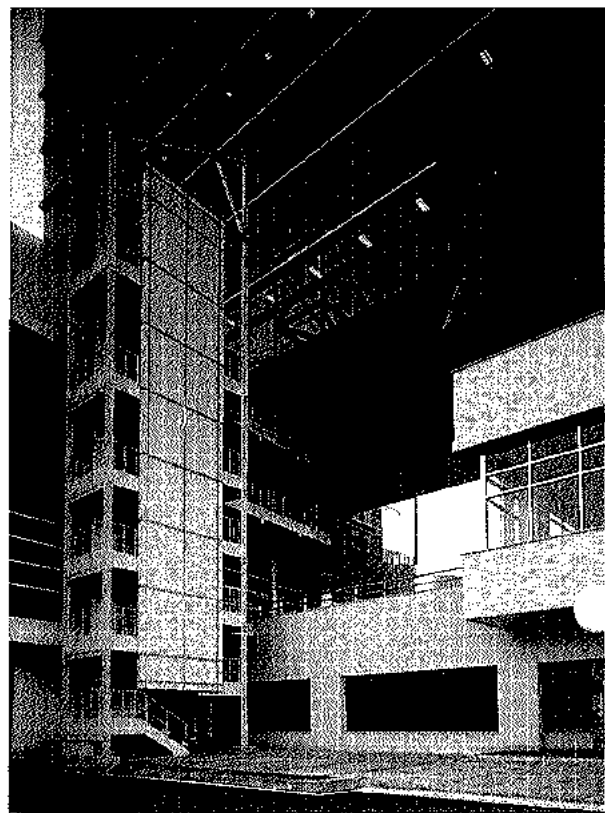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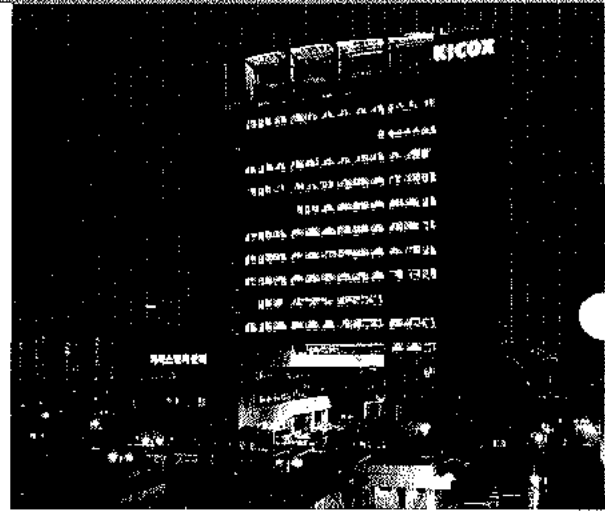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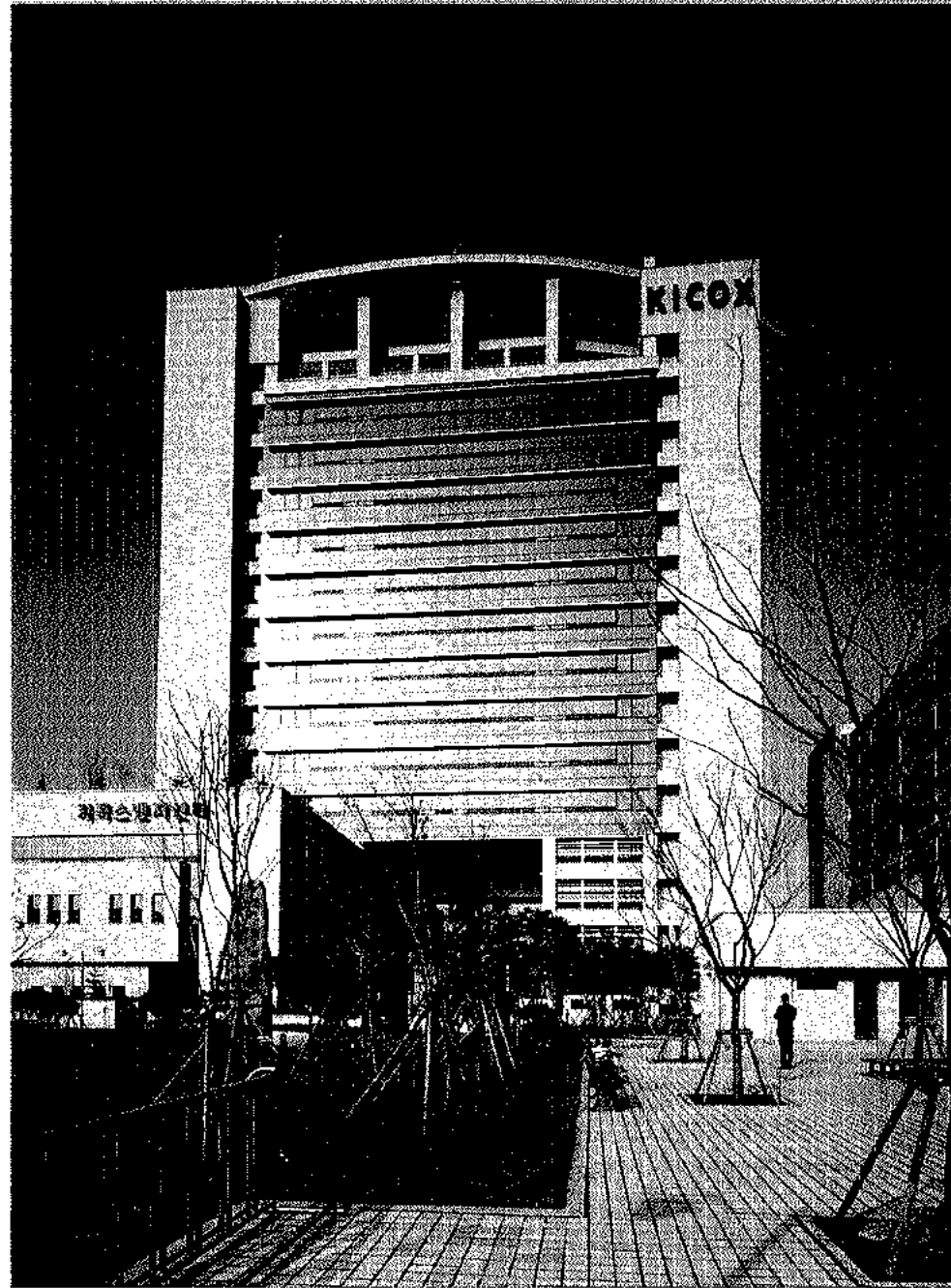
아름고 침체되었던 구로단지에 새로운
이미지를 갖춘 KICOX벤처 센터는 「디지털 산업단지의
Landmark」로 또하나의 다운타운을 형성한다.

전면도로에 접한 넓은 공개공지와 세계
로 뻗어가는 벤처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상징공간은
주변의 보행자를 자연스럽게 대자내로 유입하고, 건물
내·외부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는 「자연친화적인 건
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출입은 권위적인 케노피개념을 탈피
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두 개의 기능(사무
전용, 대인업무)인 양단코아를 두어 개방감을 부각시켰
으며, 전면도로에서 「점진적인 상승감」을 승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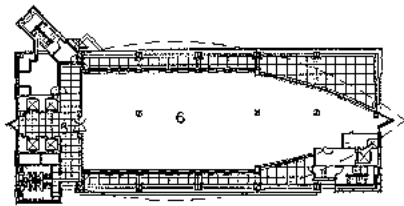
건물은 생명의 모태인 자궁을 근원으로
하여 전통의 창호문살과 곡옥 및 풍요의 고깔을 형상화
하였으며, 반투명의 유라블락을 통하여 「벤처센터 1호
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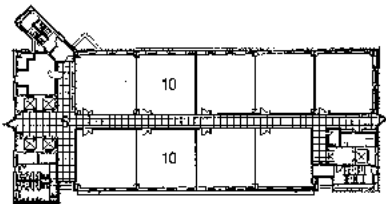


외관은 항해하는 배를 형상화한 유선형 지붕의 옥상휴게공간을 두었으며, 등대의 개념을 코아에 도입하여, 모든 홀에서 외부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적으로는 벤처인의 24시간 근무체제를 고려한 One-Roof Service System(한지붕 서비스)으로 「벤처인의 포부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KICOX벤처센터는 자체의 성장 단계를 거쳐, 단지 주변의 자생시설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수준의 벤처센터에서 나아가 「한국 디지털 산업 단지의 근원」이 될 것이며, 더불어 강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모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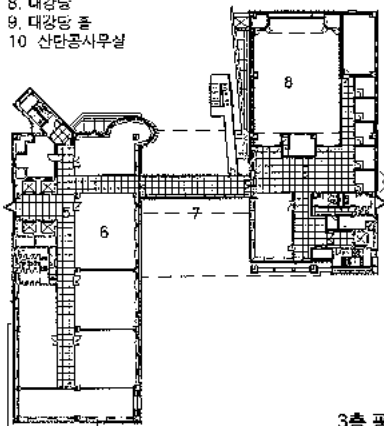


1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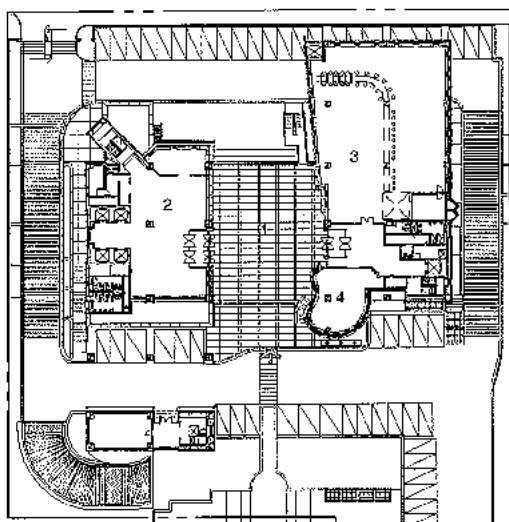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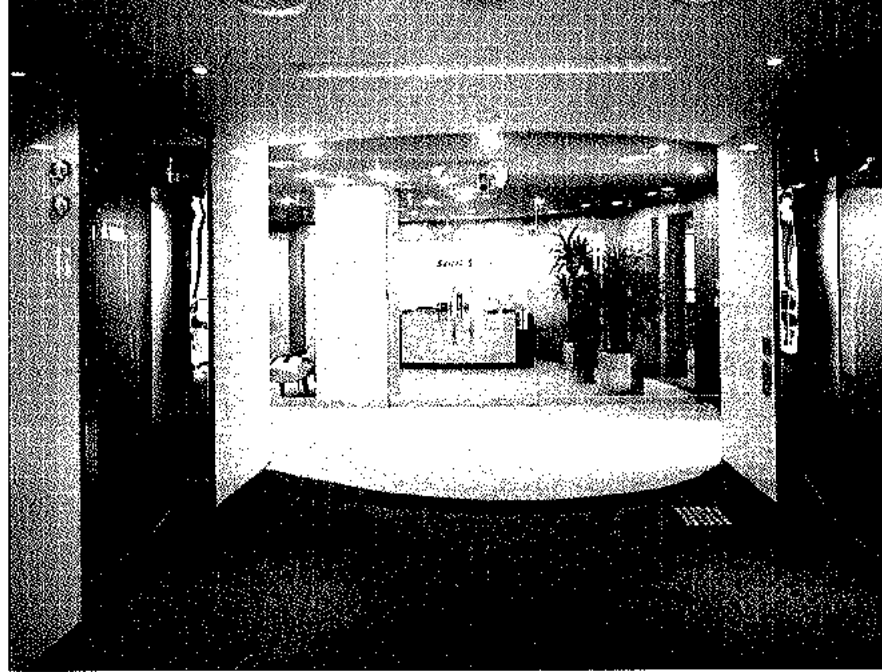
1. 옥외로비
2. 로비
3. 금융시설
4. 인터넷카페
5. ELEV. 홀
6. 벤처기업 사무실
7. 연결 복도
8. 대강당
9. 대강당 홀
10. 산단공사무실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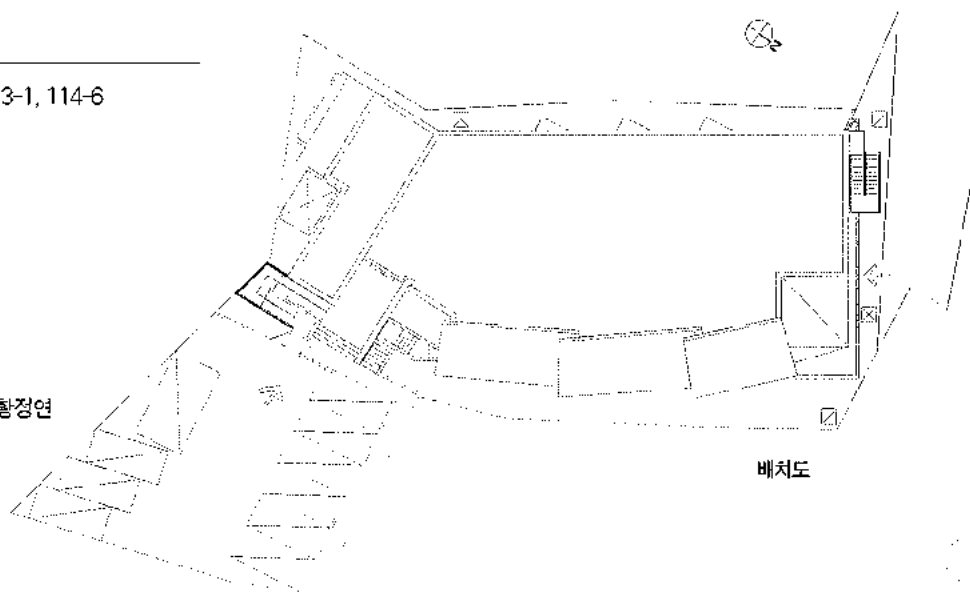
예담교회

Yedam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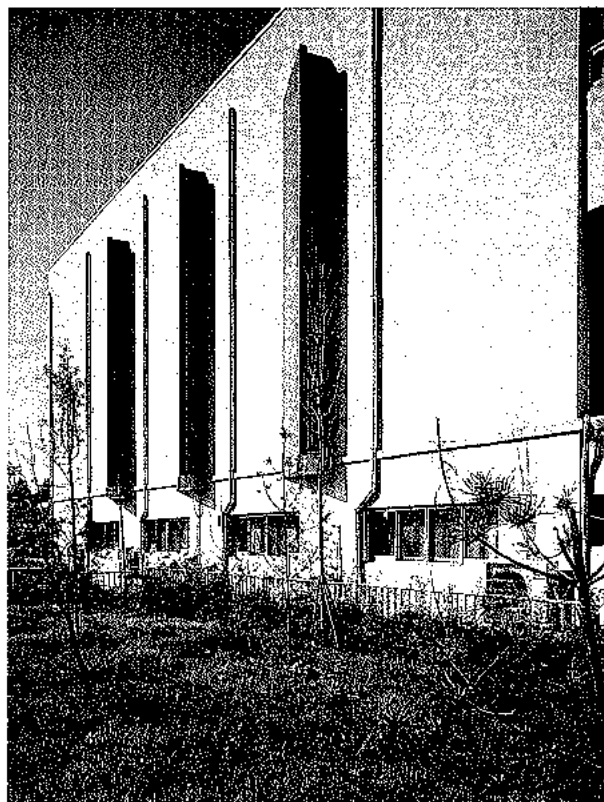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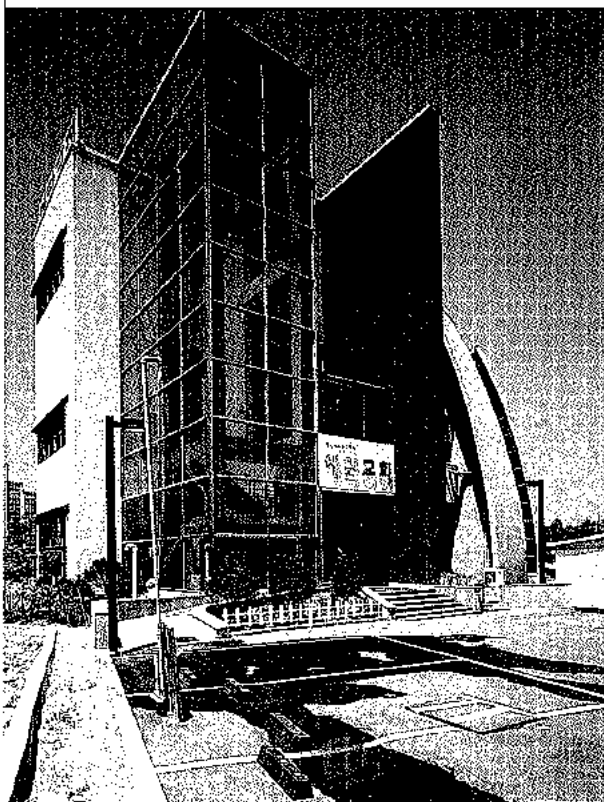
송호섭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인
Designed by Song Ho-Sub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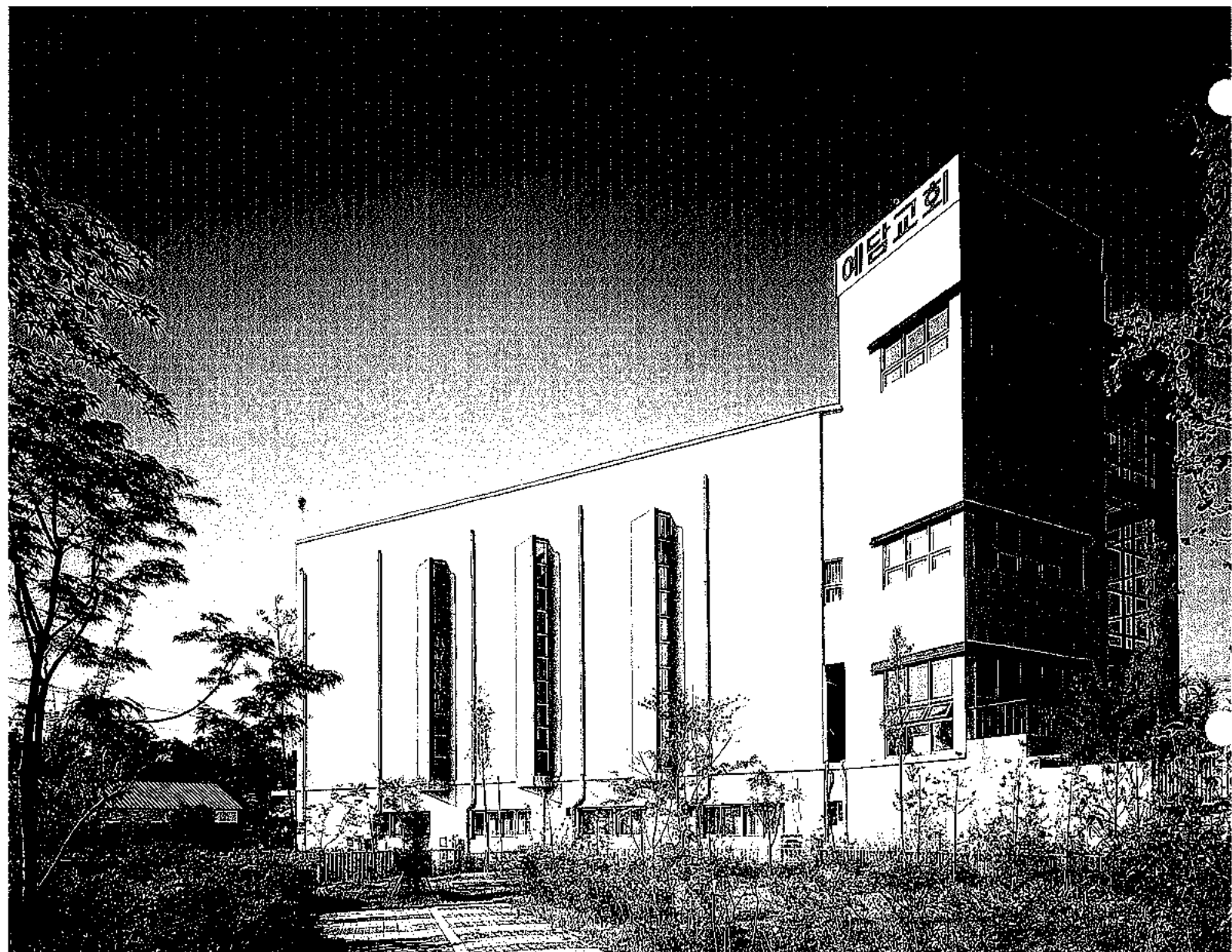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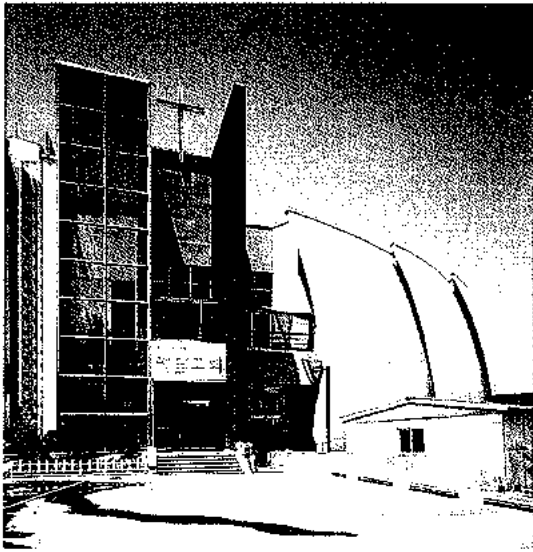
위 치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13-1, 114-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168.00㎡
건축면적	554.12㎡
연 면 적	994.75㎡
건 폐 율	47.44%
용 적 륜	62.19%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담당	권경준, 김정하, 박병일, 황정연
협력설계	김병엽(장안건축)
사 진	채수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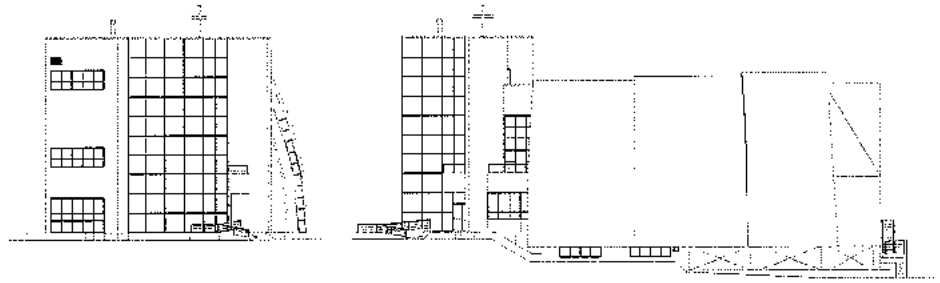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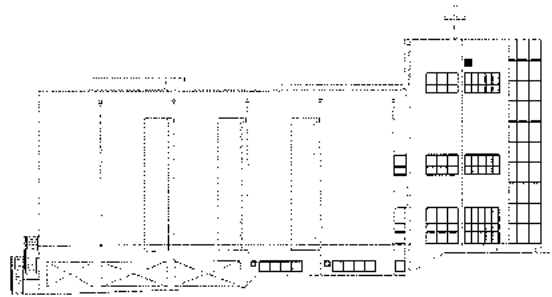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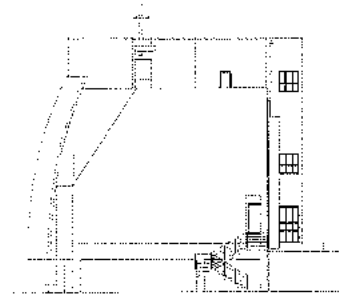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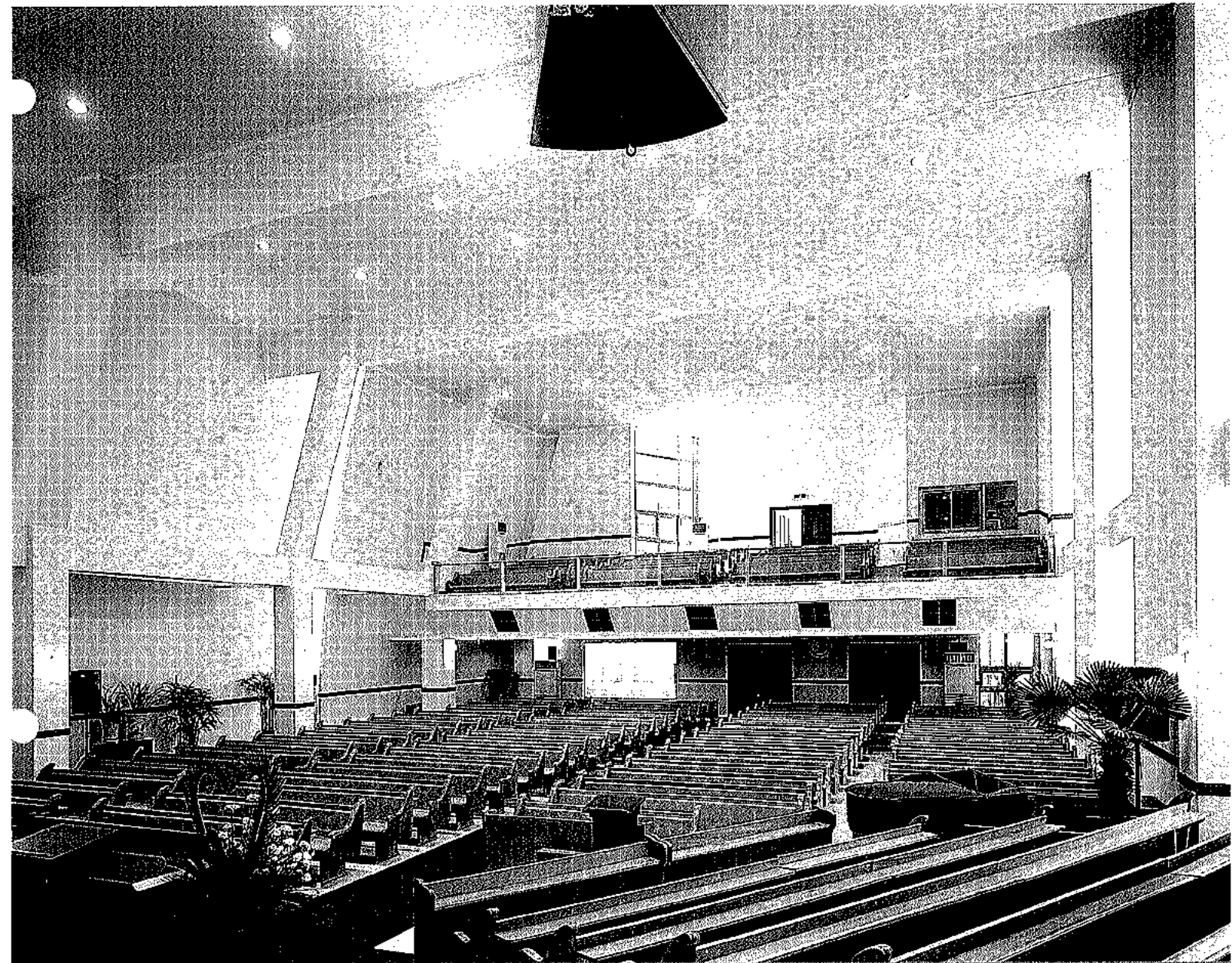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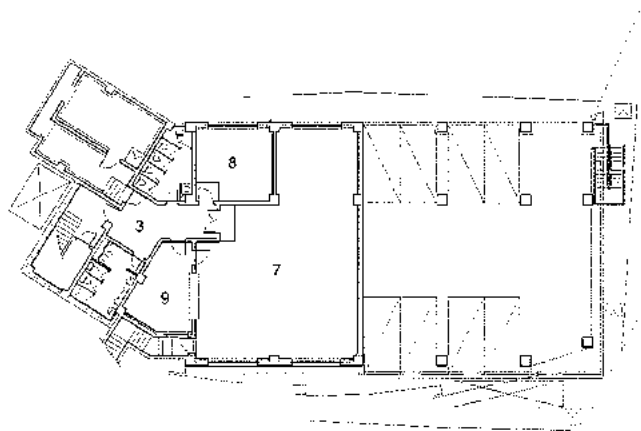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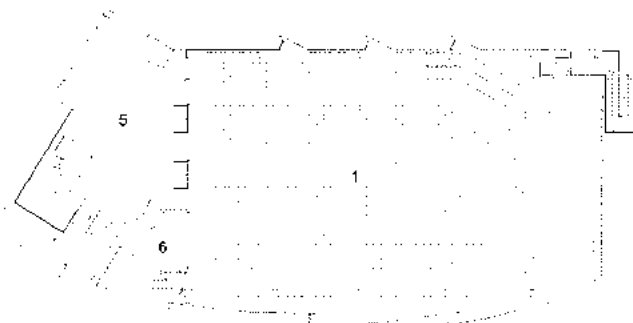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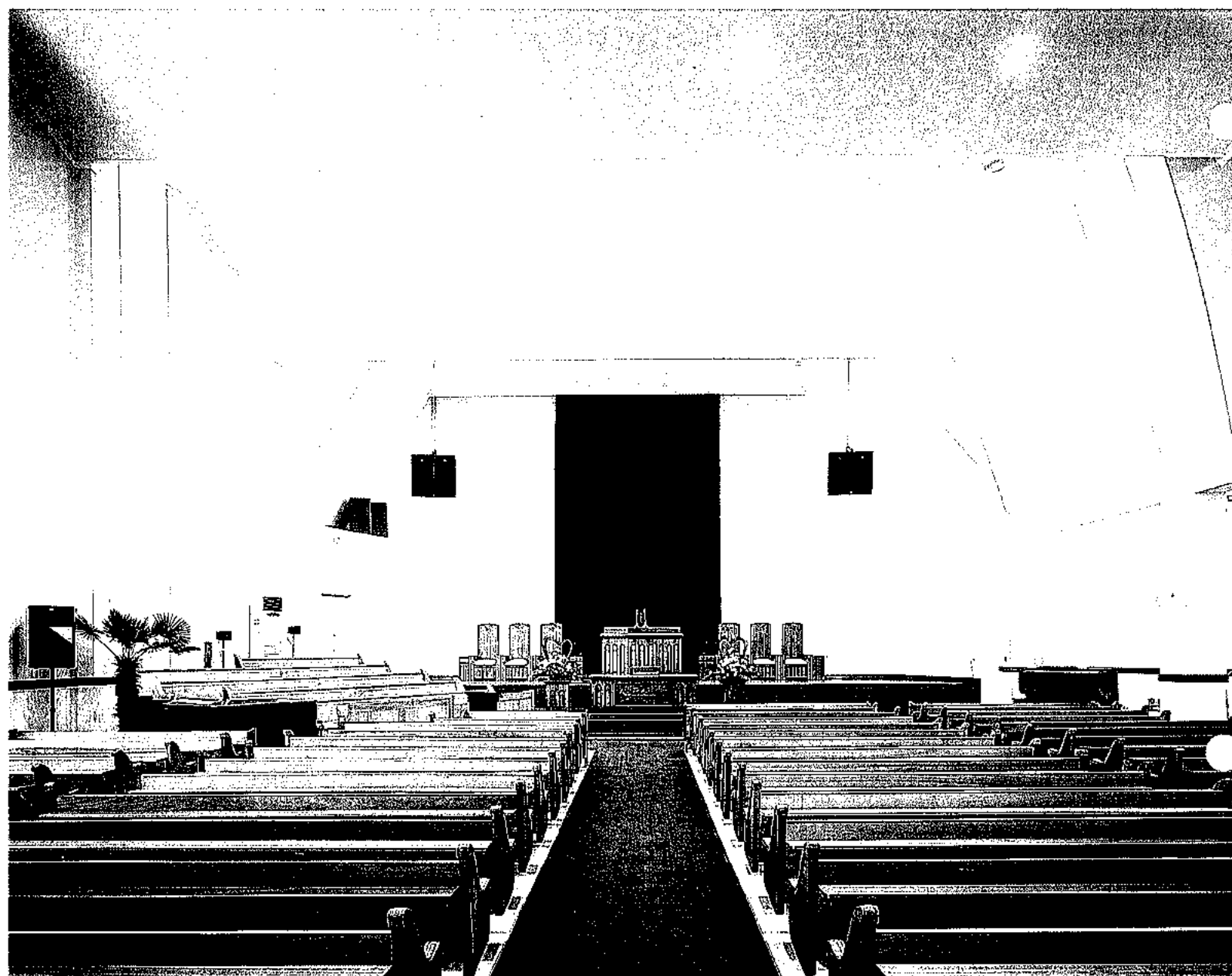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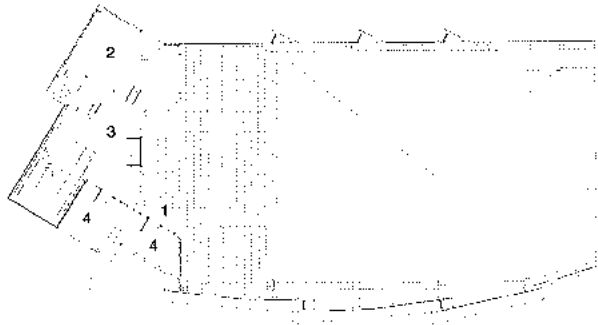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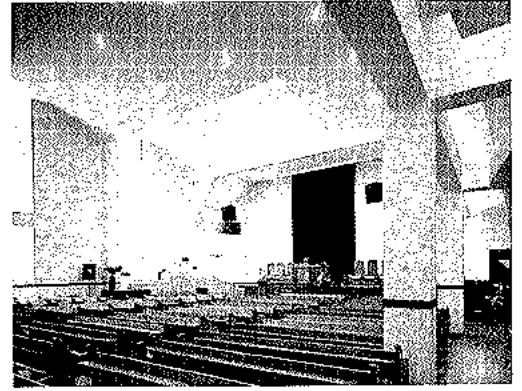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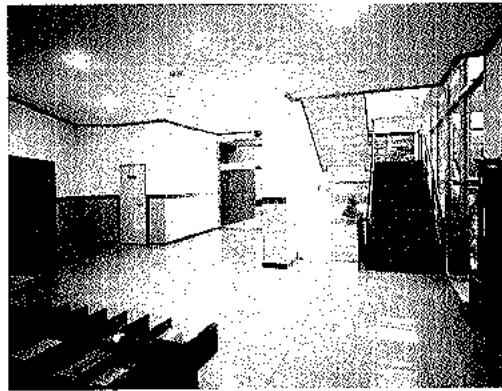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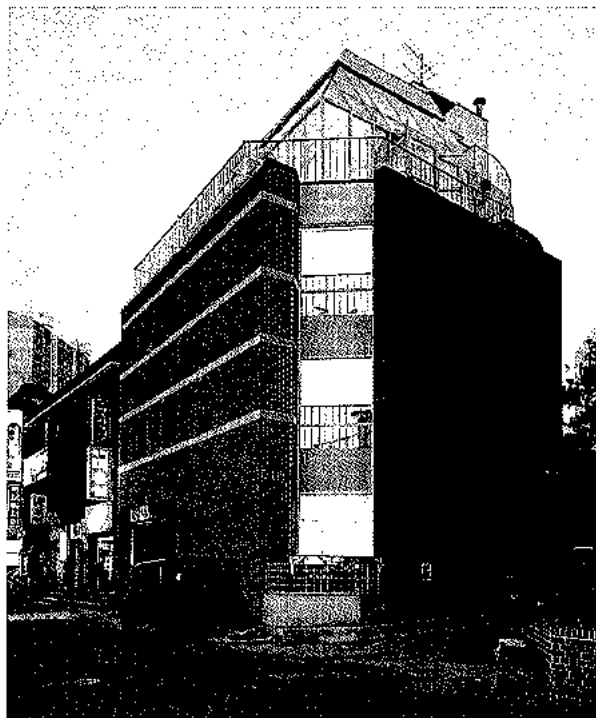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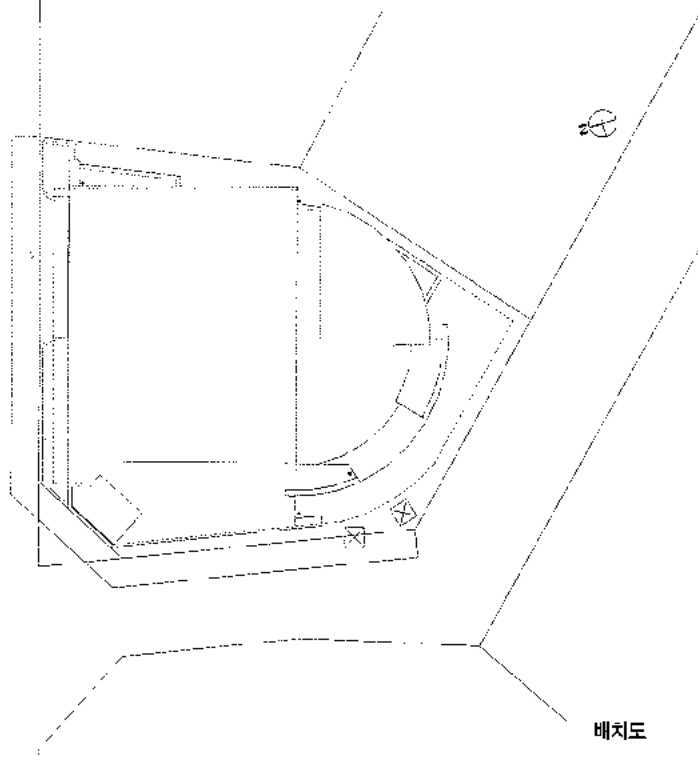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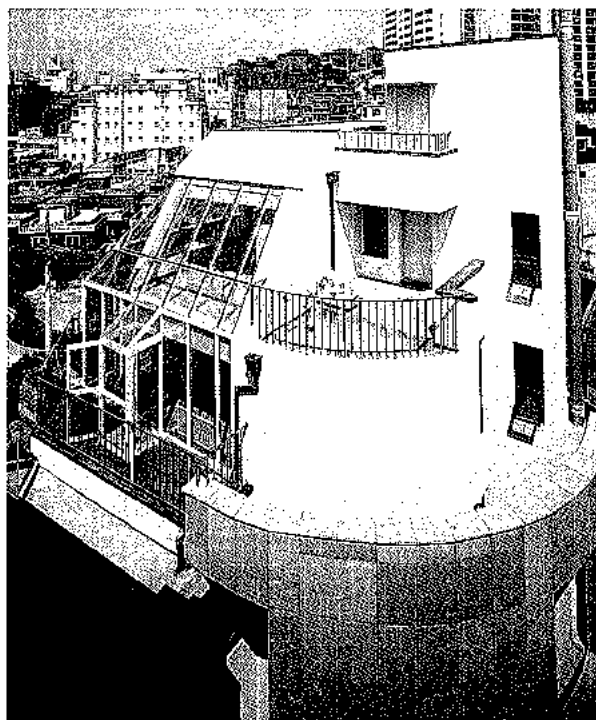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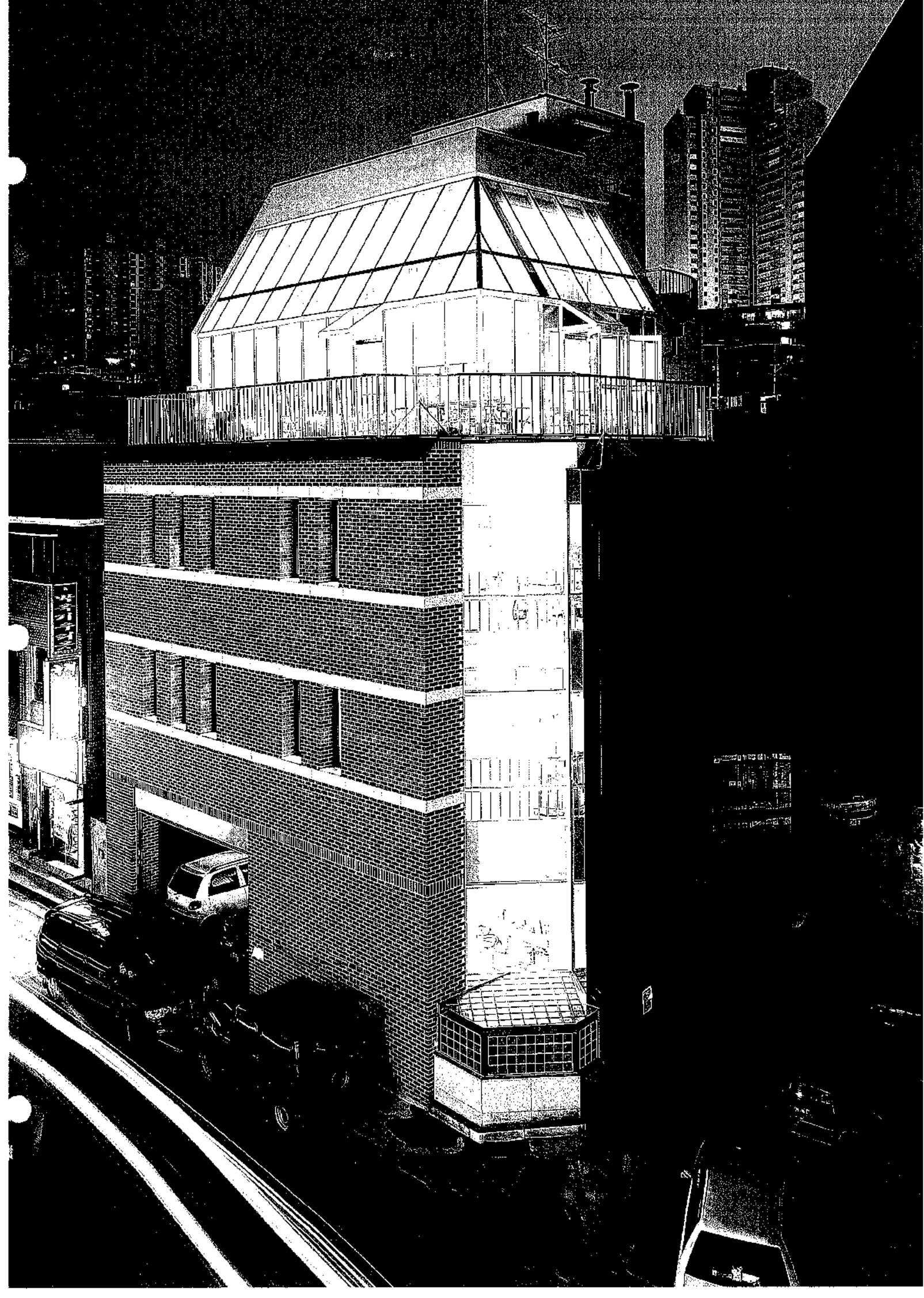
- 1 예배석
- 2 목사실
- 3 홀
- 4 발코니
- 5 로비
- 6 유아실
- 7 식당 및 천교실
- 8 사무실
- 9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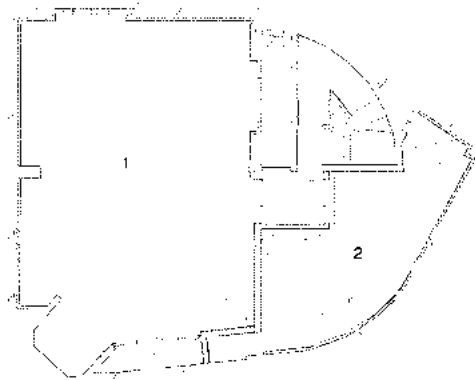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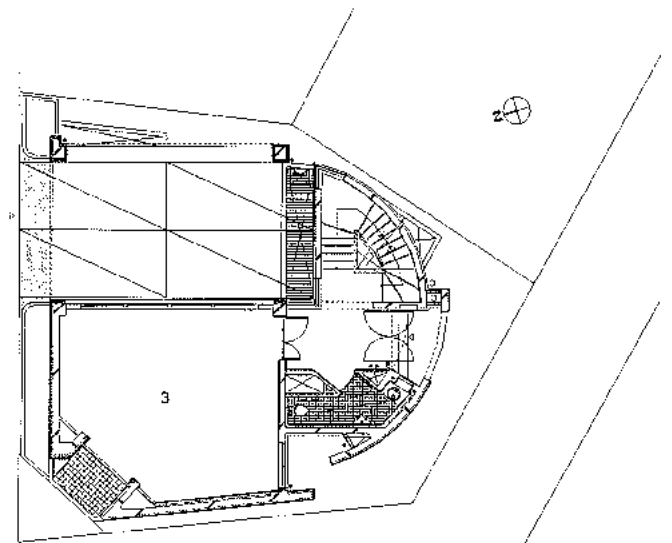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22-6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97.60㎡
건축면적	118.44㎡
연 면 적	578.97㎡
건 폐 율	59.94%
용 적 륜	215.82%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4층은 중2층압)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설계담당	김정하, 박병일, 정순명
사 진	채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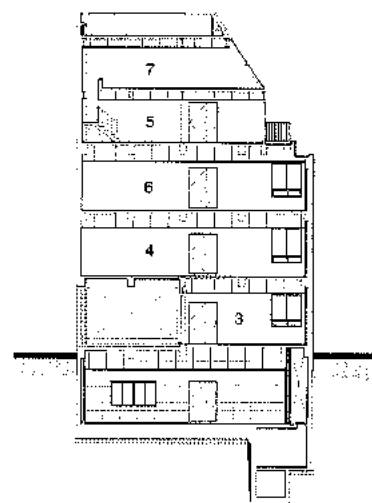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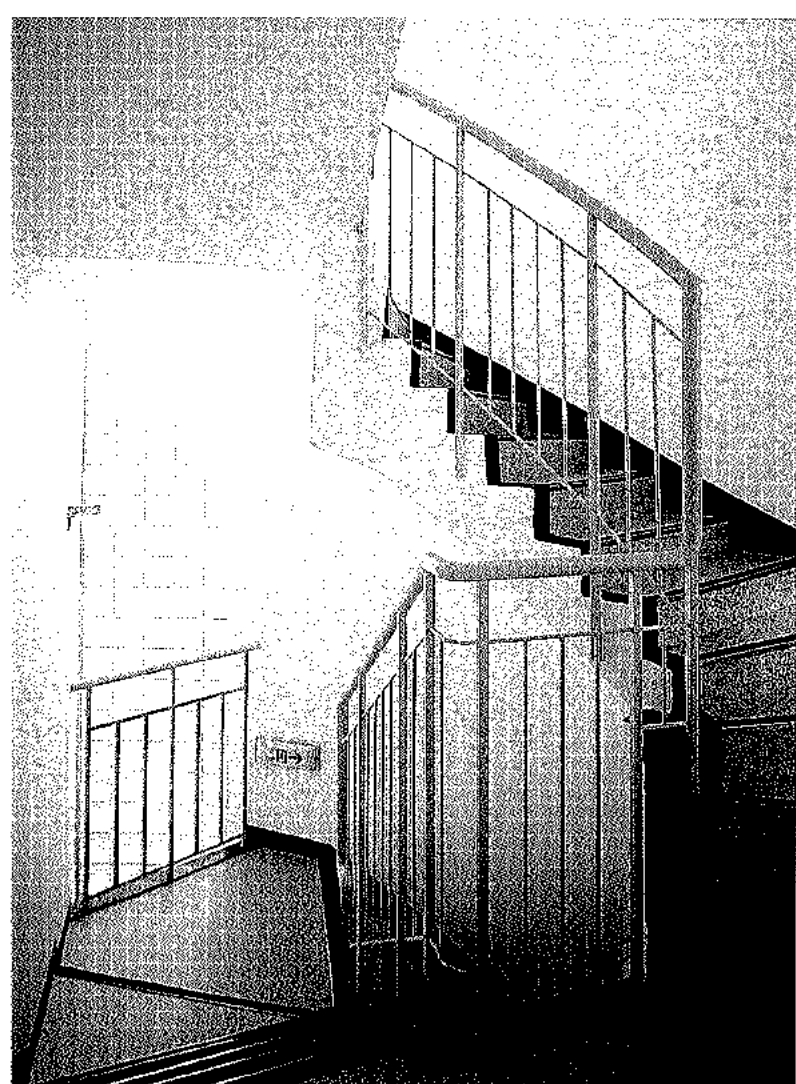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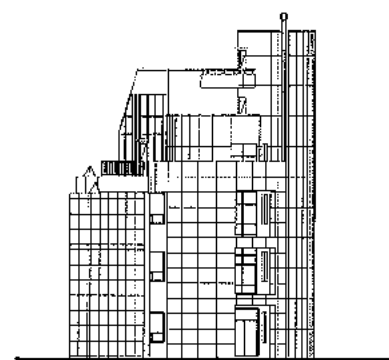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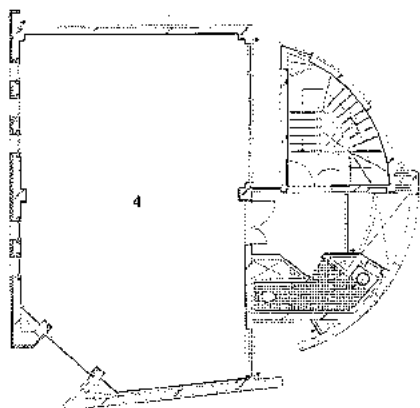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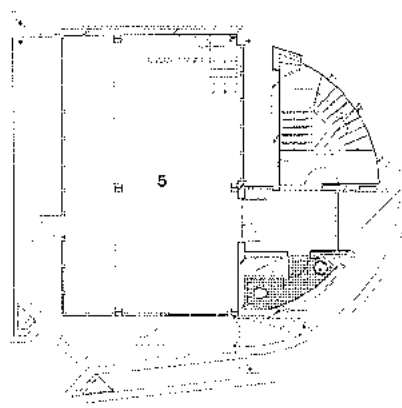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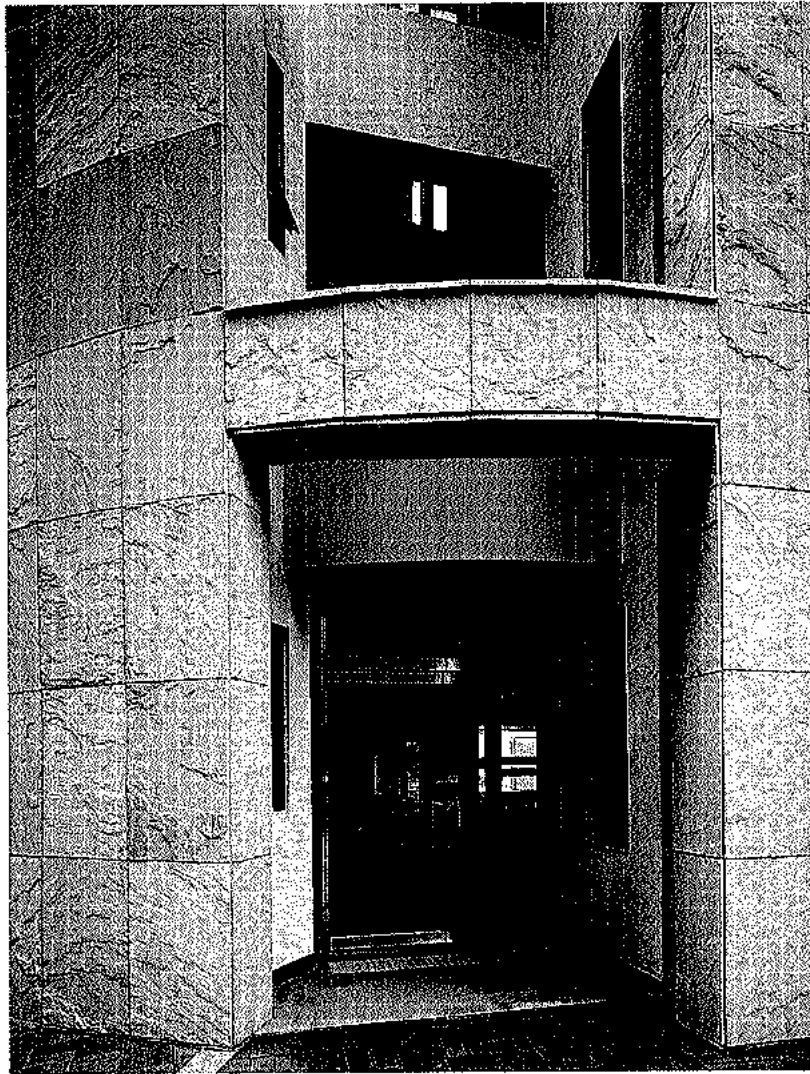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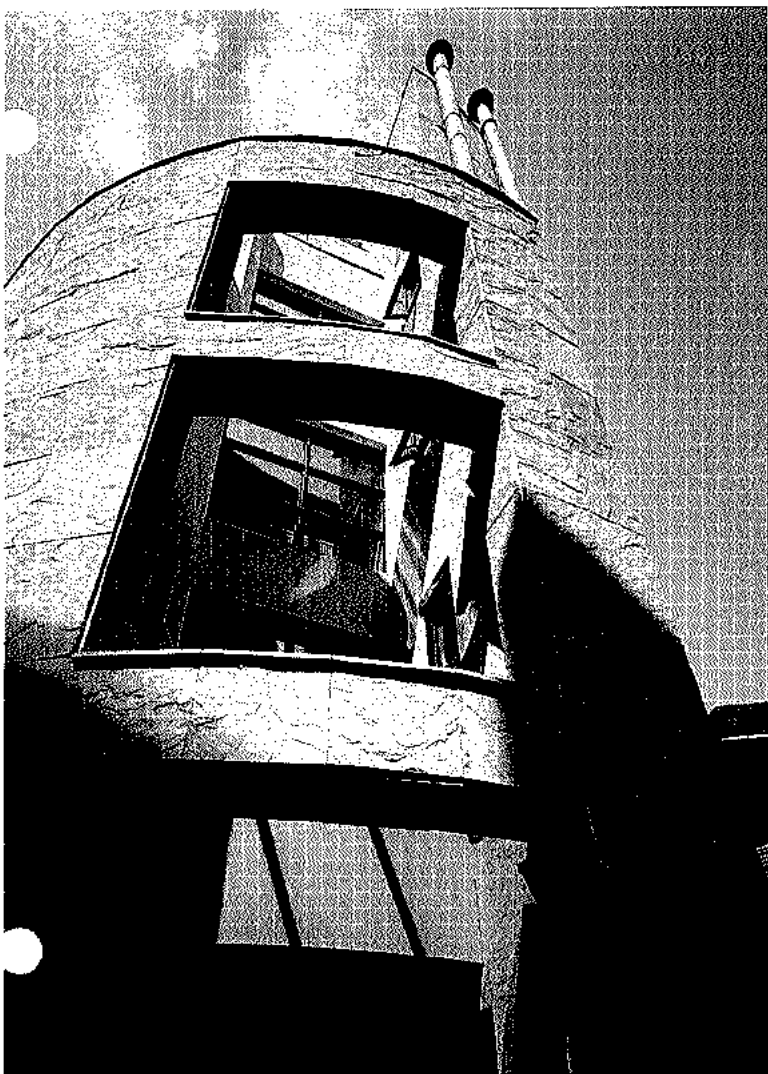
1. 기도실
2. 기계실
3. 사무실
4. 교육실
5. 교사실
6. 독서실
7. 방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호유재(蝴蝶齋)

The Butterfly

김호만 / 이로재김호만건축연구소
Designed by Kim Hyo-Man

“속세의 武陵桃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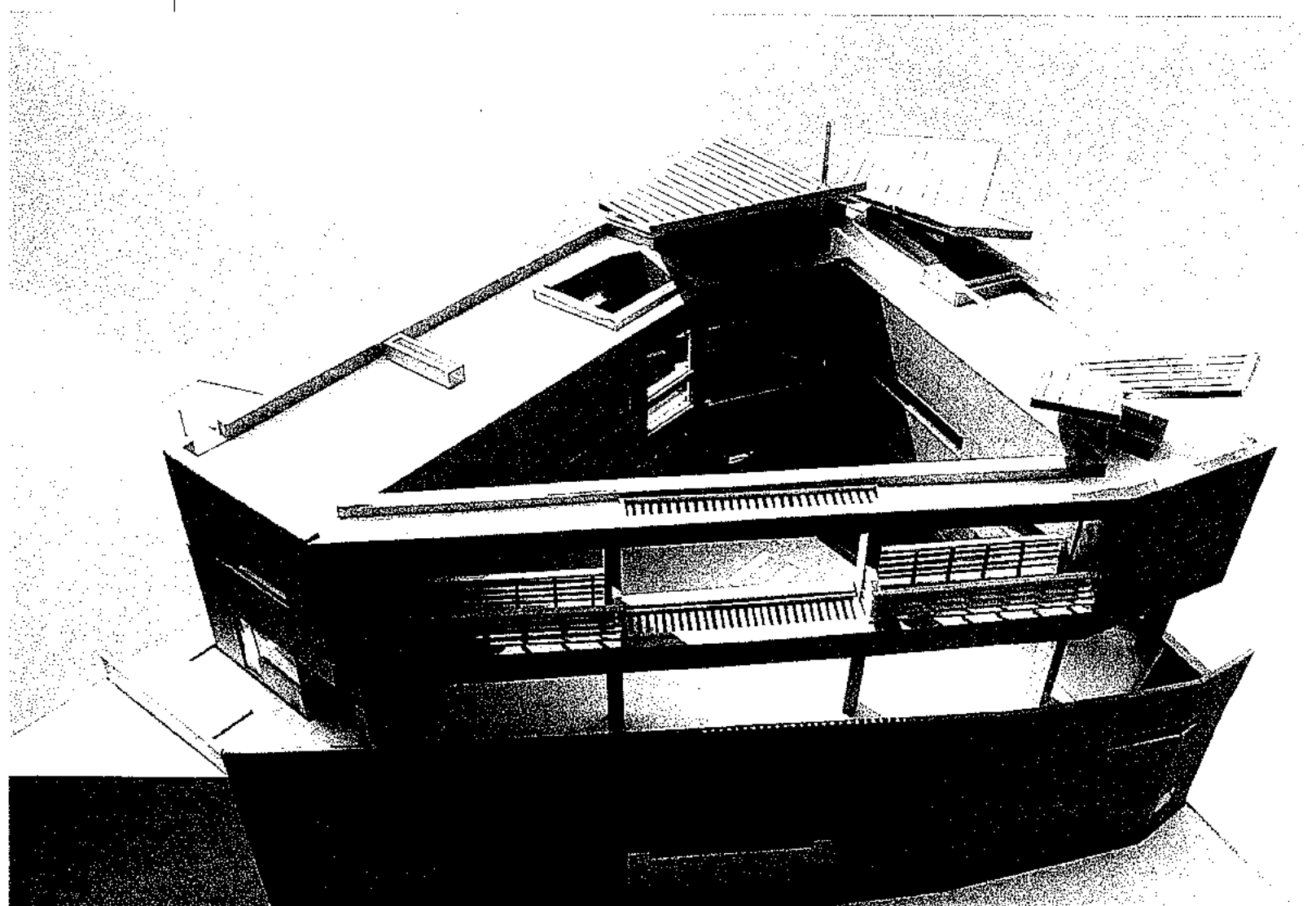
나비들이 노니는 화창한 한가로움 그리고
물흐르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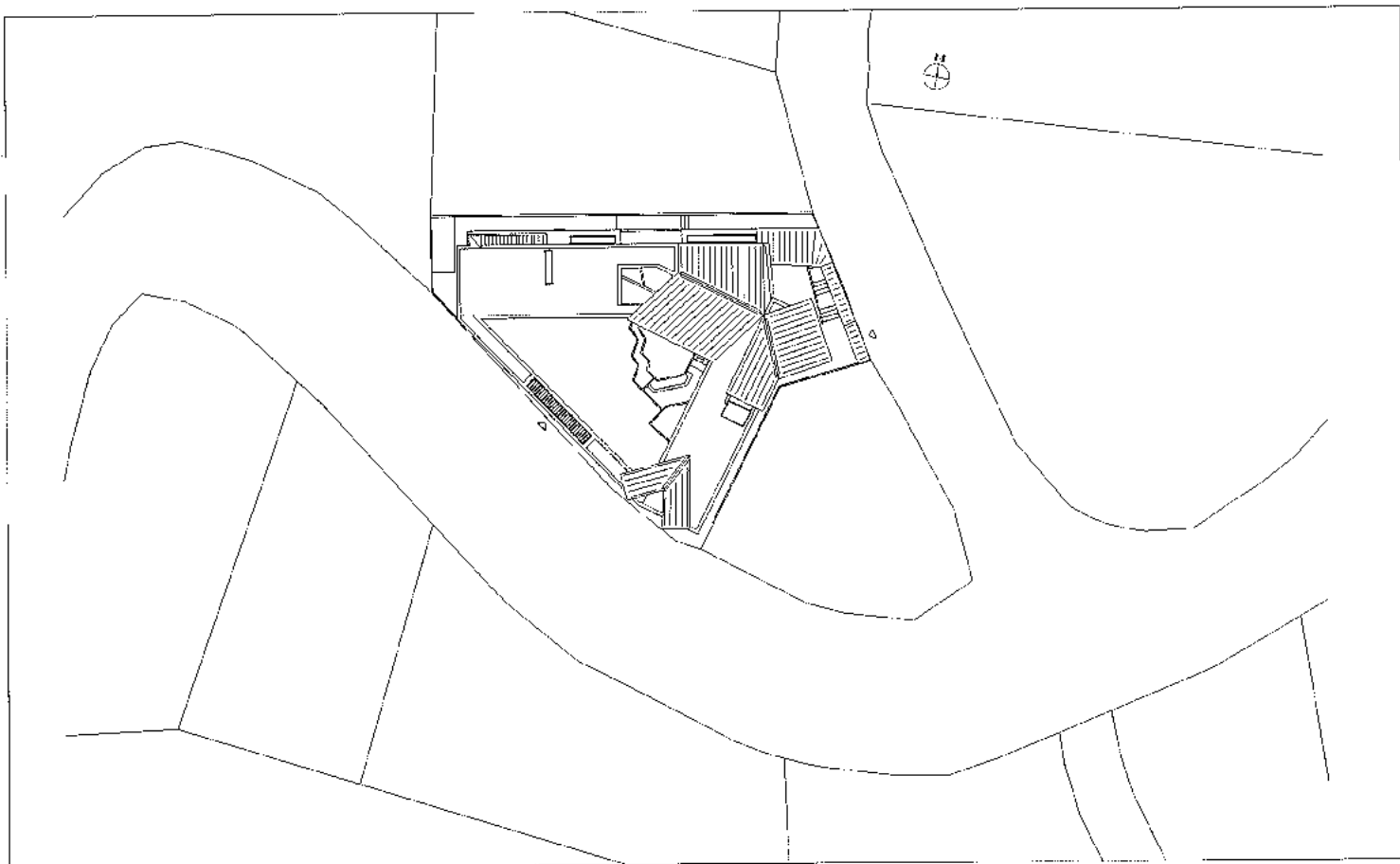
기게 문명에 찌든 현대를 사는 도시인들은
이제 자연속에 파묻힌 삶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를 떠나서는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도심속 한가운데의 자연” 속에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속에는 이제 그런 땅은 많지 않으며, 그중 평창동은 서울 한복판의 자연속 그러한 동네중의 하나일 것 같다.

대지 내부에 꽃이있고, 나비가 놀며 나르고, 실개천이 흐르는 “나만의 자연”을 만들며, 주변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모두 이 대지내로 끌어들이는 “자연 속 삶”의 표현이 이 “호유재”의 계획적 개념이며, 그 공간적 실현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성 있는 한국의 전통적 공간들의 드라마적 구성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공간의 관통, 관입, 회화적 후레임, 긴장감 있는 공간의 단속적 순환 등 그동안 시도해온 “한국성”에 근거한 공간구성 방식을 전개해 보게 되었던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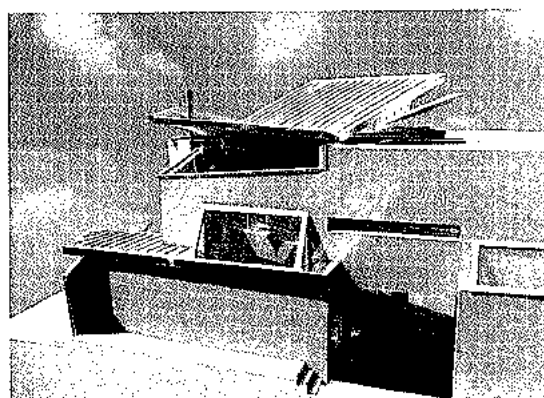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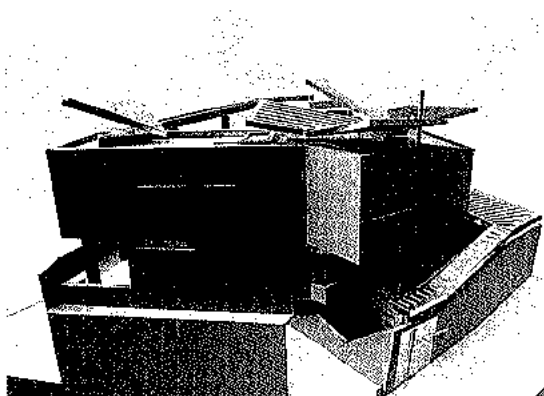
0 1 3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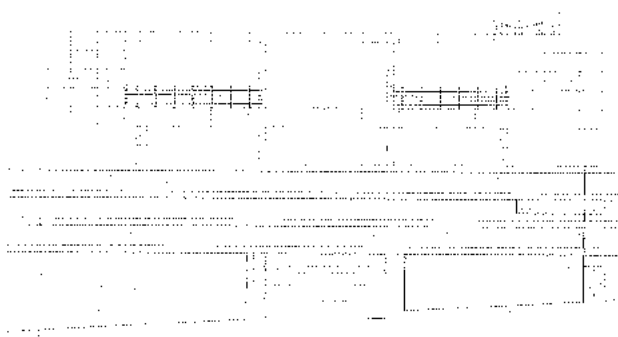
배치도

대지는 두면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두 개층 정도의 고저차가 있고, 후면과 측면에는 가까이 산을 끼고 있어 자연으로서, 전망으로서의 산을 소유하며, 남측인 전면은 시야가 훤히 트여 서울 시가지의 도시적 풍경이 펼쳐지는 좋은 전망과 좋은 향이 일치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지의 형태는 불규칙한 삼각형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후에 오히려 이 주택의 성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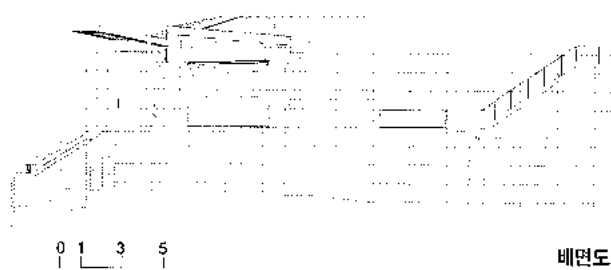
건축주는 사업가인 중년 부부로서, 주택의 외부와 내부 모두를 노출콘크리트로 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러한 선택에 대한 그들의 비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내심 나를 놀라게 했고, 현대적 단순미에 대한 애정과 감각은 이미 깊은 안목으로서 그들 속에 굳혀져 있는 듯 보였다.

늘 그렇듯이, 이러한 대지조건과 건축주의 요구조건은 계획의 많은 부분을 결정해 주었으며, 결국 대지형태를 닮은 "속이 빈 삼각형의 콘크리트 RING"을 높은 콘크리트 축대위에 띄우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것은 파노라믹한 전망의 유입, 포근한 마당의 구성, PRIVACY의 확보라는 계획의 목표 요소들이 만들어낸 형태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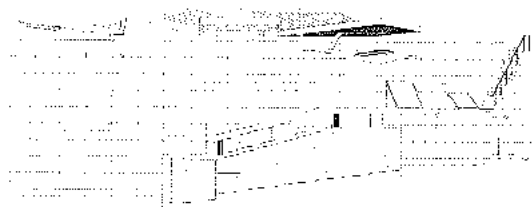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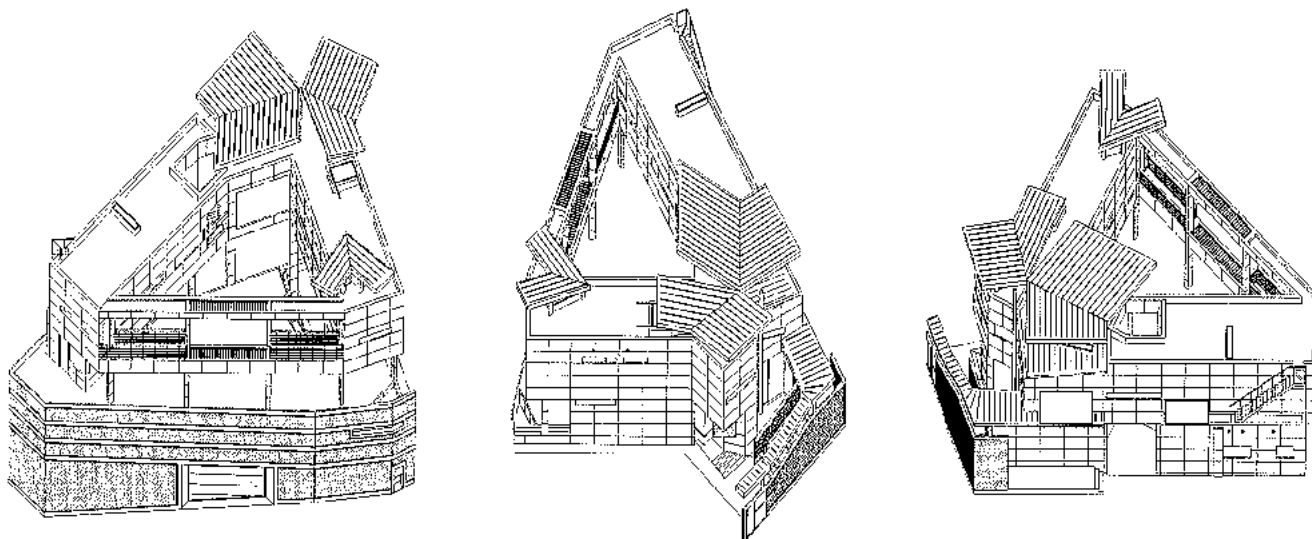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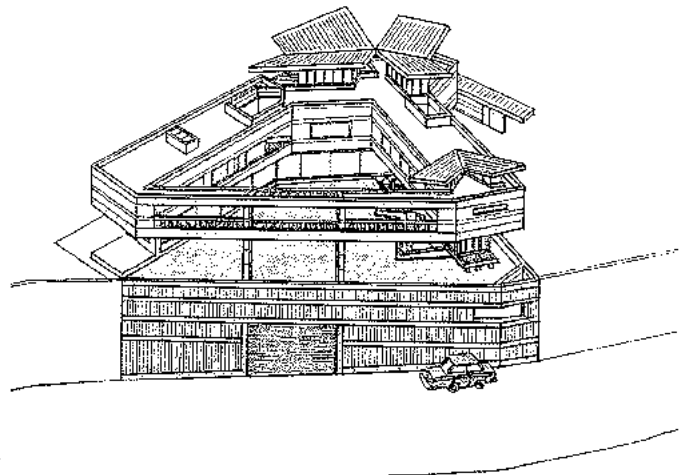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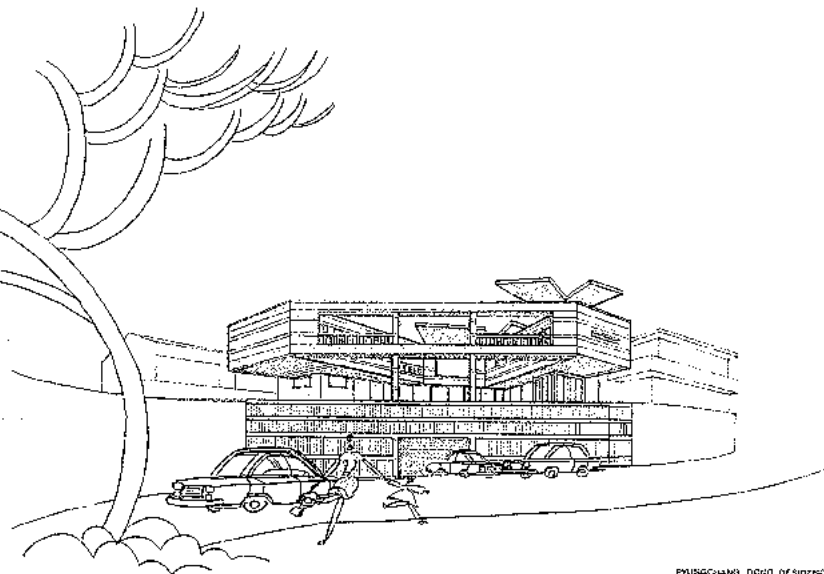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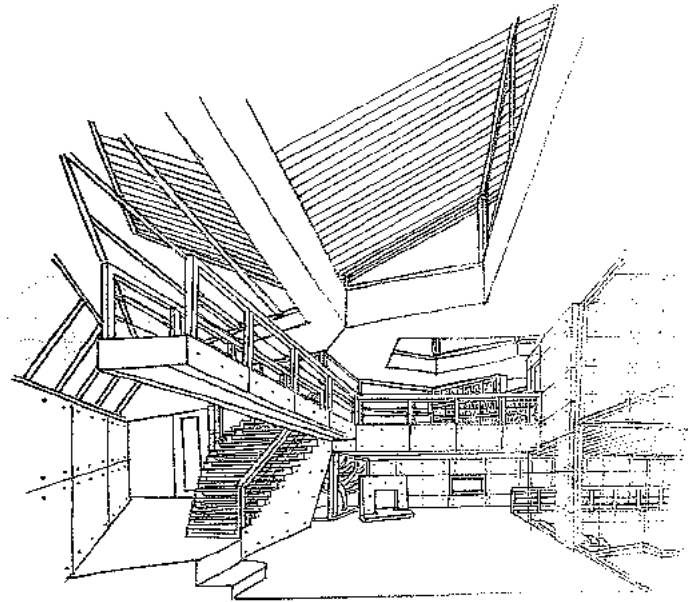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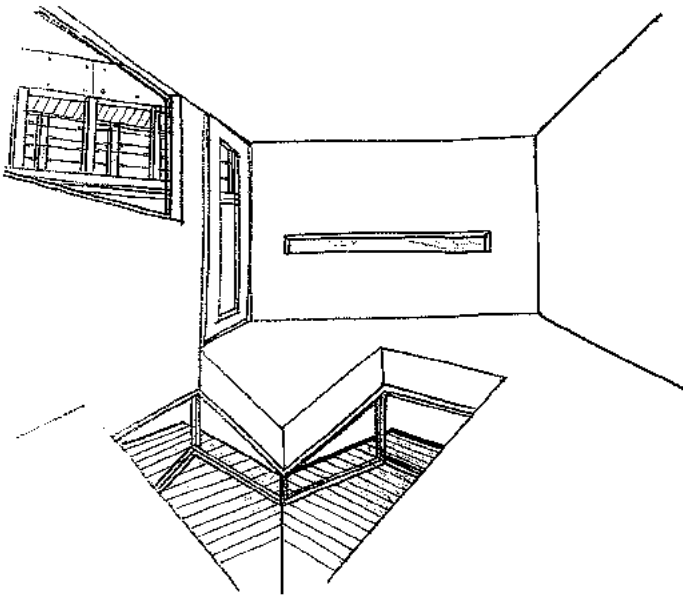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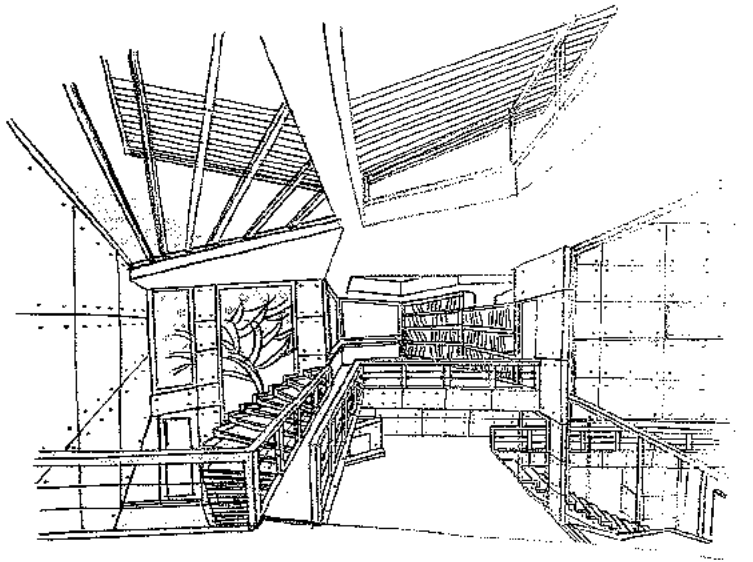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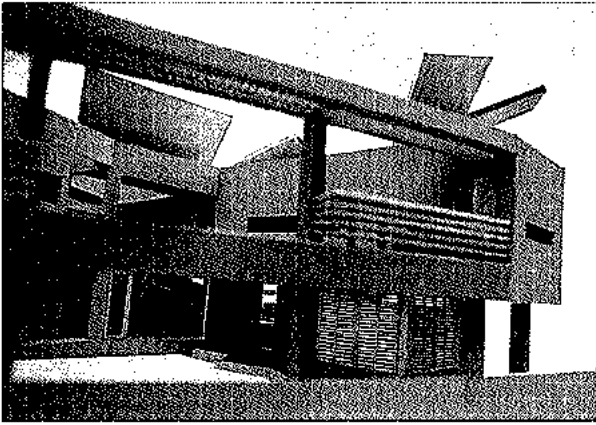
우측면도

삼각형 대지의 삼변 중 인접대지와 접한 두변은 각각 MASS로 채워져있다. 즉, 거실을 중심으로 하여, 1층의 식당, 정자, 2층의 주인침실과 자녀방이 각층의 양측 WING이 되어, 인접주택과의 시선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PRIVACY를 확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면 도로측의 좋은 전망이 있는 남측의 나머지 변은 2층에서 각 양측 침실의 루마루로 활용하게 함으로서, 삼각 RING이 완결되었으며, 이 마지막 루마루측 변의 한 “획” 그음은 이 집을 공간적, 조형적으로 그 성격을 완성시켜주는 결정적인 “획” 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것은 내부 안마당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어, 안마당의 공간감을 성격화시키고 있고, 동시에 풍경을 담은 회화적 틀로서 작용하여, 외부의 자연을 나만의 그림으로 번역하여 연출함으로써, 그 속의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고귀함을 맛보게 할 것이며, 외부로 내부로 끌어들이는 내부의 숨통이 될 것이다.

또한, 조형적으로는 전면 도로측의 주변과 적응하는 변이 되어, 구성된 이 삼각 RING은 스스로 강한 기를 발하며, 주변의 산세와 고저 등에 순응하면서 주변자연과 힘의 균형을 이루길 바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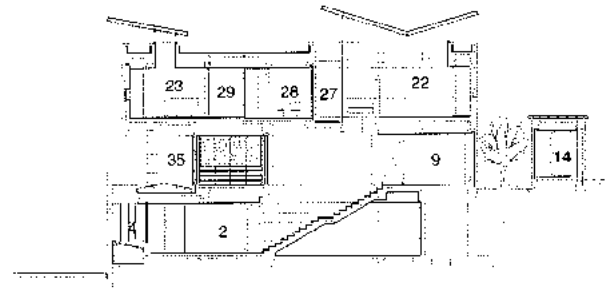
PYUNGCHANG DOHO RESIDENCY

루마루를 통한 원경의 유입과 함께 후면, 측면의 가까운 자연 풍경을 실내로 조망하려는 노력은 지붕이 있는 고층창을 만들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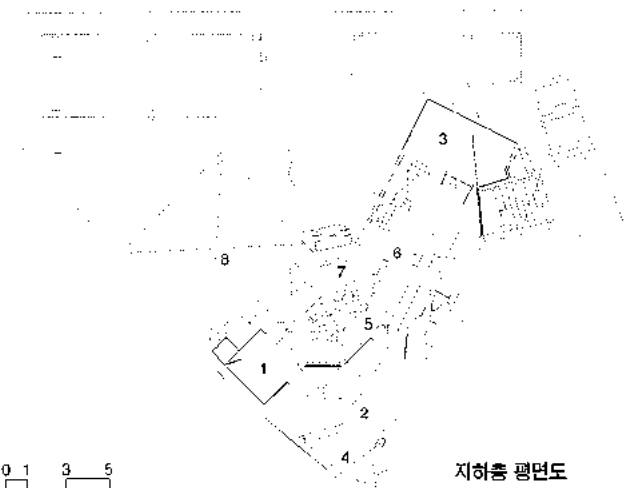
이 나비모양의 고층창은 실내에서 주변의 자연 경관을 회화적으로 담아내어 단속적으로 그것을 연출하는 장치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주택의 외관을 구성하는 강한 조형적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안마당과 실내와 루마루와의 관계, 차고에서 지하마당으로 올라, 대문앞 진입마당 그리고 현관으로 오르는 과정 공간들은 한국의 전통 외부공간의 드라마 구성적 성격을 기억하며, 그것들의 현대적 실현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했듯이, 거실, 식당 사이에 큰 연못에는 고기가 놀고, 그 물은 실개천으로 내려 아랫마당으로, 스스로 그러하게 흐르며, 그위에 떠있는 삼각 RING의 콘크리트 바위위에 상서로운 나비들이 앉아, 한가로이 날개 젓하며 쉬고있는 화창한 모습, 그것이 현대 도시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들만의 보금자리 모습일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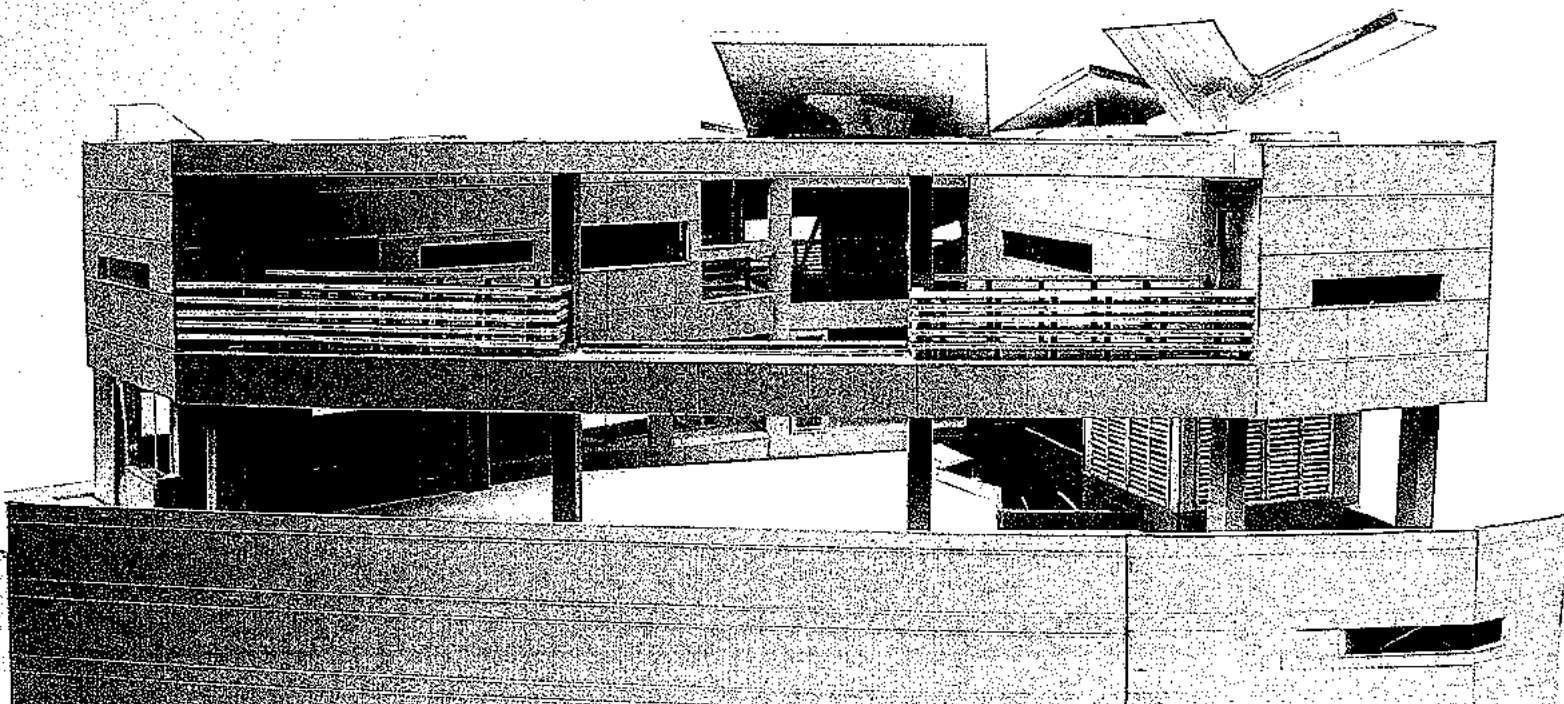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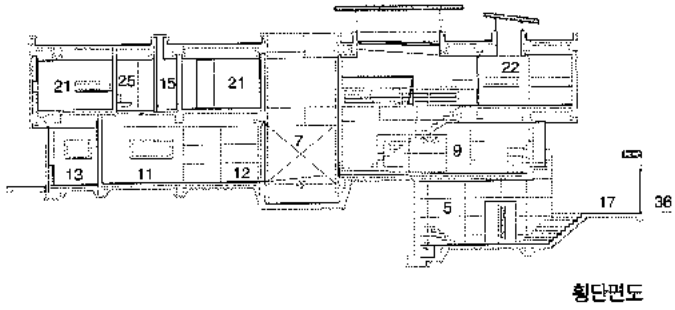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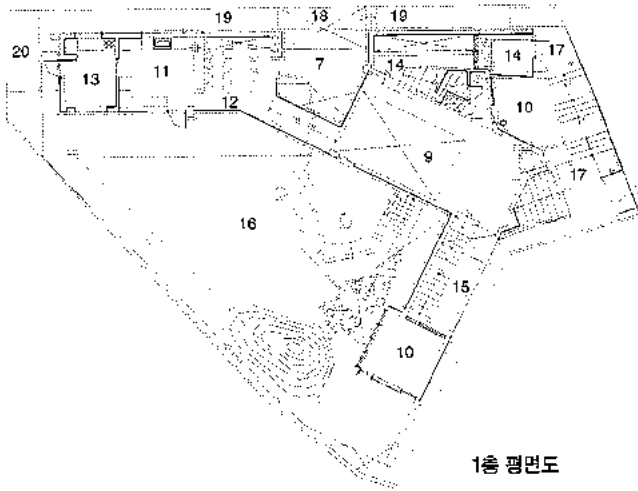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0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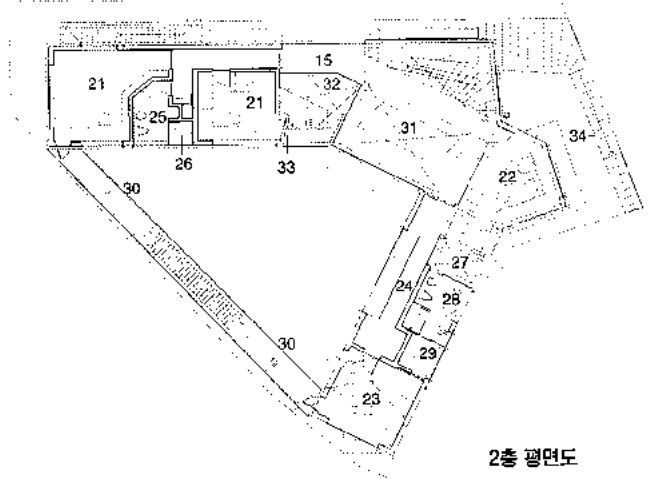




- | | | |
|----------|-----------|----------|
| 1. 손님방 | 16. 안마당 | 31. 거실상부 |
| 2. 홀바 | 17. 진입마당 | 32. 안쪽상부 |
| 3. 보이러 | 18. 휴마당 | 33. 아루마당 |
| 4. 꽃마당 | 19. 서비스마당 | 34. 카노피 |
| 5. 지하마당 | 20. 장독대 | 35. 외부마당 |
| 6. 화장 | 21. 침실 | 36. 6m도로 |
| 7. 안쪽 | 22. 가족실 | |
| 8. 차고상부 | 23. 주인침실 | |
| 9. 거실 | 24. 드레스룸 | |
| 10. 절자 | 25. 욕실 | |
| 11. 주방 | 26. 샤워 | |
| 12. 식당 | 27. 온실 | |
| 13. 다용도실 | 28. 주인욕실 | |
| 14. 현관 | 29. 파우더룸 | |
| 15. 복도 | 30. 루미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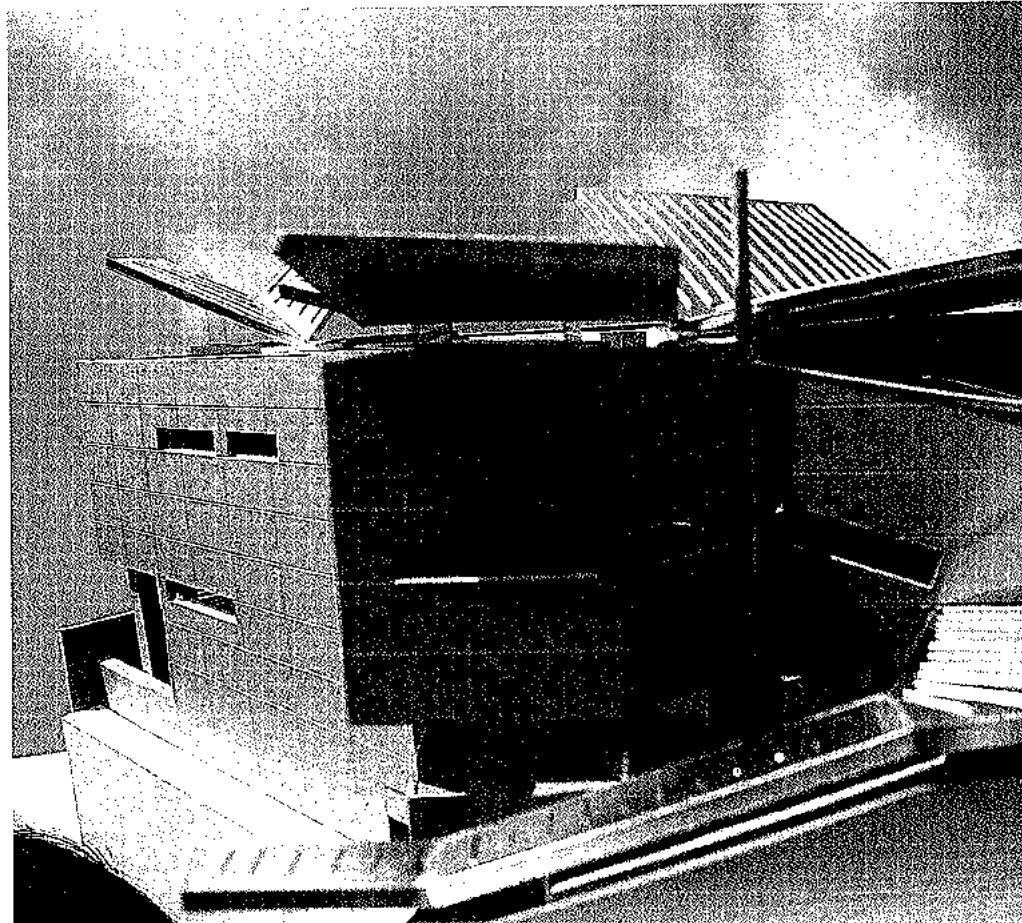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450㎡
건축면적	197.45㎡
연 면 적	364.46㎡
조경면적	167.01㎡
건 폐 율	43.88%
용 적 륜	59.45%
주차대수	2대
규 모	지하2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단독주택
내부마감	바닥 - 온돌오피스재후로링 벽 - 노출콘크리트, 벽지
외부마감	천장 - 미송판/무광래커, 천장지 벽 -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한지원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 64
경산우체국, 통영우체국 / 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청사 / 72
안동대중앙도서관 / 76
한국통신 용산전화국 / 82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Dongdaemun-gu
Gymna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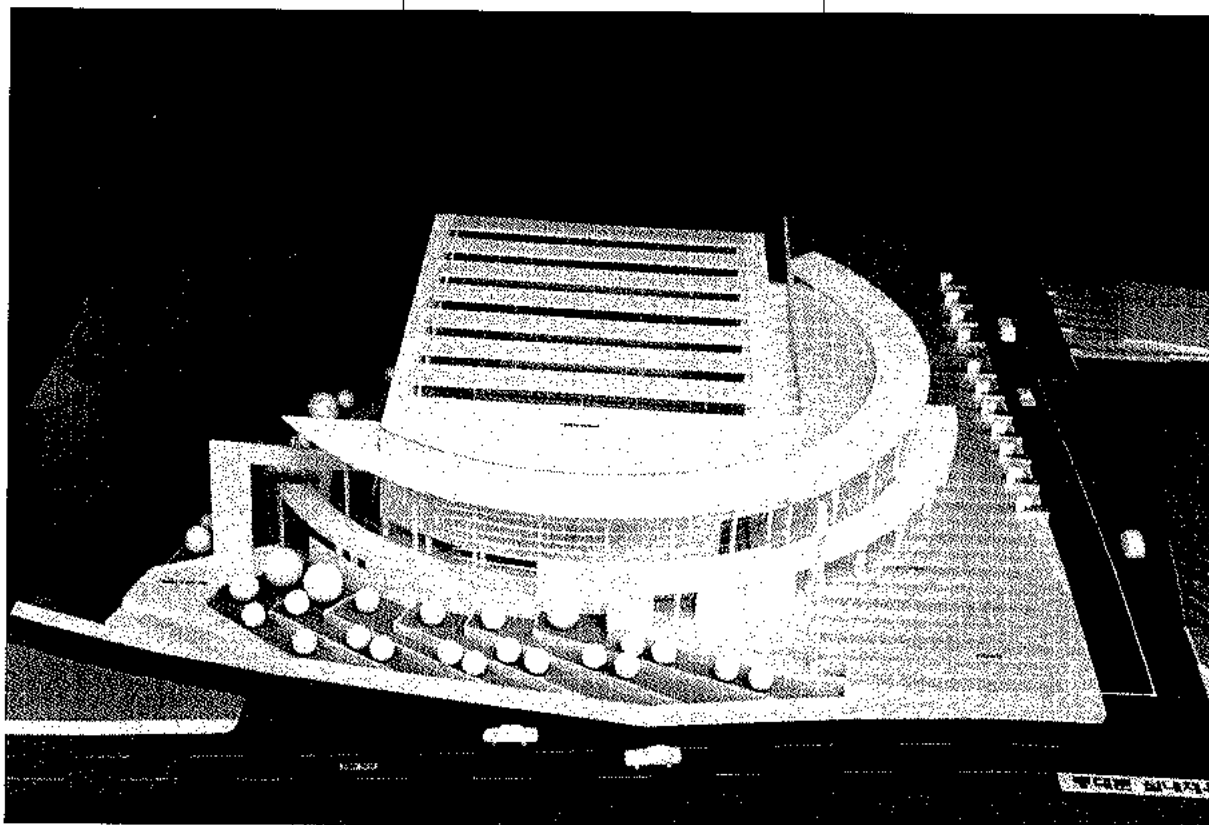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4월 30일 구민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하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라인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지난 5월 7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에서 우수작은 (주)에이텍 건축사사무소 안이, 가작은 (주)공간인식 건축사사무소 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김강수(고려대) / 김공숙(토립) / 김광현(서울대) / 김대욱(동대문구 배드민턴협회장) / 김병선(연세대) / 김영설(동대문문화원장) / 김정태(경희대) / 백준홍(연세대) / 송인호(서울시립대) / 이호진(건국대) / 최영집(탐 종합건축) 씨 등이 맡았다.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라인건축(송이호 · 김영민)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155번지(답십리 근린공원 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대지면적	5,746.0㎡ (1,738.16평)
건축면적	2,907.70㎡ (879.58평)
연면적	4,011.10㎡ (1,213.36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42대 (장애인지도차2대포함)
외부미감	노출콘크리트, 금속판넬, 유리
설계팀	채승녕, 김병철, 반경주

공간의 응집과 확장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인간의 창조물은 그 양태를 달리한다. 전체를 인간적 시각으로 변형하려는 태도는 인간화의 확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공간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이어져 오만한 확장성과 탐욕스런 소유의지를 표출한다. 그러나 그 인공성의 확장은 자연성이 주는 기회의 박탈을 통해 인간의 영역을 더욱



고립시켜가고 있다. 전체적 맥락에 스스로 동화되려는 태도는 인간화의 억제를 통해 겸손한 성찰과 조화의 의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풍성한 기능성의 확장을 제 공해주며, 상생의 길을 열어준다. 상생의 풍요로움은 독존적 독선을 융화시켜 밀 실의 언어가 아닌 창조적 언어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 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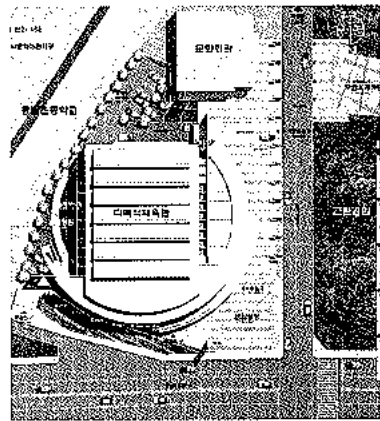
공존의 모색

현대사회에서 사회체육시설은 다양성과 복합성을 요구하는 복합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더구나 금번 프로젝트의 대지에는 도시근린공원 활성화를 모색하는 지역 문화회관이 실내체육관과의 공존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필시 지역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할 건축가의 사명감마저 갖게했다. 자연스레 우리는 이러한 공존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문화의 콘코스 (Concourse)로서의 오픈스페이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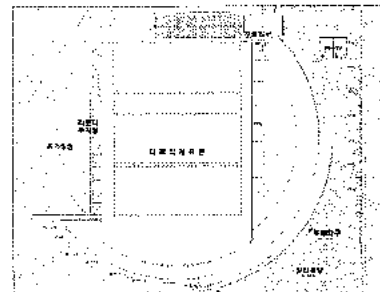
를 도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방된 내 부공간의 체육관을 계획했다. 자칫 산만 하기 쉬운 개방성에 대해 대지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한 단면계획으로 운동 장 이용자와 관람자의 동선과 영역을 구 분하였고, 평면에 가변성을 부여하여 다 양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주 간선도로, 일방통행로, 진입로, 근린공 원의 옹벽, 문화회관, 초등학교 등 다양 한 외부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원형의 매스를 도입하고 인접한 초등학교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차폐녹지공간을 계획했다. 원형을 상실한 지형의 스카이라인과 동화되며 주변시설물과 어울릴 수 있는 적절한 매스감을 찾아 노출콘크 리트의 기단위에 공간의 깊이를 암시하 는 투명유리와 차분한 도시적 이미지를 대변하는 금속패널을 수직적으로 구성 하여 전체적인 안정감과 세련미를 표현 했다.

사회체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 광선의 적극적 도입과 자연환기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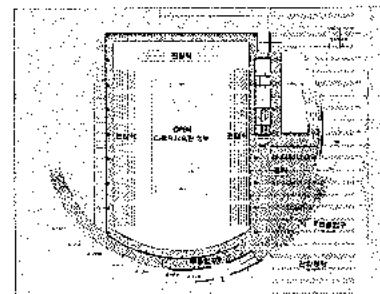
를 위한 천창을 도입했으며 단순해질 수 있는 지붕면에 리듬감을 부여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애써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고려된 여백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지역문화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대중화에 보다 깊게 기여하는 보람으로 꽃피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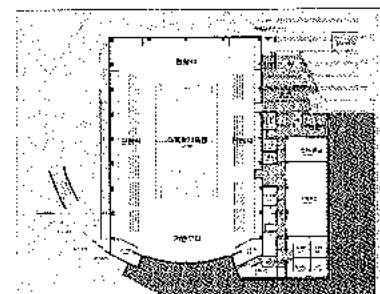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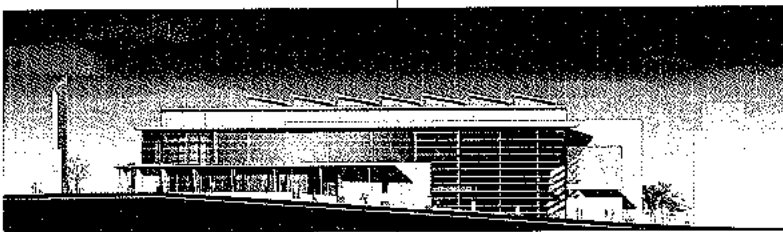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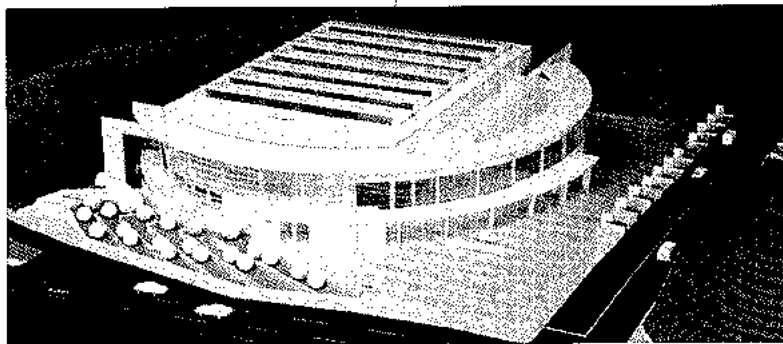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24.0레벨 평면도



20.0레벨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 우수작 / (주)에이텍건축사무소
(김상길·김화옥)

대지위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155번지 (답십리근린공원내)
대지면적	5,746.00㎡(1,738.17평)
건축면적	2,579.95㎡(780.43평)
연면적	4,070.86㎡(1,231.38평)
건폐율	44.9%
용적률	52.5%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개요	계획 60대
외부마감	지붕 - 알마늄쉬트 외벽 - 알마늄복합패널, 시멘트성 형판
설계담당	정재선, 지용운, 김준희, 김창균, 류상보, 김지선, 김도훈, 최교식, 이치우

기본 계획 방향

- 지역사회의 체육 및 문화의 중심
- 근린공원, 스포츠센터, 구민회관과 연계

-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편
- 지방 자치 시대의 열린 공공공간
- 외부공간을 개방적으로 하여 접근성
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외부공간 계획 → 주민 중심의 공간
- 새시대와 장소에 부합하는 미래지향
적 건축물
- 환경친화적 계획

배치 개념

- 축의 설정: 네트워크화된 축 설정
- 도시축(Urban Axis)을 주축 설정:
건물 주방향
- 맥락축(Context Axis)을 부축 설정:
동선흐름 주방향
- 녹지축(Green Network Axis): 근
린공원과 연계된 녹지공간 설정
- 자연과의 교류 및 연계
- 자연훼손 최소화
- 시각적 공간적 유기성 확보
-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 및
체육활동 수용
- 새로운 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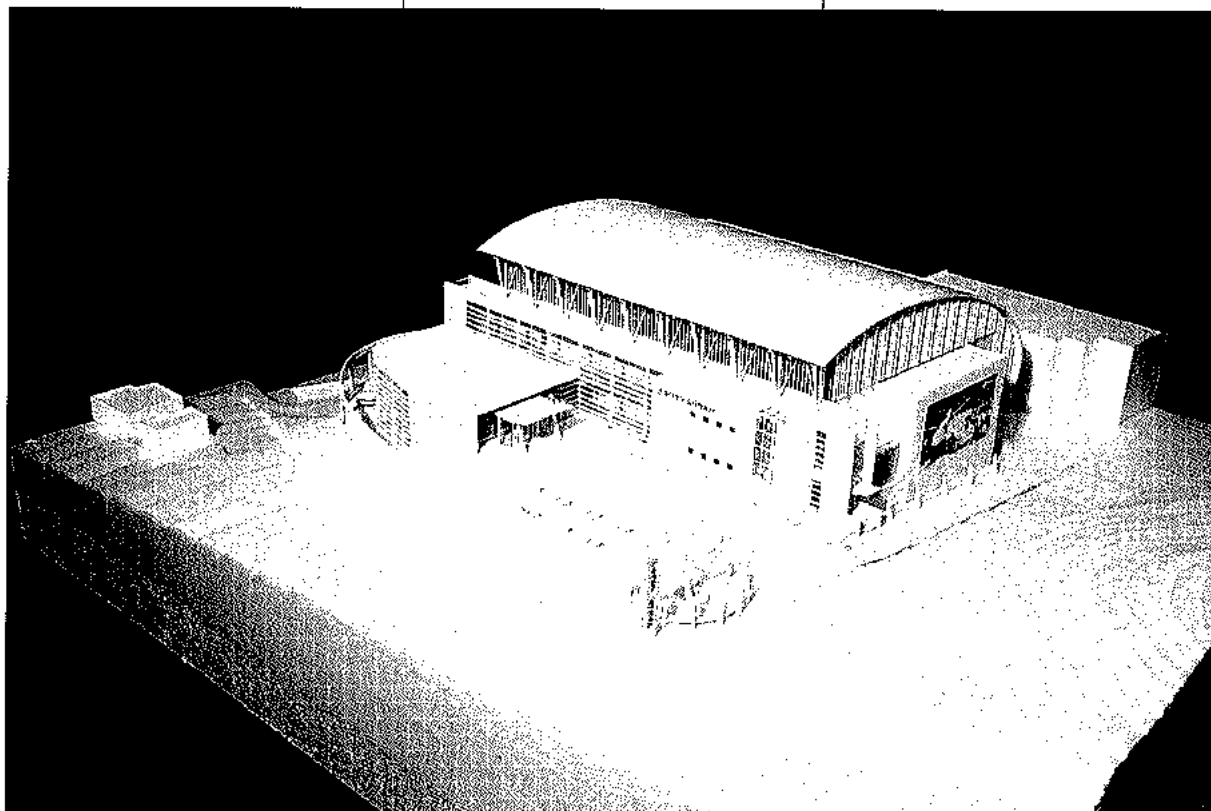
- 구민회관-체육관-스포츠 센터를 잇는
새로운 축 설정

평면계획

- 지하층
- 피로티 주차장: 자연채광 및 환기 극
대화
야간시간대 주민이용시설로 활용
- WET ZONE 설정: 샤워 및 탈의실
집약화
- 휴게라운지와 데크의 유기적 연결
- 지상층
- 로바-휴게복도-휴게라운지 연계성 :
충분한 대기공간
- 관람석, 무대 설치한 체육관: 다목적
활용 가능
- 공간의 확장성: 내외부 공간의 연결
- 체육관 계획: 농구장, 풋살, 배드민턴
수용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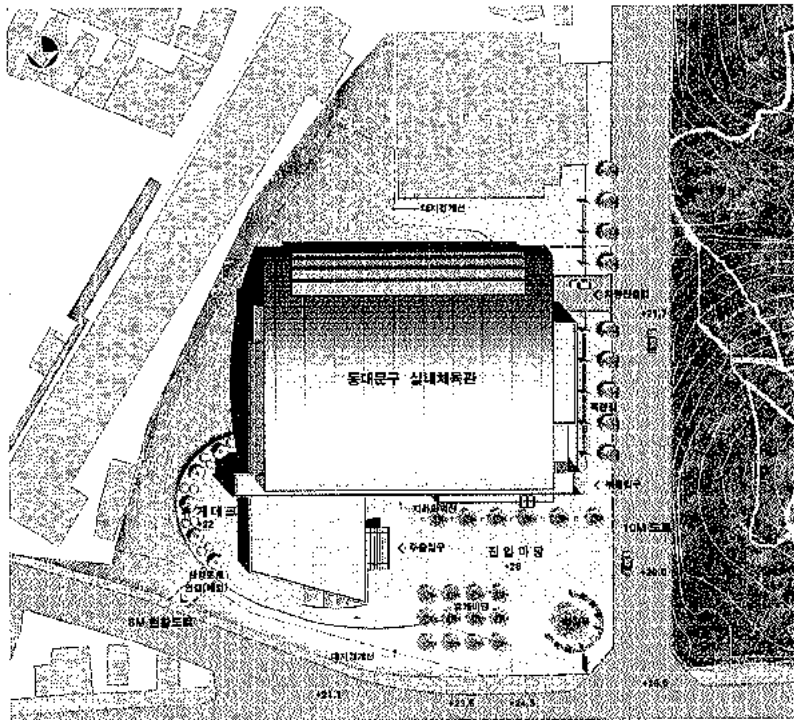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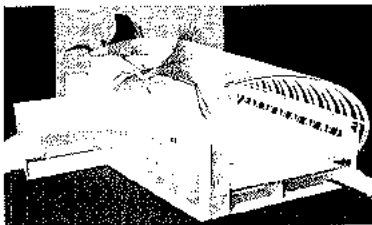
-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이미지를 주는
자연순응의 유선형 지붕형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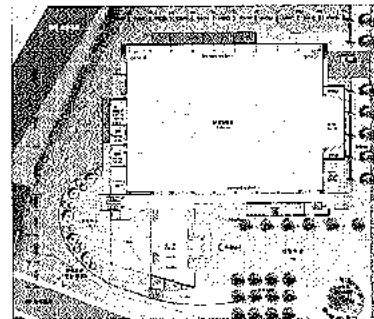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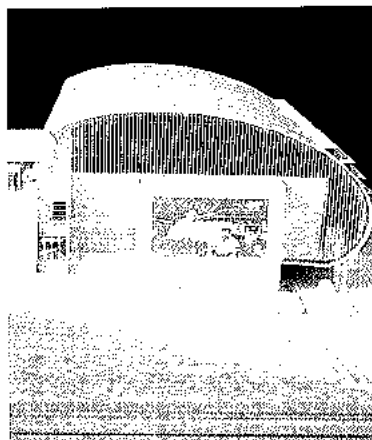
- 복잡, 다양한 과시적 입면 지양>단순, 개념적 계획
- 도로에 대응하는 정면축의 커튼월을 통한 개방성 요소
- 진입부에서 입구의 인지를 위한 캐노피의 상징성 고려
- 지붕 끝선의 구조 노출로 구조의 표현과 첨단 미래지향적 이미지 계획
- 채광과 직사광선의 조절을 위한 수평, 수직 루바
- 외벽면을 이용한 홍보 이미지 전시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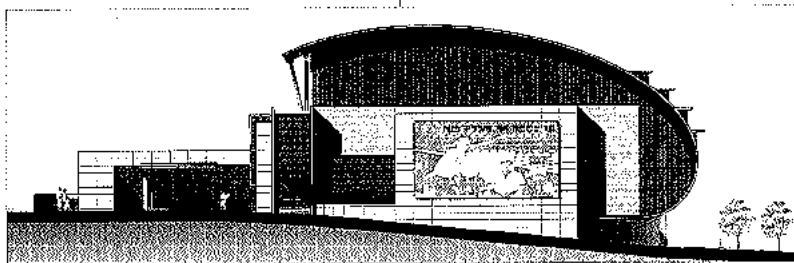
- 도로와 대지의 지형차를 이용한 계획
- 도로에서 지하 1층의 주차장으로 직접 연결
- 토목 절토량의 최소화, 경제적인 공사비 고려
- 기능적인 동선연결을 고려한 계획
- 지붕의 구조미를 이용한 역동적인 건축공간 계획
- 지붕 철골구조-철골 단일 형강을 곡면처리한 일종의 장스팬 아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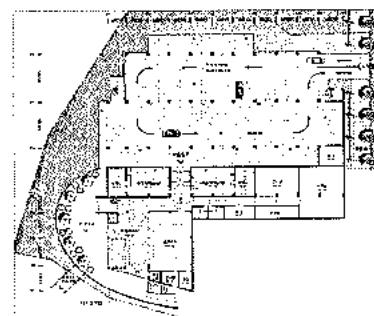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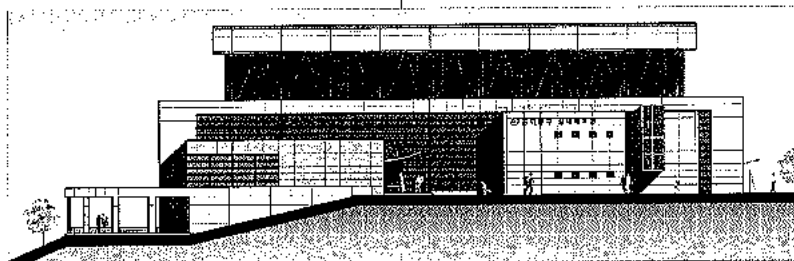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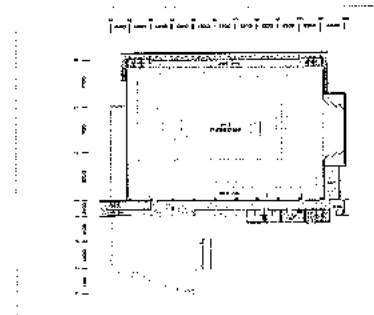
우측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정면도



지하 2층 평면도

경산우체국

Gyeongsan Post Office

정보통신조달부는 경북 경산시 사동 650-2에 위치할 경산우체국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해 지난 4월 12일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안)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 당선작 /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안지나아령(이철홍)

대지위치	경북 경산시 사동 650-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면적	1,393.32㎡
연면적	4,986.7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57대(장애안용2대포함) : 법정 26대
외부미감	AL패널,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이병준, 전성진, 한성룡, 박남석

경산시는 두 개의 핵심시설이 융합되어 발전해가는 도시이다. 하나는 총13개 대학이 밀집해있는 '대학도시'이고, 또 하나는 진양공단과 자인공단으로 대표되는 '산업도시'이다.

이 두가지 이미지를 우체국사라는 특화된 건물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것이 계

획 개념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또 새롭게 변화해가는 우체국사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개념이었다.

우선 다양화되어가는 우체국사의 개념 정립에 있어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하였다.

첫째, 기능적인 측면으로 금융, 보험업무 등 우편 이외의 서비스시설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종합 봉사 기능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원활한 동선체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동선에 있어서도 방문객과 업무차량의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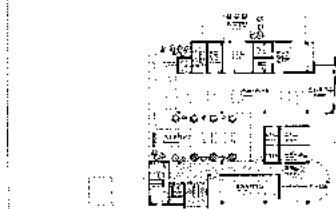
둘째, 내부공간으로는 Court를 두어 빛이 충만한 사무공간을 만들어보았고 각 층마다 테마별 옥상정원을 두어 흥미있는 주제와 조명이 어우러진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였다. 완충적 공간에는 우체국사에 진입하기 전 상징적인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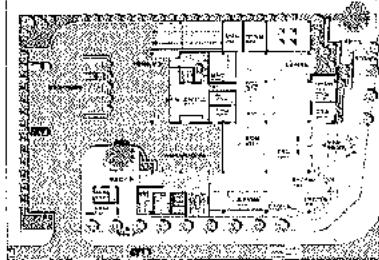
등 우체국사의 이미지를 고려한 옥외공간이 계획되었다.

셋째, 이미지적인 측면으로 구 경산시와 택지개발지구가 연결되는 구간선도로 접해있는 전면부분은 산업적 이미지가 잘 부합되게 수평적인 요소를 강조시켜 운동성과 발전성을 느낄 수 있는 정면성을 두었고, 측면 부분은 수직적인 요소를 강조시켜 대학의 학구적이고 Hi-Tech적인 이미지를 표현했고, 그 결절점에 우체국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해가는 우체국사의 기능이 공공성을 더욱 더 많이 포함하고 지역도시의 이미지가 건축물에 도입되어 경산시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우체국사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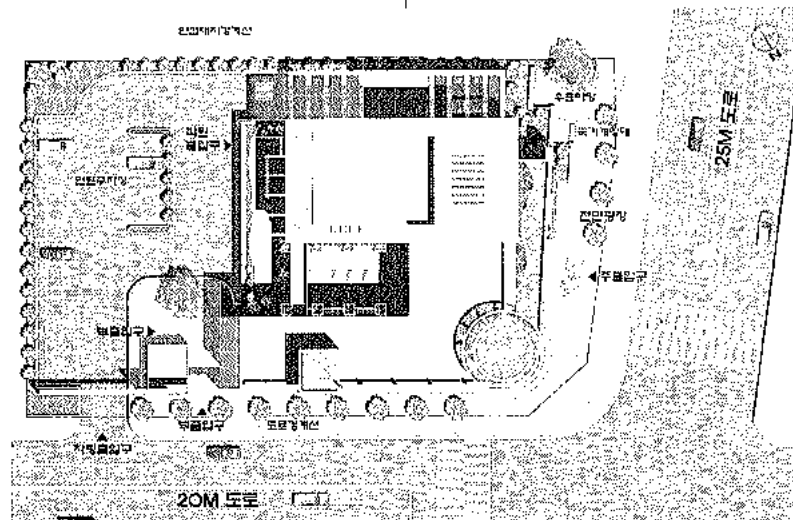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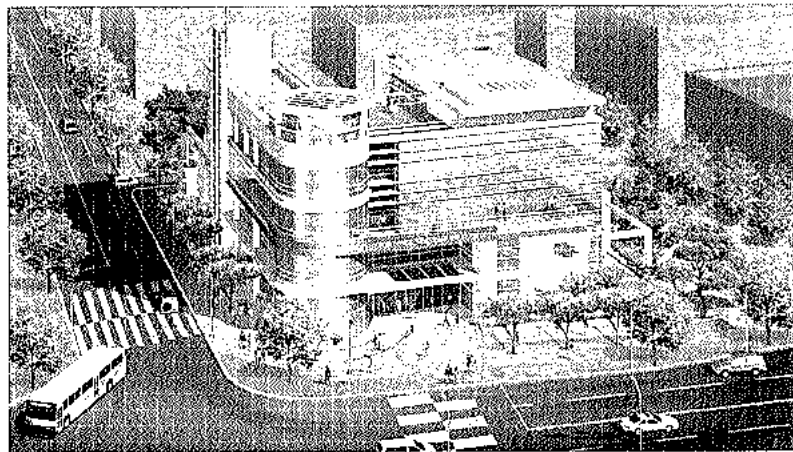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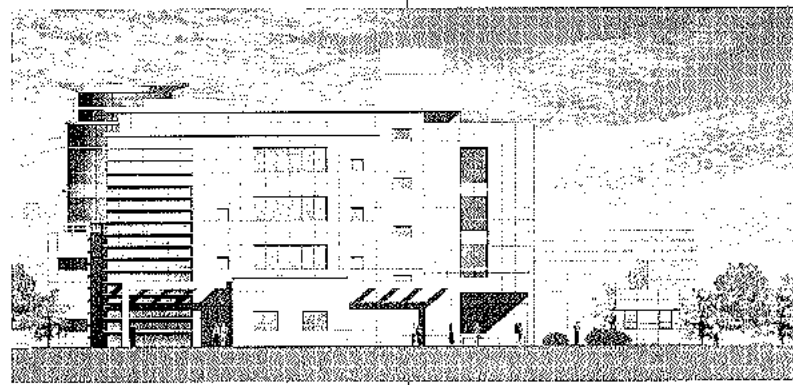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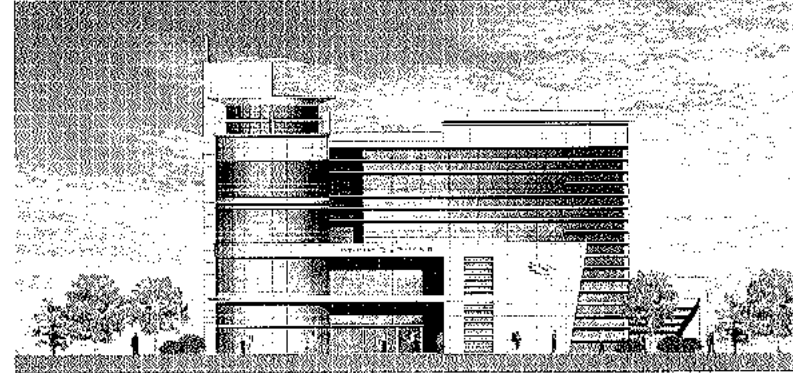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배치도



우측면도



정면도

통영우체국

Tongyeong Post Office

정보통신조달부는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36-1에 위치할 통영우체국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해 지난 4월 12일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 당선작 /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이철홍)

대지위치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36-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1,229.04㎡
연면적	4,974.28㎡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72대(장애인용 3대 포함) : 법정 27대
외부미감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박성하, 박기선, 류경, 김명현, 정은영, 노형곤, 백승일

전형적인 해양도시로 알려진 통영에 우체국사를 설계한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졌고, 지역적 특색과 맞물린 새로운 이미지나 형태의 구성들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었다.

설계과정은 다음의 네가지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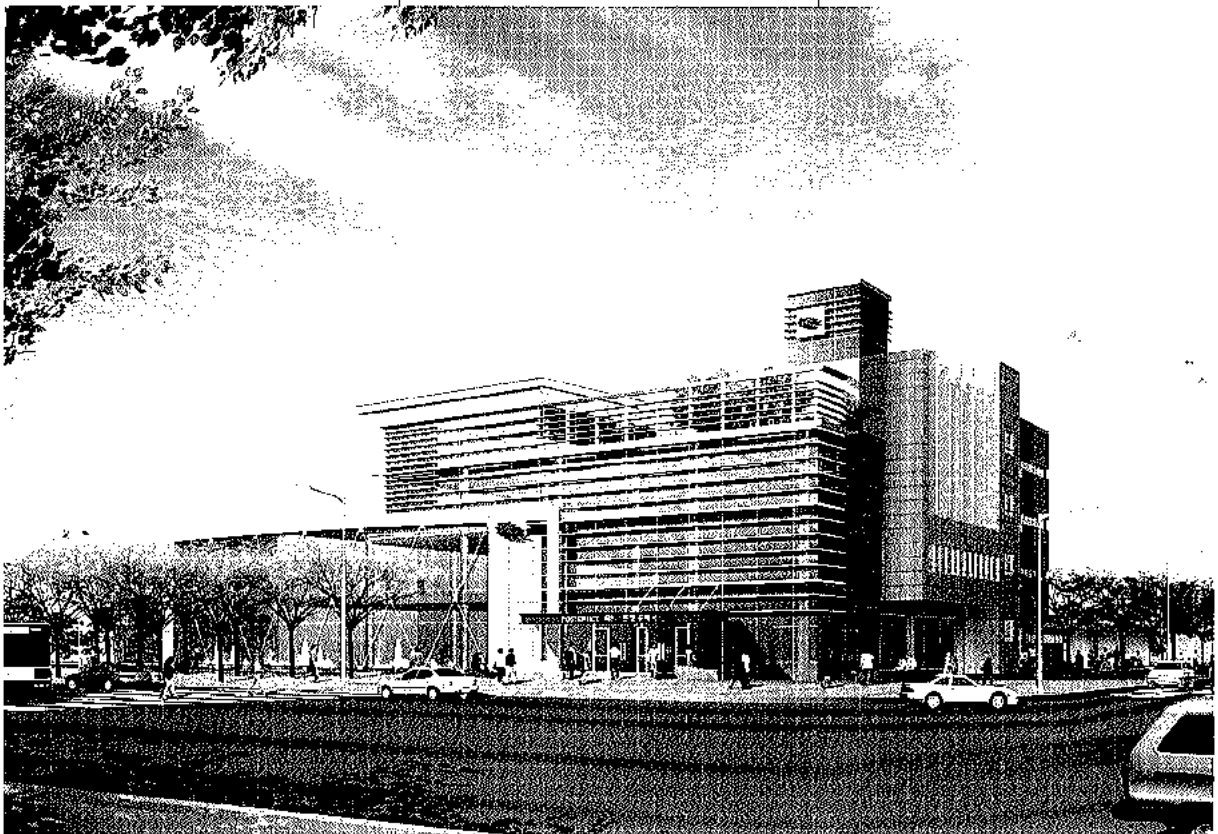
첫째, 건물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 도시구조분석을 통하여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계획대지의 주된 접근방향을 예상한 후, 대지의 단변 방향을 계획안의 main facade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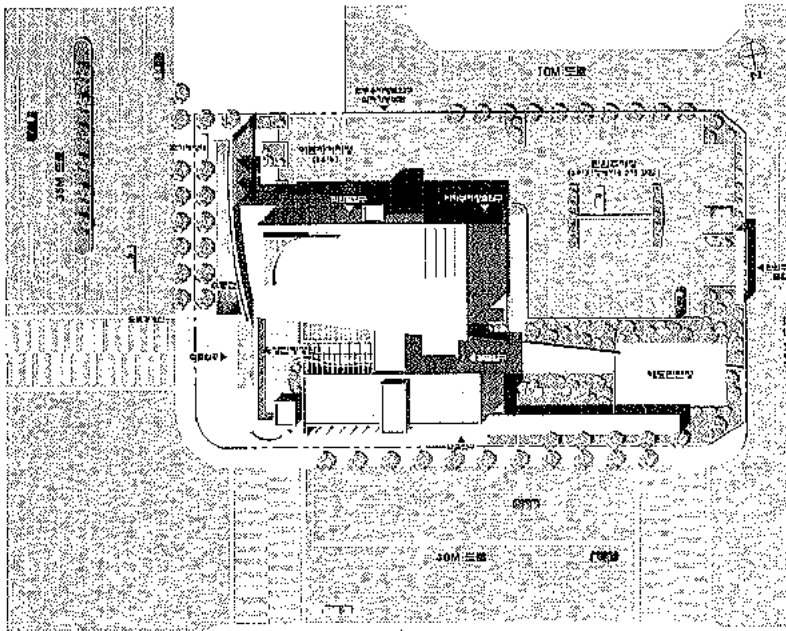
둘째, 건축적 공간의 도입이다. 집중적인 공간을 구성하기에 용이한 도구로서 아트리움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축이야기를 진행해 나갔다.

셋째, 각 기능들의 합리적 배분이다. 도로면을 의식한 배치와 남향배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2개의 서로 다른 공간을 나누어 기능배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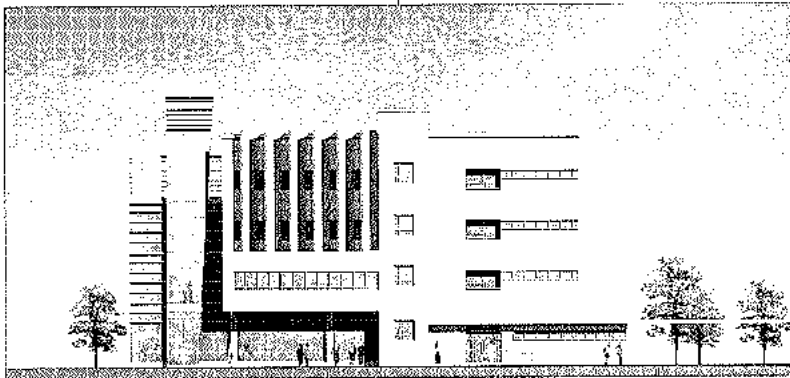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역성의 구현이다. 통영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오브제를 도입코자 입면 및 형태요소로서 등대를 형상화한 전망대와 거북선의 노를 연상시키는 수직루버를 사용하였다.

... 해양도시 통영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우체국청사의 탄생을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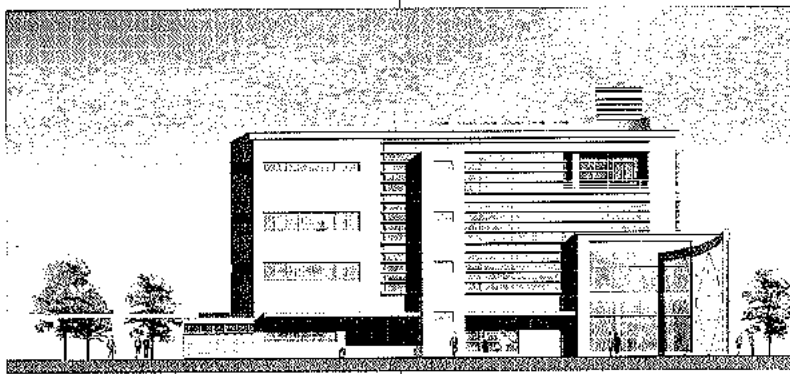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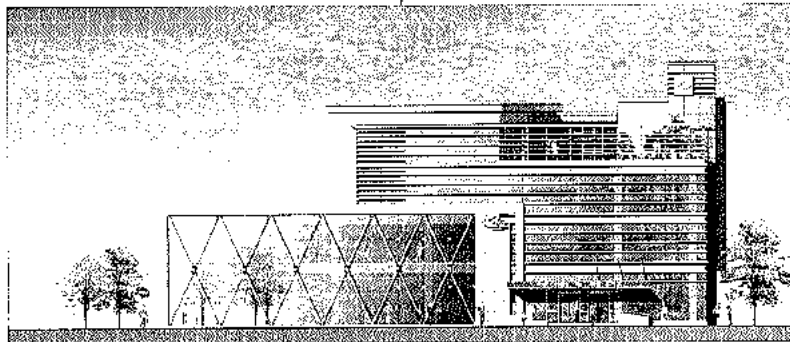
부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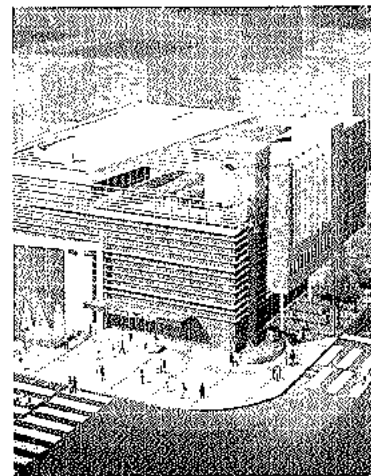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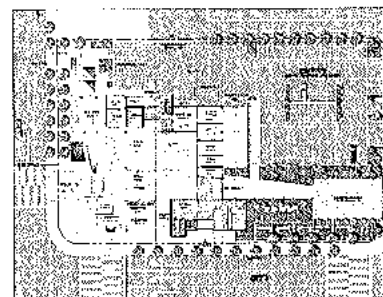
정면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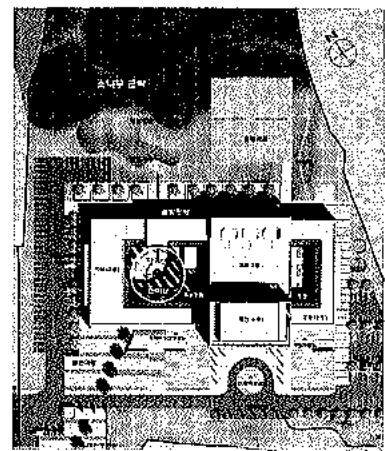
Chuncheon District Court -
Gangnung Support Office

법원행정처 건설국에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청사의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24개업체가 신청하고 최종 6개업체가 작품을 제출한 결과 (주)건원국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한현호·지승선)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5월 17일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김병년·현태현) 안과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김진환)의 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김용담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김황식(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윤승(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영한(법원행정처 건설국장),

홍지훈(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김문채(법원행정처 건설심의관), 강건희(홍익대), 김광현(서울대), 이경훈(고려대), 이정만(한양대), 정제국(관동대)씨 등이 참여했다. 2004년 말 완공예정이다.

▶ 당선작 / (주)건원국제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한현호·지승선)

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117-1외 103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36,320.00㎡
건축면적	4,811.09㎡
연면적	12,053.01㎡
건폐율	13.25%
용적률	30.09%
주차대수	108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THK18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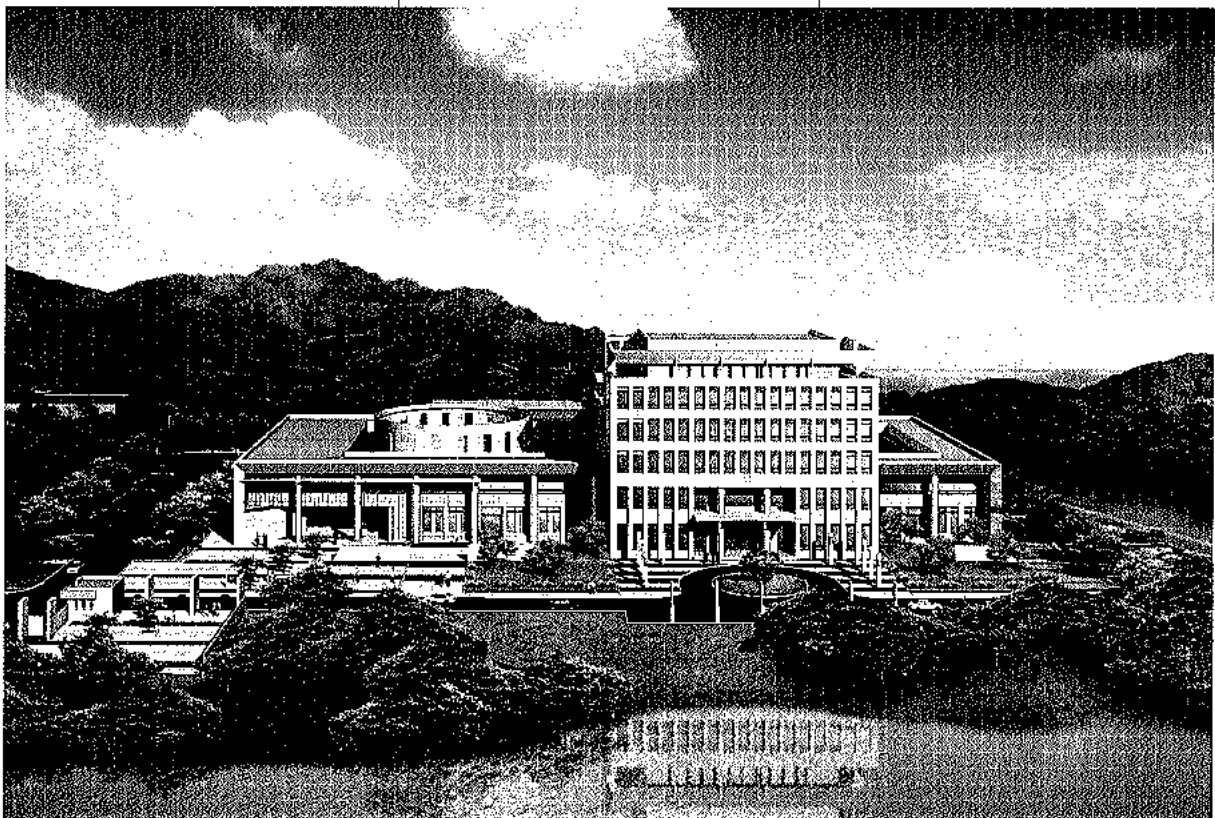
배치도

설계팀 조진희, 김성수, 권성순, 김경훈,
김정민, 박전택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굽은 산줄기와
끝자락에 모여있는 작은 촌락...

이곳만의 독특한 평온함과 풍경이 펼쳐
진다.

이 지역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영동지
역의 중심으로, 강한 지역성과 세월의
유구한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계획안이 위치하게 되는 이 곳은 객사 문, 오죽헌, 선교장 등의 주요 전통문화재들과 경포호 등 천해의 자연과 인접해 있는 비교적 평탄한 구릉지이다. 대지의 뒷부분은 소나무군락이 들어서 있고, 그 앞은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한국적 정서를 연상케 한다.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강릉지역에서의 지역성 추구 및 전통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무엇보다 주어진 대지의 특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법원의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가가 과제였다.

“법의 모습과 질서는 더 이상 상징적,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 가운데 서로가 상호 공존하며 조화와 균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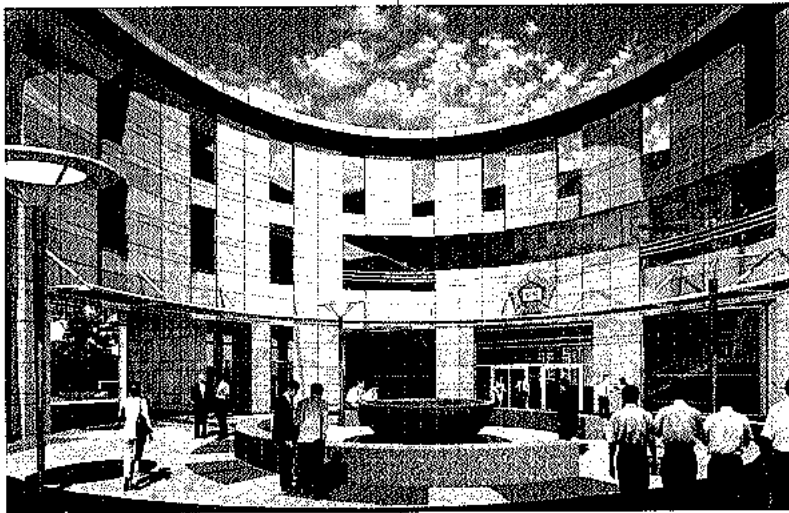
우리는 지역적·전통적 정서를 배경으로 언급한 이러한 두 가지 큰 맥락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대지의 상황에 따라, 매스는 일방향 진입의 문제와 기존 소나무군락의 보호와 연계를 고려하여 장방형으로 배치하였고, 앞에 흐르는 실개천에 살며시 드리워진 법원의 모습을 뒤로, 열려 있는 한마당을 통하여 소나

무군락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연결하는 축을 형상화한다. 또한 매스의 형태는 수직적인 강한 매스와 수평적인 매스가 서로 대조가 되어 공간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 원형매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앙으로 열려진 사각매스는 구심점을 가지는 원형형태 로툰다(한마당 : 민원공간)와 전체 매스의 중심인 장방형의 법정동(판사, 직원공간)을 둘러싸며 상호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 결합의 매스형태를 살리면서 법원의 명확한 공간 및 동선체계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원과 법정의 각각 다른 기능을 수용해야 하는 원형과 장방형의 상이한 이 두 형태는 하나의 매스 안에서 공존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끌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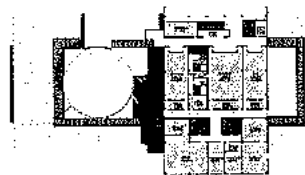
건축이 법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조화와 균형, 상호공존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기존 법원의 상징과 권위를 표현하는 획일성, 대칭성, 일반적인 동일성을 건축적 재해석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지역적인 특성과 전통미는 ‘ㄱ’ 지형의 화랑 공간, 누의 개념,

열주 등의 건축적 언어와, 옛 관아(객사문)와 선교장 등 전통문화재의 재해석을 통하여 단아함과 부드러움, 그 순수한 형태미를 살리도록 하였다.

지역성과 전통, 조화와 균형의 재해석을 통하여 법원의 전형적인 틀을 깨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그리고 주위 소나무군락과 연계되는 자연 친화적인 외부공간의 작은 배려는 이 지역의 건축문화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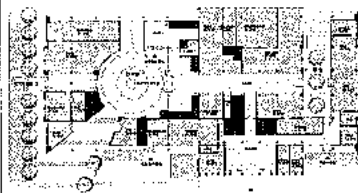
정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김병년 · 현태현)

건축면적	2,197.54㎡
연면적	12,082.64㎡
건폐율	6.05%
용적률	29.53%
주차대수	112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조경면적	17,300.00㎡
외부마감	THK30 화강석마감, 외장타일, THK18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전영성, 안성일, 최외석, 김동수, 김중우, 박동진, 방신관, 신기수, 김태우, 최우성, 배형식, 황정기, 배준호, 정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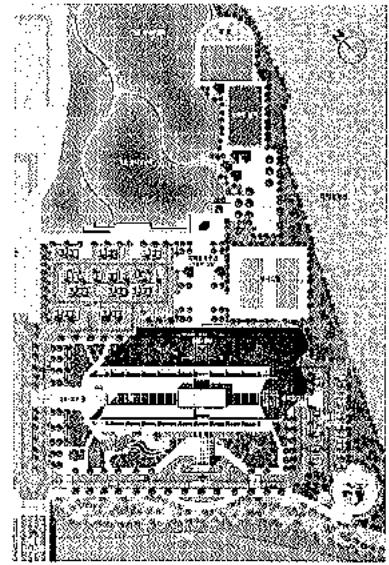
채우기&비우기&막기&열기
(FILL&EMPTY&COLSE&OPEN)

구멍은 뚫린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멍 속은 구멍이 구멍을 비워놓고 없
어 갸름하기도 하고 구멍이 구멍을 들
여다 보느라고 들고 있는 거울에 하늘
이 좀 들어 와 있기도 합니다. 뚫린 구
멍마다 마개가 있을 것 같아 찾아보면
모두 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잘
만들어진 마개를 가진 것은 마개를 버
리고 온 몸으로 마개가 되어 있는 구멍
입니다. 그 구멍은 구멍이 스스로 꽉
차 있습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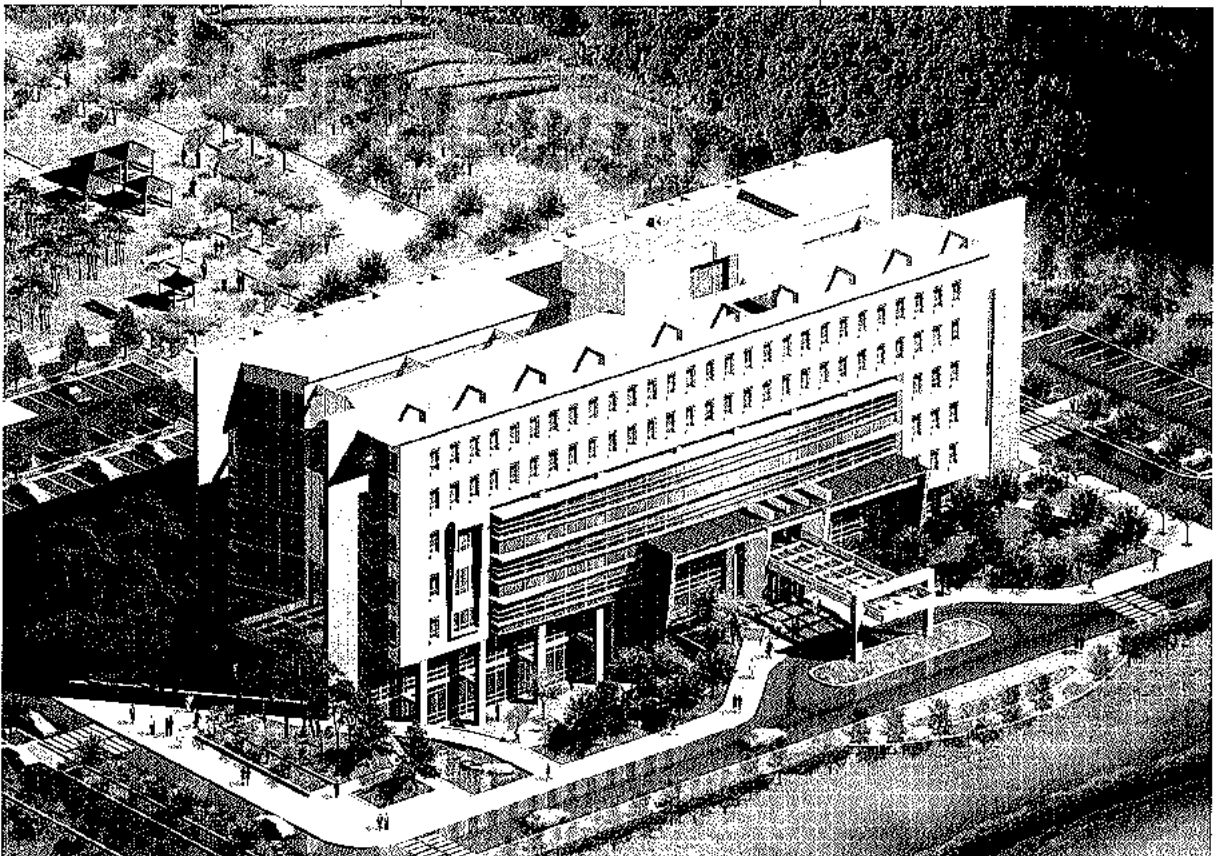
위의 오규원의 '구멍'이라는 시에서
구멍이라는 물리적인 스케일을 확장하
여 보면 모든 구멍의 보편적인 개념은
공간(Space)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구멍은 나름대로 자신의 마개를
찾아 여러 모양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가장 훌륭한 것은 마개를 버리고 스스
로 구멍을 꽉 채움으로써 스스로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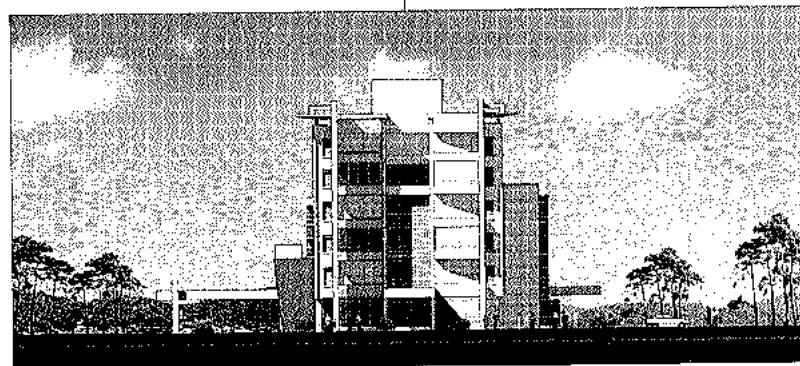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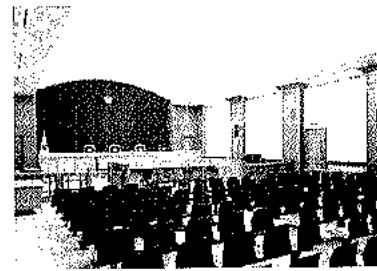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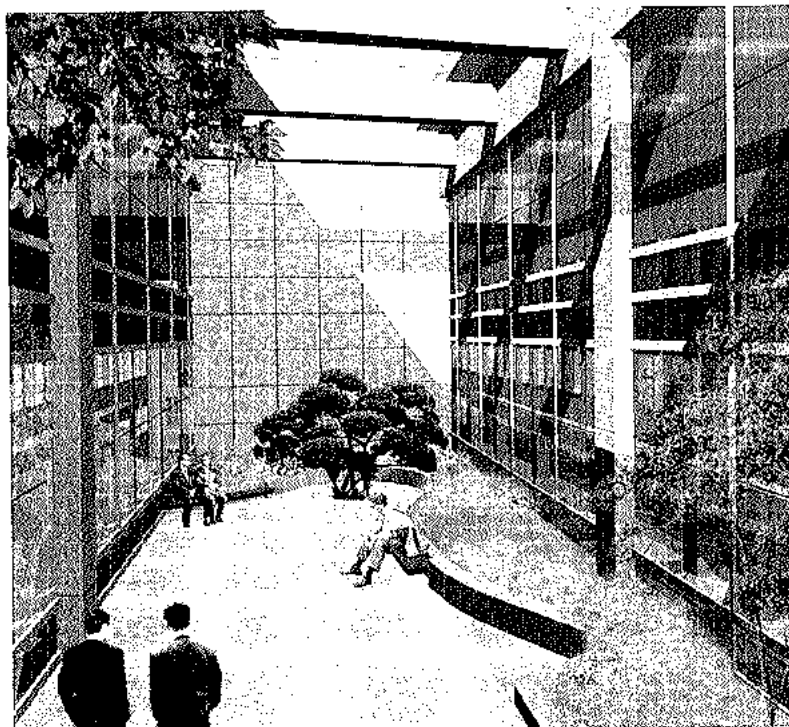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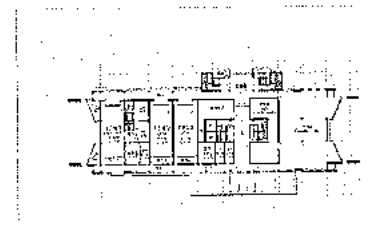
정하는 경우가 아닐까. 스스로를 꽉 채
워지는 모양이 됨으로써 스스로 쓸모
를 획득하는 차원이다. 온몸으로 마개
가 되어 있는 만큼 스스로 꽉 채워진
공간은 필연적으로 '건장된 짜임새'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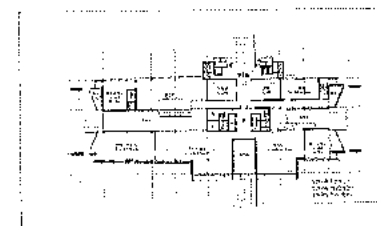
이번 '춘천법원 강릉지원청사' 프로젝트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자유, 평등, 정의'를 상징하는 법원청사라는 의미에서 법원청사의 특수성이 자못 일반적인 Space Program과는 차이가 있고, 계획대지가 예향의 고장인 강릉이라는 점에서 지역적인 특수성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따라서, 법원의 Space Program에서 주어진 각각의 물리적인 스케일(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을 해석하고, 발주처에서의 지향하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법원청사의 이미지에서 탈피, 보다 친근감 있고 지역주민에게 개방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계획의 주안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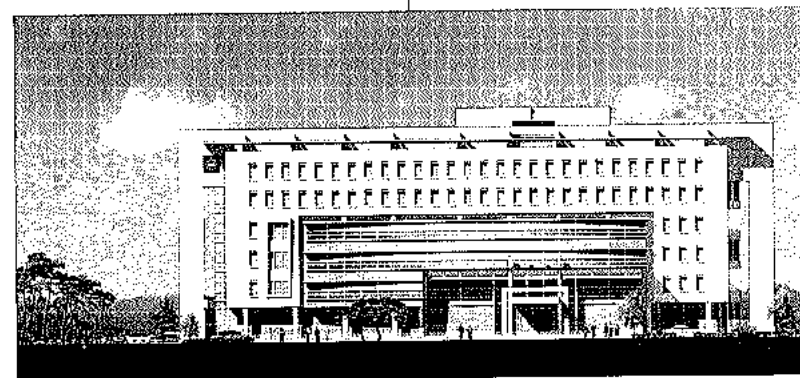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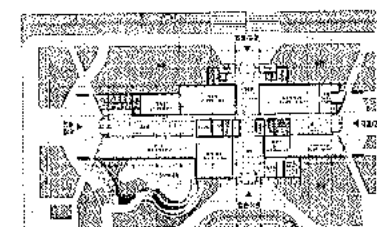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1층 평면도

안동대중앙도서관

The Central Library, Andong University

국립안동대학교에서는 과학화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21세기의 학술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13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강철희)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지난 5월 11일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에시드(함노훈)의 안이,佳作에는 (주)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안희상)의 안이 각각 선정됐다. 2005년 완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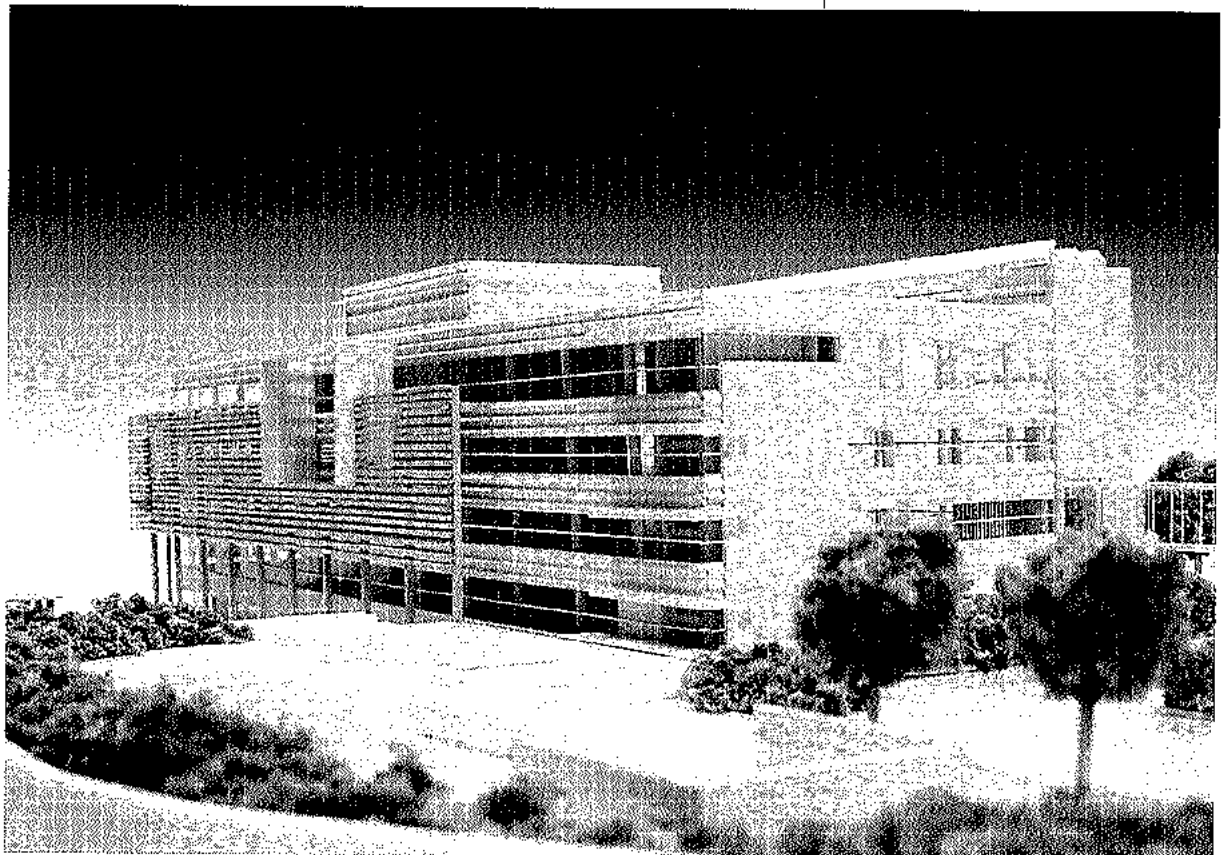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강철희)

대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안동대학교 내
대지면적	7,046.16㎡
건축면적	2,426㎡
연면적	9,475㎡
건폐율	34.43%
용적률	1121.94%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54대(도서관 35대, 지역협력관 17대, 장애인용 2대)
외부마감	창호 : THK12 강화유리, THK18 복층유리 외벽 : THK3 알루미늄 스위트 패널

지난 2월에 방문한 안동은 안개가 다소 끼어 있었다. 1983년경에 이곳 안동 모대학의 마스터플랜과 강의동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곳이라 나름대로

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곳이었다. 그 이후로는 방문한 적이 서너 차례밖에 되지 않아, 고속도로를 넘어 다르게 된 안동은 고고한 그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주는 그토록 보존하려 해도 상업성이 이미 많은 부분 배어 버린 관광지로 변해 있는데, 안동은 달랐다. 안동은 '전통'이라는 주제를 침묵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건축설계는 문제점을 풀어 가는 방식(Problem-Solving Way)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부담이 없다. 특히 법규를 최우선 해석 요인으로 하는 프로젝트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은 과제들이다. 설계의 과정이 어찌 보면 쉬운 설계가 되고만다. 달리 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대응하였다'라고 강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다하지 못한 열정, 무감각한 디자인 결정, 수동적인 디테일 처리 등의 미봉책에 그칠 경우,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역사의식같은 죄의식을 어찌 떨칠 것인가?

안동대학교의 도서관 현장과 대학건물들을 돌아 보았다. 각 건물들이 나름대로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 웬만한 형상을 가져서는 안되리라는 긴장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새롭게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흥분감도 감출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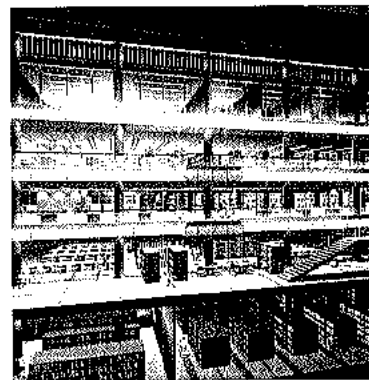
'전통'이라는 주제에서의 '지역성'을 기술적으로 잘 표현하면 '세계성'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는 개념에 착안하였다. 현대적 '기술'로써 '전통의 전승'을 이루려는 의도였다.

배치계획에서 남동쪽 마당에 안동이 지닌 전통요소들(문화재급의 서원, 천연기념물인 소나무, 탑 등)을 배치하고, 이들의 정신적인 요소들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정보화되는 것으로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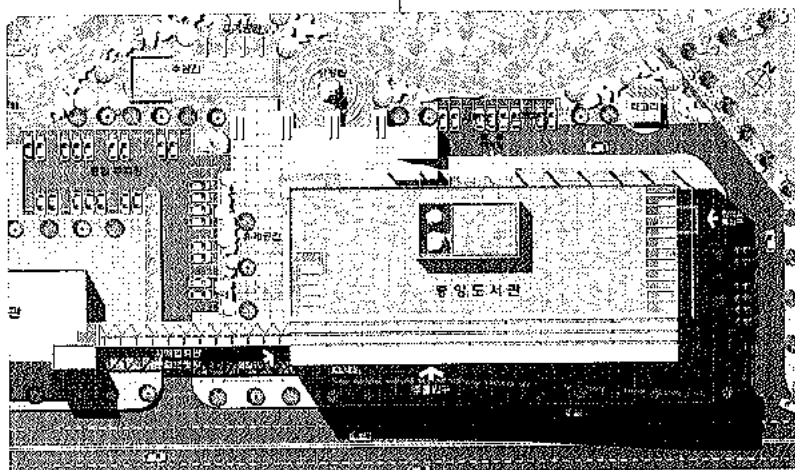
교발전의 이미지를 도로 진입변에 유리망구조(정보네트화)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존학교 건축물과의 동선을 고려하고, 국제협력관과의 효율적 기능성을 고려하여 연결통로와 공동주차장 설치를 제안하였다.

건축개념은 문(門)의 형상으로써, 캠퍼스 관문과 정보를 통한 세계와의 교류를 상징화하였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선비정신을 나타내고자, 공간에 연출효과가 극대화되는 투명성을 부여하였다. 도서관 건축에서 사용상 제한적인 요소인 햇빛을 조절하기 위하여 차양재를 목재로 구성하면서 안동의 달이 지나는 전통요소를 가미하였다.

건축물의 도서관과 정보화 센터의 기능은 유사한 도서관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 건축에서 필수적인 공간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픈플랜을 도입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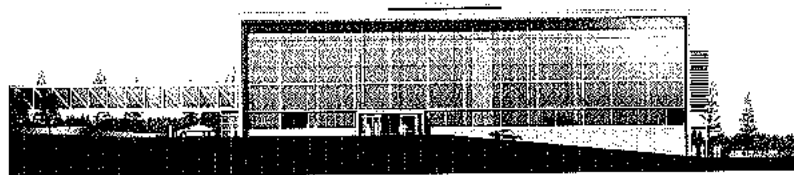
다. 공용공간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으로 하고자 전면 아트리움을 도입하였으며, 이 공간이 미세기후환경조건(Micro-Climate Environment Condition)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안동지역의 생태환경보존을 이미지화하고 또한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 태양열시스템을 일부 도입하였다. 기술로써 지역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배치도



세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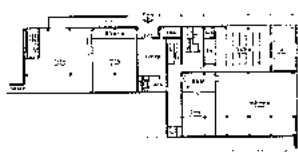
정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무영종합건축사
사무소(안길원) + ACID건축
(함노훈)

지역지구	도시계획지역/학교시설지구(예정)
주요용도	도서관
대지면적	7,135㎡(2,158평)
건축면적	3,375.14㎡
연면적	9,663.31㎡
건폐율	47.30%
용적률	135.44%
주차대수	64대 (장애자 2대, 직원 14대, 일반 48대)
규모	지상 4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컬러록층유리+알루미늄 패널
디자인파트너	한동욱, 김유한
설계팀	신영기, 최호진, 성은석

澗紗明月形局 (완사명월형국)

지역성

안동은 고려 대도호부, 신라 성리학의 원류요, 유림문화의 발원지로서 독특한 유교문화권의 중심에 있다. 안동은 전통과 예를 중시하는 교육도시이며 안동대는 이 지역 대학교육의 중추로서 송천과 천전 사이의 낙동강을 굽어보는 구릉지에 자리잡고 있다.

하회 물놀이, 봉정사, 도산, 병산, 영호루, 선어대, 백운대..... 비경들이 말해주듯이..... 택리지에 보면 이 지역을 '달간 비단사이로 밝은 달이 비치는 형상'이라 했다. 이 지역의 풍수학적 기류는 낙동강을 따라 천전에서 선어대로 휘돌아 간다.

그 가운데 선 안동대는 이 지역에 전통 계승의 Vision 이요, 빛이 되어야 한다.

배치개념

대지는 교문에서 불과 십 수미터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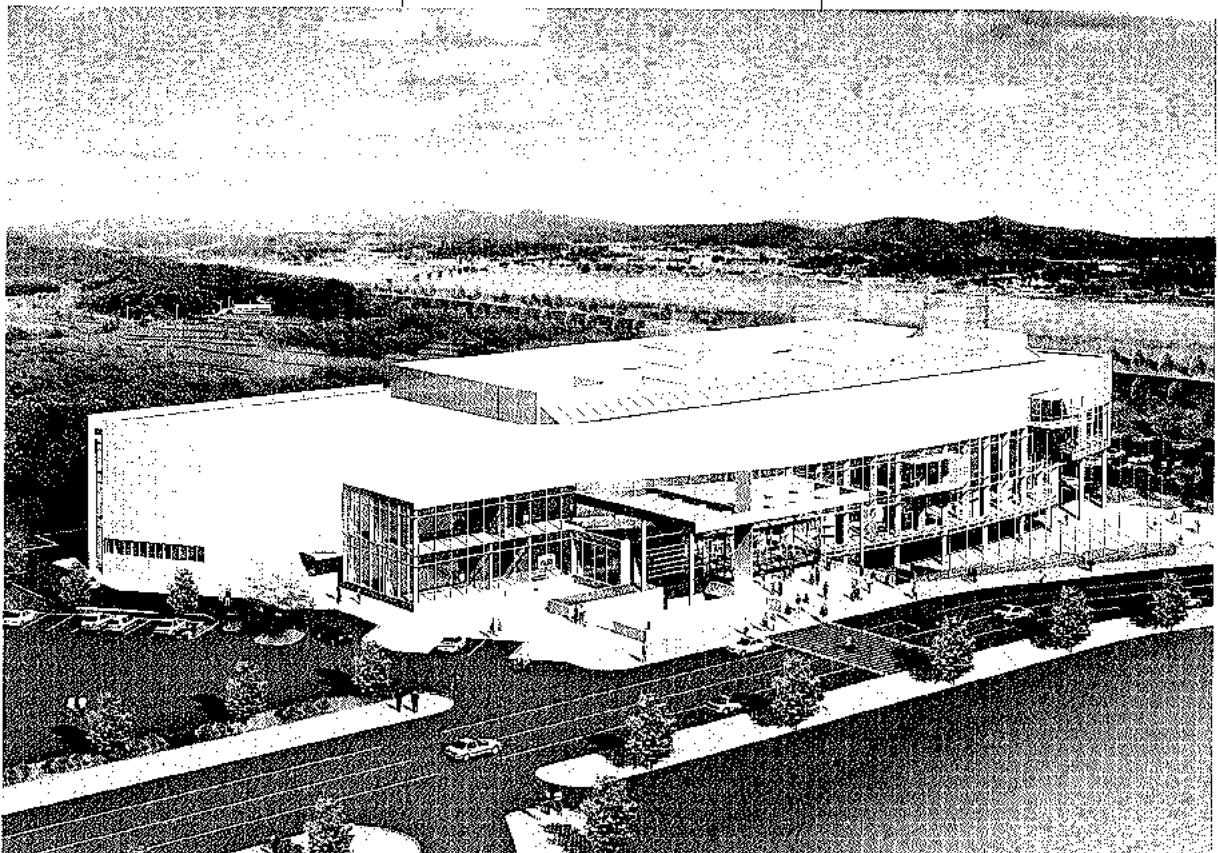
떨어져 있지 않고, 교문 진입로를 따라 대지 아래에서 위까지 한 개층 가량의 Level 차이가 있는, 중앙도서관이 자리잡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입구 경사지이다.

대지여건상 교문과 도서관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전면 진입 광장, 측면 소나무 정원 등 진입부 외부공간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Mass 자체도 저층이며 / 전면 광장이 주어지고 / 지층이 Open 된 교문으로 부터의 부담감을 최소로 줄이고, 전체 캠퍼스에 대해 포용감과 시각적 개방감을 보여주는 배치가 되도록 했다.

공간개념

도서관은 정보 관리화로 진보되고 있다. 이는 21세기의 매스미디어와 정보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지식형태가 정보 시스템으로 변환되면서 도서관도 새로운 개념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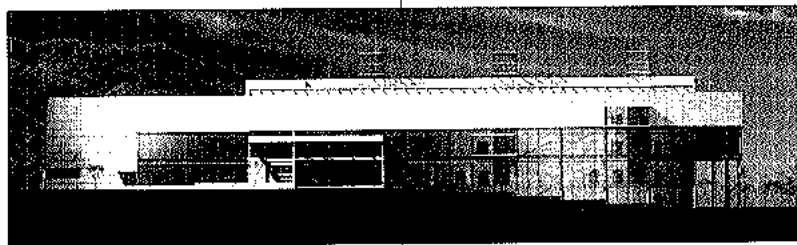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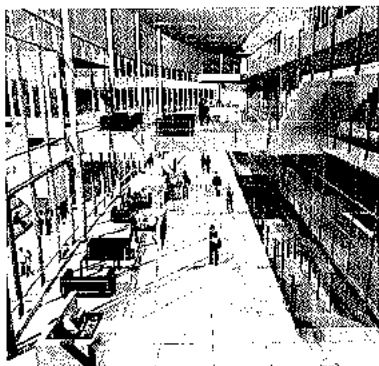
뜻한다.

먼저, 도서관은 성장, 변화, 확장 되어야 한다. 총별 정보검색대와 주전자정보실의 연계 등의 첨단 정보 환경 구축을 기본으로 무한한 성장에 대비하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보다 단순한 Zoning 과 동선으로 기능성과 확장성을 명쾌하게 나타내도록 했다. 도서관계획에 있어서 확장성 고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도서관은 간편하고 들어오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지층과 기준층의 자유로운 진입과 기능적 통제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자유로운 이입의 전이공간을 부여하고, 대회의실 및 피로티점원의 별도외부시설로의 활용, 전시/ 휴게/ 이용자검색 공간 확보 등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간연출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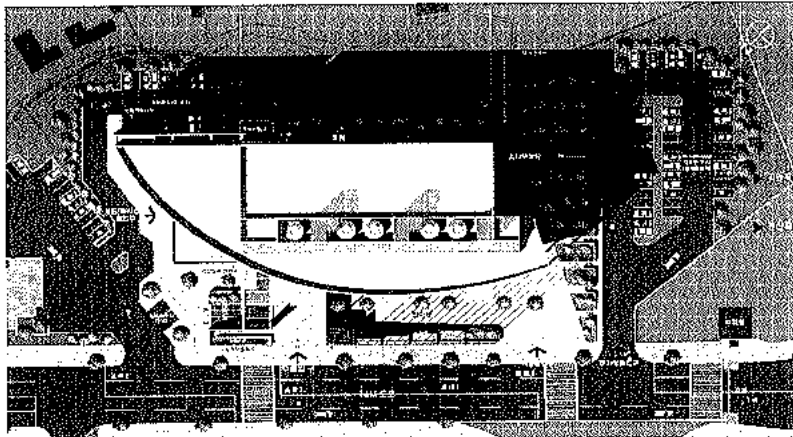
조형개념

두개의 Solid Mass 와 하나의 Void Mass로 연결하여 건물의 기능을 최적화함과 동시에 풍부한 공간감과 변화감을 주도록 했다.

지형과 대지조건에서 유추된 부드러운 곡선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스러운 시각의 흐름을 유도하도록 했으며, 캠퍼스 전체에 대해 포용감을 줄 수 있게 했다. 진입광장, 라운지홀, 피로티후원으로



정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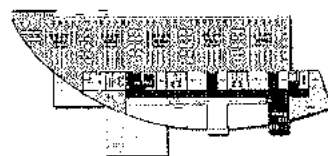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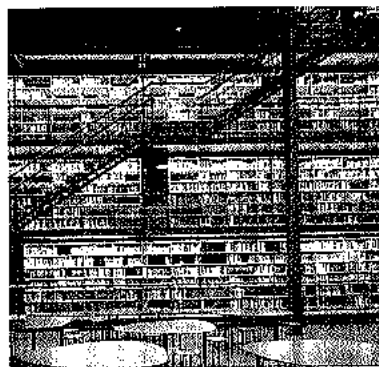
연결되는 지층부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시각적, 공간적으로 개방하여 지상화시켜, 전체 Mass 에 대해 공간적 완화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은 안동대학교의 상징이자 이지역특성을 형성화한 Landmark 적소임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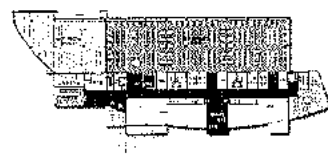
"SAVE IT AND BRING BACK IT'S GLORY!"

안동대에서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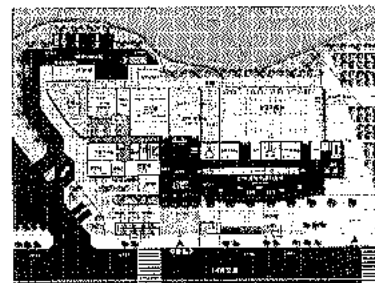
상부에 돌출시킨 세 개의 빛기둥은 유구한 유림문화권의 영광을 되새기고 되돌리지는 간절한 소망이요, Vision이다. 그것이 안동의 등불이 되고 향기가 되어 모두를 밝히고 모두에게 향이 되기를 바랐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가작 / (주)시명종합건축사사
무소 (안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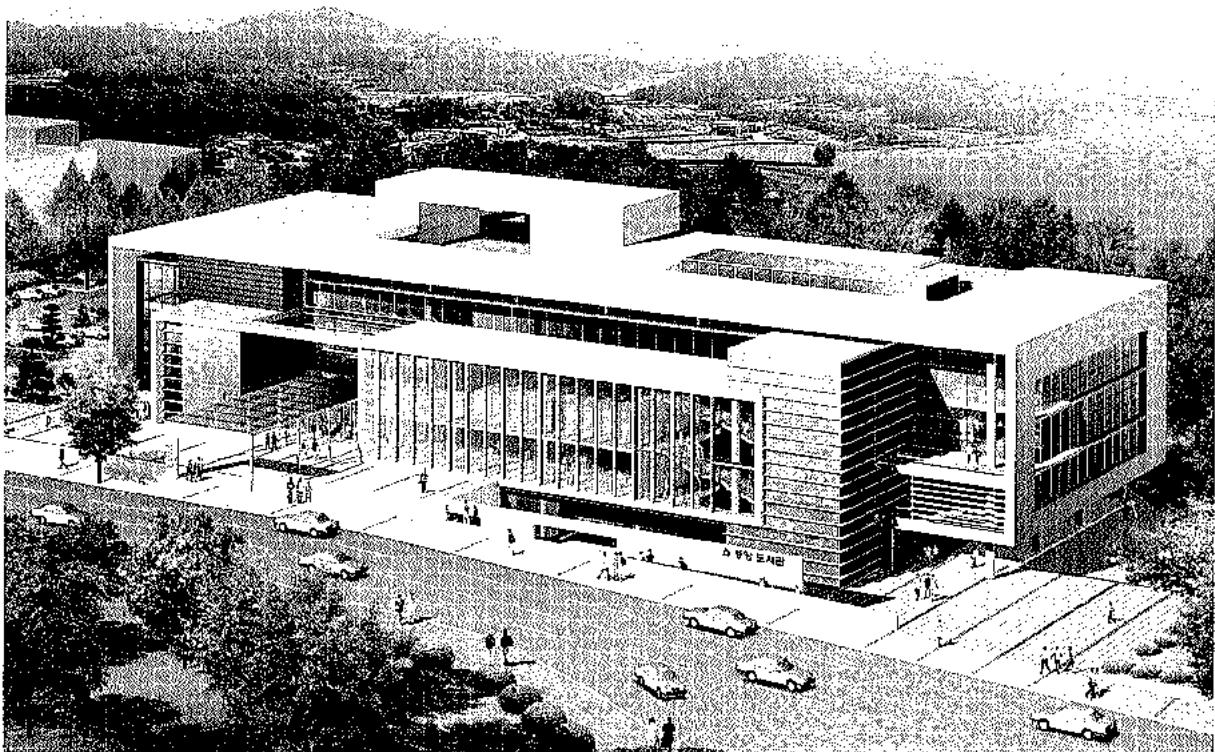
대지면적	7,046.16㎡
건축면적	2,487㎡
연면적	9,573.69㎡
건폐율	28.3 %
용적률	73.6 %
주차대수	46대 (장애인주차4대 포함)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노출콘크리트, THK24 복층유리
설계팀	이경애, 조성연, 김작만, 정일영, 심재현, 신현경

이 계획안의 주요 목표는 역사적 전통이 강한 안동의 지역적 특성을 대학 도서관이라는 건축물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 안동대학교의 위치는 권역상 안동의 교육문화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된 전통적 인식이 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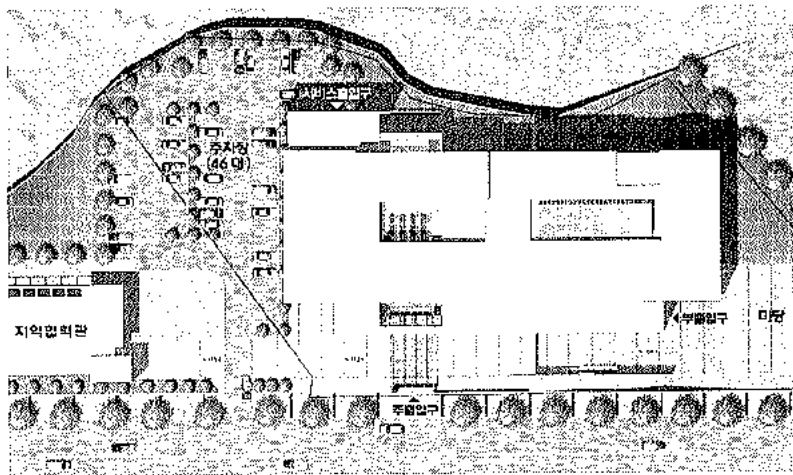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중앙도서관의 대지는 마스터플랜상 대학의 주요 시설들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대지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데 전통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그것이다. 전통적 측면은 대학과 지역내에서 도서관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말하는 것이고, 기능적 측면이란 전체 대학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마스터플랜상의 기능성과 순수 도서관에 대한 기능성으로 보았다. 이를 근거로 이 계획안은 두 가지 측면의 접근방식을 택하였는데, 도서관의 상징적 측면은 전통적인 대지의 처리와 시각적 특성을 반영하는 축의 처리방식 그리고 마당과 건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기능적인 도서관의 문제는 자료중심의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 효율적인 자료의 관리와 행정업무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동선체계를 반영하였고 쾌적한 내부환경과

자연광을 최대한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천창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동선의 분리 및 연계를 통해 도서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계획하였으며, 반영교자했던 입면 요소와의 통일성을 위해 과감한 보이드 공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배치에서 나타나는 보이드 공간은 전체의 육중한 매스감을 경감시키는 역할은 물론 자연광의 처리와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며, 입면 또는 배치에서 보이는 디자인의 주요 요소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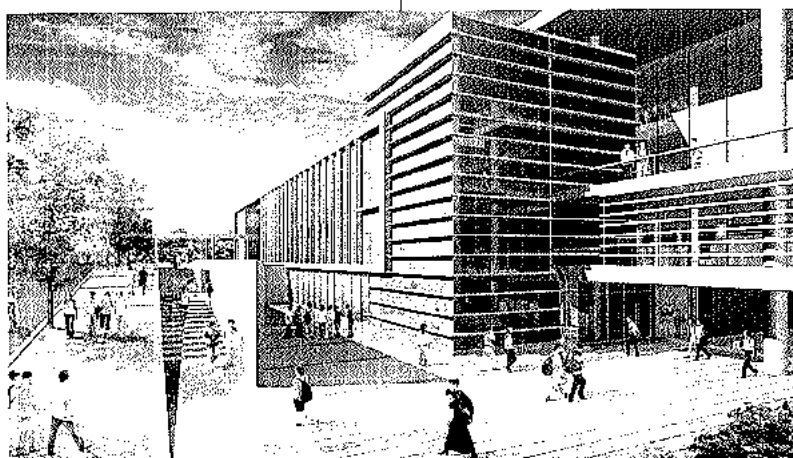
이 계획안을 다루면서 어려웠던 점은 타 대학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자료의 보관과 열람 위주의 도서관 기능에 있었으며 대지의 특수한 조건, 즉 위계, 축, 연속성, 경관 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계획안은 주어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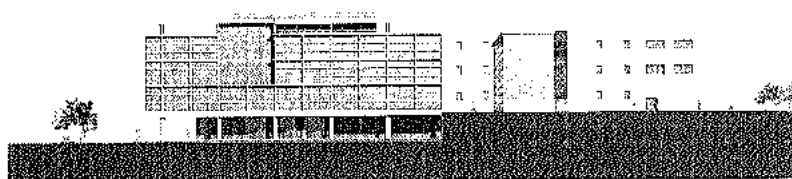
반영했다는 점과 무리한 실험적인 시도는 피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이 지녀야 할 평면, 입면 및 단면의 기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매스와 형태의 처리를 현대성을 반영하면서도 균일하고 복잡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처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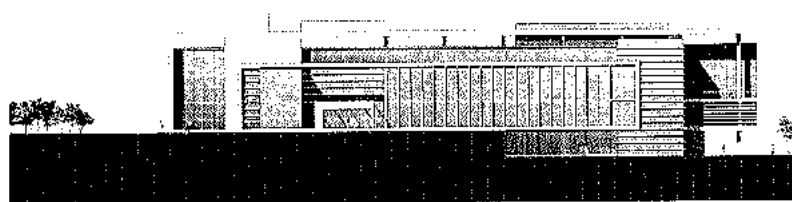
세치크



원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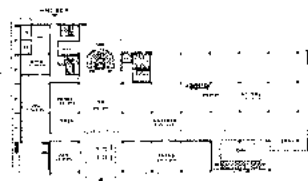
개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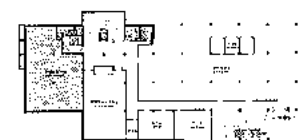
정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한국통신 용산전화국

Yongsan Telephone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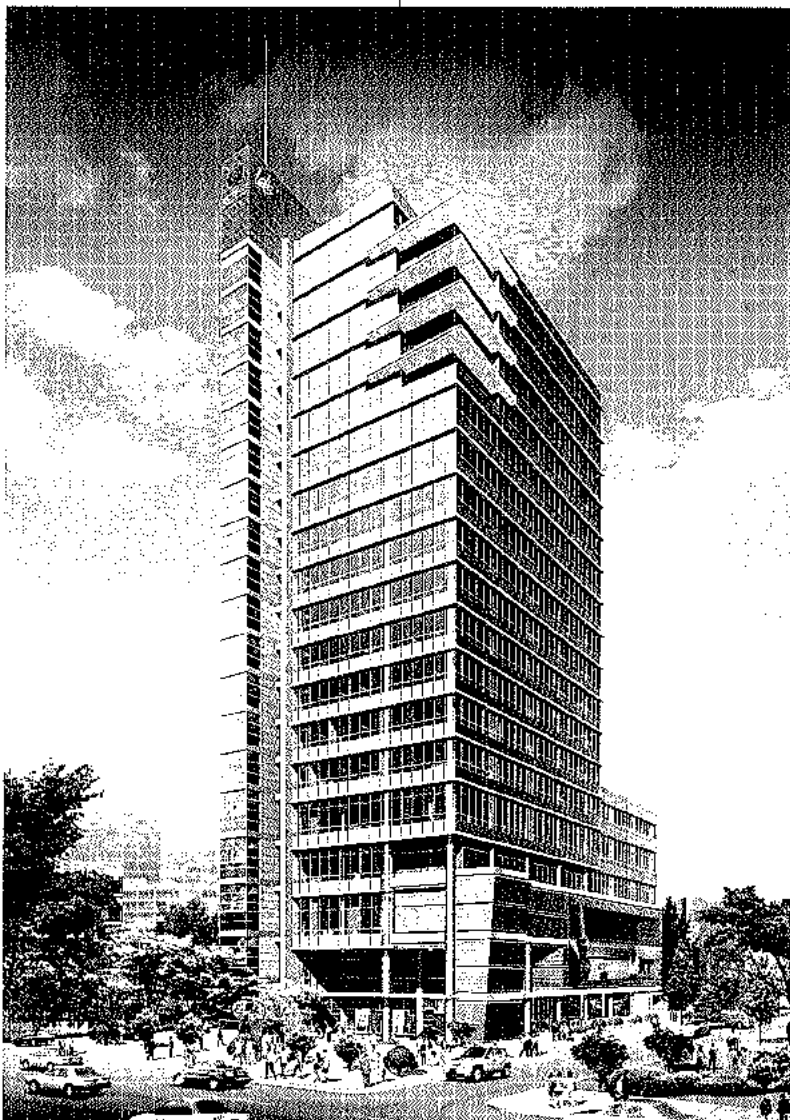
▶ 당선작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무소(김병년 · 현태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4-3

지역 ·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2,378.80㎡
건축면적	1,330.35㎡
연면적	26,418.09㎡
건폐율	55.93%
용적률	793.43%
규모	지하 4층, 지상 19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 마감, 알루미늄쉬트 창 - 24mm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전영성, 안성일, 최익석, 김동수, 김종우, 박동진, 방신관, 신기수, 김태우, 최우성, 배형식, 황정기, 배준호, 정명희

‘상상하다’라는 동사는 넘치는 것보다
는 부족한 것, 당장 가능한 것보다는 언
젠가는 가능한 것과 좀 더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어휘이다. 그래서 ‘상상하다’는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과거나 현재보
다는 미래를 위한 동사이다.

건축은 시간과 공간을 상상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계획대
지 속에서 건물이 향후 주변속에서 어떻
게 자리잡으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
느냐가 계획의 주안점이었다. 따라서
대지의 특성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향
후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우
선이었다.

배치계획

용산부도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향후
주변 발전상황을 고려한 결과 부지 북동
측에 고층 건물군이 구성되어 남산 조망
권이 차단됨에 따라 코아를 북동측에 위
치시킴으로서 용산가족공원과 한강방
향으로의 광범위한 조망권을 확보하였
다. 또한 계획대지가 한강로(40M)를
단방향으로 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면
성을 부여하고, 박물관의 자연스런 동
선유도를 위한 공개공지 확보와 별도의
수직동선을 고려하였다.

매스계획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최고 높이
제한에 따라 부지 전면부의 수직적
Mass와 저층부 수평적 Mass 구성으
로 시각적 대비감을 부여하고, 극적 사
선요소의 도입에 의한 역동성 확보로 한
국통신의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독특한
Identity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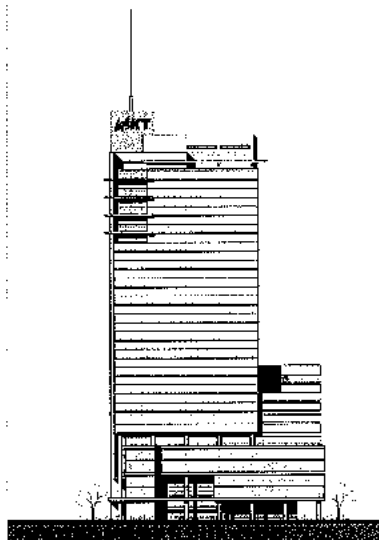
평면계획

전화국 및 통합콜센터 기능 수용을 위한
공간의 통합구성으로 융통성을 부여하
고 코아와 수용공간의 명확한 구분 및
연계에 의한 유기적 평면구성을 시도하
였으며 또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집약
적 코어 구성으로 통신시설에 필요한 충
분한 덕트공간을 확보하고 비상용엘리
베이터의 화물검용 계획 및 여유공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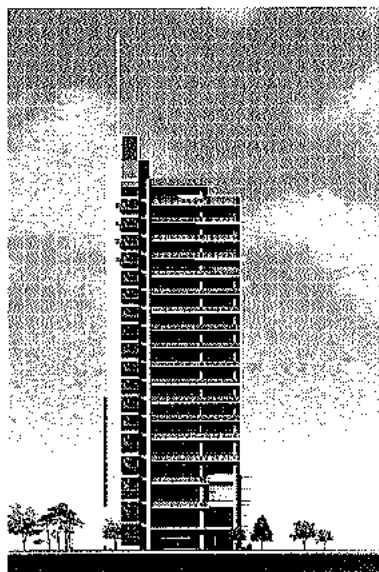
보로 원활한 동선흐름을 구축하여 완벽한 전화국기능+α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현재의 용산 한강로는 과거의 모습에서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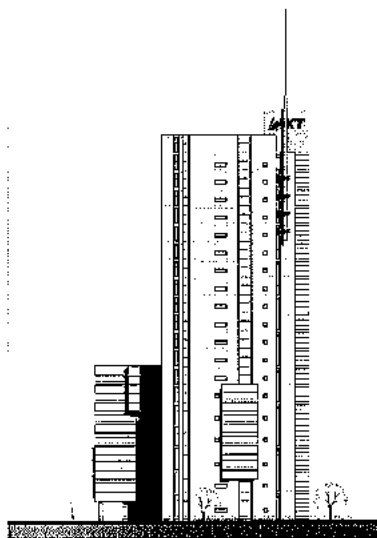
이에 한국통신 용산전화국은 우리가 계획한 미래의 모습 그대로 용산부도심 속에서 한강로의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자리잡아 용산주변의 시선을 새롭게 집중시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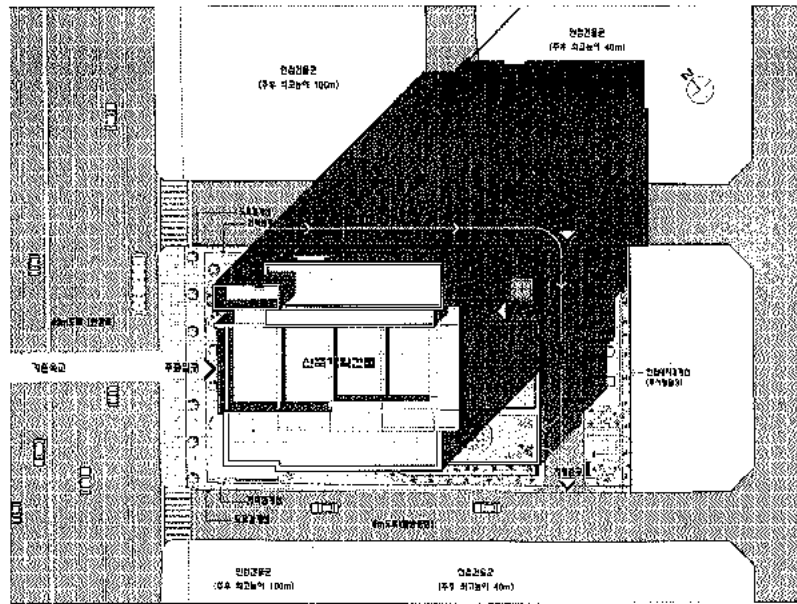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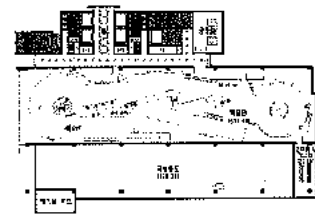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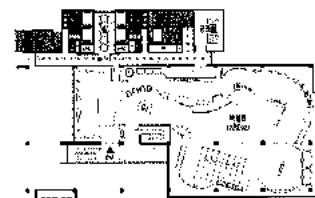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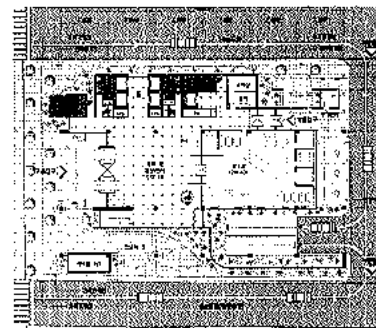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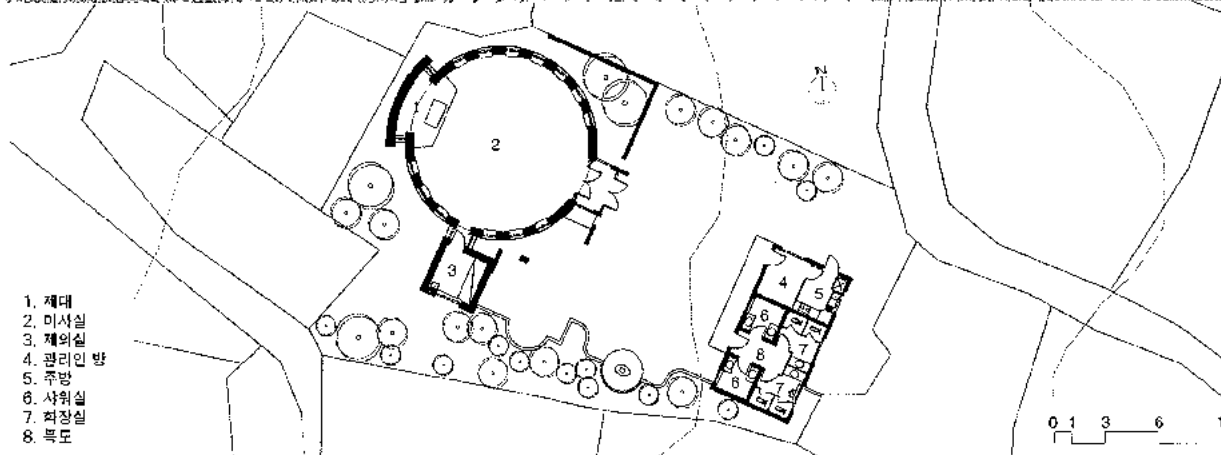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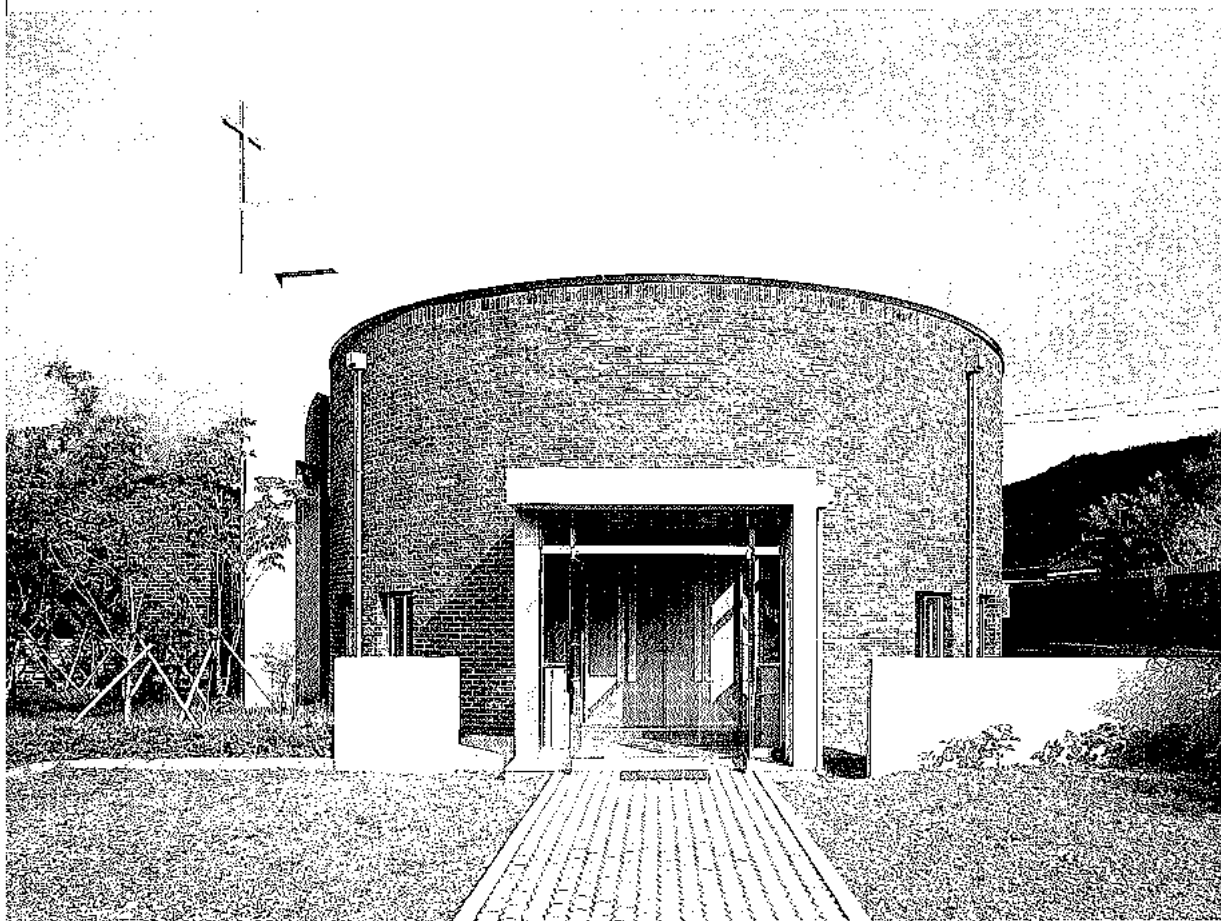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청도성당
지슬공소
Jiseul Gongso

서보광 / (주)동성건축사사무소
by Suh Bo-Kwang



1. 제대
2. 미사실
3. 제외실
4. 관리인 방
5. 주방
6. 샤워실
7. 화장실
8. 복도

0 1 3 6 10

메터 및 1층 평면도

「지금부터 약 80여년 전쯤에 한 신자가 지슬리로 이사를 왔다. 그 당시 신부님은 그 신자를 위하여 대구에서 치정산을 넘어 지슬리까지 걸어 다녔다고 한다. 그후 1956년, 지슬리에도 한 신자의 사랑방 두 칸에 공소가 생겼고 나중에 7평 남짓 되는 공소가 지어졌지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난방도 되지 않는 싸늘한 방이었다... 지슬 공소의 내력 중에서」

起.

아마 늦은 오월이었던 것 같다.

나른한 오후, 경북 청도본당에 계시는 박재진 베드로신부님의 전화를 받았다.

“서박사! 여기 지슬에 예전부터 공소가 하나 있지 않았소. 근데 이제는 너무 낡아서... 서박사가 직접 와서 한번 봐 줬으면 좋겠소”

도심지를 벗어나 지슬리를 찾아가는 길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었다. 청도 각북으로 가는 길목인 꼬불꼬불한 혈티재를 넘으면서 조금 전 신부님의 말씀을 생각해봤다.

“너무 낡아서 다시 짓고 싶은데, 돈은 없고... 조립식으로 지을 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을 지.. 어쩌면 좋을 지 모르겠소”

“그러면 제가 일단 한 번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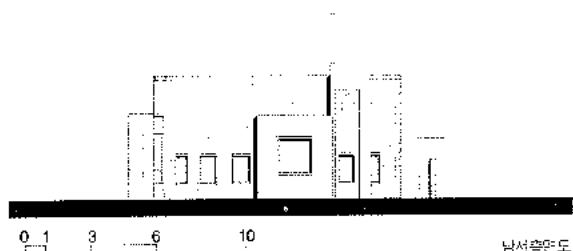
꼬불꼬불 한참을 올라 간 혈티재 정상엔 커피를 파는 천막으로 지은 작은 휴게소가 하나 있다. 여긴 청도 각북이 거의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거기에 차를 세웠다. ‘여기서 보면 보일 것도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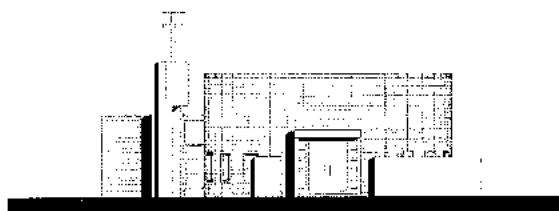
전망 좋은 곳에서 따뜻한 커피 잔을 들고서 내려다 본 청도 쪽은 맑은 날씨 탓에 제법 멀리까지 볼 수 있었다. 청도는 늘 오가면서 평소에도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이라고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곳이라, 남달리 애착이 가는 곳이었다.

아마도 대구 쪽으로 큰산들이 둘러쳐져 있는 저 아래 보이는 아담한 마을이 지슬(芝瑟)이라. 대도시 근교가 그렇듯 식당과 숙박시설들로 약간은 세속화된 듯한 국도변에서 벗어나 아직까지는 비교적 호젓한 곳, 거기에 산 좋고 물 좋은 마을, 지슬이 있다.

지슬공소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어귀엔 여느 마을처럼 큰 느티나무가 있고 앞쪽으로는 작고 맑은 계곡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푸르른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곳에 자리잡은 아담한 마을, 그 가운데 녹슨 철재 지주 위에 세워진 종탑이 그곳이 공소임을 말해 주고 있었



남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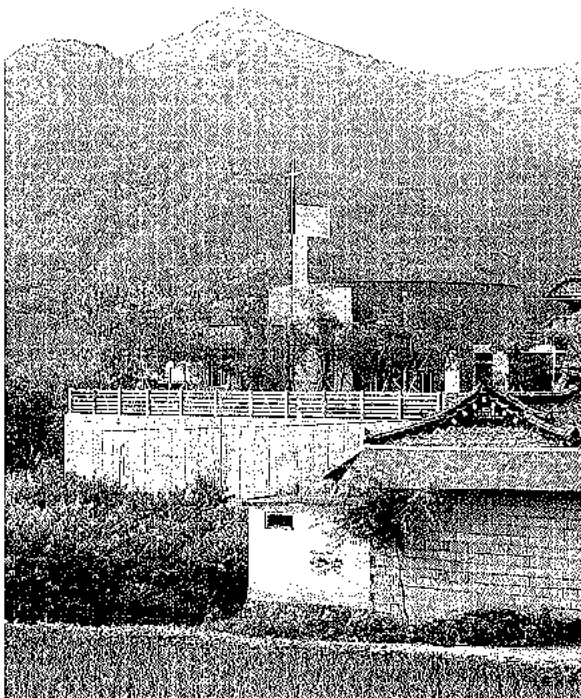
정면도



신축 전 모습

다. 주위로는 나지막한 돌담들이 둘러쳐져 있고 거의 다 찌그러져 가는 스트리트빙의 목조건물과 잡초들...

내가 둘러본 공소는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낡아있었다.



"신부님, 아무래도 다시 지어야겠습니다. 예산은 있으십니까?"

".....삼천만원 정도는 모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돈으로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쉬운 대로 간단하게 조립식으로라도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리 그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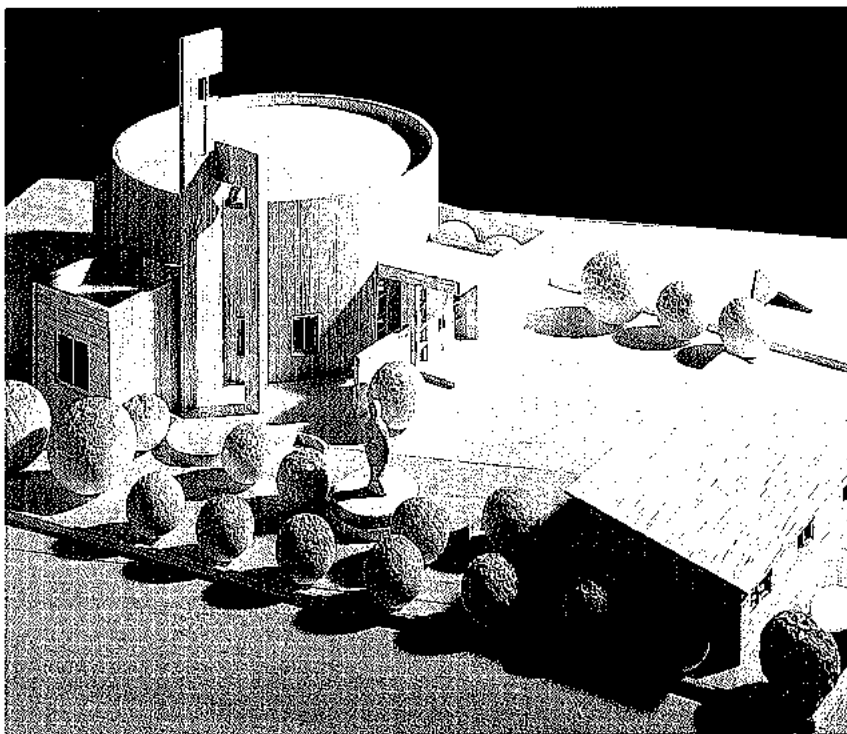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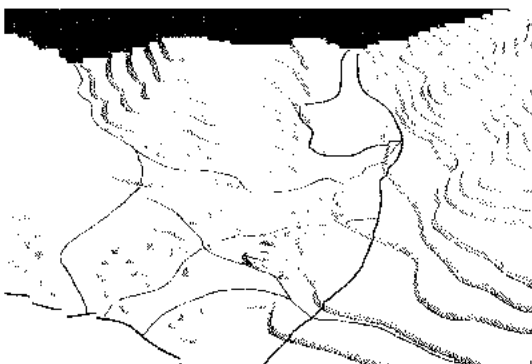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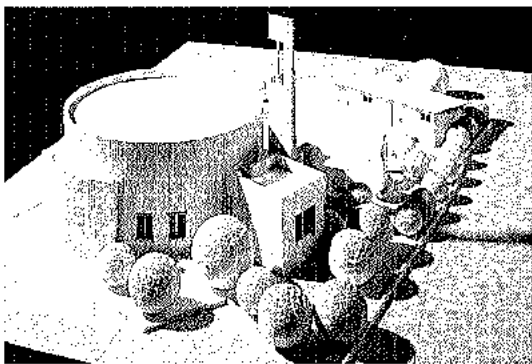
신부님도 그 돈으로 번듯한 공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듯 했다.

"신부님, 그럼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承.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서, 사진과 머리 속에 담아온 주변의 현황과 지형도를 쳐다보며 한참을 고민해야만 했다.

기능상으로는, 작은 공소이지만 최소한의 종교전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서는 마을의 작은 행사들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할 테고, 주변의 빼어난 풍경을 생각해 보면 산간학교나 피정의 목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준비된 예



산이 크게 없으니 신자들과 설계·감리자, 시공자의 봉헌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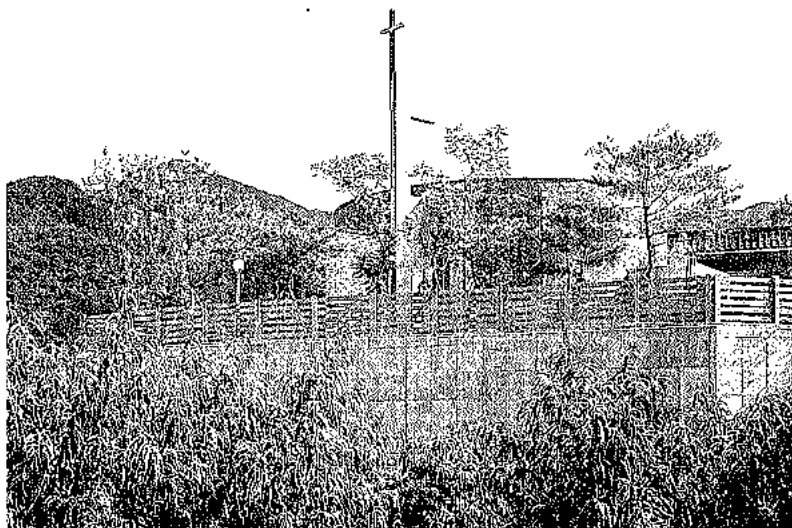
형태상으로는, 공소의 기능상 단순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형태를 지녀야 하고, 입지조건상 주위의 경관과도 어울릴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되었다.

「하늘(天)은 둥글고(○), 땅(地)은 네모지고(□), 그 사이에 인간(人)이 있다(△)....」

하얀 종이 위에 원을 그렸다.

단순한 원형의 공간에 미사를 위한 주공간을 담고, 제의실과 같은 최소한의 부속공간을 붙여나가며 계획에 임했다. 그렇게 해서 작지만 하늘, 하느님을 상징하는 원형의 주 매스와 여기에 땅을 상징하는 듯한 사각형의 제의실을 부가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종탑을 만들어 지슬공소의 기본 틀을 잡아나갔다.

주변환경과 적절하게 어울리고 유지보수에도 적합한 적벽돌과 노출콘크리트를 적절히 조합하여 외부 마감을 정하고, 내부적으론 둥근 외벽을 따라서 천창들을 배치하여 벽면을 타고 빛이 흘러내리도록 하였다. 외벽을 따라 배치된 천창에 의하여 매스상으로 분리된 천장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착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천장은 보를 노출시켜 십자가의 모양을 형상화하였다. 외벽의 창은 제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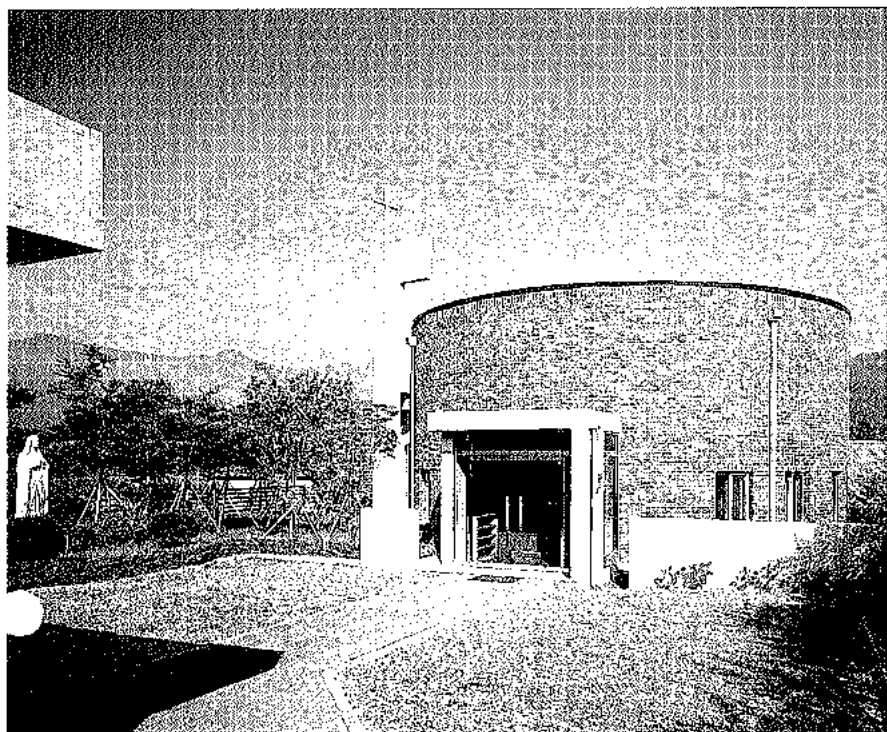
좌우에 7개씩의 창문을 가지며 14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간학교나 피정의 집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로서 샤워실과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춘 부속동을 계획하였다.

轉.

이렇게 계획한 계획도면과 모형을 들고 신부님을 뵈러 가는 길이 가볍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신부님께서 모형과 계획도면을 보시며,

“모형처럼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면 저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뜻 있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 봐야지요...”

공사비의 1/5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적절한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어렵게 뜻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몇 가지 변경을 거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공사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사기간 동안 잦은 변경을 거치게 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설계자의 양보가 요구되었고, 아쉽게도 그 과정에서 찬창이 없어지고 노출콘크리트의 가벽이 없어지는 등 초기의 디자인 의도가 많이 퇴색되게 되었다.

結.

이렇듯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설계·감리자와 시공업체, 조경업체의 봉헌, 그리고 신자들의 모금에 의하여 마침내 축성식 및 첫 미사를 가지게 되었다.

지슬공소가 축성되는 날, 부지런히 쫓아다니던 봉사의 대가는 감사와 정성을 담은 감사패로 돌아왔다.

지금 지슬공소는 그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르른 산과 맑은 계곡을 가진 입지적 특성 때문에 산간학교와 피정의 장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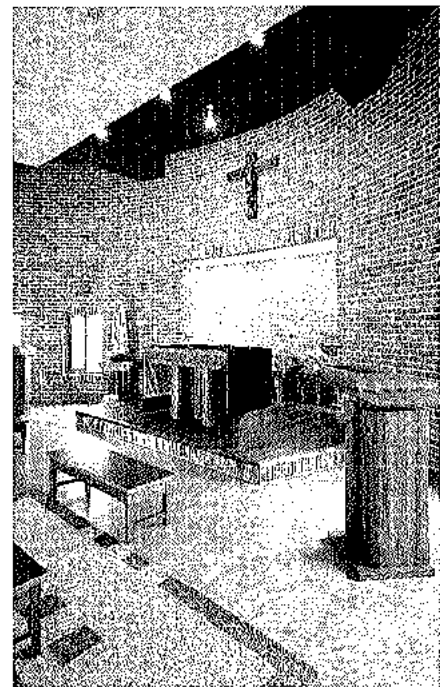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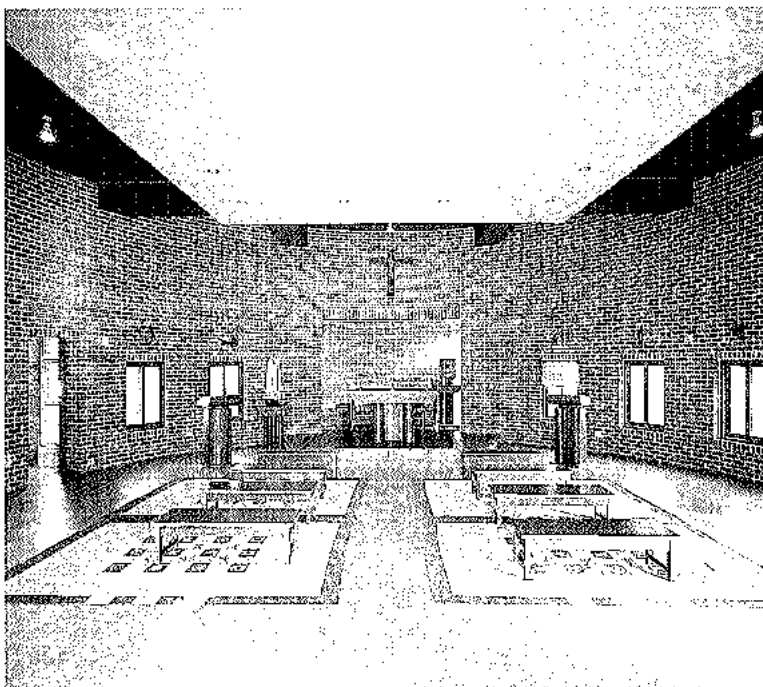
오랜만에 찾아 간 지슬 공소엔 공소의 회장님이 계셨다.

「지슬공소를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는 공소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작품은 건축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다. 圖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지슬리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617.00㎡(186.64평)
건축면적	153.79㎡(46.52평)
연 면 적	150.28㎡(45.46평)
건 폐 율	24.93 %
용 적 륜	24.36 %
규 모	지상1층
구조방식	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외부마감	적벽돌치장쌓기+드라이비트
주요설비	파이프온돌
시 공 자	대광건설(주)
조 경	강남조경(주)
건 축 주	천주교 대구대교구
설계기간	1999년 5월~ 1999년 8월
공사기간	1999년 8월 ~2000년 4월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과제

Applications and Assignment of District Units Plan

김영하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Kim Young-Ha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과제,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과 일본의 지구계획, 공동주택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과제
2.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과 일본의 지구계획
3. 공동주택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에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는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획일적이면서 소극적으로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지역제의 소극적 계획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건축법에서의 도시설계가 제도로 정착하였으며, 1991년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미국의 도시설계, 일본의 지구계획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제도와 유사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각각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별도의 절차로 운영됨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도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이 제도의 통합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2000년 2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두 제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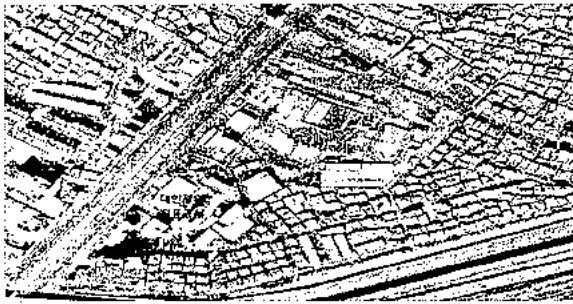


그림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지구단위계획」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축적 규제·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설계와 여기에 포괄적 의미의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계획적 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세계획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절차를 통해 수립되지만,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확실성을 특성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시계획과는 달리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의 특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일반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이면서 도시계획절차에 의해 수립되므로 반드시 상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게 되므로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일반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이다.

둘째, 일반적인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도시계획에서 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건축물의 형태/색채/배치/건축선 등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도시계획보다는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셋째, 구체적인 3차원의 집합형태와 공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입체계획이다. 일반도시계획이 보편적이고 확실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평면계획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획지, 건축물, 경관, 광장,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등의 각종 소규모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차등적인 접근을 통해, 3차원의 집합형태에 대한 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공공공간과 그 속에 담기는 사람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입체적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대로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실천계획이다.

다섯째, 지역특성의 반영이 가능하고 미래

의 개발패턴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계획이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주민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과 계획작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역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의 도입을 통해 도시환경의 지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의 반영과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조정적인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구역지정 목적에 따라 부문별 계획수립지침을 갖고 있으며 이는 매우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표 1. 부문별 계획수립 지침

구역지정 목적	계획에 포함할 사항
기존시가지의 정비	• 도시기반시설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사항 • 교통처리 • 공동개발 및 맞벌건축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기존시가지의 관리	• 용도지역·지구 • 도시기반시설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사항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교통처리 • 공동개발 및 맞벌건축
기존시가지의 보존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사항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신시가지의 개발	• 용도지역·지구 • 도시기반시설 • 가구 및 획지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사항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경관 • 교통처리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복합구역	• 목적별로 해당되는 계획사항을 포함하되 나머지 사항은 맞게 지역 특성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

※ 위표는 예시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더하거나 줄이는 등 선택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운용면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필지는 몇 개 자치단체의 지구단위 계획을 자문하면서 나타났던 공동개발, 건축물 규모설정, 인센티브 등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건축에 관한 문제이다.

공동건축은 크게 규제와 권장으로 구분되며, 규제의 경우는 ① 동일 소유자 필지로 인접하여 정형화를 이룰 경우, ②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필지 및 찌투리 필지, ③ 도로, 전면공지 등으로 대부분이 편입된 잔여지와 그 인접필지, ④ 간선도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이 예상되는 필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권장의 경우는 ① 최소대지규모 미달 필지, ② 인접한 동일 소유자 필지, ③ 당해 필지는 최소대지 규모를 상회하나 인접하여 미달필지가 있는 경우, ④ 부정형의 필지와 그 인접필지, ⑤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출이 불가능한 필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따라서 운영상에서는 규제와 권장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는 있으나 심의 시에는 공동건축의 권장을 왜 지정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어 지침의 구체적인 배려와 계획가의 세심한 판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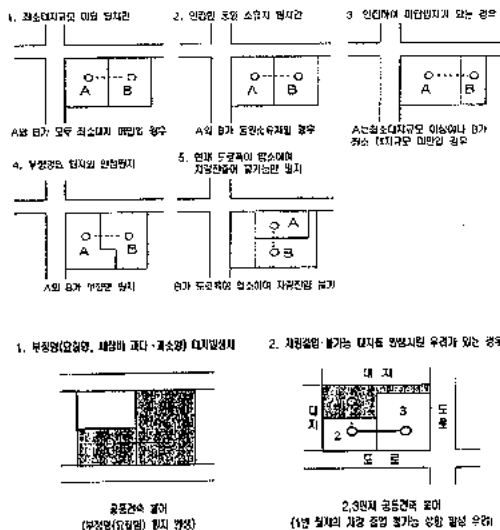


그림 2 공동건축 예시 도

또한 권장의 경우는 규제와는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운영상에서는 재산권으로 인한 소유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동건축으로 지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개개의 필지에서 단독건축을 요구하는 빈도가 많아 인센티브의 의미가 무색할 뿐 아니라 이

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계획자체가 커다란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설계제도나 상세계획 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지구중심, 지역중심, 부도심 등의 위계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 필지규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건축물 규모에 관련된 문제이다.

건축물의 규모 산정에 대한 기본원칙은 녹지, 공개공지 등이 적절히 확보되어 보행공간 및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건폐율을 따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인구수용규모와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하여 적절한 건축규모가 되도록 하고, 도시경관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도시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가구별, 획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폐율은 대지내 공개공지의 확보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공동주택단지에서는 인동간격), 전면 건축선 후퇴, 조경확보면적의 기준, 그리고 옥외주차장의 확보규정 등에 의해 제한되므로 이들 조건을 함께 고려하며 제시하도록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건폐율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용적률계획은 가급적 지구단위로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일 가구내에서도 허용범위를 다르게 제시하여 용통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획지단위로 용적률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용량을 결정할 때에 사용한 구역전체의 개발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의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기는 하나 심의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용적률 산정의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의 용적률과 법개정이전의 '도로 폭에 의한 사선제한'의 조합형 기준만 있을 뿐 기준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특히 허용용적률은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가 계획가나 소유자에게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용적률에 따른 건축규모의 설정보다는 기준높이(인센티브에 따른 최고 높이까지 포함)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그림과 같이 필지별이든 가구별이든 기준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필지가 연구 진행하고 있는 기준높이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임.

표 2. 대지면적, 도로폭의 사전제한에 따른 높이기준 예(필지 별)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용적률 1,300%			
대지면적	도로폭	대지크기(m)	건 폐 율		높 이
		(가로×세로)	건축면적	건물크기	
500㎡	4m	22.36	400.00㎡	20.00	9.54
	6m	22.36	400.00㎡	20.00	12.54
	8m	22.36	400.00㎡	20.00	15.54
	10m	22.36	400.00㎡	20.00	18.54
	12m	22.36	400.00㎡	20.00	21.54
	15m	22.36	400.00㎡	20.00	26.04
	20m	22.36	400.00㎡	20.00	33.54
	25m	22.36	400.00㎡	20.00	41.04
	30m	22.36	400.00㎡	20.00	48.54
	35m	22.36	400.00㎡	20.00	56.04
	40m	22.36	400.00㎡	20.00	6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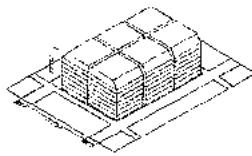


그림 3. 대지면적 도로폭에 따른 사전제한 예(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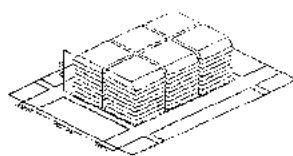


그림 4. 대지면적 도로폭에 따른 사전제한 예(10m)

표 3. 도로폭에 의한 사전제한 1:1.2배 적용 예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용적률 1,300%			
대지면적	도로폭	대지크기(m)	건 폐 율		도로변제한 높이(m)
		(가로×세로)	건축면적	건물크기	
200㎡	4m	14.14	160.00㎡	12.65	6.59
	6m	14.14	160.00㎡	12.65	8.99
	8m	14.14	160.00㎡	12.65	11.39
	10m	14.14	160.00㎡	12.65	13.79
	12m	14.14	160.00㎡	12.65	16.19
	15m	14.14	160.00㎡	12.65	19.79
	20m	14.14	160.00㎡	12.65	25.79
	25m	14.14	160.00㎡	12.65	31.79
	30m	14.14	160.00㎡	12.65	37.79
	35m	14.14	160.00㎡	12.65	43.79
	40m	14.14	160.00㎡	12.65	49.79

표 4. 도로폭에 의한 사전제한 1:1.5배 적용 예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용적률 1,300%			
대지면적	도로폭	대지크기(m)	건 폐 율		도로변제한 높이(m)
		(가로×세로)	건축면적	건물크기	
200㎡	4m	14.14	160.00㎡	12.65	8.24
	6m	14.14	160.00㎡	12.65	11.24
	8m	14.14	160.00㎡	12.65	14.24
	10m	14.14	160.00㎡	12.65	17.24
	12m	14.14	160.00㎡	12.65	20.24
	15m	14.14	160.00㎡	12.65	24.74
	20m	14.14	160.00㎡	12.65	32.24
	25m	14.14	160.00㎡	12.65	39.74
	30m	14.14	160.00㎡	12.65	47.24
	35m	14.14	160.00㎡	12.65	54.74
	40m	14.14	160.00㎡	12.65	62.24

1) 본 내용은 필지가 연구 진행하고 있는 기준높이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임

표 5. 도로폭에 의한 사전제한 1:1.7배 적용 예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용적률 1,300%			
대지면적	도로폭	대지크기(m)	건 폐 율		도로변제한 높이(m)
		(가로×세로)	건축면적	건물크기	
200㎡	4m	14.14	160.00㎡	12.65	9.34
	6m	14.14	160.00㎡	12.65	12.74
	8m	14.14	160.00㎡	12.65	16.14
	10m	14.14	160.00㎡	12.65	19.54
	12m	14.14	160.00㎡	12.65	22.94
	15m	14.14	160.00㎡	12.65	28.04
	20m	14.14	160.00㎡	12.65	36.54
	25m	14.14	160.00㎡	12.65	45.04
	30m	14.14	160.00㎡	12.65	53.54
	35m	14.14	160.00㎡	12.65	62.04
	40m	14.14	160.00㎡	12.65	70.54

표 6. 도로폭에 의한 사전제한 1:2배 적용 예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용적률 1,300%			
대지면적	도로폭	대지크기(m)	건 폐 율		도로변제한 높이(m)
		(가로×세로)	건축면적	건물크기	
200㎡	4m	14.14	160.00㎡	12.65	10.99
	6m	14.14	160.00㎡	12.65	14.99
	8m	14.14	160.00㎡	12.65	18.99
	10m	14.14	160.00㎡	12.65	22.99
	12m	14.14	160.00㎡	12.65	26.99
	15m	14.14	160.00㎡	12.65	32.99
	20m	14.14	160.00㎡	12.65	42.99
	25m	14.14	160.00㎡	12.65	52.99
	30m	14.14	160.00㎡	12.65	62.99
	35m	14.14	160.00㎡	12.65	72.99
	40m	14.14	160.00㎡	12.65	8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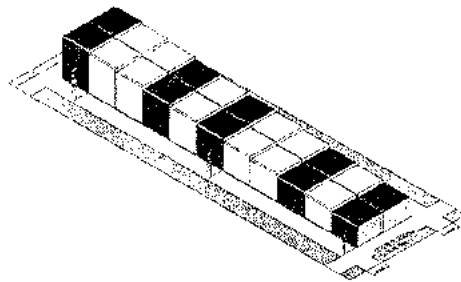


그림 5. 도로폭이 8m일때 사전제한 1:1.5배의 타당성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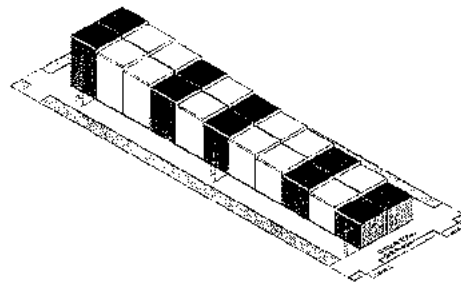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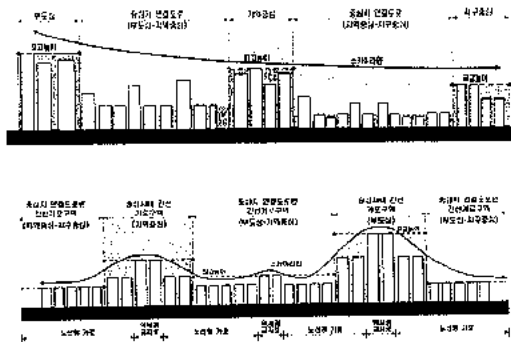


그림 6. 도로폭이 10m일때 사전 제한 1:1.5배의 타당성 예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점하도록 하고 구역 전체의 단계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개발 규모를 감안하여 건축물의 수용가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이 고려되어 그림과 같이 블록단위별로 스카이라인을 검토하여 적정한 높이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림 7. 스카이라인 예시도

셋째, 인센티브에 관련된 문제이다.

인센티브라 함은 개발자가 공익에 기여하는 공공 쾌적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제력의 조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공요소를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없이 조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공익에 기여하는 쾌적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자가 제공하는 공공시설 비용과 동등한 보너스를 개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Zoning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개념은 공익에 무엇인가를 기여한다면 그에 당연한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입장에서 인센티브 제도는 공공재산과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일반 시민을 위한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등기된 밀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 부동산 세수의 증가 때문에 인센티브 조닝의 도입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하에서 적절한 밀도 및 금융지원 등의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밀도 허용에 의한 도시공간의 불균형개발을 억제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사실상의 인센티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용적률 기준을 예로 들면 법정용적률을 보다 훨씬 적게 기준용적률을 정해 놓고, 그 보다 약간 높게 허용용적률을 정하는데 그 사이를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용지를 설치·조성·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지만 이도 공공용지를 내 놓으면 놓을수록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음을 표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용지를 제공함에 따른 보정용적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7. 공공용지를 설치·조성·제공한 경우의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 비교

기부채납률	0%	20%	30%	40%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	1,000㎡	800㎡	700㎡	600㎡
적용 용적률	400%	480%	520%	560%
건축가능한 지상 연면적	4,000㎡	3,840㎡	3,640㎡	3,360㎡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지관련 뿐 아니라 건축물 관련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지침에서 나타나는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심의 상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圖

표 8.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기준

구 분	제 어 요 소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기준)
대 지	공동건축	법적 대지면적 분할제도 한도 미만대지 공동건축 유도 여러 필지를 합필하여 공동개발함으로써 인근건물보다 최고층,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금지
건축물 높 이	최고층수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적용하되 폭 6m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6층이하로 건축(단,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건축물 배 치	건축한계선	간선변(20m 이상) 건축선 후퇴 3m, 이면도로 건축선 후퇴 1m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레일과 일치하여 보행 및 차량동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주차장, 조경 등 지장을 설치금지)
건축물 밀도	용 적 른	해당지역·지구 법정기준 이하 (단, 종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간선변(20m이상)에서 직접 차량진출입금지(단, 부속이한 경우 공동주차출입구 유도)
동 선	차량진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에 접한 6m이상의 도로쪽 폭이 가장 좁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대지에 접한 도로폭이 4m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선을 후퇴하여 6m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하여 차량진출입구 설치)
대지내 공 지	주 차 장	주택의 주차는 기계식 주차를 금지하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
건축물 용 도	공개공지, 공공공지 기타공지	대지내 공지의 배치는 일반대중이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인 간선변이나 가각부에 집중적으로 배치, 대지내 조경은 가급적 도로전면에 설치
기 타	불허용도	법적 불허용도 적용 주택의 용도가 지상4개층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 주택용도 불허 주택의 용도가 4층 이하인 경우로서 직결급수가 가능하면 물탱크보호용 옥탑설치 자제

※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동 구역 용역사의 의견수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On the Accommodation Facilities

류재경 / 비전건축사사무소(인천)
by Ruy Jae-Kyong

사람 귀한 줄 안다는 것과 행복

“사람 귀한 줄 아십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한 것을 왜 물으십니까?”라며 반문한다. 다시 말해서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초등학교들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배워서 알고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실용주의 사고에서 평가되는 것을 확인하며 산다.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 주변에는 장애인과 그를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시절부터 장애라는 이유로 가족과 단절된 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묻는 질문에 보호자인 그 어머니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괜찮아요”, “이 아이 때문에 사는 걸요” 였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회구한다. 행복의 조건을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자기의 욕구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 또는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며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행복도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즉 행복의 가치관을 자각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 나는 항상 행복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자기 생활주변에서 아주 작은 일도 소중히 표출시켜, 행복이란 조건속에 받아 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행복이란 물질적인 직접적 요구도 있으나 자신의 진실한 행위와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한 간접적인 행복도 포함되는 것이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이 행복한가, 생각해 본다. 행복이란,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행위로써 자신이 창조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마련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 11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우리사회의 편의시설의 설치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전국 각 지역별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편의시설 설치 촉진단」이 결성되어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조사, 홍보 및 계몽, 불합리한 시설물의 개선 권고 및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지에 의한 시설물의 불합리한 편의시설의 설치나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미설치된 건축물 등을 무조건적으로 고발 조치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이 법의 제정취지에 공감토록 유도하여 제대로 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산시키고자 간략 하게나마 설치기준 및 규격 등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토대로 소개한다.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 영구적

이든 일시적이든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이다.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인천광역시 예)

○사업주제 :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촉진단 구성 : 핵심요원 - 편의시설 연구개발, 의견제시 등 업무수행(장애인단체 간부, 사회복지업무 관련단체 간부, 관계 전문가 등 20인내 위촉)

○일반요원 - 편의시설 실태조사, 부적절한 시설 신고, 홍보안내 등 업무수행(군·구별 3인 기준으로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등 30인내 위촉)

○운영방법 : 요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간의 편의시설 실태를 체크리스트를 통한 공통점을 파악하며, 모임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하고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홍보 하는 등 자체실정에 따라 월 1회이상 별도의 효율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실태조사지침 : 「편의증진법시행령」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설치 여부 조사하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대상시설은 물론 그외 대상시설까지 미정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시민촉진단의 건축사들

일반요원 3인씩을 선발하여야 하는 군·구의 복지와 담당자들은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중에 전문가로 건축사 1인을 추천하여 시장의 위촉장을 받게 하였다. 그후 제1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본인 뿐이었으며 이후 촉진에 참여한 건축사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시간이 흘러 임기 1년을 보내고 2년차에 촉진단 집행부가 바뀌면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사들은 모두 해촉되고 말았다. 덕분에 많은 질서와 좋지 않은 눈길을 끌까지 봉사하려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 아닌 전문가의 집단으로 사회에 비쳐질까 큰 우려를 느낀다. 이러한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대한건축사협회는 점점 더 사회에서 소외되는 단순한 이익 집단이 되어 간다는 것을 참언하며 실태 파악과 더불어 사태수습 및 향후 대책을 촉구한다.

편의시설의 표준화

산업자원부는 최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형태·크기·재질 및 품질 등 통일된 기준이 없이 생산 설치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늦게나마 제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점자블록의 KS규격이 장애인만을 위한 표준화로서는 처음 제정되었고, 앞으로 점자 안내판 픽토그램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나온 점은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론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를 느껴본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 최고 3천만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나 화장실, 점자블록 등 공원 등의 건물주나 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안)」를 2001년 5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첫째로 2000㎡이상의 6층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개층에 3백만원, 둘째로 화장실에 장애인용 변기를 남녀별로 각1개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1곳당 30만원, 장애인용 소변기나 세면대가 없으면 1곳당 2만원, 셋째로 건물에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우면 ㎡당 5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미정비 공공시설 2만 5,04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6월말까지 최종조사를 한 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침이다.

신뢰받는 전문가 역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중 대부분이 사고나 재해 등 후천성 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보통 사람들에게겐 아무렇지도 않은 거리와 계단, 건물구조가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많은 위험과 불편은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들의 고통을 대신해 줄순 없지만,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와 같은 간단한 개·보수 등 우리의 작은 배려가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내어 문턱을 없애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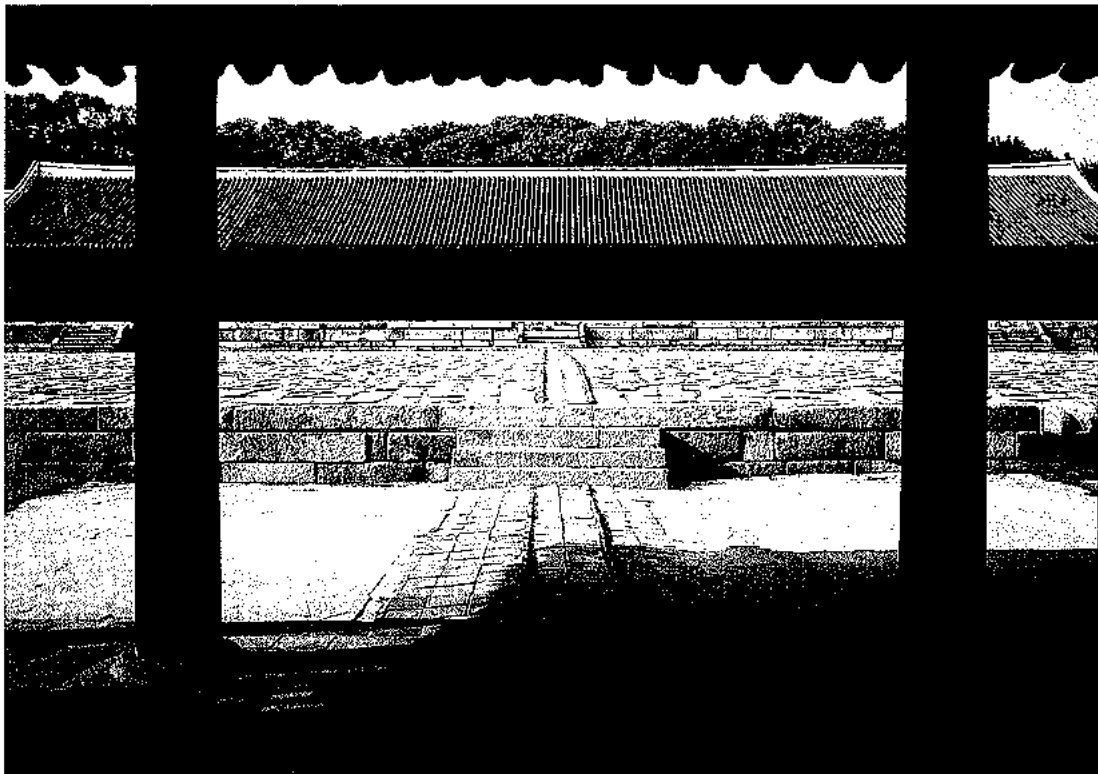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5)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종묘

김석환 /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남문에서 펼쳐 보이는 정인

〈 연재 목 차 〉

1. 병산서원
2. 소쇄원
3. 선암사
4. 화암사
5. 종묘
6. 창덕궁
7. 부석사
8. 독락당
9. 영선암

특이한 건축

종묘는 세계 인류문화유산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유산이다. 1995년 12월 9일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대장경판고등과 함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또한 올해인 2001년 5월 18일에는 종묘 제례(宗廟祭禮)와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 역시 유네스코에 의해,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문화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종묘에 가 보았냐고 물어 보면 가본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리고 가본 사람의 느낌도 각각이어서,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하고, 또 너무 쓸쓸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대개는 다른데서와 달리 뭔가 특별하고 복잡한 느낌을 갖는 듯 했다. 그렇지만, 더 정확히 알려고는 하지 않는 듯 하다. 세계적인 명물이 된 지금도 그곳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제례를 위해 만들어진 종묘인 바, 그 제례 절차에 맞게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더욱 더 드물

다. 매년 5월초 첫 번째 일요일에는 종묘제례를 옛 모습대로 재현해 보이고 종묘제례악도 연주된다. 그 때 보면 종묘의 본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20여년전 처음 그곳을 방문했다. 그 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아무튼 고귀하고 엄숙한 인상에 마음이 이끌려서, 그 후로 생각이 날 때마다 종종 둘러 보았다. 다른 일로 그 앞을 지나다가 불쑥 잠시 둘러가기도 했다. 어떨 때는 새삼,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건축의 힘 앞에서 스스로 겸허해짐을 느끼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전통건축에 대해 연재하며 빈번히 말해진 것은, 자연과 어우러진 시정 어린 느낌이었다. 하지만 종묘는 또 다른 면모로서 감동과 멋을 안겨 준다. 그런데 그것은 제례의식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마치 근대건축의 슬로건처럼, 기능에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엄격히 지켜진 유교의 풍습 가운데에서도 제례가 가장 중시되었다. 일반 사대부가에서 재사(齋舍)라는, 묘제(墓祭)를 올리기 위해 별도로 집을 지은 것만 보이도, 그 의식이 얼마나 강했던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종묘는 조선사회에서 왕가(王家)의 법통(法統)을 상징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정신이 결집되어 이룩된 엄숙한 느낌을 대한다.

종묘와 예(禮) 이데올로기의 표출

공자의 '예(禮)' 사상과 노자의 '도(道)' 사상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깊고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 두 사상의 큰 줄기는 자연과 인간이었는데,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도가는 초점을 자연에 두고 예가는 인간에 둔 점이다. 인간은 오래전 자연현상을 대하면서부터 운행의 이치를 의식하여 왔는데 도가에서는 그것을 도라 하였고 섭리에 따라 살 것을 권하였다. 그에 비하여 예의 사상은 사회를 이해하고 다른 계급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도덕에 의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인간 생활에는 예가(禮家)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항상 직면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의 필요에 의해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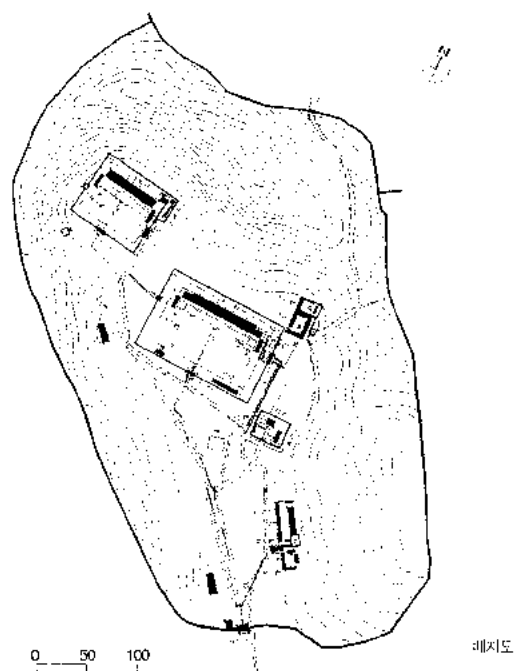
'예(禮)' 사상은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회에서 강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조선사회에의 가장 큰 가치기준이었다. 왕은 국상이 나면 3년상을 다 할 때까지 정사(政事)에 신경 쓰기보다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통치를 잘 하기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의 감화가 더 컸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아 왕의 자리에서 멀어낸 명분도 예의 이유였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神位)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곳이다. 정전과 영녕전에는 조선조 27대 왕과 이태조의 시대조, 그리고 개국과 반정(反政)후 왕의 선친을 추송(追崇)하여 부모(祔廟)한 경우 등 포함 35왕과 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왕에 대한 가장 따듯한 충고로 쓰이는 말이 "종묘사직을 생각하리"인데, 종묘는 왕가의 법통을 상징하고 사직은 삶의 기반인 땅과 곡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둘로서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왕가에서 왕과 왕비 등이 승하하면 먼저 국장도감(國葬都監)을 설치하고 빈전(殯殿)을 차려 문상케 한다. 그리고 혼전도감(魂殿都監)을 설치하고 가신주를 혼전에 모신다. 그 사이 산릉도감(山陵都監)에서 능묘를 찾아 정해지면 능에 모시는 국장(國葬)을 엄수하였다. 그후 능이 완성되면 육신은 능에 안장하고 혼백은 종묘에 모셨다. 그리고 삼년상을 마치면 가신주는 매안(埋安)하고, 새로 만든 신주를 종묘에 모셨는데, 이를 부묘라고 한다. 이로써 정식으로 선왕의 신위가 종묘에 모셔지게 되는 것이다.

종묘에서는 매년 설달과 춘추추동에 한번씩, 다섯차례 제사를 올렸다. 그 외에도 즉위 국혼등 길례때나 가물 흉수 등 흉액이 닳았을 때에도 이를 고하고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로도 제일먼저 복원하였다. 제례는 왕이 직접 지내야 하지만, 그 때마다 이상하게 왕이 아팠다. 결국 왕이 친례한 일이 드물었고 제사와 신하들을 시켰다. 중요한 일이지만 왕으로서는 너무 피곤하였던 듯 하다.

종묘에서의 신주봉안의 원칙은 이미 세종 때 국조오례의(國朝五禮義)에 규정해 놓았었지만, 새로 그 일을 맞을 때마다 종법상의 명분을 내세우는 신권과 의리를



내세운 왕의 친권간에 강하게 갑론을박했다. 어떤 경우에는 왕의 즉위 대수와 족보상의 위계가 거꾸로 되는 일도 생겼다. 성종의 윗대는 숙부가 되는 예종이다. 세조의 장남이었던 아버지가 제위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종이 왕이 되자 그 부친을 덕종으로 추존하며, 이미 내려온 대물림을 무시하고자 예종의 위에 두었다. 그 경우 의례절차에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 극력 반발하는 신하와 옹호하는 신하가 편이 갈려 정치 싸움으로 비화 되곤 했다.

결가지에서 승계된 왕일수록 정통성을 중시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친을 왕으로 추숭(追崇)하고자 했다. 반정으로 등극한 중종과 인종 등이 그 경우이다. 그리고 종묘에는 정식 왕비만이 위가 모셔질 수 있었다. 그래서 선대에 왕비가 아닌 몸에서 태어난 후대의 왕은 자신의 생부나 생모를 종묘에 배향하기 위해 애썼고, 명분을 앞세우는 신하들과 빈번한 갈등을 빚어 냈다.

종묘를 알면 조선왕조의 권력이 보인다. 그것이 종묘에서 신주를 봉안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재위시 힘이 세었던 왕과 힘이 약했던 왕에 대한 대접이 후대에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왕위 계승과 관련한 왕의 여인들의 치열한 암투와, 왕손들의 흥망이 보인다.

불천위제도와 정전 규모의 확장

조선왕조는 오묘제를 택하여 국가나 백성 모두 사대(四代)까지 시제사(時祭祀)를 올렸다. 그것을 사대봉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대봉사가 끝나서 위패를 옮기는

것을 천위(遷位)라고 하는데, 사대부가에서는 묘소 근처에 묻고, 종묘에서는 별묘(別廟)인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어 계속해서 모시었다. 그리고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올리는 것을 불천위(不遷位)라고 하는데, 원래 불천위는 시조 한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기뿐 아니라 사대부가에서도 가문을 빛낸 특출난 선조는 그 공적을 길이 기리고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천위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사대부가에서 퇴계나 이이 같은 아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에서는 불천위한 경우가 천위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종묘에서 불천위의 왕이 정해진 것에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있었다. 대체로 역대 왕 가운데 태종, 세종, 세조, 영조, 정조처럼 힘이 세고 업적이 큰 왕들을 불천위 하여 그대로 정전에 모셨다. 세조의 경우 후사를 이은 왕이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불천위로 정하였다. 또 정조 후대들이 아직 그대로 정전에 있는 이유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그 윗대를 황제의 예를 받들어 6대봉사하려 했으므로 아직 친진(親盡)되지 않은 위이다. 반면 영녕전에 모셔진 16위중 제위한 왕으로서 천위된 신주는 정종, 문종, 단종, 예종, 인종, 명종, 경종 등 7위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추존된 경우인바 이처럼 영녕전에는 추숭왕과 힘이 약했던 왕들이 천위되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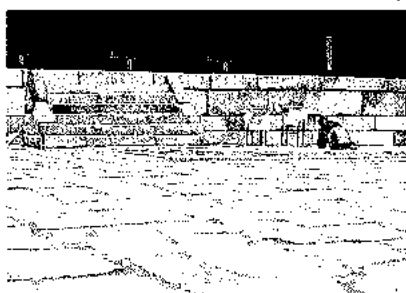
지금과 같은 종묘의 모습은 조선 왕조가 다하기까지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정전을 7칸으로 지었던 것은 사대봉사후 그 윗대는 천위하여



1



2



3



4



5

별묘에 둘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으로, 만약 그 원칙이 제대로 끝까지 지켜졌더라면 종묘의 크기는 변함없는 채 별묘만 계속해서 확장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리 되질 않았다. 현재 모습처럼 정전이 훨씬 크게 된 것은 천위하지 않은 불천위 위폐가 많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종묘는 제위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제실이 필요해지므로, 조선왕조가 다하기까지 확장과 증축을 계속해 오게 되었다. 지금의 종묘는 역대 왕조에 의해 계속해서 확장된 결과이며, 조선왕조가 현재까지 건재했더라면 얼마나 더 커졌을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이미 확장이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현재의 모습은 오히려 왕조가 끝났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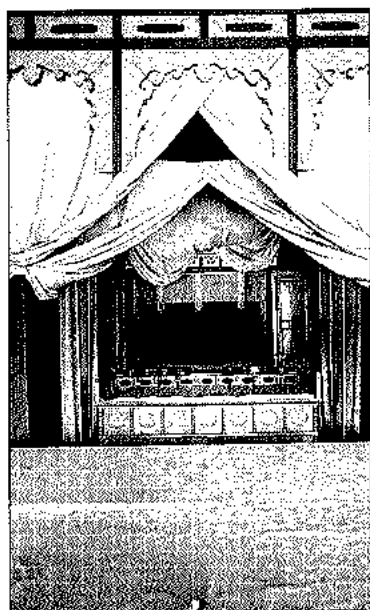
단순한 형식과 치밀한 기능성

종묘 정전은 전통건축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건물의 규모도 정면 19칸으로서 가장 길고 단순하다. 그러나 건물이 길다고 해서 여기처럼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성이 내용이 없는 간단함과 같은 의미가 아니며, 단지 단순하다 해서 그러한 멋에 쉽게 도달되는 것도 아니다. 단순한 것은 절제의 구현으로서 부분을 이루는 각각이 전체적인 하나의 통일된 주체 안에서 파악된다는 뜻이다. 건물의 부분들이 제각기 표정을 내밀며 나서려 하거나 자기 흥취에 빠져 독자의 얼굴을 갇으려 하면 단순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체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총체성을 갖고 하나의 목소리로 외침이 될 때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작은 것은 단순성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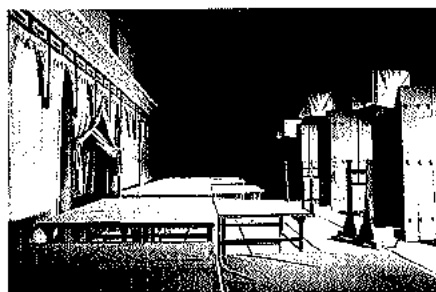
하기 쉽지만 큰 장소와 사물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정전은 본래 제사를 올리기 위한 기능에 충실할 뿐 기교를 부리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 쓰여진 건축적 수법은 다른데서 항상 쓰여진 수법 그대로 평범하다. 그렇지만 종묘는 단순하고 담백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형식적 완성도 또한 희귀할 만큼 높다. 그 건물의 기품있는 모습은 구름 문양부터 기둥의 굽기와 월대의 박석과 전돌의 크기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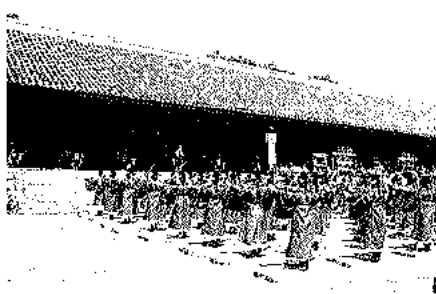
그런데 종묘는 제례의 엄숙함과 건축형식의 힘이 일치되었다. 그 단순하고 엄격한 이미지와 달리, 기능적으로 매우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 제례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사불란하게 펼쳐지는 제관의 드나듦의 문과 머무름의 위치, 그리고 일무원과 악공의 위치로부터 축문을 소제하는 요소(燎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예법상 흐트러짐 없이 면밀하게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최고의 의례가 펼쳐지기에 손색이 없다. 또 제례때일망정 왕과 왕세자를 위한 또 다른 예를 의식하여 준비되고 있다. 월대와 정전 주변에는 왕과 왕세자의 자리를 표시하는 판위(板位)가 있는데, 특히 왕은 제례 중에도 판위위에 소차방이라는 천으로 만든 그늘 집에서 쉬도록 배려된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판위들이 있어 각각 특정한 용도로 쓰이는데, 부모 때 신주를 올려 놓고 고하는 부알위(祔諫位), 수복청에서 제례음식을 임시로 차려 올려놓는 찬막단(饌幕壇), 그리고 제례에 쓰이는 동물을 잡는 생작단(牲雀壇) 등이 있다. 제관이 아닌 사람은 제례때 그 누구도 월대위에 올라갈 수 없었다. 왕손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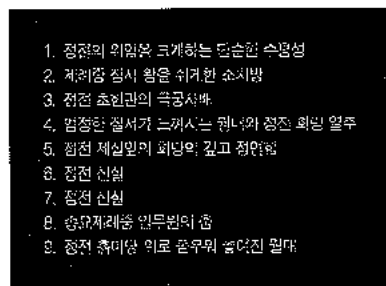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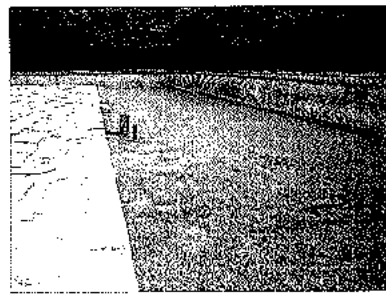
7



8



1. 정전의 위엄을 크게하는 단순한 수평성
2. 제례중 임시 왕을 위한 소차방
3. 정전 출입문의 곡공사파
4. 엄중한 질서가 느껴지는 판위와 정전 화방 열주
5. 정전 제실앞의 화방의 길고 정연함
6. 정전 신실
7. 정전 신실
8. 종묘제례중 일무원의 춤
9. 정전 축대상 위로 곧추워 솟아진 월대



9

신료 등 단순한 참관인들은 정전 담장안, 하월대로 오르기 전의 흙 마당에서 있어야 했다. 그래서 평소 무심코 보여지던 것들이 제례가 펼쳐질 때 보면, 진정한 기능적 충족을 위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례가 펼쳐지는 정전의 각 부분은 엄격한 위계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위계는 우선 단의 차이에 의해 드러난다. 정전은 초월의 영역으로서 제례때 제관만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로 오르는 계단의 소맷돌 모퉁이에는 구름 무늬를 조각해 놓았는데, 그것은 그곳이 천상의 세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전내의 신실은 방으로서 의미보다, 여러 커로부터 가장 위계 높은 위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신실내에서도 신주는 커튼과 발이 쳐진 함 안까지 다시 여러 커로 둘러싸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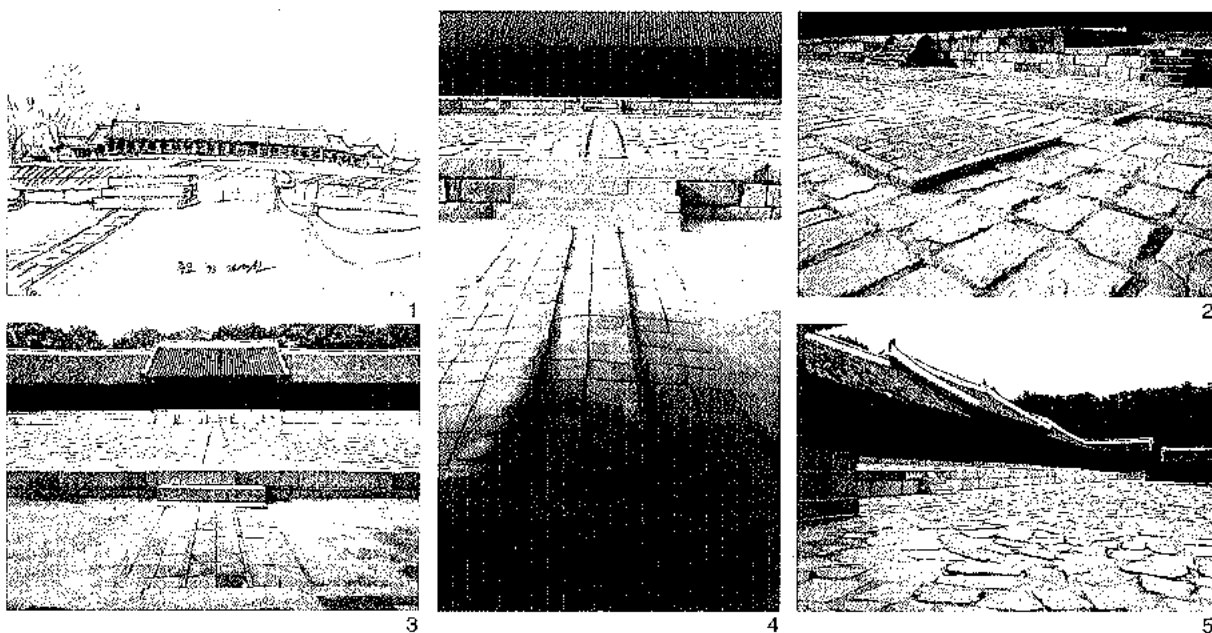
종묘제례는 긴 시간 동안의 엄격한 제례의식 외에도 신을 맞아 즐겁게 하기 위한 화려한 축제가 벌어진다. 제례의 진행에 따라 상월대, 하월대에서 등가, 현가의 주악이 연주되는데 그것이 종묘제례악이다. 그리고 그에 맞춰 일무원들의 춤이 펼쳐진다. 평소 엄숙하게 비어 있던 월대는 그 장중한 제례와 함께 제악과 일무가 화려하게 펼쳐질 때면 충만함이 가득하다.

월대의 후박한 느낌

정전이 웅대하고 장엄한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장중한 건물뿐 아니라 드넓은 월대와 그곳에 깔린 박석이 물성을 흡수 뿜어내고 있는 때문이다. 월대에

서 발산되는 물성의 힘은 그것이 아무런 형상도 없지만 어떤 조형을 한 형상보다 외침이 크다. 건물과 월대는 마치 비너스상의 얼굴과 몸체처럼 균형을 이루며 각각의 것보다 더 큰 외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월대가 마당에서 돌구어져 있어 있는 점도 중요하다. 정전 정문을 들어서면 계단으로 월대에 오르게 되어 있는데, 물성이 강한 점연한 월대의 구획조건에 의해 더 강한 힘이 뿜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월대의 힘이 잘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담장에 의해 한정된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울타리가 윤곽을 이루고 있음으로서 여백과 형상의 대비가 뚜렷이 인식될 수 있다. 그 울타리가 없다면 그냥 무한 공간의 부분이 되어 그 비움의 힘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울타리는 밖에서 보면 높지만 그 안 월대 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에 단절감이 완화되며, 담장 밖 자연도 의식되는 정제된 구획임을 느낄 수 있다.

종묘는 '궁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연상된다. 그 곳에서 건물에 의해 느껴지는 힘은 3할 정도이고 나머지는 월대의 힘으로 보인다. 그리고 월대에서 뻗어나는 그 커다란 힘에 의해 그 굳건한 정전마저 가볍게 느껴진다. 공허부의 힘이 오히려 실체인 정전의 힘을 압도한다. 즉 '궁즉시색이며 색즉시공'이다. 월대는 비어져 있지만 기운이 채워져 있다고 할 수도 있을 듯 하다. 그것은 마치 염분이 진한 바닷물처럼 물성이 투영된 공간의 세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한정된 영역의 뒤편에 깔린 물성의 질박함은 그 엄숙한 정전마저 가볍게, 조형을 뿜내 보이길라도 한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게 한다.

종묘는 조선 왕조가 더 계속되었다면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이 깨어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금의 종묘 모습에서 완벽한 균형감을 느끼며, 그 모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지니고 싶은 마음에는 얼마간 석연치 않은 느낌도 갖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변화 때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상상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래 종묘에서의 느낌은 건물의 형상이 아닌 형식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다. 우한정은 곤란하겠지만, 정전이 지금보다 좀 더 길어지더라도 월대의 형식과 중후한 물성이 드러나는 한, 그 바탕 느낌은 큰 차이 없이 유지될 것이다.

종묘와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으로 일컬어져 왔다. 「이러한 건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2500년 동안 여기를 보아온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 르 코르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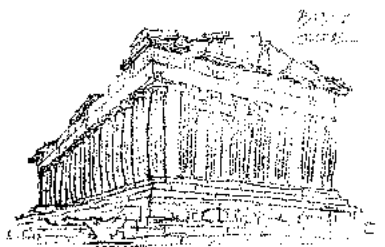
그것에 깃들인 정신은 전 인류 역사상 나타난 그 어느 것보다도 숭고하게 여겨져 왔다. 먼 나라에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건축물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에서 어떤 숭고한 느낌을 공감하였을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느껴지는 숭고한 정신성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힘을 과시하며 인간을 달에 도착케 한 우주선이나, 핵무기의 파괴력이나, 인터넷 같은 정보매체의

함도 능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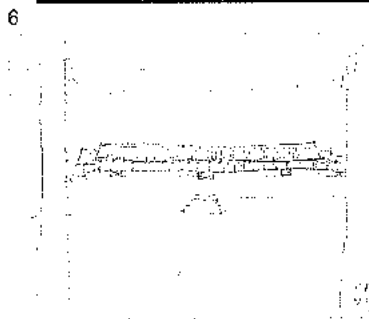
외국 방문객들은 한국의 전통 건축 가운데 종묘를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그리고 흔히 종묘를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일컫는다. 그렇지만 파르테논에 대한 그 선입된 기억이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불리는 종묘의 가치를 자칫 간과하게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어떤 것과 빗대어 이쪽 가치를 나타내려 할 때는 대개, 그 비유대상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전제로, 이쪽의 가치를 따라 높이려는 의도로 말하게 된다. 하지만 종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고유의 덕목이 다른 경우이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거꾸로 이쪽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묘와 파르테논, 확실히 그 둘 사이에는 비슷한 감각이 있다. 우선 그 모두가 엄청난 기념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종묘를 지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일곱 칸으로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기념비적 성격이 띠어졌다. 조상신을 모시고 제사 드리는 신전 같은 성격상, 백성들의 가옥내에 설치한 사당일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종묘는 애초에 피라밋같은 상징성을 띠게 된데다가, 왕조가 늘어나고 지금처럼 커지게 되면서 엄숙한 기념성은 더 극대화 되어졌다.

그리고 그 둘 다 지형적 영향이 작용되어 있다. 종묘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온 왕경의 법식에 따라 궁궐과의 위치를 고려한 가운데, 음택으로서의 풍수사상이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파르테논의 축은 피레우스로부터 펜탈리



1. 종묘장진
2. 월대의 판위, 정전을 모르는 계단
3. 양녕전 남신문에서 신실로 향해 난 신도(神道)
4. 남문으로부터 정전 제신에 이르는 신도(神道)
5. 양녕전 건물과 월대의 아우러짐
6. 파르테논신전 스케치
7. 양녕전 동문앞 이드의 판위
8. 양녕전 동문앞을 들어서 한눈에 오는
9. 남문에서 펼쳐 보이는 정전
10. 전체 기문에 여유롭게 흐르던 엄격으로 좁아지는 정전



니쿠스까지 뻗는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아닌 파르테논은 그 감동을 자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크시대에 독일의 크렌짜가 파르테논과 똑같이 설계한 월랄라 궁전은 장소에 따른 배경 차이에 의해 전혀 감동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많다. 파르테논을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지은 이유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 완벽한 균형을 지닌 형상은 처음 그대로 지켜져 왔다. 그리고 그 건축적 감동은 지형과 장소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되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둘 보이는 지형과 건물은 성공적으로 잘 결합되어 보인다. 신전, 그 질서의 웅대함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전체와 하나로 융화되어 기념성이 커지고 있다. 그들이 모시는 신의 위엄을 전 시대 전 장소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지은 것이다. 어느 시대의 정신과 결단, 그것은 역사상 위대한 건축적 성과를 잉태하는 계기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위용을 드러내려 한 의도가 제대로 충족되었을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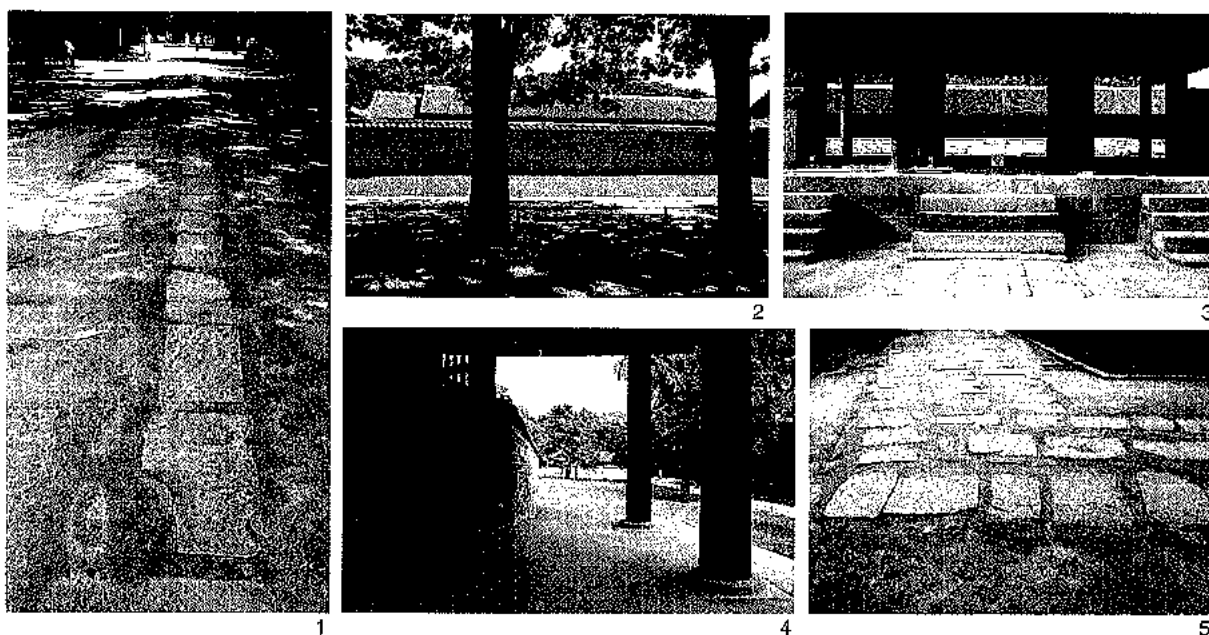
그러나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불리는 종묘는 하나의 기념비적 형상의 완결성을 갖고 유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그리고 엄격한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종묘는 담장 밖으로 멀리 드러나지 않는다. 파르테논은 그 자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종묘는 찾아 들어갈 영역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역 안은 거행되는 제례의 성격에 맞게 단순함으로 거대한 침묵을 만들었다. 그 엄숙한 힘은 정문 입구로부터 바로 드러나지 않는

다.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은 멀리서부터 그 형상을 의식하며 다가가게 되지만, 숲속에 가려진 종묘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채 한 장소를 향해 조심스럽게 조아려 다가야 한다. 또 그곳에 모셔진 존재는 숭배의 힘에 굴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 자기들의 조상신이다.

그리고 이곳뿐 아니라 동양건축의 엄숙성은 건물 자체보다도 설정된 커의 수와 나아가는 과정에 의해 더 커지게 된다. 황제 나라의 정전까지는 들어가려면 5개의 문을 지나야 하며, 제후국의 그것도 3개는 지나야 한다. 그것이 무릉 도원이라고 해도, 몇 구비는 지나야 도원을 만날 수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종묘를 보고 파르테논이라고 한 것은 정전에 대한 정직한 직관으로 말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정확한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파르테논의 성취가 보는 이에게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종묘에 적용된 관념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두루 미쳐 있다. 동양의 풍수 지리 사상은 보여지는 형상 외에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조상이 음덕을 베푼다는 독특한 동양의 신관(神觀)과 음양오행 사상이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그곳에 적용된 동양적 사유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종묘는 더욱 더 깊고 위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신의 길, 조아림의 길

서양의 신전에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모시고, 그를 우러러보면서 의식이 거행된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신주에 신이 깃들인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발상이



딱 특이하게 생각된다. 종묘의 신주에는 가운데 홀이 뚫려 있는데, 그곳에 신이 들어와 깃들인다는 의미인 듯 하다.

종묘의 제례는 영신, 환신, 송신의 순으로 거행된다. 순서에 의해 신을 맞이하고 즐겁게 하고 보내드리는 과정이다. 먼저 영신례 전에, 신문(神門)을 통해 들어온 신이 신주에 깃들도록 길을 설치해 놓았다. 우주를 주유하다 신문으로 들어온 조상신은 신도를 따라 신실에 놓여진 신위에 깃들게 된다. 그리고 정전과 영녕전은 정면의 산문(神門)으로부터 신실(神室)에 이르기까지 신이 나아가는 길이 놓여져 있다. 그 길은 신도(神道)라 불리는 신(神)의 길이다.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신성한 의미가 부여된 길이다. 그 길은 상월대에서 끝나 있지만, 그곳은 이미 천상(天上) 세계를 의미하므로 거기서는 별도로 길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정전의 뜰에서 그 길의 의미를 의식하다 보면 그곳의 위엄이 한층 더 높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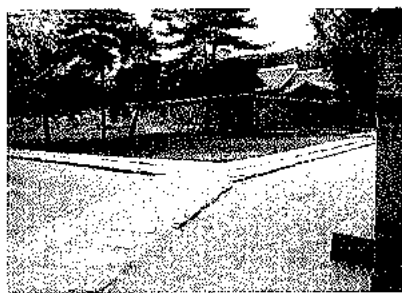
그렇지만 의례를 위한 움직임은 그 곳으로 한정되지 않고 영역 밖에서부터 펼쳐진다. 제례를 올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복과 물가짐을 단정히 하는데서부터, 악공과 일무원 등의 움직임에 의해 다양하고 분주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종묘의 길들은 예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다양한 위계의 길로 되어 있다. 그리고 늘어선 관념의 길을 따라 움직이고 드러남이 있다. 종묘 정문의 가운데로 들어서면 흙길위로 거친 화강석을 도드라지게 깔아 만든 길이 있다. 입구로부터 제례의 장소를 향하는 제관의 움직임은 경건하고 엄숙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세히 보

면 그 길은 폭이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을 구분 짓는 좁고 긴 돌이 사이에 놓여 있다. 그 가운데는 양옆의 돌길보다 한층 더 도드라져 있는데, 그것을 어도(御道)라고 한다. 제례를 올리러 온 임금이 걸도록 만든 길이다. 화강석을 거칠게 쪼개 만든 그 길은 질박한 돌의 물성이 힘있게 드러난다. 그러나 왕궁에서와 달리 임금의 길인 그 어도(御道)는 신도(神道)보다 위계가 낮은 한갓 제관(祭官)의 길이다. 그 길은 주인의 길이 아닌 조상신께 제사드리러 가기 위한 조아림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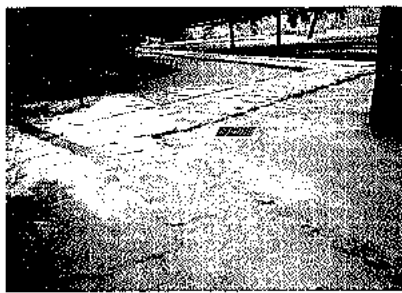
이완의 길, 포용의 숲

종묘는 정전, 영녕전, 전사청 영역으로 나뉘어 건물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영역안은 엄정한 질서로 짜여져 있다. 특히 정전과 영녕전의 뜰은 의례가 거행되는 곳으로서 더욱 더 질서가 두드러진다. 사람들이 종묘를 갈 때면 정전뜰에 이르러서야 그 특별한 인상의 종묘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그 특별한 종묘라는 인상으로 남아 간직하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종묘에서도 한국건축 특유의 긴장과 이완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종묘에서 질서의 힘을 더 귀히 느껴지게 한다. 우선 배치 상에서 길의 흐름은 직교축의 질서로부터 이완되어 있다. 엄격한 질서를 갖춘 정전 및 영녕전 등의 영역들은 전체 가운데 섬처럼 놓여져 있으며, 그 영역 사이를 연결하는 길과 부속채 등을 불규칙하게 적절히 혼재시켜 긴장으로 이완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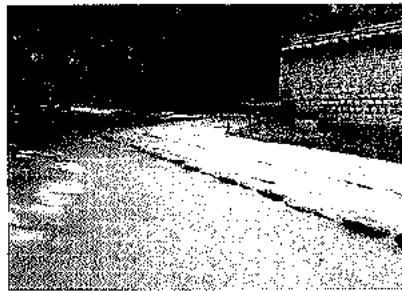


6



7

1. 정문으로부터 뻗어남 이도
2. 숲으로 둘러싸인 정전영역
3. 신을 맞이하는 산문(神門)을3문
4. 정전영역으로 인도하는 복3문의 정심주랑
5. 정문에서 이속삼로 깎여들어가는 이도
6. 정전계 이속삼로 깎여들어가는 이도
7. 깎여들어가는 이도
8. 정전 정심주랑에서 영녕전영역으로 깎여들어가는 이도
9. 영녕전영역으로 깎여들어가는 영녕전
10. 정전 중상문과 영녕전 영녕문



8



9



10

고 있다. 또 종묘의 부속 건물은 잘 드러나지 않은 채 다양한 느낌을 창출하는 요소이다. 정전처럼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느낌에 작용하고 있다. 정전도 동서 문의 크기가 다르고, 그 안에 치우쳐 배치된 공신당 등에 의해 비대칭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획일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

종묘에는 신도와 제관의 길 같은 위계를 지닌 길 외에도 격을 부여받지 않은 길이 있다. 여기에서 출길은 위계를 부여받지 않은 길이다. 그 길은 제례영역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허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 길은 제례가 시작되기전 제관 등이 이동하는 길이며, 평소에는 종묘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길이다. 겸손한 그 길은 그래도 항상 평화롭다. 정문을 들어서서 영녕전 앞까지 계속 통하는 길은 건물 앞음새와 평행되지 않고 비스듬한 대각선 축을 이루고 있다. 자연스런 길은 커다란 인위 질서에 대항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하고 다소곳한 느낌을 나타낸다. 그 길은 숲에 가려 정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어 보이지 않으며, 숲 너머의 깊이를 의식하게 한다. 그리고 접근하면서 점차로 엄숙한 존재의 영역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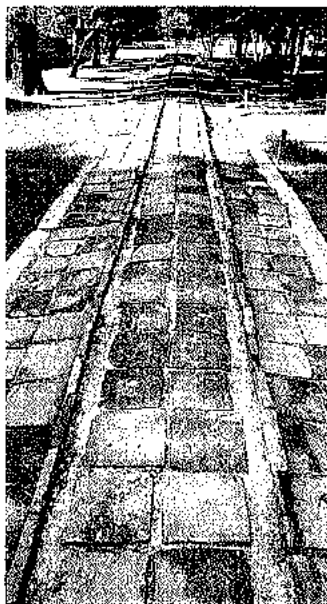
호르듯이 나 있는 그 길들은 숲에 파묻혀 있다. 그리고 숲은 엄숙하고 큰 질서에 여백적 호흡을 준다. 건물은 숲에 가리어 제례와의 연관도 쉽게 의식되지 않는다. 그 숲길은 공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길이며 녹음이 짙어 가는 계절에는 더욱 더 물힌 길이 된다. 어두운 그늘의 숲 사이를 뚫고 지나온 햇살이 흙바닥에 반사되는 그 느낌은 오늘

날 포장길로 가득한 도시환경에서 근원적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또 종묘의 숲은 그 큰 인위의 힘마저 포용하는 깊음이 있다. 그 장대한 인위의 질서를 찾아들게 하며, 그 같은 포용의 요소에 의해 종묘는 더욱 더 깊은 분위기로 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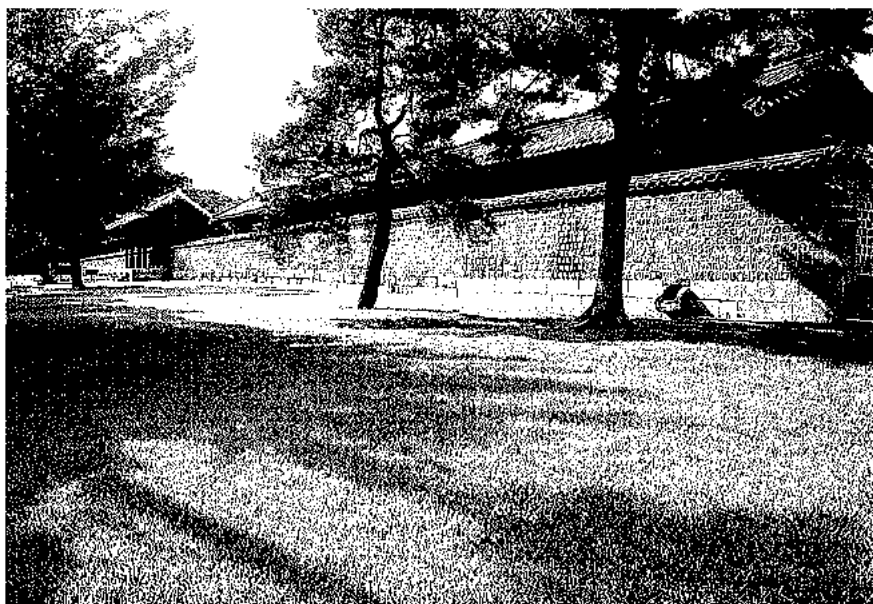
유가건축의 위대한 결실

인류역사 초기에 문명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고대에 건축은 주술적 기원의 힘이 작용되어 이룩된다고 생각했다. 폐사지에서 발견되는 초석은 그 자체로서 그곳에 있었던 인위의 자취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 유물로 느껴진다. 그리고 땅위에 세워지는 인위의 시작으로서 확고한 장소성과 존재성을 갖게 한다. 종묘는 한국전통 문화유산 가운데 인위로서 무엇인가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자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피라밋이나 파르테논이 주는 인상과 같이 고대에 건축이 띠었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마치 고대에 제단을 쌓아 얹히려 신에 제사지대던 천단(天壇)과 같은 신성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종묘의 정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단순하여 더 큰 힘을 자아내는 건축물이다. 사람들이 종묘에서 가장 감동하게 되는 것도 그 기념비적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한 국가의 존재 근거를 천명하는 숭고한 정신성의 표출로서 근원적 질서를 낳는 상징물인 것이다. 종묘는 조선사회의 기반사상이 함축되어진 것으로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건물보다 더 큰 위엄을 띤다. 그래서 종묘는 조선사회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표출하는 그리고 조선시대를



1



2



정전 앞마당의 호박화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살아 있는 징표와 같다.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가 등은 오랫동안 동양문화의 바탕이 되어 왔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여러 사상이 각 시대마다 공존되어온 반면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리고 국가가 채택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과 맞물려 강력히 민중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사회규범이 되었고, 그 상징물은 최대의 권위를 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교는 공자에 의해 중국에서 생겨났지만, 유교건축의 꽃은 한국에 남아 있게 되었다.

필자는 그곳에 갈 때마다 조선의 역사적 공과를 접어두고, 제례에 충실하려는 마음가짐에 의해 지금의 종묘 이미지를 탄생시킨 높은 품위와 안목을 지녔던 선조들

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 귀중한 유산이 일제때 훼손된 대로 남아있는 점이 아쉽다. 종묘는 풍수지리상의 움푹 원리를 중시했기에 산맥이 이어진 지금의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창덕궁과 종묘 사이에 길을 내어 그 맥을 끊어 놓았다. 그리고 육교로 길을 이어 놓았다. 우리의 손으로 길을 내었다더라면 그 중요한 의미를 깨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길을 내더라도 남산처럼 터널로 하면 본래 장소의 느낌이 확연히 살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세계로부터 귀히 평가되어진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圖



3



4

1. 어숙실에서 정전 동상문으로 가는 어도
2. 두들김 영역으로 놓여진 정전
3. 진상의 세겨임을 상징하는 구름문양
4. 종묘의 숲
5. 종속을 지나는 길
6. 입구의 방지
7. 종묘 스케치



5



6



7

협회소식 / 107

건축계소식 / 108

해외잡지동향 / 114

신기술 신소재 / 120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2001년도 제8회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8회 이사회가 지난 7월 19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비와수납및관리에관한 규정 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문구 조정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위임함.
- 정회원회비의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회원에게는 회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키로 함.
(6개월분 선납시 1개월분, 1년분 선납시 2개월분)
- 건축사회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원방법 등을 명문화함.
- 회원의 파산, 실종 등의 사유로 회비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미수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제2호의안 : 인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공무원 규정을 참고로 하여 직원의 정년을 조정하고, 정년퇴직 일지도 분기별로 구분함)
- 제3호의안 : 보수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상임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및 보상금

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

- 제4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가 정관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회의비를 본협회에서 지급하기 위한 회의비 예산을 확보함)
- 제5호의안 : 교부금 지원방법 결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입회비 수입금중 50%는 입회 당시 소속 건축사회에 지급하고, 준회원 회비는 준회원 소속 건축사회에 전액 지급키로 함)

〈협의안건〉

- 제1호 : 건축사업무대가기준 제정에 대한 협의
: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업무대가기준 제정을 위한 용역 시행문제는 아래와 같이 추진키로 함.
- 용역 시행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선임 등 세부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함.
-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 대정부관계 등을 고려하여 용역계약체결 등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키로 하되, 차기 회의시 진행 경과를 보고키로 함.

서울시건축사회, 특별검사원 · 건축직공무원 합동교육

지난 7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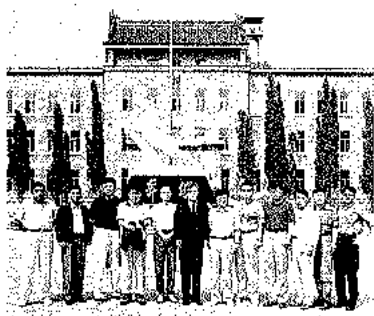
우리협회 서울시건축사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협회 강당에서 서울의 위법·불

법건축물 퇴치에 앞장서 건축행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특별검사원들과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건축사회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제2기 특별검사원중 일부가 사퇴 및 제외됨에 따라 생긴 결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102명을 선발하여 총 190명의 특별검사원을 출범시켰다. 25개 구청 건축직공무원 50명도 함께 참석한 이날 교육은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업무 처리요령'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이철호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은 "특별검사원제 도입 이후 서울의 위법·불법건축물은 현저히 감소하고, 건축주나 시공자들 사이에도 종전과 같이 위법을 해서는 결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최근들어 특별검사원제가 처음 실시되던 초창기에 비해 사용검사 신청에 대한 지적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 실시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위법·불법건축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되며, "오늘 교육을 통해 특별검사원으로서의 각오를 더욱 더 새롭게 다져 향후 철두철미한 업무수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건축사회, 중국 연길시 방문

지난 6월 26일

우리협회 경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6월



경북건축사회, 중국 연길시 방문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 연길시 중앙공산당건설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경북건축사회 임원과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중국연길시와 협력관계를 추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기로 했다.

2001 건축사자격시험 일정 공고

오는 9월 2일

올 해 건축사자격시험이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실시된다. 건교부는 지난 7월 3일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이 법안에 맞춰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응시기회를 잃게 될 위기에 있음을 감안하여 시험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난 7월 18일 임시국회에서 건축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자격시험은 기존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또는 건축기사 1급자격 취득후 경력 7년 이상에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전·후 또는 건축기사 1급자격 취득 전·후 경력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생은 예년 3천여명에서 6천여명으로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우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며, 발표는 오는 10월 25일에 한다.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배치계획과 건축설계로 나뉘어 실시되며, 답안작성은 과제별로 A3일반용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할 수 있다.

건축계소식 archi-net

경기도,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제도 시행

지난 6월 11일부터

경기도가 에너지사용이 많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의하면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건축주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관계 공무원이 검토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당해 공사 감리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이용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관계자들의 인식부족과 구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응시자격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시험일자, 시험장소

- 가. 시험일자: 2001년 9월 2일
- 나. 시험장소: 2001년 8월 21일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법

- 가. 배치계획: 2시간 30분(09:30~12:00) - 살기
- 배치계획: 1과제 출제(100점 만점중 50%)
-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5과제중 2~4과제 선택출제(100점 만점중 50%)
- 나. 건축설계: 6시간(13:00~19:00) - 살기
- 평면설계: 1과제출제(200점 만점중 120점)
- 단면설계, 구상계획, 실내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5과제중 2~4과제 선택출제(200점 만점중 50%)
- ※ 답안작성 방법: 과제별로 A3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여 프리핸드로 작성가능

체적인 확인규정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도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건축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경기도 건축조례는 시장·군수가 건축 인·허가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이행여부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검토서에 의하여 확인토록 하였으며,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신청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사 감리보고서와 함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확인 사항을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규칙으로 마련하였으며, 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난 6월 13일 도내 각 시·군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설계자·감리자 및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하여도 시·군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소비절약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대상건축물

-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
-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연면적 2천㎡ 이상)
- 일반목욕장, 실내수영장, 특수목욕장(5백㎡ 이상)
- 도·소매시장, 상점(연면적 3천㎡ 이상)
-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학교(연면적 1만㎡ 이상)

▷경기도건축조례 주요개정 내용

- 시장·군수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서에 의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검토서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을 확인하여야 함.(검토 및 확인서식은 별지서식으로 정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조명기기(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5호): 광원, 안정기, 반사각,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자원부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산업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관한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말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26mm 32w형광램프, 26mm32w형광 램프용 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각,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로 인증을 득한 제품
- 고효율조명기기(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관한규정): 백열전구(30w, 60w, 100w),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식 형광등 기구로서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을 득한 제품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1. 7. 25~7. 31(정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단, 일요일 제외)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제출서류

가. 출원시 제출서류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부
- 컬러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영촬영(3cm×4cm)) : 2매 (응시원서에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73,000원 (응시원서대 2,000원 별도)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① 응시표사본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호적초본 1부 ④ 해당 자격증명서 사본 1부 (건축분야 기술사 및 기사 내지 산업기사자격증·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외국건축사면허증) ⑤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컬러사진 2매 ⑧ 우편봉투 1매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응시자 지참물

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나. 제도용품: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불가함) 흑색연필, 삼각지, 스케일지, 소형전자계산기, 지우개, 기타 제도용품 (단, 기계식 제도기는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해상기(로60mm×세로40mm, 17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을 실시함.

합격예정자 발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1. 10. 25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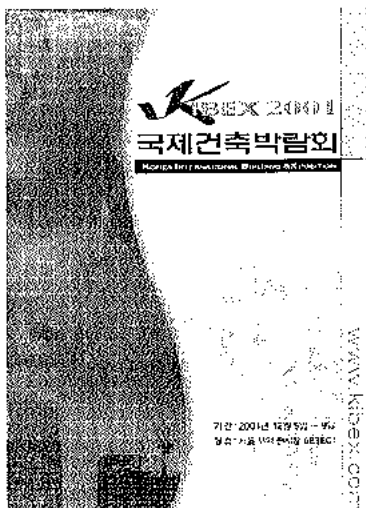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01. 10. 31~11. 3(09:00~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준수사항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01. 9. 1)까지로 하며, 경력과 학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 및 규격초과 제도판 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답안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여 책상, 제도대, 팔판용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및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 일반객산용이 아닌 다기능화면 전자수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응의 경우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명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 건축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향후 3년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당일 시험전내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 (581-57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및 건설교통부 건축과 (500-4131)로 문의 바랍니다.

KIBEX 2001-국제건축박람회

12월 5일부터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아시아의 선두적인 전문 국제건축박람회를 지향하는 KIBEX 2001(키벅스: Korea International Building Exposition) - 국제건축박람회가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 무역 전시장(SETEC)에서 개최된다. KIBEX 2001 - 국제건축박람회는 해외에서 다년간 국제적인 전문 박람회를 기획 및 프로모션 해온 SBA Group이 주최하며,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실내건축가협회, 한국 주택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세계 39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업체의 참가, 대규모 국가관 및 방문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지난해 보다 더욱 다양화된 홍보채널을 통해 사공사, 설계회사, 수입 및 유통업자 등 건축관련 전문인만을 대상으로 방문객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출품업체에게 최적화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KIBEX 2001- 국제건축박람회 행사는 지난해 보다 규모를 확대시켜 서울무역 전시장 옥내 1, 2, 3 홀과 옥외 1, 2전시장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Hall 1에는 건축 공정시 1차공정에 관련된 골조, 구조, 설비, 공조, 기계/ 장비들이 전시되

며, Hall 2에는 CAD/ CAM, IBS, Security, 건설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CM, 컨설팅 관련 업체를 위한 특별관과 해외업체를 위한 각 국가별 공동관으로 구성되며, Hall 3에는 건축공정시 2차 공정과 관련된 외장/커튼월, 마감/장식, 창호/도어, 리모델링으로 구성된다. 야외 제 1전시장에는 1차공사 관련 중장비, 거푸집 등이 전시되며, 제 2 야외 전시장에는 2차공사 관련 커튼월, 주택구조재, 목조주택 등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KIBEX 2001- 국제건축박람회 행사에는 현장시연(DEMO), 실습 세미나(Action Seminar), 세미나(Seminar) 등의 이벤트가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어서 방문객에게 출품된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및 선택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문의: 홈페이지 www.kibex.com,

박람회 사무국 SBA KOREA

(Tel: 02-708-4080

E-mail: info@kibex.com)

2001 제19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9월 8일까지 작품접수

- 주제 : 「만남」- RENDEZVOUS -
- 참가자격 : 국내외 전공, 신분 불문/ 팀당 3인 이내
- 심사위원 : 카즈오 세지마(kazuyo Sejima Ryue Nishizawa & Associates)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오현 대표)
- 시상내역 : 기별 단체 해외연수 및 해외 건축가 탐방(가작 제외, 대표 1인만 해당)
-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 CG부분특별상 1점/ 후원상 1점
- 공모일정

- 참가신청서 배부 및 접수: 6월 11일 (월)~8월 25일 (토)

- 작품접수: 6월 11일 (월)~9월 8일 (토)

- 작품심사: 9월 10일~15일

- 입상작 발표: 9월 17일 (웹진 vmspace 발표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10월 8일

- 작품전시: 10월 8일~10월 13일(장소는 추후 공지) / 월간 SPACE 및 www.vmspace.com 게재

• 심사규정

- 당해 연도 중목 출품작은 심사 및 수상 대상에서 제외
- 타 공모전 및 작품과 유사한 출품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 라도그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참가 신청 및 접수 방법

- 웹진 vmspace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특별 참가시 대표자 반드시 명기
- 내사/우편/팩스/e-mail 등의 방법으로 접수
- 참가비: 팀당 7만원(웹진 vmSPACE 회원 5만원)
- (직접 내사, 우편환, 신용카드 및 온라인 한빛은행 113-04-109641(주) 공간사)

• 문의 및 작품 제출처

- 주소: (주)공간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219 (110-280)
- 전화: 02-747-2892~3
- 팩스: 02-747-2894

* 우편접수시 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질의 응답 : www.vmspace.com
(기간: 6월 11일~9월 8일)

제1회 2001「SPACE IN STYLE」 공간학생실내건축대상

9월 8일까지 작품접수

▷ 주제: 「IDENTITY」

한국 건축, 실내건축은 그 이론적 바탕에서 표현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류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분화되고 향상된 문화와 생활 방식은 기능과 수요에 따른 물질적 공간의 증가 외에 공간이 담아야 하는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주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확장된 도시에서 활발히 일고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재건축, 리노베이션, 실내건축의 공간적 획일화와 유행에 대한 추종, 국제주의의 무분별한 복사와 반복을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통해 반추해보아야 할 「IDENTITY」를 제 1회 공간학생실내건축상의 주제로 제안한다.

공모에 참가하는 팀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실제 제안자의 「IDENTITY」를 부여하는 새로운 성격의 공간이나 리모델링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동시에 기존의 공간과 건축물의 「IDENTITY」와 부합되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새로운 문화와 생활을 담아내는 또다른 통로로 가시적인 디자인이나 구축의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건축과 인테리어의 접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일시적인 디자인상의 변화나 유행과는 별개로 시간에 흐름에 따라 그 자체의 「IDENTITY」로 퇴색되지 않는 시간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여기서 「IDENTITY」는 「동일성」의 개념으로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의 이데아(Idea), 파르메니데스의 동일성, 에릭슨과 울포트의 자기동일성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나 경험, 시간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동일성을 가지며, 그에 통합성을 갖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I」=「I」라는 동일률적 표현은 복수개체가 가지는 유사성이나 상등성과는 반

대의 개념이 된다.

「IDENTITY」의 철학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실제 공간에 적용되는 「Space Identity」는 어떠한 과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접할 수 있는 C.I(corporate identity), V.I(visual identity), M.I(mind identity), B.I(behavior identity) 등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자기나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자기를 심고, 그것을 시간의 흐름이나 주변의 변화에도 「자기」일 수 있게 생명력을 주는 것, 이것이 S.I(space identity)의 시작이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표현하면, 프로젝트가 가진 기본 사항과 시간성 혹은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발전 가능성의 요소에 자아의 표현요소를 접목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의 클라이언트의 요구 항목과 건축적 사나리오를 연계, 기본 아이콘 리스트를 추출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게 된다. S.I에서는 이 건축적 아이콘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공간에 어떠한 「IDENTITY」를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에 개개 학생들의 「자기」와 공간이 가질 수 있는 「자기」, 그리고 가상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연결시키는 고민과 그로 인해 나오는 실내건축 사나리오, 공간의 유기적인 생명력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해 본다.

- 참가자격: 국내외 전공, 신분 불문/팀당 3인 이내
- 심사위원: 카즈오 세지마(SEJIMA, NISHIZAWA + ASSOCIATES), 박성철(주 월간디자인 대표), 장순각(jay is working 대표)
- 시상 내역: 기별 단체 해외연수 및 해외 건축가 탐방(작품 제외, 대표 1인만 해당)
대상 1점 / 최우수상 1점 / 우수상 3점 / INSTYLE상 1점 / 가작 다수
- 공모일정
- 참가신청서 배부 및 접수: 6월 11일(월) ~ 8월 25일(토)
- 작품접수: 6월 11일(월) ~ 9월 8일(토)

- 작품심사: 9월 10일~15일
- 입상작 발표: 9월 17일 (웹진 vmospace 발표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10월 8일
- 작품전시: 10월 8일~10월 13일 (장소는 추후 공지)/ 월간 SPACE 및 www.vmspace.com 게재
- 작품 제출 방법
- 설계 개념과 의도가 담긴 기본 도면 및 이미지 포함, A4 4~6매 분량의 설계제안서 제출
- 패널: 600*600mm 사이즈 4매
- 가구: 주제를 살릴 수 있는 상세도면 포함
가구 제작시 희훈공방 제공가능(8월 11일~20일, 예약 후 사용 가능)
추후 수상 및 입상작은 상품화 가능
- CD DATA 제출: 개요서, 패널 작업 파일 및 이미지
- 심사규정
- 당해 연도 중목 출품작은 심사 및 수상 대상에서 제외
- 타 공모전 및 작품과 유사한 출품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그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참가 신청 및 접수 방법
- 웹진 vmospace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 팀별 참가시 대표 반드시 명기
- 내사/우편/팩스/e-mail 등의 방법으로 접수
- 참가비: 팀당 7만원
www.vmspace.com 회원 5만원 (직접 내사, 우편환, 신용카드 및 온라인 한빛은행 113-04-109641(주)공간사)
- 문의 및 작품 제출처
주소: (주)공간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219 (110-280)
전화: 02-747-2892~3
팩스: 02-747-2894
- 작품 반환: 9월 18일, 19일(이후 반환 불가)
- 질의 응답: www.vmspace.com (기간: 6월 11일~9월 8일)

2001 인천건축도시주간선포

지난 6월 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건축도시주간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인천건축사회 회장)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01 인천건축도시주간 선포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홍철 인천대학교 총장을 비롯, 홍성수(대한건설협회 인천지회장), 윤영철(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장), 심상길(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인천지회장) 등의 지역 유지와 손해근 건설국장 등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였고,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들과 인천건축사회 회원 건축사들을 포함한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1시간 여에 걸쳐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다.

2001 인천건축도시주간은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건축전(코디네이터 구영민/인하대 교수)의 맥을 잇는 제2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건축대전(코디네이터 황영삼/인천대 교수)과 '2001년도 인천광역시 건축상'(시청 주택건축과 신문식 과장 주관), 국제심포지엄(구영민 인하대 교수 주관) 및 제4회 건축백일장(기획자 전진삼 건축발전연구소 소장, 월간 건축인 POAR 편집위원)등 4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19일 첫 모임 이후 12차례에 걸친 정례 회합을 가진 바 있다.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각각의 행사를 특정한 시간대에 종합적으로 펼쳐 보여줌으로써 인천의 건축과 도시문화의 근간을 보여주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취지 하에 개최되는 본 행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6일(7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전관과 국제회의장 및 야외 공간에서 다양하게 보여질 예정이다.

특히 IMF 이후 시행해오지 못한 인천광역시 건축상 제도의 부활은 그 상의 성격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 시는 이전까지의 건축상이 지역내에 건립된 최고의 건축물 지상주의가 지역사회 건축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전력을 거울 삼아 각각의 건축물이 갖는 성격 또는 건축물의 규모의 차이를 상의 선정 기준에 반영하여 인천지역의 특수성에 걸맞는 건축물을 발굴 시상하게 함으로써 건축상 제도의 혁신을 꾀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 또한 인천건축도시주간 추진위와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겠다고 신문식 과장은 말했다.

국제심포지엄의 경우는 해외 및 국내의 건축가, 사회·정치·경제학자 등을 초빙하여 '황해에 부는 바람'이라는 대주제 하에 'Thoughts on Periphery'(주변의 생각들)의 소주제를 내걸고 거침없는 토론의 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심포지엄을 주도하는 구영민 교수는 한강 해안을 중심으로 사유할 수 있는 주변 국가의 논객 10여인을 선정, 금번 국제심포지엄이 인천건축도시주간의 국제적 건축이벤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0일, 21일 양일간 국제회의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건축대전은 그 이름에서도 보여지고 있듯이 지역내 건축사 및 학생들의 작품전의 성격에다가 건축백일장 등의 시민 참여작들까지 광범한 전시영역을 설정하여 보여줌으로써 이 행사가 건축전문인들만의 자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을 부각하게 된다. 또한 지역내에 건립 중인 인천국제공항, 문학 월드컵 경기장, 중구 근대건축 가로 정비안 등 국내 외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도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황영삼 교수는 말했다.

1998년 첫 시행 후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건축백일장은 인천지역에서 처음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사 시민건축체험 문화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비건축인들의 건축디자인 워크샵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사로, 당일 현장에서

주어지는 주제하에 참여 시민 가족이 집에서 준비해온 폐품, 폐지재 등으로 공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그리기, 글쓰기, 만들기 등 세 가지 유형의 작업방식을 통해 당일 4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다. 이때에 지역내 기성 건축인들(대학 교수, 건축사, 건축과 재학생 등)이 참여 가족들과 시종 대화를 통해 건축의 재미를 일깨워주는 등 도우미로 활약하게 된다. 10월 20일(토) 오후 1시부터 주전시장 부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인천건축사회(032-437-3381/이정남 사무국장, 김정기 총무부장)

SACOB 세미나 개최

지난 6월 25일 남산서울클럽에서

지난 6월 25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서울 건축 동문회(이하 SACOB)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SACOB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서 건축수업을 한 후, 건축설계 및 관련분야(구조설계, 기계설비설계, 전기설비설계, 토목설계, 인테리어 설계, 건축시공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OB들의 모임으로 그동안 매년 2회의 정기모임과 세미나 등의 부정기모임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친선을 도모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한양대 정인하교수가 「김종성 교수론과 Miesian의 세계」를 조명, 많은 이들의 관심을 보였다. 현재 서울건축의 대표이사인 김종성 교수는 Mies의 제자로 I.T 학장서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할튼호텔과 육사 도서관 등 모더니티한 건물의 설계로 꾸준히 주목받아 오고 있다.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여름건축강좌

8월 18일까지

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예아카데미에서 건축강좌를 진행한다.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건축강좌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개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여름건축강좌는 'Paradigm Shift-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 Securities)'란 주제로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6주간(매주 토요일 오후 5~7시)진행 예정이다.

문의: 02-739-6854

- 7월 14일 / 또다른 시장: 부동산간접 투자 제도의 이해 / 이상영(부동산 114)

- 7월 21일 / 리츠란?: 리츠의 개념 및 구조 / 조성진(대우투자유치팀)

- 7월 28일 / 영역의 붕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시장과 리츠 상품의 기획 / 한경수(국민은행 신탁팀)

- 8월 4일 / 디데이: 건설업계의 리츠 대응방안과 추진전략 / 박래익(현대건설 리츠팀)

- 8월 11일 / 타산지석: 해외의 리츠 제도 및 운영 실태 / 김용창(한국감정평가연구원)

- 8월 18일 / 앞으로의 길: 건축/건설 그리고 부동산 경영관리의 미래전망 / 김관영(한양대)

국·공립대 건축학과 5년제로

건축공학과는 현행유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17일 국·

공립대를 대상으로 건축학과 5년제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건축공학과 및 건축학과를 운영중인 13개대가 신청했다고 밝히고,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의 건축학과 5년제는 국제 수준의 건축사 자격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면서 "5년제에 따른 교수 충원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신청 대학은 정원조정이나 학과 개설 등이 필요한 대학"이라고 덧붙였다. 사립대는 건축학과와 정원조정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 5년제로 개편할 수 있다. 이로써 2002학년도부터 전국 26개 국·공립대 가운데 건축관련 학과를 둔 20개 대학이 건축학과를 5년제로 바꾸게 됐다. 건축공학과는 현행 4년제가 유지된다. 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주요 사립대들도 건축학과를 5년제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7회 청암건축사진아카데미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에서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무과정 건축사진강좌를 건축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주1회씩)개최한다. 이 강좌를 통해 각종 조형공간의 촬영방법과 건축과 관련된 여러가지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진의 활용방법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간 : 2001년 9월 5일~11월 14일 (12회)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7시부터

-장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36-14/강남건재센터전시장 1층(02-543-4111)

-참가인원 : 12명 (선착순 온라인으로

입금된 분)

-참가비용 : 30만원 (의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신청방법 : 이름,주소,연락처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람

imfoto@hanmail.net

-문의전화 : (02)3444-7580,

011-706-5807

◇ 일정 및 내용

1- 9월 5일 / 건축을 보는 눈(조형공간의 표현과 이해)

2- 9월 12일 / 건축사진의 이해(건축사진을 잘 찍으려면)

3- 9월 19일 / 빛의 이해(자연광과 인공광의 변화)

4- 9월 26일 / 건축사진의 테크닉(각종 테마별 촬영방법)

5- 10월 6일 / 현대건축물 촬영실습(토요일 오후3시~8시까지 도시촬영실기)

6- 10월 10일 / 디지털카메라의 이용방법(디지털카메라와 각종 기재응용)

7- 10월 13, 14일 / 건축답사실습촬영(1박 2일)(토요일출발~일요일까지)

8- 10월 17일 / 인테리어 표현기법(실내조명에 따른 촬영방법 및 마감재료들의 표현)

9- 10월 24일 / 모형촬영실습-1(모형촬영의 준비물과 계획모형촬영)

10- 10월 31일 / 모형촬영실습-2(조명방법에 따른 촬영실기)

11- 11월 7일 / 흑백사진의 표현(각종 흑백사진의 표현기법)

12- 11월 14일 / 작품제작 과 토론 및 평가(수료)

※ 청암건축사진연구소(임정의) 이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 1층
(☎143-203)
전화 02-2201-6610, 3444-7580

Architectural Record

World Architecture

신건축

건축문화

a+u

Architectural Record

2001년 5월호

이번호는 설계공모부터 관심을 모았던 Toyo Ito의 Mediatheque의 완공된 건물을 소개하였으며, 호텔



을 사례연구 주제로 잡아 Jean Nouvel의 루체른 호텔 등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AIA명예상을 받은 Michael Graves의 인터뷰, 조명관련 기사가 특집으로 실렸다.

■ 근작소개

▶Toyo Ito의 센다이 Mediatheque
동경 북쪽에 위치한 센다이시에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시청각센터, 갤러리를 한곳에 모으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설계공모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올해 초 개관하였다. Ito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 대신 13개의 튜브가 콘크리트 슬랩을 지지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전체 건물을 감싸는 유리 와 스테인리스로 이



센다이 Mediatheque

뤄진 외피는 고도의 투명도를 가진다. 해파리에서 영감을 얻은 이 튜브형 구조물은 건물을 수직적으로 관통하면서 다양한 곡면과 크기로 이뤄지며, 구조적 역할뿐 아니라, 공기, 물, 전기, 인간의 수직적 이동을 담당하는 샤프트로 기능한다. 바닥판은 콘크리트 리브를 가운데 두고 2겹의 스틸판으로 이뤄졌으며 상부에 3인치 두께의 콘크리트가 덮였다. 이로써 Ito는 구조적 그리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유동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박스형의 방과 고정된 파티션을 피하고 유리 칸막이, 개폐가 자유로운 커튼 등이 분리가 필요할 때 쓰이도록 설치되었다. 특정한 기능을 위한 방이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Ito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장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Ten Arquitectos의 Princeton대학 내 주차건물

건물의 외피에 대해 실험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는 Ten Arquitectos는 이 건물에서도 다양한 재료적 실험을 하였다. 유공 금속판이나 석재, 또는 다양한 재료의 망 등을 외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건축법규가 선택의 폭을 좁혔다. 개방된 구조의 주차건물을 위해서는 20%이상의 개구율이 필요하였으며, 전체 개구부의 길이는 건물 길이의 40%를 넘지 않아야 했다. Ten Arquitectos는 이러한 요구의 충족과 그들의 심미적 만족을 위해 독일제 스테인레스 스틸 패브릭을 택하였다. 프라캐스트 콘크리트에 부착된 커튼봉이 상부에서 잡고 하부는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어 위로 말려올라가거나 뒤집어 지지 않도록 하였다. 바람 등에 의해 스테인레스 스틸 망이 흔들리게 되면 그림자가 비쳐서 얇은 물결무늬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 밖에 ▶Caruso St John의 영국 Walsall New Art Gallery ▶Elliot+Associates의 Tulsa, Ackerman

McQueen 광고회사 ▶Randy Brown
의 Iowa, Poulson/Kjedseth 광고회사
리노베이션 ▶Antoine Predock의
Tang Teaching Museum and Art
Gallery 등이 자세히 다루졌다.

■ 건물유형연구 호텔

▶Jean Nouvel의 Lucerne 호텔



Lucerne 호텔

카펫마감과 주름커튼으로 된 일반적인
객실과는 달리 짙은 색의 나무널 바닥
과 두장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진 버튼
식 작동의 블라인드가 설치된 이 호텔
객실에서 감각적으로 모던하며, 절제
미 있는 디자인을 읽을 수 있다. 무광
스테인레스 스틸과 브라질산 चे리목으
로 이뤄진 가구는 Jean Nouvel이 직
접 디자인하였으며, 각 객실 천장의 영

화 이미지도 또한 그가 직접 선택하였
다. 영화는 우리시대의 신화라고 언급
한 그는 데이빗 린치, 피터 그리너웨
이, 브뤼엘, 펠리니 등의 영화에서 로
맨틱하고 긴장이 고조된 순간의 장면
을 객실의 천장에 옮겨놓았다.

▶Philippe Starck의 New York,
Schrager 호텔

1928년에 지어졌던 미국 여성 협회
클럽하우스를 개조한 이 호텔은 다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호텔보
다 객실이 좁은 대신에 로비 및 공공공
간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넓고 다양하
게 구성하였다. 테이블 또는 스톨로 사
용되는 아크릴로 만들어진 속이 꽉찬
항아리 등 Starck의 유머러스한 가구
들은 유희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 밖에 ▶Gluckman Mayner
Architects의 아리조나 Sedona 온천
리조트 호텔 ▶저렴한 비용으로 리노
베이션한 Jordan Mozer의 Miami,
Royal 호텔 등이 소개되었다.



New York, Schrager 호텔

World Architecture

2001년 4월호

프랑스의
떠오르는
젊은 건축
가들을 조
명하였으
며, 밀라노
의 가구박
람회,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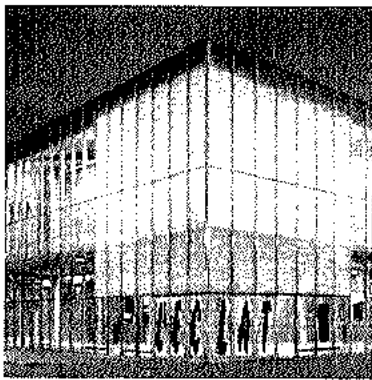
고 미래형 교통시설이 특징으로 최근
에 완공된 샌프란시스코 공항, 싱가포르
를 엑스포 역, 동경의 지하철 역 등이
소개되는 한편, 공항을 위한 경영 및
개발방향 컨설팅이 소개되었다.

■ 프랑스의 30~40대 건축가들

1980년대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 추
진되었던 그랜드 프로젝트에 의해 탄
생한 스타 건축가들은 현재 외국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 영
역에서 지원해주는 대규모의 공공건
축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며, 지방주도의 프로젝트 또한 낭트의
Jean Nouvel이 설계한 법원을 제외
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젊은 세대 건축가들은 중
소 규모의 프로젝트의 설계공모에서
실험적이며, 유연한 아이디어를 제안
하여 공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Jakob+MacFarlane의 Pont
Audemer, L' Eclat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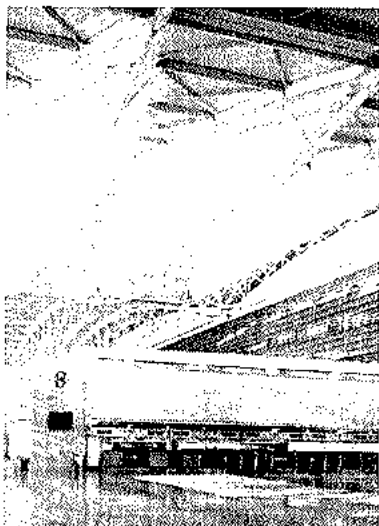
1960년대의 낙후된 시설의 극장이
새로운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밝게 빛나는 오렌지색 박스를 감싼 유
리커튼월에 슈퍼마켓 로고를 연상시
키는 L' Eclat로고가 크게 애칭되어있
다. Jakob+MacFarlane는 극장과
일상 생활과의 괴리를 없애고자 하였
다. 교외에 멀리 차를 가지고 나가 대
형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며 사람들과



Pont Audemer, L'Éclair극장

만나는 행위는 극장에서 사람들이 친교를 갖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Staba라고 불리는 유리 커튼월 시스템은 단순함과 수직적 분절을 강조할 수 있는 구성 때문에 사용되었다. 공간을 감싸기 위해 표면은 어떻게 다뤄져야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그들의 작업 기저에 깔려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극장의 경우 음향 효과를 고려한 줄무늬의 요철표면이 객석바닥까지 감싸고 있다. 광장과 홀의 바닥재료와 레벨을 맞춤으로써 실내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포이어의 계단을 오르는 순간 비로소 극장에 진입한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

그밖에 ▶Patrick Bouchain의 Nantes, 아트 센터 ▶Jaques Bosser의 파리, 간호학교등 프랑스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 교통시설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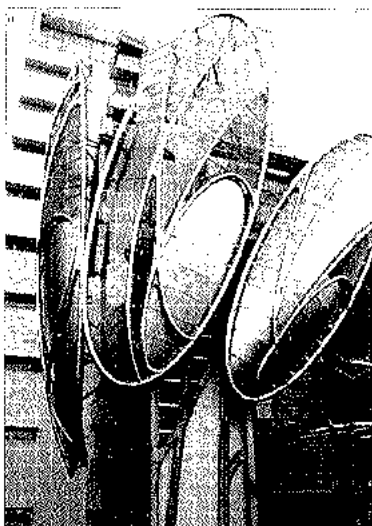
▶SOM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최근에 완공되는 공항들이 대규모로 조성된 택지에 여유있게 지어지는 반면 이 공항은 기존의 공항단지에 협소한 규모로 계획되었다. 265m길이의 이 터미널은 세 개의 노출된 트러스 세트로 구성되었으며, 트러스는 마치 스펀의 전단력 다이어그램을 형상화한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이 거대한 지붕은 단 10개의 기둥에 의해 지지되며, 양 단은 캔틸레버에 의해 날개와 같은 형상을 한다. 홀의 중앙부는 기둥없이 핀집합만으로 지붕이 지지되어 기둥이 없는 드라마틱한 공간이 형성된다. SOM의 구조 책임 건축가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강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동시에 미적형태와 경제적 구조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Foster & Partners의 싱가포르 Expo 역

▶Makoto Sei Watanabe의 동경 lidabashi역

기존 동경의 지하철 역들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일관성있게 계획하는 데서 그 방향을 바꾸었다. 각각 건축가들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자유로운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근래에 완공된 런던의 Jubilee Line 역



동경 lidabashi역

사에 고무된 것이다. 유명 건축가에게 역사 계획을 맡겨 세계의 주목을 얻는 동시에 각 지역의 컨텍스트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풍부한 도시환경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다바시역은 민원 때문에 다른 역과는 다른 건설방식이 취해졌다. 일반적으로 지하를 파고 역사 지붕을 덮는 방법이 아니라 지하 까지 터널을 파고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취해졌다. Watanabe는 지하공간으로의 진입터널을 독특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는 역사의 단면을 노출시킴으로서 지하 구조물이 어떻게 축조되어있는지를 보여준다.(번역/전신영)

신건축

2001년 6월호

이번 호의 작품소개로는 무라마츠(村松) 디자인사무소의 '개호(介護)노인보건시설-캔유우苑', 이토오



토요(伊東豊雄)의 '오이타(大分)농업문화공원 중심시설' 등이 소개되었으며, 6년전 화재를 모으며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가 당선되었던 요코하마항 국제객선 터미널의 진행상황에 대한 인터뷰가 실렸다. 연재물로는 '집합주택을 유니트로부터 생각한다'의 제 3회분이 게재되어 일본의 공단주택 표준설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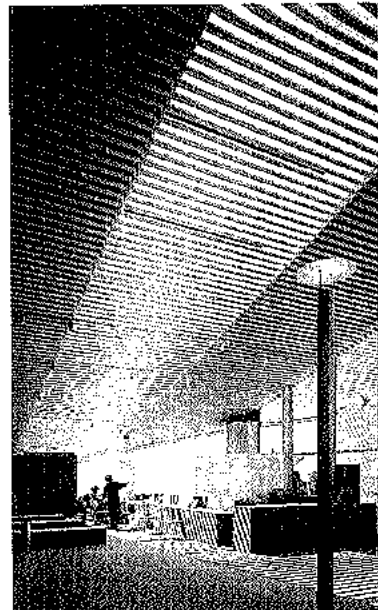
무라마츠(村松) 디자인사무소의 '개호(介護)노인보건시설-켄유우苑'

■ 최신작 소개

▶ 무라마츠(村松) 디자인사무소의 '개호(介護)노인보건시설-켄유우苑' 이 노인 보건·양로 시설은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그 목표로 하는 시설이다. 건축가는 이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부지는 혼슈의 최남단, 북쪽으로 산들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광활한 리아스식 해안이 펼쳐지는 해안가이다. 고려된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 특히 태평양에의 조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건물내외의 장소와 웅대한 경관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바다의 경관을 여기에 머무는 노인들에게 밀접하게 경험시킴으로서,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에 대한 반향을 일으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건축가는 생각하였다. 두 번째는 간호를 받는 노인들의 프라이버시나 개성을 존중하는 것, 집단생활을 하면 개개인의 개성이 무시

되기 쉽고, 간호를 받다보면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 이르는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을 마련하여 사람들과의 친밀도나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상태에 적합한 장소를 택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변 환경이 친밀하여 이곳에서의 근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노인들의 가족들도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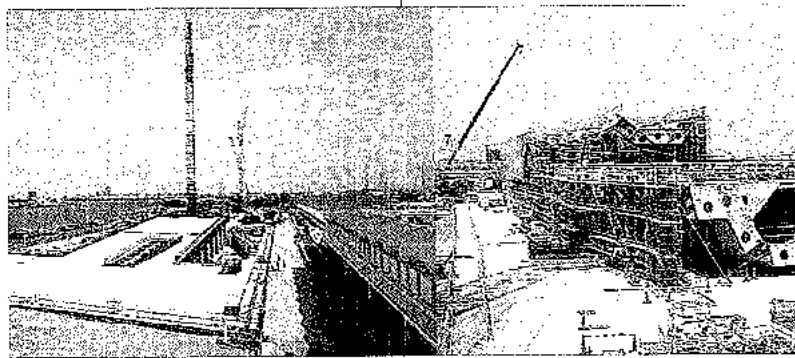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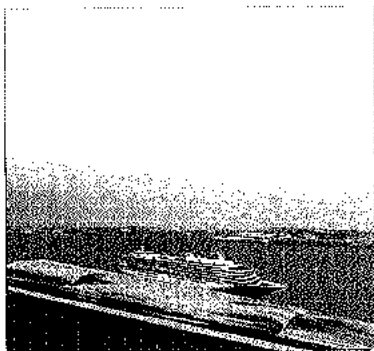
▶ 이토오 토요(伊東豊雄)의 '오이타(大分)농업문화공원 중심시설' 오이타 농업문화공원은 농업용 댐에 의한 호수를 중심으로 약 120ha의 면적을 갖는 일종의 테마 파크이다. 이 공원은 농업관계자의 연수나 이벤트뿐만 아니라 호수를 일주할 수 있는 산책



이토오 토요(伊東豊雄)의 '오이타(大分)농업문화공원 중심시설'

로를 비롯하여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졌다. 이토오 토요가 처음 이 프로젝트의 현상설계에 당선했을 당시에는 건물의 기능은 연수와 농산물의 판매 두 가지뿐이었다. 그러나 여러 시설들의 계획이 추가되면서 설계안은 파골라가 각각의 시설들을 연결시키는 모양에서 지금의 길고 거대한 온실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다. 또한 공원이 조성되는 오이타 지역의 농업의 현실이 목가적인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나 유통시스템이라는 현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토오는 건물의 이미지도 자연과 대비되는 인공적인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 '프로세스 아키텍처 2001 -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에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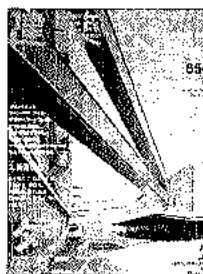
'프로세스 아키텍처 2001 -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에게 듣는다.'

6년전 현상설계에서 당선되어 화제를 모았던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의 요코하마항 국제객선 터미널의 진행상황을 그에게 직접 인터뷰하였다. 그는 완성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계획안에서부터 수정되어져가며 만들어져가는 과정-프로세스도 중요하며 자신은 후자에 더 흥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제시한 골판지와 같은 구조는 조금 변형되어 카드보드 스트럭처(골판지 구조)를 형성하는 한 면은 제거된 채 구조체의 모양이 설계되었다. 구조설계를 맡은 SDG측은 애초에는 스페이스 프레임을 합리적인 구조체로 제시하였으나, 알레한드로의 이의 제기와 형태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금의 형태로 진행중이라 한다. 연속적인 곡면들을 지지할 거대한 철골 아치들이 현재 제작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건축문화

200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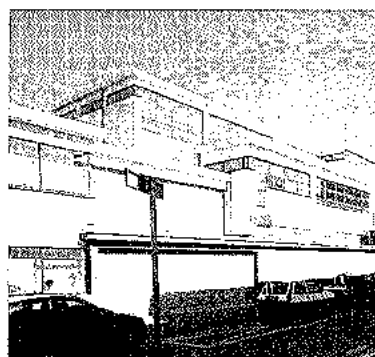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네덜란드의 모더니즘이다. 네덜란드의 모더니즘은 1920년대에서 30년대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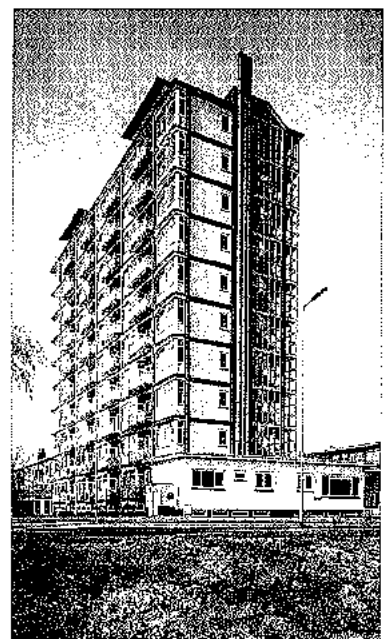
으로 다수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었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되는 50여개의 작품사진과 글들은 네덜란드 모더니즘의 저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특집: 네덜란드의 모더니즘

▶르 꼬르뷔제를 감탄케 했던 판 넬레 공장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에서는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모더니즘 건축 중에서도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만들어졌다. 이 특집에서는 요하네스 뉘커(Johannes Duiker), 브링크먼 & 판 데 플루트(Brinkman & Van der Vlugt)와 같이 그 동안 지면을 통해 잘 소개되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비롯해서 아우트(Oud) 등 20년대에서 30년대의 기능주의건축을 중심으로 작품들의 사진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동시대의 베를라해나 암스테르담과의 작품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게리리트펠트는 슈레더 저택뿐만 아니라 전후(戰後)의 작품까지 다루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모더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을 사전형식의 해설을 덧붙여 자료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함을 꾀함으로써 그 동안 그 중요도에 비해 정보량이 적었던 네



J. 뉘커의 저3기술편교



W. 판 데이엔프라스탄 집합주택

덜란드 모더니즘의 전체적인 상을 그려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 네덜란드의 저력을 실감케 하고 또한 모더니즘에 대한 재고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소개된 20년대에서 30년대의 작품들은 그 동안 모더니즘을 소개한 역사서에서도 잘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이다. 그러나 명료하고 간결하면서도 3차원적인 복합적인 구성은 모더니즘의 미학이 완숙함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견될 만한 20년대 후반의 모더니즘 작품은 르 꼬르뷔제의 슈타인 저택, 발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 교사정도로 네덜란드의 모더니즘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었



조네스트랄 세니도르 움

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된 작품들로는 브링크먼 & 판 데 필루트의 판 넬 공장, 판 데 레우 저택, 데 브라운 저택, 부베 저택, 네덜란드神智學협회 사무국·집회소, 로테르담 골프 클럽하우스 등과 J. 뒤커의 제3기술학교, 존네 스트랄 세나토리움, J.J.P. 아우트의 플로닝 헬의 공업기술 학교, W. 판 테 아엔프라스란 집합주택 등 50개에 이른다.

▶이밖에도 대담기록인 '모더니즘 사관의 갱신을 요구하는 네덜란드 모더니즘의 실상', 3편의 논고들 '共振하는 복수의 자명종', '과도기의 의식화', '더 스틸 이후의 리트펠트' 그리고 다음과 같은 컬럼들은 네덜란드 모더니즘의 이해를 돕고 있다. 소개된 컬럼들은 '양식을 초월한 시스템의 모색과 건축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의 시험', '마르트 스타파와 J.J.P. 아우트', '더치 모더니스트와 르 꼬르뷔제', '국외에 각인된 더치 모더니즘의 정신' 등이다.

a+u

2001년 6월호

이번 호는 주택들의 사진들만을 모아 만든 특집 'Picturing the Home'이 꾸며졌다. 빌라 로툰다 및 몇

몇 주택을 제외하곤 모두다 근대 이후의 잘 알려진 주택들의 모습이 여러 각



도로 사진에 담겨 소개되고 있다. 소개된 주택 사진들은 60여 개에 이른다.

■ 특집: Picturing the Home

소개된 주택 사진들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과 로비하우스, 르 꼬르뷔제의 사모아 저택과 빌라 사리바이, 필립 존슨의 글래스 하우스, 루이스 칸의 코만 저택, 루돌프 쉰들러의 쉰들러 저택, 벤 반 버클의 외비우스 하우스, 폴 루돌프의 힐리 게스트 하우스 등 근·현대의 유명한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20세기 주택

의 특집이 아니다. 중간 중간에 간간히 소개되는 짧은 글들은 주택에 대한 단상들이 아니라 사진에 관한 것들이며, 사진에 담긴 주택들의 모습들은 주택의 전체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을 소재로한 사진들의 특집이라 하는 편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들을 통해 주택에 담기는 일상성과 비일상성,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대했던 그리고 기

대하지 못했던 장면들을 보게 된다. 60여개의 작품들이 아무런 순서 없이, 공통점 없이 열거되는 가운데 이들 사진작품들을 통해 주택이라는 공간으로 몰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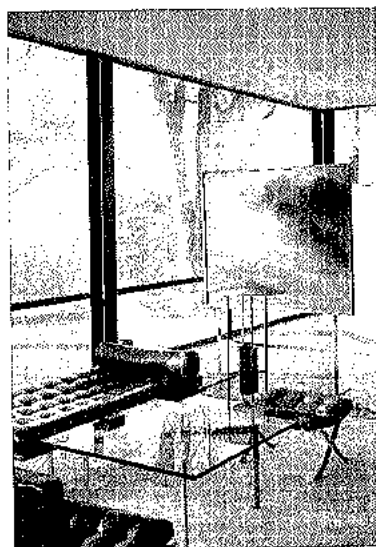
■ 이 외에도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근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마이크 헤이즈의 연재물 '밀레니엄 건축론과 건축 교육 제1부: 이론이 나아갈 바에 대한 고찰' 등이 소개되었다. (번역/강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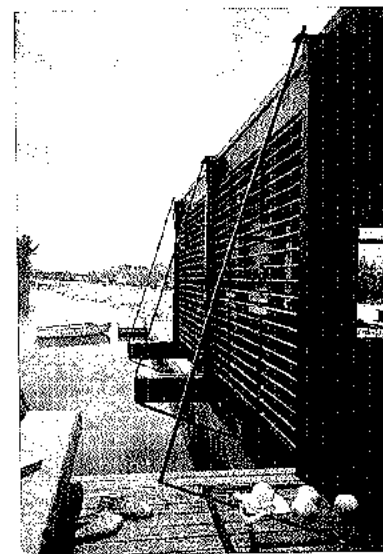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리바이



벤 반 버클의 외비우스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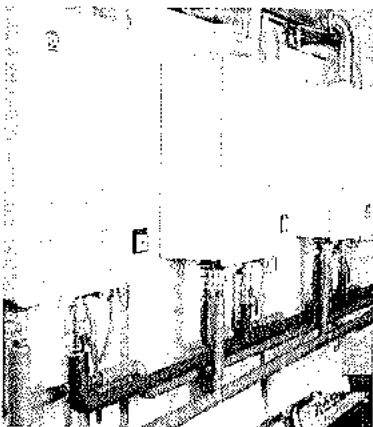
필립 존슨의 글래스 하우스



폴 루돌프의 힐리 게스트 하우스

건축주 요구대로 시공되는 병렬식 가스보일러 탄생

린나이코리아



가스기기 업계에도 소비자의 요구대로 시공하는 맞춤형 가스보일러가 개발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종합 가스기기 메이커인 린나이코리아(회장·강성모)가 가정용과 업소용 모두에게 적용되는 '맞춤 종합·에너지 설계(C.T.E.D)'를 도입,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어 보일러 개·보수의 적기인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국내 건축물의 형태별 표준화 작업을 시도하고 이에 따라 적용 배관과 방법도 부분별로 표준화를 완성한 뒤 용도와 특성에 맞게 병렬로 시공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가정용 소형 순간식 급탕

(보일러)에 병렬 배관을 접목시켜 중·대형 보일러 용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호텔과 기숙사, 교회, 병원, 사무실, 건물 등에 주로 시공되고 있다. 또한 난방 온수 부문에서의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완전 충족시킬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병렬식 가스보일러는 업무용 빌딩의 개·보수 시에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용량에 비해 많은 용량이 한꺼번에 가동되는 것을 방지,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빌딩 관리의 비용 감소는 물론 영업 중지에도 따른 손실의 보전과 365일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병렬식 가스보일러'가 ① 시공비가 저렴하고 ② 연료비가 대폭 줄어들며 ③ 수명이 2배로 신장되고 ④ 관리할 인력이 필요치 않으며 ⑤ 보일러실의 넓이와 무관하게 설치되는 점 등을 들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면 총별 또는 실별 냉·난방이 자유롭게 이루어 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의 : 02-320-5996

www.rinnai.co.kr

필컴, CAD개발 부문

국내최초 ISO 9001/2000
품질인증 획득

국 산 CAD 개 발 업 체 인 필 컴 (www.philcom.co.kr, www.philcad.co.kr)이 CAD S/W업계 최초로 ISO 9001 (2000년판)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ISO 인증을 받으면 내적으로는 제품품질의 안정성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고객만족에 관한 문제발생시 쉽게 개선가능하다.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ISO 인증을 받으며 S/W업계의 인증시도는 아직 드문 형편이다. 지금까지 ISO를 인증받은 S/W업계는 총 15곳으로 모두 SI업체이며 SI가 아닌 일반 S/W업계에서 ISO를 인증받은 것은 필컴이 최초이다.

필컴은 7년만에 CAD엔진을 자체개발해 CAD시장의 국산화를 이룬 벤처기업. 필컴의 이천우 사장은 "고객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품질을 인증받은 국산 CAD만이 국내 CAD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ISO 품질인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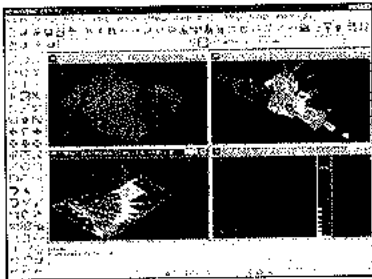
필컴은 올해 4월부터 순수국산 범용 CAD 프로그램과 건축설비 전용 CAD 프로그램을 출시해 CAD 국산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6월엔 교육학술정보원과 '초중등학교 정품 응용 S/W 보급업체'로 지정받아 각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구입시 정가의 50%에 교육용으로 보급하기로 했으며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등 필컴의 시장진입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들어 CAD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CAD 고객들에게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필컴 CAD사업부 마케팅팀 김현정 대리
(02-568-2610)

Archi Mac 출시

(주)한국디지털서비스



건축설계를 위한 도우미 역할에서 한 단계 발전한 3D 렌더링과 동화상 프리젠테이션까지 가능한 첨단 건축 전용 프로그램 Archi Mac이 (주)한국디지털서비스(대표·송하영)에서 출시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Archi Mac의 특징으로는 기본 도면층의 사용자 설정과 기초 도면환경 등의 변경이 자유로우며 강력한 기능의 단축키 정의 기능은 다른 CAD 사용자나 처음 사용자도 사용환경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계획대로 입력이 가능한 창호입력기능, 만능의 벽체수정기능, 편집과 수정의 한 가지 명령어 기능, 기존의 도면이나 한글과의 호환성 및 다른 CAD로 전환이 가능한 문자유형지정기능, 심벌과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관리기능, 지적확대, 자동면적산출, 보·기둥 일람표, 각종 기호·부호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접근과 사용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요소기능, 이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최대 4개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3D 작업이 가능하며 동영상의 제작까지 가능한 비주얼라이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건축계에서는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의 : (02)716-4880

www.korea-digital.co.kr

www.cadkr.com

Artview 출시

(주)라인테크시스템

건축·기계 설계 분야의 전문 CAD 업체로 수직 상승 중인 (주)라인테크시스템(대표·심재관)에서는 기존 시장의 이미지 관리 프로그램의 기능에 비해 빠르고, 안정되며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화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에 최적으로 부응한 Artview를 개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① 30여 가지의 다양한 포맷 지원 ② 1,000여 가지의 이미지 파일을 1초만에 확인하는 빠르고 편리한 Thumbnail 지원 ③ 파일 정보 및 이미지 정보를 한 눈에 확인 ④ 휠 마우스로 확대·축소 및 색상보정과 반전, 회전 등 이미지 처리 기능 ⑤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능 ⑥ Gray Scale, B/W(2color) 변환시 이미지 보정의 기능 등의 이미지 관리능력이 돋보인다.

또한 Artview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미지를 확인하는 탐색기 플러그인 기능, 이미지 관리를 목적으로 글씨를 써 넣을 수 있는 Text입력기능, 크기 조절장치로 용지에 맞게 출력가능한 쉬운 인쇄기능, 동영상 파일 중 AVI, GIF 파일을 필름형식으로 나열하고 선택된 장면만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필름 선택기능 등이 차별화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의 : (02)569-1814

www.linetek.co.kr

국산CAD개발 및 건축설계 프로그램 통합 표준화 컨소시엄 구성

삼성SDS, 다이나웨어씨지, 라인테크시스템

uniCAD의 삼성 SDS(주), 한글 IntelliCAD의 (주)다이나웨어씨지, AutoCAD의 (주)라인테크시스템의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산캐드의 개발과 건축설계 프로그램의 통합 표준화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전격 합의해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3사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국산 캐드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캐드 엔진 개발사인 삼성SDS와 다이나웨어씨지가 국산캐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내 건축설계 프로그램의 개발사인 양사와 오토캐드 건축부분의 라인테크시스템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축설계 통합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협업체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3사는 캐드 엔진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개발 인프라를 공유하고, 이전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세계적인 캐드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컨소시엄 구성을 계기로 건축설계 통합 프로그램의 1차 표준화는 현재 국내에 보급된 건축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가장 사용하기 쉽고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선 과제를 설정하여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며 2차 표준화 개발은 향후 3D 건축설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개발기간 내 구입하는 <uniCAD 및 한글 IntelliCAD>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예정이다.